

구약
3

BELIEVER'S BIBLE COMMENTARY
Job • Psalms 1~106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욥기 · 시편(1편~106편)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시 가 서 (1)

정 병 은 옮김

BELIEVER'S BIBLE COMMENTARY

BY

WILLIAM MACDONALD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BELIEVER'S BIBLE COMMENTARY

JOB·PSALMS 1~106

WILLIAM MACDONALD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1-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화 : (031) 914-2732, 팩스 :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Ilsan4-dong, Ilsan-gu, Koyang-shi,
Kyunggi-do, 411-828, KOREA

차 례

약어표.....	4
저자 서문	5
편집자 서문.....	7
시가서 서론.....	11
읍기	21
읍기 서론.....	22
읍기 주해.....	30
참고 문헌.....	85
시편(1).....	87
시편 서론.....	88
시편 주해.....	95
참고 문헌.....	441

약어표

- ASV—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FWG—그란트의 숫자 성경(F. W. Grant's Numerical Bible)
JND—다비의 새번역(John Nelson Darby's New Translation)
JBP—필립의 의역본(J. B. Phillips' Paraphrase)
KJV—흠정역(King James Version)
KSW—(Kenneth S. Wuest's An Expanded Translation)
LB—현대어 성경(Living Bible)
NASB—새 미국 표준역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새 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NIV—새 국제역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
NKJV—새 흠정역(New King James Version)
RSV—개정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V—개정역(Revised Version(England))
A.D.—주후(主後;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B.C.—주전(主前: Before Christ)
NU—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

저자 서문

“신자 성경주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진지한 학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어떤 주석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주석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은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준 다음 보다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독자를 성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본 주석은 쉽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집필되었으며, 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인상을 풍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의 원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말씀의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딤후 2:15).

본 주석의 논조는 간결 명료하므로 독자는 어떤 구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쪽에 걸친 설명을 애써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분주히 돌아가는 현대생활은 진리가 짧고 간결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설명들을 소개함으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설명이 문맥과 나머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주석은 어떻게 성경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만일 본서가 목적 그 자체로 사용된다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덧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본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독려하고 주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심을 일깨우는데 사용된다면 그 목적을 이룬 것이다. 모쪼록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독자의 마음에 빛을 비취 주시기를 바란다.

편집자 서문

“주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1950년대 후반에 어떤 성경교사가 엠마오 성경학교(지금의 엠마오 성경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충고였다. 그 중 적어도 한 학생이 지난 3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 교사는 본 ‘신자 성경주석’의 저자인 윌리엄 맥도날드였고, 그 학생은 당시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본 편집자 아더 화스타드(Arthur Farstad)였다. 그는 평생에 단 한 권의 주석만 보았는데 H. A. 아이언사이드의 에베소서 강해서인 ‘하늘에 속한’(In the Heavenly)이 그것이었다. 10대 시절 어느 해 여름에 그 책을 정독한 후에 아더 화스타드는 주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1. 주석이란?

주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주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최근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발행인이 성경에 관계된 책을 15가지로 분류했다. 따라서 혹 어떤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주석이 스테디 바이블이나 심지어 성구사전, 성경지도, 성경사전 등과도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주석은 절별 혹은 단락별로 성경 본문에 대해 ‘논평을 하거나’(comments) 도움을 줄만한 언급을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석을 저만치 젖혀두며 “저는 단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 자체만 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제법 경건한 말처럼 들리나 그렇지 않

다. 주석은 단지 최선의(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태의 성경 강해—하나님의 말씀을 절별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를 문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주석들(가령 아이언사이드 주석)은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출간했다. 게다가 모든 시대 모든 언어로 된 유명한 성경 강해 서들이 영어로 보급된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강해서들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서는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신자 성경주석”이 간행된 것이다.

2. 주석의 종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주석을 집필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석은 매우 개방적인 것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신자 성경주석’은 성경을 신앙과 삶 모두에 절대 충분한 영감 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주석이다.

주석은 매우 전문적인 것(예를 들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구문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설명을 가한 것)에서 매우 간략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은데 본 주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전문적인 설명은 주로 각주로 돌렸으나 본문 해설에 관한 한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충 얼버무림 없이 충실히 다루었다.

맥도날드의 글은 ‘강해가 풍부하다.’ 그의 글의 목적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돕는데 있다.

주석은 또한 신학적인 진영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적인 것, 개신교적인 것과 로마 카톨릭적인 것, 전천년적인 것과 무천년적인 것 등으로 나뉘는데 본 주석은 보수적이며 개신교적이며 그리고 전천년적이다.

3. 본서를 사용하는 방법

본 주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다음 순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대강 훑어봄—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저기 조금씩 읽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 구절에 대한 참조—어떤 구절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여러분은 해당 구절이나 문맥에 대한 설명을 찾아봄으로써 분명 적절한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3) 교리에 대한 연구—성경의 주요 언약들, 세대 구분, 성막 등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찾아 보라.

(4) 책별 연구—만일 성인 주일학교나 정규집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매주 해당 본문을 미리 공부해 둬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토론을 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 (물론, 만일 인도자도 본서를 참고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다른 주석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상고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는 난해한 본문이 흩어져 있으며 본서와 같은 주의 깊고 보수적인 책이 당신의 성경공부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성경공부는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듯이 그 출발이 막막하고 아득하지만 조금씩 진보하면서 꿀맛과 같이 달콤한 시간이 된다.

맥도날드는 30년 전에 세계 “주석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 바 있다. 새 흠정역본(New King James text)에 맞춰 편집을 하면서 이 성경주석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 봄으로써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석을 즐겨 사용하라!”는 충고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시가서 서론

어떤 이는 “시(詩)는 번역이 불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다행히도 구약의 시를 말할 때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거나 기껏해야 지나친 과장에 불과하다. 한편, 고전적인 영어나 불어의 시는 운율과 형식 등에 지나치게 의존한 까닭에 다른 언어로 성공적으로 옮기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다.

히브리어 시도 어느 정도 운율과 두운법(頭韻法, 같은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활용하는 기술)과, 오늘날 시가 지닌 기타 작시법이 있다.

물론 많은 선지서의 글들도 시 형태로 기록되었으나, 구약에서 읊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 다섯 권의 책이 시가서로 분류된다.¹⁾

1. 시가서

1) 읊기

이 책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듯 한데, 왜냐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모든 논쟁 중에 율법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극도로 고통받는 의로운 읊은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극적인 대화방식으로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여호와께로부터 그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을 받게

1) 이들 중 세 권-읍기, 잠언, 전도서-도 지혜문학으로 불리운다. 그것들은 형태는 시지만 내용은 지혜, 혹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따라 사는 비결을 강조한다.

된다. 이 책은 불신자들로부터도 실로 차원 높은 시로 인정받는 지혜문학의 최고봉이다.

2) 시편

구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은 시편이다. 성경 전체는 갖고 다니기가 너무 묵직하기에 우리는 종종 편의상 시편이 신약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편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그것이 모두 시라는 점을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²⁾

시편은 B.C. 1400년경에서(모세) B.C. 400년경까지(에스라) 약 1천년에 걸쳐 기록된 다섯 권의 책을 집대성한 고대 이스라엘의 찬양집이다.

3) 잠언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하기를 즐기는 구약에서 두 번째 인기 있는 책은 잠언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관점(최종적으로 말해서 진실로 중요한 유일한 관점)에서 본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말해주는 지혜로운 말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책은 지혜 문학의 놀라운 표본이다.

4) 전도서

이 책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 성경의 가르침의 전체구조에 맞추기가 가장 어려운 책이다. 전도서의 열쇠는 “해 아래서”란 표현인데, 이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사람의 관점에서 사유(思惟)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 역시 지혜 문학의 또 하나의 훌륭한 표본이다.

2) 이렇게 된 부분적인 이유는, KJV는 전통적으로 율법, 역사, 시가, 서신 등 모든 형태의 성경 문학을 아주 똑같은 문학형태로 옮겨놓은 데 있다. 보다 최근의 역본들은 단순히 틀에 맞춰 문체만을 보여주려 한다.

5) 아가서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이 책이 비록 그 줄거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나 진실되고 순전한 사랑을 표현한 아름다운 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이 ‘아가’(혹은 ‘노래 중의 노래’)라는 제목은 ‘가장 고상한 노래’라는 뜻의 히브리어 관용어이다.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지었는데(왕상 4:32) 그 중 이 노래가 가장 뛰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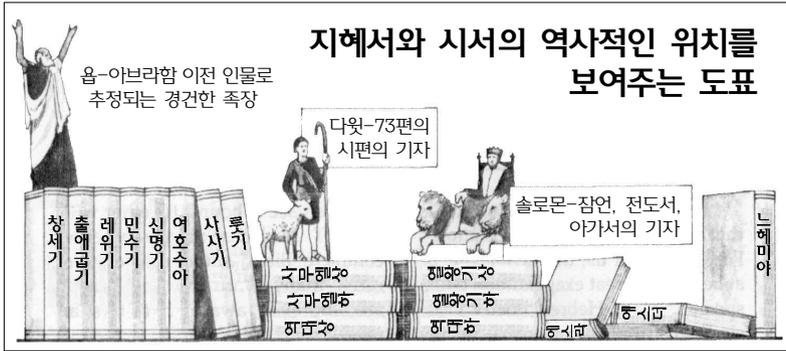
2. 구약 시가서의 감상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싫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시들을 억지로 암기하게 하거나, 혹은 그 모든 아름다움과 신선함이 사라질 때까지 시를 지나치게 세밀히 분석하게 한 교사들을 만난 까닭에, 학교에서 시에 대해 “등을 돌리고 만다.” 그것(시를 감상한다는 것-역주)은 아무 지식이 없이, 오로지 아름다움을 경험하고픈 열망만으로 누구든 할 수 있는, 장미를 키우는 일과도 같다. 장미꽃을 하나 하나 다 뜯어보는 생물학 수업은 분명 교육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예술적 내지 탐미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구약의 시를 감상한다는 것은 장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장미를 느끼는 것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사이의 중간 영역과 같은 것이다. 만일 당신이 ‘월계화’(tea rose; 장미의 일종-역주)와 ‘플로리번다’(floribunda; 중간 크기의 꽃이 피는 장미의 일종-역주)의 차이점을 안다면, 만일 당신이 연분홍(연분홍색과, 주홍)과 붉은 오렌지색을 식별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장미를 더욱 잘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당신이 시에 ‘색깔’을 입히는 형식과 기법 및 시편 기자나 그밖에 성경의 시인의 기법을 알 수 있다면, 당신은 성경

의 시가서에서 더욱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시가서로 간주되는 다섯 권의 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구약의 나머지 시에 대해서도-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사실이다.



▲ 지혜서와 시서(詩書)의 배열

3. 대구법(對句法, parallelism)

성경의 시가서의 가장 중요한 기법은 많은 영어 시처럼 ‘운(韻)’의 소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운’의 개념, 즉 서로 비교되는 두 줄 이상을 한데 모으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시들의 주된 구조라는데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옮겨지는 과정에서 시의 아름다움이 크게 손상됨 없이 거의 모든 언어로 훌륭히 옮겨지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도 종종 대구법으로 말씀하셨다. (다음 설명을 공부한 뒤에 마태복음 5~7장, 요한복음 13~17장 등을 주의 깊게 다시 읽어 보라.)

그러면 여기에 히브리어 대구법의 주요 유형들의 몇 가지 실례를 제시해봄으로써, 독자들이 본 ‘신자 성경주석’의 도움으로 구약을 연구할 때만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유사한 구조를 살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동의적인 대구

그 용어가 암시하듯이, 이 유형은 첫 소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말하는(강조를 위해서) 둘째 내지 병행 소절이 있다. 잠언은 특히 이런 대목이 가득하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잠 12:28)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아 2:1).

2) 대조적인 대구

이 유형은 대조를 두 소절을 서로 ‘대비’시킨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시 1:6).³⁾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잠 10:12).

3) 형식상의 대구

이 유형은 형식만의 대구이다. 즉 두(혹은 그 이상) 소절은 대조되거나 확장되거나 강조되지 않는다. 다만 두 소절이 결합하여 한 개념 혹은 주제를 표현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시 2:6).

4) 통합적인 대구

둘째 소절이 첫째 소절의 개념을 확고히 해준다(‘통합’[synthesis]은 ‘결합’을 뜻하는 헬라어이다).

3) 3시편 1편 전체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대조적인 대구법으로서, ‘빛과 어두움, 어두움과 빛’으로 흔히 불리우는 작품이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5) 상징적인 대구

첫 소절의 비유법이 둘째 소절의 내용을 예시해준다.
“시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 42:1).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잠 11:22)
(영어 성경에는,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이
삼가지 아니하는 여인이 그러하다’의 순으로 되어 있음-역주).

4. 문학적인 수사(修辭)

우리는 이것을 무의식중에 날마다 사용한다. ‘그녀는 천사 같애’
혹은 ‘그는 돼지처럼 먹어’ 등등의 표현은 수사법이다.

1) 비유법(Comparisons)

성경에는, 특히 다섯 권의 시가서에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뚜렷
이 비유하는 표현을 종종 볼 수 있다.

(1) 직유(Simile)

‘...같이’ 혹은 ‘...처럼’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비유법을 가리켜
‘직유’(直喩)라 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시 5:12).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아 2:3).

(2) 은유(Metaphor)

‘…같이’, ‘…처럼’ 등의 표현이 없이 어느 것을 다른 것이라 일컫는 직접적인 비유를 가리켜 ‘은유’(隱喩)라 한다.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시 84:11).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아 4:12).

2) 두운법(Alliteration, 頭韻法)

같은 문자(중중 자음)로 시작되는 아주 근접한 여러 단어들인 종중 ‘적절한 두운법의 예술적인 도움’을 준다.⁵⁾ 예를 들어, 그 책의 제목과 솔로몬의 히브리어 형태를 포함해서 아가서의 첫 구절들은 자음 ‘쉬’(히브리어로는 ‘쉬’)로 시작하는 여러 단어들이다.

물론 이것을 번역할 때는 원래의 언어와 같이 배열되지도 않고 또 될 수도 없으며, 같은 자리에 올 수도 없다.⁶⁾ 그럼에도 KJV와 NKJV는 번역상에 많은 놀라운 사례를 보여준다.

“He frustrates the devices of the crafty,

So that their hands cannot carry out their plans.

He catches the wise in their own craftiness,

And the counsel of the cunning comes quickly upon them.”

“하나님은 꾀술한 자의 계교를 파하시라

4) 우리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문’, ‘포도나무’, ‘생명의 떡’, ‘선한 목자’ 등으로 표현하신 것은 수사법을 사용하신 예이다.

5) 설교자들이 특히 설교개요를 잡을 때 이 기법을 애호하며, 억지거나 공상적이거나 지나치게 시도하지 않는다면 두운법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

6) 신약성경의 히브리어는 원문상 ‘프’음(헬라어로 ‘피’)으로 시작하는 일군(一群)의 단어로 시작한다.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궤계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욥 5:12,13).

“Man who is born of woman
is of few days and full of trouble.
He comes forth like a flower and fades away;
He flees like a shadow and does not continue.”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 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욥 14:1,2).

“He has sent redemption to His people;
He has commanded His covenant forever:
Holy and awesome is His name.”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시 111:9).

“A present is a precious stone in the eyes of its possessor;
Wherever he turns, he prospers.”

“너물은 입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잠 17:8).

“the words of a talebearer are like tasty trifles,
And they go down into the inmost body.”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잠 18:8).

3) 신인동형동성적 표현법(Anthropomorphism)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신체를 가진 분처럼 ‘인간의 형

태'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시 11:4).

4) 동물형태관적 표현법(Zoomorphism)

하나님의 속성을 동물의 형태에 비유하는 표현법을 가리킨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시 91:4).

5) 의인법(Personification)

어떤 물체나 추상적인 것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시 96:11,12).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잠 8:12).

6) 글자 수수께끼(Acrostic: 각 행의 머리글자 등을 모으면 말이 되는 유희 시)

이것은 거의 번역이 불가능한 기법인데,⁷⁾ 왜냐하면 시가 히브리어 철자에 기초하고 또 시의 각 행이 그 철자 순으로 배열되기 때문

7) 로날드 나스가 번역한 성경은 그렇게 하기 위해 다소 인상적인 시도를 하고 있으나, 히브리어 철자가 22자인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영어의 26개 철자에서 네 글자를 빼뜨려야 했다.

이다. 시편 119편과, 예레미야 애가의 다섯 장 중 너 장이 그 잘 알려진 예이다. 잠언은 히브리어 철자에 기초한, 이상적인 여인상을 노래하는 22구절의 찬사로 마감된다(잠 31:10~31).

이밖에 다른 수사법들도 있으나(그 중 일부는 앞의 것들과 다소간 중복된다) 이상이 대부분 신자들에게 충분할 것이다.

이상의 작시법을 늘 염두에 두고 이 다섯 권의 책(나머지 성경 전체는 물론)을 상고한다면, 그 아름다움을 보다 깊이 감상하게 됨은 물론 많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전 3:11).

읍 기

Job

욥기 서론

“욥기는 인간의 운명과,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칠 줄 모르는 문제에 대한 최초의, 가장 오랜 기록이다. …송고한 슬픔과 송고한 화해를 보라. 인간의 마음 깊이 흘러나오는 가장 오랜 합창 소리를 들어 보라. 여름 밤하늘 같고, 바다와 별들로 둘러싸인 이 세계와도 같이 은은하고 웅대한 그 소리를! 성경 안이든 밖이든 이보다 더 문학적으로 뛰어난 책은 없다고 생각한다”(토마스 카알라일)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욥기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유일한 유형을 갖춘 책이다. 즉 욥기는 산문형태의 서언과 결언 사이에 큰 다이아몬드처럼 박힌, 시 형태의 길고 극적인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문에 의하면 이 책은 1장, 2장, 32장 1~6(상)절, 42장 7~17절 등을 제외하고 전체가 시(詩)였다.

사무엘 리도우트는 욥기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이렇게 지적한다.

“그 분량과 그 내용을 대충 훑어보면 욥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지. 그 내용을 친숙히 아는 문제를 대부분 사람들은 원칙이 아닌 예외로 간주하고 있다.”¹⁾

그 표현의 장려함은 불신자들도 때로 인정한다. 물론 합리주의자

1) (서론) Samuel Ridout, *Job: An Exposition*, p. 5.

들은 대개 그들의 파괴적인 이론을 지지하는 아무런 사본상의 증거도 없이, ‘자료모음’, ‘편집’, ‘삽입’ 등의 이론을 마구 편다.

그 자신이 뛰어난 작가이나 번역가인 위대한 개혁자 마틴 루터는 욱기가 ‘성경 어떤 책보다 장려하고 탁월하다’고 말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으로서 시에 대해 권위있는 평론을 내리는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은 욱기를 가리켜 ‘고대와 현대 문학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시’라고 평했다.

욕기의 뛰어난 문체와, 인간의 상태에 대한 뛰어난 통찰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일상 언어가 이 책에 의해 크게 풍부해졌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다음 표현들은 다른데서 인용한 표현들인데, 그 대부분이 욱기를 직접 인용한 것으로 우리의 일상 언어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들이다.

‘내 몸에 털이 주뻗었다’(4:15).

‘내 생명이 한 호흡이다’(7:7).

‘내 생명을 내 손에 두다’(13:14)

‘욱의 위로자.’ (이러한 정확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으나, 16:2에서 욱은 친구들을 가리켜 ‘번뇌케 하는 안위자[위로자]’라고 부른다.)

‘신원함이 없다’(19:7).

‘남은 것은 겨우 잇꺼풀 뿐이다’(19:20).

‘일의 뿌리’(19:28).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21:5).

‘사람 사는 땅’(28:13).

‘소경의 눈...절뚝발이의 발’(29:15).

‘내 얼굴에 침 뱉다’(30:10).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32:9).

‘지식 없는 말’(35:15).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 지니라’(38:11).

‘사망의 문’(38:17).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다’(39:25).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다’(42:6).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19:25)라는 표현은 부분적으로는 헨델의 ‘메시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된 까닭에 잘 알려지게 되었다.

‘욥의 인내’(약 5:11)라는 표현은 욥기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 대화의 일부가 되었다.

욥기의 내용에 대해 말하자면, 인생과 죽음, 고난, 사후의 삶 등에 관해 욥이 제시하는 심오한 문제들은 그가 고대하던 중재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기자

유대인의 전통은 모세를 그 기자라고 말하지만 욥기의 기자는 익명이다. 엘리후, 솔로몬, 히스기야, 에스라, B.C. 5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어딘가에 살던 이름 없는 유대인, 혹은 욥 자신 등 기자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다. 욥이 이 책에 나오는 사건들 후에 140년을 더 살았고 또 그 모든 사건과 대화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아 그가 기자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

3. 연대

이 책에 기록된 사건으로 보아, 욥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 생존했다고 널리 믿어진다. 다시 말해서 욥기의 사건들은 창세기 11장의 후반부 어딘가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욥이 그 기간에 속한 인물로 추정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이 책에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확실한 언급이 없다. 출애굽이나 모세 율법에

대한 언급도 없다. 사실 욥은 자기 집의 제사장이었으며(1:5), 그러한 유형의 제사장직은 족장시대에 속한 것이었다. 가축과 그밖에 짐승으로 부(富)가 결정되는 생활방식 역시 대체로 족장시대이다. 욥은 200세 이상을 살았는데 그러한 수명은 아브라함 바로 전 시대의 특징이었다. 학자들은 또한 욥기에 언급된 악기(21:12)와 금전(42:11) 등을 주목하며 그것들을 연대적으로 창세기 전반부에 속한 것으로 돌린다.²⁾

기록 연대에 관해서 학자들은 족장시대(B.C. 2100~1900)에서 B.C. 2세기까지 견해가 아주 다양하다! (B.C. 2세기라는 견해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며, 같은 시대에서 나온 사해 두루마리의 욥기 부분과 전혀 일치를 이루지 않는다.)

가장 가능성 있는 두 연대는 족장시대와 솔로몬 시대이다. 현대 서구인들은, 그렇게 길고 복잡한 대화가 잘 보존되려면 대화를 나누는 순간 순간 기록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동방 및 셈족의 구전(口傳)은 그 정확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솔로몬 시대로 연대를 잡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 책의 내용과 문체이다. 이 책은 솔로몬 왕의 작품과 차이가 없는 지혜문학이다. 프랜츠 델리취, 메릴 F. 영거 등과 같은 보수적인 구약학자들은 기록연대는 솔로몬 시대로 잡는 반면 그것이 오랫동안 정확히 구전되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문학적인 현상은 동양에서는 널리 인정되나 서구인들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4. 배경 및 주제

욥기의 기자는 비록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영감성과 역사적인 정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 (서론) 창세기 1~11장은 그 계보들을 추적해보면 일반적으로 B.C. 2천년경이나 그 보다 훨씬 이전으로 소급해 올라간다.

3:19에서 욥기 5:13을 인용했다. “...기록된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계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에스겔 14:14에서 욥은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 역사적인 인물로 언급되었다. 야고보서 5:11에도 욥의 이름이 나온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욥기의 주제는 인간의 고난의 신비와 고통의 문제이다. 왜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하며, 특히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욥기에서 우리는 아마 주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루에,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재난을 당한 한 사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과 사권을 나누는 그의 능력을 크게 하시기 위해 욥의 삶에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 아마 어떤 면에서, 이 책은 유대인의 고난을 예표하는 목적이 있는지도 모른다.

만일 유대인이 ‘고난받는’ 메시아(영웅적인 ‘마카비’ 상(像)과 완전히 대조되는)를 받아들여려면, 고난은 꼭 개인적인 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이 책의 여러 구절들이 주 예수님에게 적용될 수 있다.

(1) 9:33 - “양 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공백을 이룰 수 있는 중보자시다.)

(2) 16:8~19 - 욥의 고난. 본문의 여러 표현들이 시편에서 메시아의 고난에 적용되었다.

(3) 16:21 -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변호하시는 우리의 대언자시다.)

(4) 19:25,26 -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그리스도의 구속자요 오실 왕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묘사되어 있다.)

(5) 33:25 -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대속물’이란 단어는 ‘구속’과 동일한 단어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신자들은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다.)

욥기에 기록된 다음 진술들은 과학적인 지식을 드러내는 기록으로 종종 간주된다.

- (1) 36:27,28 - 증발과 강수(降水)의 순환
- (2) 37:9,17 - 바람과 날씨의 흐름
- (3) 33:6 - 인체의 구성
- (4) 26:7 - 지구의 대기권에 떠 있는 상태
- (5) 38:16 - 바다 밑의 상태
- (6) 37:11 - 구름과 번개의 관계
- (7) 38:32,33 - 천체의 공전운동과 그것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5. 개관

1. 서언: 욥의 시련(1~2장)

- 1) 무대 1: 우스 땅(1:1~5)
- 2) 무대 2: 하늘 - 여호와와의 존전(1:6~12)
- 3) 무대 3: 우스 땅 - 욥의 재산과 자손에게 미친 재앙(1:13~22)
- 4) 무대 4: 하늘 - 여호와와의 존전(2:1~6)
- 5) 무대 5: 욥 자신에게 미친 재앙(2:7~13)

2. 욥과 그의 친구들의 변론(3~31장)

- 1) 첫 번째 변론(3~14장)
 - (1) 욥의 탄식(3장)
 - (2) 엘리바스의 첫 번째 강론(4~5장)
 - (3) 욥의 반응(6~7장)

- (4) 빌닷의 첫 번째 강론(8장)
- (5) 욥의 반응(9~10장)
- (6) 소발의 첫 번째 강론(11장)
- (7) 욥의 반응(12~14장)
- 2) 두 번째 변론(15~21장)
 - (1) 엘리바스의 두 번째 강론(15장)
 - (2) 욥의 반응(16~17장)
 - (3) 빌닷의 두 번째 강론(18장)
 - (4) 욥의 반응(19장)
 - (5) 소발의 두 번째 강론(20장)
 - (6) 욥의 반응(21장)
- 3) 세 번째 변론(22~31장)
 - (1) 엘리바스의 세 번째 강론(22장)
 - (2) 욥의 반응(23~24장)
 - (3) 빌닷의 세 번째 강론(25장)
 - (4) 욥의 반응(26장)
 - (5) 욥의 결론적인 독백(27~31장)
- 3. 엘리후의 개입(32~37장)
 - 1)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엘리후의 강론(32장)
 - 2) 욥에 대한 엘리후의 강론(33장)
 - 3)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엘리후의 두 번째 강론(34장)
 - 4) 욥에 대한 엘리후의 두 번째 강론(35~37장)
- 4. 여호와의 자기 계시(38:1~42:6)
 - 1) 여호와의 욥에 대한 첫 번째 도전(38:1~40:2)
 - (1) 서론(38:1~3)
 - (2) 무생물 세계의 경이로움(38:4~38)
 - (3) 생물 세계의 경이로움(38:39~40:2)
 - 2) 욥의 반응(40:3~5)

- 3) 여호와와의 욱에 대한 두 번째 도전(40:6~41:34)
 - (1) 대장부(인간)처럼 반응해 보라(40:6~14)
 - (2) 하마를 생각해 보라(40:15~24)
 - (3) 악어를 생각해 보라(41장)
- 4) 욱의 겸손한 반응(42:1~6)
5. 결언: 욱의 승리(42:7~17)
 - 1) 욱의 친구들의 책망 받음과 회복(42:7~9)
 - 2) 욱의 번영의 회복(42:10~17)
6. 결론: 욱기에서 얻는 교훈들

욥기 주해

1. 서언: 욥의 시련(1~2장)

1) 무대 1: 우스 땅(1:1~5)

1:1~3 욥은 우스 땅에 거하는 부유한 사람이었다. 예레미야애가 4:21을 보면 우스는 팔레스타인 남동부인 에돔에 위치한 듯하다.³⁾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은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있었다. 그는 가축 떼를 심히 많이 소유하여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

1:4~5 욥기의 사건이 족장시대에 일어났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는 욥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며 아들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이다.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기다 보면 경건한 사람들도 천박하고 심지어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할 위험성이 늘 있는 법이다. 성탄절 저녁을 위한 묵상의 글에서 C. H. 스펄전은 기독교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가 적용할 만한 교훈을 이렇게 들려준다.

“집안의 잔치를 끝낸 후 그 족장이 이른 아침에 행한 것을 신자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 행해야 할 것이다. 가족이 모여 함께 즐기는 중에 우리는 합당치 않은 경거망동에 빠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서약을 잊어버리기가 쉽다. 우리의 연회는 만족스런 즐

3) (1:1~3) “어떤 이들은 북부 아라비아의 에돔 동부 지역이라고 주장한다”(The Revell Bible Dictionary, ed. by Lawrence O. Richards, p. 1138).

거움을 주는 때는 거의 없으며, 반대로 너무도 종종 경건치 못한 웃음잔치로 전락한다. …거룩한 감시는 슬픔만큼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오!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는 그러한 사실들이,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오라, 신자여, 오늘 당신은 어떤 면에서 죄를 범했는가? 다른 이들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즐겼는가? 그렇다면 그 죄를 자백하고 속히 달려가 제사를 드리라. 제사는 만족을 가져다준다. 죽임당한 어린양의 보배로운 피가 죄책을 없이 하며, 무지와 부주의로 말미암은 죄의 더러움을 말끔히 씻어준다.”⁴⁾

2) 무대 2 : 하늘-여호와와의 존전(1:6~12)

1:6~12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천사들)⁵⁾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는 장면을 대하게 된다. ‘사단’(‘참소자’란 뜻의 히브리어)도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욥의 의로움에 대해 사단에게 이야기하자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를 그만큼 잘 대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사단에 의하면, 만일 여호와께서 욥을 보호막으로 에워싸지 않으셨다면 그가 그의 창조자를 대면하여 저주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3) 무대 3 : 우스 땅-욥의 재산과 자손에게 미친 재앙(1:13~22)

1:13~19 이에 여호와께서는 욥의 소유를 빼앗음으로 욥을 시험해보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나 사단이 욥 자신을 건드리는 것은 허락지 않으셨다.

4) (1:4,5) Charles Haddon Spurgeon, *Morning and Evening*, p. 721.

5) (1:6~12) 셈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었다.

이어서 일련의 무서운 재앙이 연속해서 찾아왔다.

(1) 스바 사람들이 소 500여리와 암나귀 500마리를 약탈하고 그 짐승들을 돌보던 종들을 죽였다.

(2)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 7,000마리와 그 양떼를 돌보던 종들을 불살라버렸다.

(3)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 3,000마리를 약탈하고 그 약대들을 돌보던 종들을 죽였다.

(4) 대풍이 불어와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먹고 마시는 중에 그 집을 무너뜨려 그들을 모두 죽였다.

1:20~22 이러한 끔찍한 손실을 당했음에도 욥은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4) 무대 4 : 하늘-여호와의 존전(2:1~6)

2:1~6 2장에서 우리는 사단이 다시금 여호와 앞에 나타난 것을 발견한다. 사단은 이번에는 욥의 신체에 손을 대도록 허락하면 하나님께 대한 욥의 신실함이 곧 없어질 것이라고 도전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

5) 무대 5 : 우스-욥 자신에게 미친 재앙(2:7~13)

2:7~10 그리하여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 그의 곤경이 하도 극심하여 그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다그쳤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아내에게 대답했다. 욥의 아내에

대해 해롤드 St. 존은 이렇게 설명한다.

“남성 주석가들이 욥의 아내에 관해 쓴 모든 냉혹하고 일방적인 글들을 생각하면 나는 내가 남성이라는 사실이 몹시 실망스럽다. 여성은 여성이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일은 여성 작가에게 맡겨져야 한다(내 생각에 그녀의 이름은 루이스 호튼이었다). 그 작가는 이렇게 생각했다: 욥의 아내는 남편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동안은 무던히 감내했으나, 남편이 고난이란 새로운 방에 들어가 버리고 자기를 밖에 남겨두자 무너지고 말았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함께 나누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두려운 일이었다.”⁶⁾

2:11~13 이 일이 있는지 얼마 안 가서 욥의 친구 중 세 사람이 욥이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 친구들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었다.

그러나 욥의 가련하고 참담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너무 충격이 되어 칠일 칠야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 욥과 그의 친구들의 변론(3~31장)

3장은 욥과 그의 친구들 간에 주고받은 일련의 대화, 즉 이 책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부분을 시작한다. 리도우트는 이 대목을 이렇게 적절히 표현했다.

“그것은 ‘복잡한 구성물’(The Entanglement)이라고 이름 붙일 만했다. 왜냐하면 주장, 비난, 고소, 의심, 부분적으로 정확한 이론들, 섬광처럼 번쩍이는 믿음과 소망의 사실들 등이 모두 동양의 탁월한 수사법을 동원한 차원 높은 시어(詩語)로 한데 엉켜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 독자에게는 아무런 진전도, 논쟁의 명료성도 없어 보일지 모른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몇몇 잘 알려진 이름답

6) (2:1~10) Harold St. John, *Job, The Light and Shadows of Eternity*, p. 9.

고 자주 인용되는 구절들 외에 거의 아무런 교훈도 본문에서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⁷⁾

이 대화록은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욥이 먼저 말한 다음 한 친구가 그 말에 답한다. 욥이 그에게 답변한 다음 또 다른 친구가 응수한다. 가련한 욥이 또 다시 자신을 변호하지만 세 번째 친구에게서 책망만 들을 뿐이다!

이 세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변론

욥: 3장

엘리바스: 4~5장

욥: 6~7장

빌닷: 8장

욥: 9~10장

소발: 11장

두 번째 변론

욥: 12~14장

엘리바스: 15장

욥: 16~17장

빌닷: 18장

욥: 19장

소발: 20장

세 번째 변론

욥: 21장

엘리바스: 22장

욥: 23~24장

빌닷: 25장

7) (3~31장 서론) Ridout, *Job*, p. 33.

욥: 26~31장

(소발은 다시 말하지 않는다.)

세 친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엘리바스는 경험 내지 일반적인 관찰을 강조한다. “내가 보건 대…”(4:8,15; 5:3; 15:7; 22:19).

빌닷은 전통과 옛 것의 권위를 강조한다(8:8). “그의 강론은 옳은 이야기지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경구와 경건한 진술들로 가득하다”(9:1~3; 13:2).⁸⁾

소발은 율법의식과 종교성을 강조한다(11:14,15). “그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왜 그렇게 하실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아는 체한다.”⁹⁾ 그는 자기과시와 독선을 드러낸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엘리후라는 젊은이의 긴 강론과(32~37장) 하나님과 욥 사이의 대화(38~42장)로 구성되어 있다. 욥기는 서언과 잘 어울리는 산문체의 결언으로 마감된다.

1) 첫 번째 변론(3~14장)

(1) 욥의 탄식(3장)

3:1~9 3장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의 복됨을 예찬하고 자기가 죽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는 까닭에 ‘불행한 생일’이라고 제목을 붙일 만하다! 그는 사내아이(자기 자신)가 잉태된 날이 어두움에 사로잡혔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3:10~12 그가 일단 잉태되고 태어났지만 왜 출생시에 죽지 못했는가? (극심한 원망과 비탄을 쏟아내는 중에도 욥이, 고대 사회

8) (3~31장 서론) *The New Scofield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p. 595.

9) (3~31장 서론) 전인용서., p. 598.

에서 혼한 죄악이었고 오늘날도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된 낙태나 유아살해를 암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3:13~19 욥은 죽음을,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적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는 상황으로 예찬했다.

3:20~26 이어서 그는 왜 곤고하여(자기처럼) 숨긴 보배를 찾듯이 죽기를 바라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는지를 물었다.

25절은 매우 유명하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것이, 욥이 행복하고 형통할 때도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 것을 염려했었다는 뜻을 내포하겠는가? 부자들은 대개 부를 잃어버리고 빈곤한 삶에 빠질 것을 매우 염려한다. 부(富)는 참된 안정을 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

(2) 엘리바스의 첫 번째 강론(4~5장)

4장은 욥의 친구들의 강론과 그에 대한 욥의 반응이 반복되는 전체 과정을 시작한다. 리도우트는 그들의 메시지의 요지를 이렇게 요약한다.

“세 친구들의 변론에서 우리는 공통된 원리에 근거한 통일된 생각을 볼 수 있다. 그 원리는 모든 고난은 교훈적이 아닌 징벌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 둘이 그분의 모든 행사에 항상 결합되어 있지만 말이다. 그러한 원리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고난 사이를 구별하는데 늘 실패하게 마련이다.”¹⁰⁾

10) (4,5장 서론) Ridout, *Job*, pp. 43,44.

4~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말한다. 엘리바스(‘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내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는 뜻)는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해 정통적인 견해를 갖춘 경건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으나 연민의 마음이 부족했다. 그는 강론이 진행되는 동안 점점 냉혹해진다. 세 친구는 점점 지각이 떨어지고, 욥은 엘리후의 강론을 듣고 여호와를 뵈 후에 진실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까지 점점 지각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주목할 사실이다.

4:1~11 엘리바스는 사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더니(‘네 말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4:4, 제임스 모팻), 이제는 네 자신도 돕지 못하는구나.”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조롱한 자들을 생각나게 한다—“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긴 때문이었다. “네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온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4:6). 사람들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므로 필경 욥은 죄를 범했을 것이라는 얘기다(7~9절).

4:12~21 이어서 엘리바스는 밤중에 자기에게 은밀히 임한 이상(a vision)을 얘기했다. 이 이상에서 한 영이 이렇게 물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17절). 이 말의 뜻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대답할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자신의 잘못이다. 결국 하나님은 극히 위대하시기에 그분의 종들을 믿을 수 없으시며, 그분과 비교하면 그분의 사자(천사)도 잘못이 있다. 사실이 그러할진대, 하루살이처럼 쉬 지나가는 죽을 인생은 얼마나 더 믿을 가치가 없고 잘못투성이겠는가!

5:1~7 엘리바스는 사람이든 천사(‘거룩한 자’)든 불러내어 죄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반증(反證)해보라고 욥에게 도전했다. 엘리바스는 죄악과 징벌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직접 목격해왔다. 문제는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범이 없다. 인간은 범죄한 까닭에 불티가 위로 날음같이 고난을 당할 운명이다.

5:8~16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그분은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그분의 다스림과 인류에 대한 그분의 섭리적인 치리에서 볼 수 있다. 13절은 이 세상의 거짓된 지혜를 폭로하기 위해 바울에 의해 고린도전서 3:19에 인용되었다.

5:17~27 전능자의 징계에 순복함으로써 사람들은 기근과 전쟁과 비방과 내전과 위협과 가뭄과 들짐승과 곡물의 피해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고 엘리바스는 말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결실과 장수를 누린다는 것이다.

(3) 욥의 반응(6~7장)

6:1~13 욥은 자신의 말이 경솔했음을 인정했으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의 슬픔과 재앙은 바다 모래보다 무겁고, 그의 영은 전능자의 화살의 독을 마시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욥에 의해 표현된 모든 부정적이고 정도가 지나친 진술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심히 아름답게 서술되어 있어서 민감한 독자는 그 잠재력에 놀라게 된다. 욥은 자신이 극도로 원망을 토로하는 것은 짐승이 까닭 없이 부르짖지 않듯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의했다. 고난과 눈물은 맛있는 음식과 양념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는 견딜힘도 없고 장래에 소망도 없으므로 죽기를 희망했다. 더 이상 산다는 것이 아무 소용없었다.

6:14~23 욥의 친구들(욥은 그들을 ‘형제’라 불렀다)은 욥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를 실망시켰다. 그는 그들을, 필요한 순간에 완전히 말라버리는 시냇물에 비유했다. 그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건만 그들은 그가 죄를 범한 경위는 지적하지 못하고 막연히 그를 비난해왔다.

6:24~30 그가 은밀한 죄인이라는 엘리바스의 암시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정직함을 항변했다. 그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죄를 범했는지 알기를 원했고, 자신의 혀에 불의가 있다는 증거를 보고자 했다. 27절은 친구들에 대한 욥의 반대신문이다. 그들은 욥이라는 ‘벧’을 괴롭히고 있었다!

7:1~10 이제 욥은 여호와께 직접 아뢰었다. 그가 죽기를 소망한 것은 종이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쉬고 싶어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밤이 그 고통스런 몸에 아무 휴식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는 동이 틀 때까지 이리저리 뒤척거리며 괴로워했다. 베틀의 북처럼 그의 생명은 소망 없이 빨리 지나갔고, 구름처럼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7:11~21 그는 왜 하찮은 인간에게 그토록 관심을 갖고 그를 둘러싸고 악몽으로 두렵게 하기를 질식해서 죽을 정도로 하시는지를 여호와께 물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통당하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인간이 위대한가? 욥이 범죄하였다 해도 무슨 해가 되겠는가? 어쨌든 그는 곧 죽을텐데 말이다.

(4) 빌닷의 첫 번째 강론(8장)

빌닷이란 이름은 ‘논쟁의 아들’이란 뜻일 수 있는데, 그는 논쟁을 좋아하므로 아주 적합한 이름이라 하겠다. 리도우트는 문체와 지식

에 있어 빌닷과 엘리바스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그의 항의 때문에 욥을 냉혹하게 대한 점과 함께, 엘리바스의 강론을 특징짓는 정중함과 근엄함이 빌닷에게는 다소 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 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닷은 하나님의 영예를 귀히 여기고, 그분이 지적당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확실히 옳았으나,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생각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까닭에 욥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셔야 하며, 욥은 징벌당하고 있으므로 죄인임에 틀림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¹¹⁾

8:1~7 빌닷은 욥이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말을 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악인을 징벌하고 의인을 상 주시는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변호했다. 그는 욥의 아들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러한 사실이 본문에 전혀 암시되지 않았으며, 혹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큰 슬픔과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잔인한 처사였다. 그러나 만일 욥이 하나님께 진지하게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소망이 있다고 빌닷은 말했다.

8:8~22 그는 이어서 죄와 보응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역사에 호소했다. 물이 없으면 갈대가 시들 듯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와 위선자의 운명도 그러하다. (15절은 엽록소가 햇빛을 흡수하는 현상에 비유한 것일 수 있다.) 하나님은 악인을 물리치고 순전한 자를 이끄셔서 축복하기를 기뻐하신다.

(5) 욥의 반응(9~10장)

9:1~13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욥이 물은 것

11) (8장 서론) 전인용서., p. 64.

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 물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위대하신 분 앞에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그의 절망감을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과 쟁론하는 것은 천 마디에 한 마디도 그분께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다. 산과 땅과 해와 별과 바다와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다스리시는 데서 나타나 있듯이 그분은 주권자시고 전지 전능한 분이시다.

9:14~31 욥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그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여호와는 냉정하고 독단적이고 불공정하시기에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하다고 욥은 말했다. 낙심 중에 욥은 하나님을 순전한 자와 악인을 차별 없이 멸하시고, 결백한 자의 곤경을 비웃으시고, 세상의 재판관들로 불의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비난했다. “나는 순전하다 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님”라고 그는 말했다(21,22절). 그의 생명이 다 지나감에 따라 그는 자기를 무엇에 헌신하거나 자기를 향상시킬 기대를 갖지 않았다.

9:32~35 욥은 하나님과 그 사이의 중재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의(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중재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안다(딤후 2:5). 메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한다.

“욥은 기꺼이 그 일을 맡기고자 했으나 아무 피조물도 중재자가 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문제를 의탁하고 그분의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를 중재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신 복스런 중재자시다.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으며, 우리는 기다

려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늘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원망의 여지가 전혀 남지 않게 된 것처럼, 욥 당시는 그렇게 분명한 빛으로 인도되지 못했다.”¹²⁾

10:1~7 절망 중에 욥은 원망을 발하며, 왜 친히 창조하신 자에게 불합리한 행동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다. 욥이 악하지 않다는 것을 친히 아시면서도, 단순한 인간처럼 그렇게 부정하게 심판하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10:8~12 헤롤드 St. 존은 본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항의하며, 인간을 지으실 때 영예롭게 피할 수 없는 책임들을 맡으신 사실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이 놀라운 대목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10:8/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빛으셨다.

10:10/ 태아의 몸의 형성.

10:11/ 가죽과 살의 성장과 뼈와 힘줄의 발달.

10:12/<1>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2> 인간을 구성하는 최고의 부분인 ‘영’을 주시고 보존하셨다.”¹³⁾

10:13~22 왜 여호와께서 욥에게 가혹한 재앙을 가하시는가? 그가 의로운지 악한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은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찼다. 왜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런데 왜 이제 빛조차 어두움 같은 곳으로 가버리기 전에 그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지 않으시는가?

12) (9:32~35) Matthew Henry, “Job,”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3:59.

13) (10:8~12) St. John, *Job*, p. 17.

(6) 소발의 첫 번째 강론(11장)

11:1~12 나아마 사람 소발은 그러한 공허하고 오만한 말은 응답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욥의 세 번째 친구의 이름에 대해서 리도우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지저귀다라는 어근동사에서 나온 ‘소발’(Zophar-‘참새’)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Zipporah)의 남성형이다. 그는 비록 욥의 육신적인 이야기들을 정죄하는데 매우 열심을 내었으나, 십보라처럼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자신도 모르게 반대했다. 논지를 완전히 벗어난 그의 격렬한 비난은 그의 이름이 뜻하는 새의 ‘지저귀’마냥 아무 해(害)가 없었다.”¹⁴⁾

만일 욥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만 있다면 그가 응답받아야 할 만큼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소발은 주장했다!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해 무지한 까닭에 그가 그분의 공의로움에 의문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12절은 분명 욥을 겨냥한 매우 냉혹한 비난이다. “허망한 사람은 지식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11:13~20 욥이 해야 할 최선은 자신의 죄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안정과 안식과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7) 욥의 반응(12~14장)

12:1~6 독한 비아냥거림을 동원하여 욥은 그의 친구들을 지적인 기만자라고 비난했다.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14) (11:1~12) Ridout, *Job*, p. 31.

하나님이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분임은 모두 잘 안다. 그러나 전에 기도의 응답을 얻은 사람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은 반대로 형통을 누리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너희는 아무 고난이 없으며, 나를 조롱하는구나. 너희는 곧 죽어버릴 자를 치는구나”(5절, TEV).

12:7~12 자연 세계(짐승과 새와 물고기)조차도 어떤 이는 멸하시고 어떤 이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독단성을 보여준다. 만일 욥을 비난하는 자들이 음식 맛을 보듯 말(words)을 신중히 시험해본다면, 그들은 욥이 말한 바에 한가지로 동의한 옛 사람들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이다.

12:13~25 이제 욥은 여호와와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을 위엄있게 노래하는 한편 그것들이 종종 이해할 수 없고 모순처럼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13:1~19 욥은 비판자들을 꾸짖었다. 그들은 이제까지 새로운 것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 거짓말쟁이요 무가치한 의원들이 아닌 하나님에게 그의 일을 호소하고자 했다. 만일 그들이 잠잠했으면 사람들이 그들을 지혜롭다고 여겼을 것이다.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그들의 설명은 옳지 않았다. 그들은 그에 대해 그분께 책임을 져야 했다. 그들의 주장은 나약하고 무가치했다. 만일 그들이 입을 다문다면 그는 그의 일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의 생명을 그분께 의탁할 것이다. 그는 자기 일이 해결될 것을 확신했다. 설령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다해도 그는 여전히 그분을 의뢰할 것이다.

13:20~28 13:20에서 14:22까지 욥은 직접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는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아뢰고,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가

혹하게 다루시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그는 썩은 물건처럼, 좀먹은 의복처럼 하나님을 주목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쇠잔해갔다.

프랜시스 앤더슨은 욥의 이러한 고백을 이렇게 평가한다.

“여기서 욥은 그의 친구들보다 더 정직한 관찰자요 더 풍부한 사색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개념의 광대함에 우리의 이성은 눈을 잃게 된다. 엘리마스과 빌닷과 소발의 신학에 나타난 신(神)의 개념은 이해하기도 쉽고 믿기도 쉽다. 그러나 욥의 신 개념을 믿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깊은 사색에 잠기지 않으면 안 된다.”¹⁵⁾

14:1~6 욥은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약하고 허물투성이인 자에게 그렇게 무자비하신지를 물었다. 1절은, 아마 여러 경우에 적합한 표현이라서 그런지 아주 널리 인용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왜 그를 그 짧은 생애의 여분을 좀 평안하게 보내게 하지 않으시는가?

14:7~12 베임을 당한 나무가 그보다 더 소망이 있다. 인간의 죽음에는 두려운 결말이 있으니, 죽은 사람은 말라버린 강과 같다.

14:13~17 욥은 그분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 숨기시기를 바랐다. 그런 다음 전능자가 그를 불러내시면 그가 자신을 변호할 것이다. 그 어간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살피실 것이다.

욥은 본문에서 다음 네 가지를 행했다.

(1) 그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15) (13:20~28) Francis I. Andersen, *Job: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p. 163.

(2) 그는 인간의 생명의 덧없음을 묘사했다.

(3) 그는 죽음의 종결성에 실망했다(중재자를 바라고, 죽음 너머의 생명을 소망했다).

(4) 그는 자신의 현재의 곤경을 원망했다.

14절은 매우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25,26에서 이 질문에 답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헤롤드 St. 존은 14,15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14:14,15에서 빛이 고요한 바다에 비추이며 그 속을 침투한다. 믿을 수 없으리만치 신선한 본문에서, 욥은, 인간은 물질 이상이며, 하늘은 사라지고 후패하고 장구한 산은 가루가 돼버릴지라도 그 자신은 천년간 무덤 속에 누워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분이 지은 작품을 보기를 원하실 날이 반드시 밝아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때에, 욥은 깊은 음부의 세계에서 깨어나 응답할 것이며, 그분의 종을 보고픈 마음으로 병이 든 하나님과, 산보다 장구하게, 하늘보다 영원히 연합될 것이다.”¹⁶⁾

14:18~22 자연에서 썩어짐이 필연적인 현상이듯 인간이 고난 중에 후패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은 슬픔의 곳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변론이 마감된다. 욥의 친구들의 논지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악인을 징벌하신다는 것과, 만일 욥이 징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악하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악한 사람이 결코 아님을 줄곧 주장했다.

16) (14:13~17) St. John, *Joh*, pp. 17,18.

2) 두 번째 변론(15~21장)

두 번째 변론에서 욥의 ‘위로자들’은 더 이상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더욱 정죄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취한다. 반면에 욥은 더욱 완고해진다.

(1) 엘리바스의 두 번째 강론(15장)

15:1~6 이제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의 오만하고 경망되고 무익한 말에 대해 다시금 욥을 꾸짖을 차례가 되었다. 일련의 질문 세례를 통해서 이 데만 사람은 욥의 자칭 지식을 조롱하며 그것을 ‘헛되다’고 했다. 물론 하나님께 도전한 대담한 말로 인해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했다’는 비난을 듣긴 했지만, 욥이 ‘간사한 자의 혀’를 택했다는 비난은 옳지 않았다. 혹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욥은 지나치게 개방적이지요 자기를 완전히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는 위선자가 아니었다! 욥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스스로 의롭다고 고백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15:7~13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 생각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자만에 빠졌다고 도전했다.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라고 그는 물었다. 엘리바스가 세 위로자의 말을 ‘하나님의 위로’요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진정한 위로의 상담을 베풀 마음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5:14~16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됨에 관해 자신이 말한 4:17~19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욥이 어떤 면에서 엘리바스보다 더 죄악되다는 것인가? 리도우트는 이렇게 묻는다.

“왜 그것을 마치 욥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인임을 증명하는 사실처럼 욥에게 적용시키는가? 이것은 욥의 모든 격렬한 말보다

간교한 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엘리바스를 욥 곁에 세우고, 욥도 자기처럼 '가증하고 부패하다'고 고백하게 해보라. 그렇게 하면 그 가련한 고난당하는 자는 그 말에 수긍했을 것이다.”¹⁷⁾

15:17~26 조상들의 옛 지혜로 돌아가 엘리바스는 악인이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을 묘사했다.

15:27~35 악인에게는 두려운 재난이 임하며, 이 재난들은 죄인이 받아 마땅한 응보이다.

(2) 욥의 반응(16,17장)

16:1~5 욥은 엘리바스의 상황분석을 거부하고 비판자들을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 부르며 반격을 가했다. 만일 그들이 욥의 처지가 되었다면 적어도 욥은 그들을 위로하려 할 것이다!

16:6~14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을 돌리시니 그를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넘겨 ‘꺾고 다시 꺾고’ 견딜 수 없게 꺾박하게 하시며 그를 괴롭히셨다. 그가 아무런 불의가 없는데도 그 모든 시련이 임했다.

16:15~22 욥이 베옷을 입지 않고 꿇어매어 피부에 덮였다는 것은 그가 영원히 슬픔에 잠겼음을 보여준다. 위로할 친구도 없고 그의 일을 호소할 아무도 없이 그는 곧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버릴 것이다.

9~19절의 일부 표현은 시편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그 우선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 표현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용할 수도 있다.

17) (15:14~16) Ridout, *Joh*, p. 84.

17:1~12 욥은 상한 심령으로 무덤 가에서 울먹였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조롱했다. 그는 이제 비판자들이 아무 소용없음이 드러났기에 하나님 홀로 자신의 일을 판단해주실 것을 원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조롱거리로 삼으셨다. 그의 상황을 보고 ‘정직자’는 그의 비판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직을 항변할 것이다. 그는 세 대적자 중에 한 명의 ‘지혜자’도 찾지 못했다.

17:13~16 욥에게는 흑암과 썩음과 벌레뿐인 무덤 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3) 빌닷의 두 번째 강론(18장)

18:1~4 수아 사람 빌닷은 친구들과 자신이 한 지혜의 말을 아주 강하게 비난한데 대해 욥을 비방했다. 빌닷에게 한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두 동료 위로자들보다 책망이 간결하다는 것이다. 아마 그는 그러한 간결함의 가치를 안 까닭에 욥이 말을 그쳐야 한다고 대담하게 주장한 듯하다.

18:5~21 그는, 악한 자는 자기 죄의 그물에 걸리고 만다는 이제 친숙해진 말을 되풀이했다. 그런 다음 죄인의 집에 임하는 끔찍한 재앙들을 열거했다. 빌닷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말한 점에서는 옳았으나, 그것을 욥의 고난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한 점에서는 그릇되었다.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삶 속의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다.

(4) 욥의 반응(19장)

19:1~22 욥은 그들이 자기를 해롭게 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는 하나님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종들에

게 압박을 당해왔다. 그의 육체는 쇠잔했고 그는 겨우 죽음만 면한 처지였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손잡고 그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19:23~24 그는 자신의 변호하는 말이 책에 기록되고 철필과 흑연으로 영영히 돌에 새겨져서 장래 언젠가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랐다.

19:25~27 보기 드문 빛을 발하는 중에, 그는 비록 죽음과 씩음이 개입할지라도, 언젠가 자기를 변호하고 회복시켜줄 구속자가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욥기의 문체와 설교 스타일이 유사한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인 스펄전은 25절을 이렇게 훌륭히 적용했다.

“욥의 위로의 핵심은 ‘나의’-‘나의 구속자’라는 짧은 단어와 그 구속자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에 있다. 오!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누리려면 먼저 그분 안에 있는 기업을 얻어야 한다.…나를 구속하지 않는 구속자, 나의 피를 위해 일어서려 하지 않는 보수자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 나는 나의 살아 계신 주님께 자신을 맡겼어. 그분은 나의 것이야’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 전에는 만족스런 안식을 할 수 없다. 당신이 연약한 손으로 그분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그는 나의 구속자로서 살아 계셔’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요컨대, 당신이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작은 믿음이 능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나, 여기 ‘나는 안다’는 욥의 강한 확신을 표현해주는 또 다른 말이 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위안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위로의 핵심에 도달키 위해서는 당신은 ‘나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야 한다.”¹⁸⁾

욥이 자신의 가족이 썩은 후에 육체 안에서(우리말 성경은 ‘육체 밖에서’로 되어 있음·역주) 하나님을 보리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은 구약에서는 널리 가르쳐지지 않았으나 우리 주님 당시에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 표준으로 받아들여진 교리인, 육체적인 부활을 강력히 시사해준다.

다시금 스펀전은 26절에 대해 이렇게 훌륭히 해설한다.

“욥의 경건한 소망의 주제를 주목하라.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그는 ‘나는 성도를 보리라’(물론 이것도 말할 수 없이 훌륭한 고백이지만)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했다. ‘나는 진주문을 보리라, 나는 벽옥으로 된 벽을 보리라, 나는 금 면류관을 바라 보리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이다. 그것이 천국의 본질 이요, 그것이 모든 신자의 즐거운 소망이다.”¹⁹⁾

19:28~29 장차 올 그 신원의 날에 그의 친구들은 그를 압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징벌을 당할 것이다.

(5) 소발의 두 번째 강론(20장)

20:1~19 욥의 신앙 고백은 친구들에게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음이 분명했다. 소발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교만한 사람은 영영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인간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런 자의 자손은 가난한 자에게 구걸할 것이며 부당하게 취한 것을 돌려주게 될 것이다. 지금은 청년같이 강장할지라도 곧 쇠할 것이다. 아무리 풍족하게 살았을지라도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 얻은 모든 것을 곧 잃고 말 것이다.

18) (19:25~27) Spurgeon, *Morning and Evening*, Devotion for April 21, Morning.

19) (19:25~27) Spurgeon, *Morning and Evening*, Devotion for April 21, Morning.,

20:20~29 그에게는 굶주림, 낙담, 비참함, 무장한 공격, 불, 평안의 상실 등 상상 가능한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늘과 땅이 그에게 반항할 것이며, 그의 소유가 없어질 것이다. 그것이 악인이 하나님에게 받을 기업이다.

G. 캠벨 물건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흥분으로 전율하는 본문의 문맥에서 소발은 불의한 소득의 불안 정함을 묘사한다. 승리가 있지만 짧은 순간일 뿐이다. 정상에 오르지만 곧 사라져 버린다. 청년의 기분이 있지만 흠으로 돌아가 버린다. 달콤함이 있지만 쓰라림이 되고 만다. 삼킴이 있지만 곧 토해내고, 언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다. 악인의 마지막 응보는 하나님이 그에게 돌이키사 심판의 도구로 그를 쫓으신다는 것이다. 흑암이 그를 덮는다. 그의 죄가 하늘의 빛 아래 드러나며 땅이 그를 대적한다. 죄악의 역사를 돌이켜 보라. 이것이 얼마나 사실로 나타나 있는가!”²⁰⁾

(6) 욱의 반응(21장)

21:1~22 이제 욱이 자신의 말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비록 그의 애처로운 상태가 인간적인 동정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그의 원망은 우선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악인이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을지라도 종종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고 또 고통 없이 죽는다는 사실을 통해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악인이 생전에 그들의 죄의 대가를 거두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는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스러지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는가?

“너희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징벌하신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 죄인들 자신을 징벌하시게 하라. 그분으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입증하시게 하라.

20) (20:20~29) G. Campbell Morgan, *Searchlights from the Word*, p. 145.

죄인들로 그들 자신의 징벌을 당하게 하라. 그들로 전능하신 하나님
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라.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그 자식이 행복한
지 여부를 그가 상관하겠는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도 심판하시
는 하나님을 사람이 가르칠 수 있겠는가?”(19~22절, TEV)

21:23~34 어떤 사람은 강건하고 형통한 중에 평안히 죽는다. 어
떤 사람은 고통과 가난 중에 죽는다. 죽을 때는 모두가 차이가 없다.
만일 악인이 이생에서 항상 징벌당한다고 욥의 친구들이 주장한다
면, 욥은 이곳저곳 널리 돌아다니는 자들에게 호소하여, 악인이 사
후에 징벌당할지는 모르나 종종 이생에서는 행복하게 산다는 것
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아무도 악인을 징죄하거나 징벌하지 않으
며, 그는 다른 모든 이들처럼 죽는다. 맺음말로 욥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떠한가! 너희는 헛되이 나를 위로하려는구나. 너
희의 모든 대답은 거짓이다!”(34절, TEV)

이 말로 욥은 그 자신과 친구들 간의 두 번째 변론을 마감했다.
이 ‘위로자들’은 욥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는 시도의 막바지에 이르
렀다. 그들은 소발을 제외하고, 한번 더 변론을 치를 것이다.

욥기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
는가? 하지만 욥은 약간의 진전을 이뤘으며, 희미한 빛이 그의 고
난의 어두운 신비를 뚫고 비추기 시작했다.

3) 세 번째 변론(22~31장)

(1) 엘리바스의 세 번째 강론(22장)

세 번째 변론에서 엘리바스와 빌닷은 반복법을 대거 동원하여 그
들의 논증을 결론지었다. 소발은 침묵을 지켰다. 욥은 그들에게 답
하되, 그 자신이 은밀한 죄인이거나 위선자가 아니라 1장에서 밝힌
대로 흠이 없는 사람(무죄하거나 겸손하지는 않았다)임을 스스로

알았기에 그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엘리바스의 마지막 강론은 위엄과 문학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그는 이 가련한 고난당하는 자에게 다소 정중하긴 했으나 공정하지는 못했다.

22:1~11 엘리바스의 질문들은 하나님은 옳이나, 그의 흠 없는 삶을 포함해서 그가 가진 것이나 행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긴 공박을 통해, 가난한 자의 물건을 부당하게 저당잡고, 지친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주린 자에게 떡을 주지 않고, 토지를 강제로 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했다고 옳을 비난했다. 엘리바스에 의하면 그 때문에 옳은 현재의 곤경에 처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다. 옳은 사람들을 돕는데 관심이 많았고 또 관대했다.

22:12~20 옳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계속 죄를 범하면, 그는 땅의 기초가 홍수로 함몰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하나님이 전에 번성케 하셨던 사람들-의 운명에 처할 것이다. 악인이 징벌당할 때마다 의인은 기뻐한다.

22:21~30 엘리바스는 이 마지막 호소에서 옳을 위해서 진실로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21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25절). “...네 길에 빛이 비취리라”(28절). 이 말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니’(23절) 죄인에게는 진리이다! 문제는 오직 그 적용 대상이다. 옳은 죄 가운데 살지 않았다! 바네스는 엘리바스의 옳을 향한 마지막 호소를 이렇게 요약한다.

“전능자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그의 기도는 상납될 것이다. 빛이 그의 길에 비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낮춰질 때 그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²¹⁾

(2) 욥의 반응(23~24장)

23장과 24장은 본래 하나의 강론으로, 오래 전의 성경학자들에 의해 편의상 구분되었을 뿐이다. 욥은 23장에서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전개했는데, 하나님 보좌에 그의 문제를 상정하고자 하는 그의 바램과(1~9절),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한 자기 변호와(10~12절), 하나님을 그의 대적인양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13~17절)이 그러하다.

23:1~9 욥의 원망은 흑독했다. 하나님 보좌에 이르러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스피전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의 첫 번째 기도는 ‘이제 내 온 몸에 퍼진 질병을 고쳐주소서!’가 아니었고, ‘내 자식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내 소유가 약탈자의 손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소서!’도 아니었다. 그의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부르짖음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꼬?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 터인데!’였다. 하나님의 자녀는 폭풍이 오면 집으로 달려간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피난처를 찾아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는 것은 은혜를 입은 영혼의 하늘 본성이다.”²²⁾

만일 그가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욥이 의로움을 시인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는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

21) (22:21~30) Albert Barnes, “Job,” in *Notes on the Old Testament*, 2:3.

22) (23:1~9) Spurgeon, *Morning and Evening*, Devotion for November 19, Evening.

어나게 될 것이라고 욥은 확신했다.

23:10~12 10절은 시련의 정화하는 효력을 입증하는데 종종 인용되지만, 문맥상으로는 욥이 ‘무죄’ 판결을 받을 확신을 피력한 표현이다. 그 어간에 하나님은 임의로 행동하시며, 그분의 두려운 심판이 욥을 두렵게 한다.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자신의 문제가 상정되기만 하면 자신은 정금같이 순결한 자로,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한 자로 발견될 것을 확신했다. 10절의 아름다운 말씀은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 참으로 암기해둘 만하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23:13~17 그 어간에 홀로 임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행하시며, 욥은 하나님이 그를 낙심케 하시기에 그분 앞에 떨며 두려워한다.

24:1~12 아무것도 전능자에게 숨기우지 않았기에 욥은 악인이 형통하는 문제의 해답을 왜 그분을 아는 자들에게 알리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압제자의 죄악과 압제당하는 자의 고난-을 자세히 열거했다.

리도우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것은 그들과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사실들을 묘사한 것이다. 어떻게 엘리바스가 그러한 사실들을, 악이 항상 이생에서 징벌당한다는 그의 이론에 부합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에 대해 눈을 감으시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 대신 신실한 자를 징벌하실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욥의 큰 문제였으며, 그

해답을 그는 찾지 못했다.”²³⁾

욥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가 잘못되었다고 원망했다(12절).

“...성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24:13~17 이어서 욥은 반역적인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강도를 묘사했다. 이 세 부류는 밤에 활동하기를 좋아한다. 아침은 그들에게 죽음의 그림자와 같다.

24:18~25 이 악한 죄인들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더 이상 기억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다. 악인은 다른 이들과 달리 평안하게 죽는다고 욥은 주장했다. 그는 그 사실을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빌닷의 강론은 매우 짧고 소발은 아무 말도 안 했고 또 욥의 반응은 매우 긴 까닭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18~25절이 욥이 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떤 현대 역본들은 심지어 이 본문(다른 본문과 함께)을 아주 어색하게 재배열하기까지 했다. ‘욥이 이 말을 했을 리 없다고 확신하지 않은’²⁴⁾ 앤더슨은 어떤 이들이 그 본문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단지 그 말이 그의 말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말을 서둘러 욥의 것이 아니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시도는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행해졌다.

(1) 그 말들을, 욥을 본래 모습보다 더 정통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건의 걸치레로 여겨 모두 제거했다.

23) (24:1~12) Ridout, *Job*, p. 124.

24) (24:18~25) Andersen, *Job*, p. 213.

(2) 그것을 빌닷이나(NAB) 소발(Pope) 등 친구 중 하나의 것으로 돌렸다.

(3) 그것을 친구들이 한 말을 욱이 인용한 것으로 간주했다(RSV는 ‘너희가 말하기를’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21~24절을 욱의 답변으로 간주했다. 고르디스는 18~24절 전체를 인용문으로 간주했다.)”²⁵⁾

(3) 빌닷의 세 번째 강론(25장)

욕의 위로자들의 강론 중 마지막은 소발이 아니라 수아 사람 빌닷의 강론이었다. 아마 소발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빌닷의 강론도 아주 짧았다-욕기에서 가장 간결하다.

“빌닷의 강론의 간결함과 그 속에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점으로 보아, 친구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펼 수 있는 논증이 바닥난 듯하다.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깊은 사상에 탁월한 표현력을 겸비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언어는 기품 있고 차원 높았으며, 그들의 수사법은 아름답고 호소력 넘쳤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와 주장은 그릇되고, 편협하고, 지지할 수 없었다.”²⁶⁾

빌닷은 결국 많은 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하나님의 위대성(1~3절)과 인간의 무익성(4~6절)이란 두 주제만을 피력하고자 했다.

25:1~3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이 있으며, 그분의 군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25:4~6 달과 별도 하나님의 눈에는 깨끗지 못할진대 벌레요 구

25) (24:18~25) Andersen, *Job*

26) (25장 서론) Ridout, *Job* p. 213.

더기에 불과한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빌닷의 말은 진실 되고 아름다웠으나, 거기엔 사랑과 위로가 빠져 있었으며 그런 까닭에 욥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

(4) 욥의 반응(26장)

26:1~4 먼저 욥은 빌닷의 주장을 반박했다. 가령 욥이 힘없고 기력과 지혜가 없다고 치자. 그러면 빌닷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그의 말은 공허하고 무디고,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26:5~13 26장 나머지는 증발과 강수의 순환, 구름의 밀도, 빛과 어두움의 순환, 바다의 폭풍, 그분의 신(神)이 하늘을 단장하는 별과 천체 등 우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놀라운 묘사를 보여준다.

빌닷이 하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한 반면에 욥은 여기서 깊음 속, 즉 물밑, 음부, 멸망 중에 나타나는 그분의 권능을 묵상했다.

욥은 과학이 이 사실을 가르치기 수세기 전에, 하나님이 땅(지구)을 공간에 다셨다고 묘사했다(이것은 지구의 태양계 안에서의 위치와 공전을 시적으로 묘사한 표현이다).

“이 몇 마디 안 되는 놀라운 진술들은 이방 철학자들의 우주론보다 얼마나 뛰어난가! 그 진술에서 우리는 뉴턴과 케플러가 발견한 사실들의 기본 틀을 볼 수 있다. 성경이 과학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성경은 과학적인 언어로는 아니지만 과학적인 정확성으로, 모든 필요한 진리를 가르친다.”²⁷⁾

26:14 만일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 그분의 행사의 시작점에 불과

27) (26:5~13) Ridout, *Job*, pp. 133,134.

하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듣는 세미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분의 능력의 우례를 누가 능히 측량하겠느냐고 욥은 물었다.

(5) 욥의 마지막 독백(27~31장)

욥의 ‘위로자들’은 그들의 논증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욥 역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바른 길에 있었으며, 믿음이 성장하는 듯 보였다.

욥의 독백은 세 가지 주요 주제가 있다. 그는 자신의 정직함을 악인의 운명과 대조하고(27장), 지혜의 무한한 가치를 예찬하고(28장), 그리고 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29~31장).

27:1~5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라고 한 본 장의 서두는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한다. 그는 더 이상 빌닷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26:1), 가슴에 사무친 한을 모두를 향해 다 토로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직과 성실과 의로움을 강변했다. 그는 자신이 은밀한 죄의 결과로 고난당한다고 지적한 비판자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일절 인정치 않았다.

27:6~23 욥은 악인과 불의한 자와 위선자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재난은 당연했다. 그는 그들 자신이 관찰해온 사실 인바,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치리에 대해 세 친구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다. 불의한 자의 가정과 소유와 집과 그 자신에게 종종(항상은 아니지만) 재난이 미친다. 그는 멸망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

28:1~11 이 아름다운 장은 12절과 20절에서 던진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인간은 귀한 금속과 보석을 찾기 위해 기술과 인내를 쏟아 붓는다. 인간이 채광작업에서 보여준 명석함으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1~12절), 인간의 부(富)로는 지혜를 살 수 없으며(13~19절),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를 주실 수 있다(21~28절).

고대의 채광작업에 대한 묘사는 매우 흥미로운 반면에 번역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다. 4절이 특히 어려운데, 거의 모든 영어 역본들이 이 구절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 앤더슨은 “그 역본들이 같은 히브리어 본문을 놓고 그렇게 달리 옮겨놓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²⁸⁾

인간을 ‘구더기’라고 부른 벌닷과 달리 옴은 채광작업에서의 인간의 명석함을 인정했다.

“인간이 광부(鑛夫)로서 놀랍게 성공했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영리하고 지혜로운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혜를 파내는데는 완전히 실패했다.”²⁹⁾

28:12~19 지혜의 길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땅이나 바다에서 찾을 수 없으며, 돈주고 살 수 없으며, 그리고 그 값이 수마노나 남보석보다 뛰어나며 정금과도 비교될 수 없기에 충분한 값을 매길 수도 없다.

28:20~28 지혜와 명철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다. 멸망과 사망도 그에 대해 들었을 뿐이다. 자연의 형태를 정하신 그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신데, 이는 그분이 그것을 선언하고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28) (28:1~11) Andersen, *Joh*, p. 225.

29) (28:1~11) Andersen, *Joh*, p. 225.

본 장은, 우리가 그것을 항상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29:1~17 욥은 이제 번영과 존귀를 누리던 지난날들을 능숙하면 서도 감상적으로 묘사하며 그 날들이 다시 오기를 고대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누렸다. 그의 자녀들이 곁에 있었다. 그는 풍족한 삶을 누렸으며, 그리고 구제를 힘쓰고 의롭고 공평하게 행한 까닭에 성에서 젊은이와 노인들에게, 방백과 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29:18~25 그는 ‘밤이 맞도록 그의 가지에 젖은 이슬과, 그에게 새로워진 영광과, 날로 강하여진 활’로 묘사된, 번영과 강건과 기력을 누리면서 장수하다가 ‘그의 보금자리에서’ 평안히 죽기를 기대했다. 농부가 봄비를 환영하듯이 다른 이들이 그의 조언을 환영했다. 그의 웃는 얼굴은 그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주었다. 그의 지도력은 그를 우두머리처럼, 군대의 왕처럼,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처럼 되게 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30:1~8 이제 슬프게도, 그 아버들이 사회에서 버림받아 욥의 개들이 양들을 돌보는 것을 돕기에도 적합지 못하고, 헐벗고 약하고 가련하고, 광야의 풀을 뜯어먹을 정도로 심히 굶주리고,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고, 집 없는 유목민으로 땅에서 쫓겨난 젊은 자들이 욥을 조롱했다.

30:9~15 이제 그러한 폐물 인생들이 욥을 경멸했다.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내 얼굴에 침 뱉기를…내 발을 밀뜨리고…내 길을 헐고…” 등 그들의

조롱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보라. 욥의 존귀와 번영이 완전히 사라졌다.

30:16~23 그는 고통으로 괴로웠고 번뇌로 일그러졌고 티끌과 재 같이 되어 죽을 날만 기다렸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냉혹히 그를 대적하고 그를 여기저기 밀뜨리고 곧 죽이려 하셨다.

30:24~31 죽어가면서 도움을 청하는 가련한 자를 괴롭힐 사람은 없다. 욥은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나 그 자신은 아무런 자비도 얻지 못했다. 그는 극심한 고난 위에 외로움과 버림받음마저 겪고 있었다. 그의 육체적 정서적 상태는 파탄지경이었다. 왜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 되어야 하는가?

31:1~12 욥은 젊은 여자를 정욕의 눈길로 바라보는 죄를 범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이 그러한 죄를 감찰하고 징벌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속임수를 베풀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의 정직을 시험하시면 아실 것이다. 그는 의로운 길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의 소산(所産)을 잃었을 것이다. 그는 이웃의 아내를 탐낸 적이 없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고 그의 재산과 생명이 파멸되었을 것이다.

31:13~37 욥은 종들에게 인자했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었다. 그는 금을 탐내지 않았다. 그는 우상숭배에 은밀히 유혹되지 않았다(해나 달을 향해 손에 입맞추지 않았다). 그는 대적에게 악의를 품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관대했고, 은밀한 죄를 범치 않았고, 그리고 재물관리에 정직했다. 만일 그를 쳐서 증거하는 소

송장이 책에 기록된다면 그가 당당히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니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쓸 것이다!

31:38~40 31장을 끝으로 욥의 말이 끝난다. 사무엘 리도우트는 욥의 마지막 고백에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욥의 말은 그가 홀로 합당하신 분께 찬양을 올릴 준비가 되었을 때 끝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단은 욥의 말을 여기에 나온 고백으로 정리해봄직 하다.”³⁰⁾

3. 엘리후의 개입(32~37장)

1)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엘리후의 강론(32장)

32:1~6 여기서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사이의 대화가 끝났다. 정상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대로 소발이 말할 차례였으나 어떤 이유에 서인지 그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부스 사람 바라벨의 아들인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욥과 그의 세 비판자들 간의 열띤 논쟁을 듣고 있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를 우리의 증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본다. 그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분석한 것과 여호와의 해답 사이를 잇는 완전한 교량인 듯하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요, 여호와의 현장출현을 준비하는 중재자이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를 좀 낮게 평가하여 자만에 빠진 젊은이로 보았다!

어쨌든 엘리후(‘나의 하나님은 그분’이란 뜻)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게 여기는 욥에게 분노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욥에게 적절히 답변하지 못하는 세 친구들에게도 분노했다. 우선 몇 마디

30) (31:38~40) Ridout, *Joh* p. 169.

서두에서 그는 29장에 걸친 논쟁을 간추렸다.

32:7~22 그들의 연령을 존중하여 그는 침묵을 지키고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었다.

그는 대인(혹은 ‘나이 많은 사람’-NKJV 난하주)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며, 하나님은 자기처럼 젊은 사람에게 통찰력을 주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욥의 비판자들이 확실한 논증을 펴지 못했다고 책망했다. 그들이 실패한 까닭에 그가 말해야겠다는 심령의 압박을 받았으며, 이제 편애나 아첨 없이 말하고자 했다.

2) 욥에 대한 엘리후의 강론(33장)

33:1~7 엘리후는 이제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할 터이니 욥이 자기 말을 경청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갈망했다. 이제 엘리후가, 비록 똑같이 흠으로 지음 받은 죽을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욥의 대변인 역할을 할 것이며, 욥은 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함 없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다.

33:8~18 엘리후는 욥이 절대적인 결백을 주장한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대하셨다고 비난한 것을 책망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며, 사람에 대한 그분의 섭리를 설명하실 의무가 없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과 교만을 범치 않도록 경계하고 불행한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꿈과 밤의 이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33:9~30 여호와께서는 또한 좋은 식물도 싫어지는 고통과 심한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만일 어떤 사자나 중재자가 하나님의

정직한 길을 설명한다면(그리고 고난당하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열납될 만한 대속물을 근거로 그를 구덩이에 내려 가지 않게 견지신다. 엘리후는 ‘대속물’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것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대속물)으로 주신’ 분과 연결시킬 수 있다(딤후 2:6). 어떤 사람이 여호와와의 음성에 반응하면 그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상태가 회복된다고 엘리후는 말했다.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곧 영적인 죽음 내지 육체적인 죽음에서 구속받은 사람이다.

33:31~33 만일 욥이 말하기를 원하면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엘리후가 그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동안 주의 깊게 듣고 잠잠히 있어야 했다.

3)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엘리후의 두 번째 강론(34장)

34:1~15 엘리후는 이어서 세 친구들에게, 음식을 맛보듯이 그의 말을 시험해보라고 요청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의로운 사람을 고난당하게 하신 것은 부당한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경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한 욥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이 결코 불의를 범치 않으셨다고 주장했다. 만일 그분이 스스로 물러나신다면 그분의 피조물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34:16~30 왕이나 귀인에게 악하거나 쓸모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치 못한 일일진대, 우주의 주권자를 완전히 불공평하다고 정죄하는 것은 얼마나 상상치도 못할 일이겠는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다. 그분은 악인을 쳐서 멸하시고 압제받는 자를 구원하신다.

34:31~37 이어서 엘리후는 분명 욥을 가리켜서, 죄를 자백하고 버릴 것과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중단할 것을 권했다. 욥은 그 동안 무지한 말과 악한 말과 패역과 죄를 쏟아 냈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했다.

4) 욥에 대한 엘리후의 두 번째 강론(35~37장)

35:1~8 엘리후는 이어서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행했다고 주장한 것과 의로움이 보상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책망했다. 인간의 죄는 주권자되신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며, 인간의 의로움도 하나님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35:9~16 압박당하는 자들이 환란 중에 부르짖으나 그들은 짐승이나 새보다 뛰어난 지혜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는 그분의 의뢰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36:1~12 이 네 번째 강론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고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깊은 진리를 끌어내겠다고 고백했다. 여호와께서는 보좌에 앉은 왕이든 사슬에 매인 죄수이든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과 압제당하는 자를 다루시는데 있어 매우 공의로우시다(7~9절). 만일 의인이 교만히 행하면 그분은 그들의 죄를 깨우치사 회개하도록 이끄신다. 만일 그들이 그분을 순종하고 섬기면 그분은 그들을 형통케 하신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망할 것이다.

36:13~21 만일 욥이 자복하고 죄를 깊이 뉘우쳤다면 여호와께

서 그를 큰 곤경에서 건지셨을 것이나, 그러나 그는 자기 의를 완고하게 고집했기에 위선자와 같은 심판을 당했다. 만일 그가 그 길을 계속 고집하면 큰 대속물로도 건질 수 없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엘리후는 경고했다. (18절은 모든 시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경고이다.)

36:22~33 하나님은 극히 지혜로우시므로 욥은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비와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시는 데서 나타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적인 손길의 광대함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 손길이 그분의 백성에 대한 은혜를 예시해준다는 것은 알고 있다. 안드레아는 오래 전 이렇게 표현했다.

“한편으로는 징벌과 멸망을 위해 땅에 보내지는 그 동일한 폭풍이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땅을 풍족히 축복하고 풍부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 보내진다. 그렇듯, 하나님의 어떤 가혹한 심판도 항상,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산되는 원천으로 간주될 수 있다.”³¹⁾

37:1~13 엘리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두려운 위엄과 영화로움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자연의 여러 영역들을 탐구했다. 자연, 큰 비를 동반한 폭풍, 눈, 적은 비, 북방의 찬 기운, 뽀뽀한 구름, 번개 빛의 구름 등에 대한 엘리후의 묘사는 아주 뛰어나다.

37:14~23 엘리후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궁구하라”는 직접적인 호소로 마감했다. 그는 계속해서 자연에 대한 욥의 지식에 도전했다. 어떻게 구름이 균형을 잡으며, 왜 남풍이 불면 따뜻해지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이 책의 다음 큰 단락에서 창조주 자신이 친히 욥에게 던질, 유사하면서도 훨

31) (36:22~33) “The Book of Job,” in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4:596. 오토 죄클러가 인용.

썬 더 도전적인 자연에 관한 질문들로 이어진다. 그러한 큰 권능은 우리의 미약한 이해력을 초월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징계에 굴복하는 것이 최선이며, 욥과 같이 그분을 불공평하다고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37:24 엘리후의 마지막 구절은 문제 전체의 간결한 결론으로서 욥에게 적용된다. 24절 첫 번째 문장은 이해하기 쉬우나 두 번째 문장은 NKJV와 몇몇 역본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프랜시스 앤더슨은 히브리어 원문의 부정적인 단어를 부정이 아닌 단언하는 말로 간주함으로써 둘째 문장을 달리 옮기고 있다(우리말 성경은 부정문 형태를 취한다-역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확실히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는 그를 경외한다!”³²⁾

4. 여호와의 자기 계시(38:1~42:6)

1) 욥에 대한 여호와의 첫 번째 도전(38:1~42:6)

(1) 서론(38:1~3)

38:1~3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종종 그러한 배경 하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장들에서 전개된 논쟁 끝에 임한 반가운 구조의 손길이었다. 욥은 그 동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해왔다. 다시 말해서, 그는 어리석게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로움을 의심한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질문을 던지실 것이며, 욥이 그에 대해 대답할 시간이다!

이어지는 질문에서 하나님은 고난의 신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

32) (37:24) Andersen, *Job*, p. 258.

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자신의 위엄과 영광과 지혜와 권능의
어떠함을 엿보도록 온 우주를 펼쳐 보이셨다. 그분은 사실상 이렇
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나의 행사를 비난거리로 삼기 전에, 먼
저 내가 하듯이 온 우주를 관리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
야 한다.” 물론 그것은 욥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지하고 무가치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리도우트가 지적한대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친구들의 강론에서 볼 수 있는 이성의 더듬거리
는 소리를 듣거나, 욥에게서 볼 수 있는 상처 입은 믿음의 야성적인
부르짖음을 듣거나, 엘리후에게서 볼 수 있는 또렷하고 예리한 언어
를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존전에 있으며,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³³⁾

이 여호와의 질문을 듣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질문이 ‘풍유적인
것’(allegorical)이 아닌지 하는, 다시 말해서 거기에 보다 깊은 영적
인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질문의 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계속 품게 된다. 그러는 사이에 본
문은 우리 눈에 흐려진다.

어떤 이들은, 현대과학 덕택에 하나님은 던지시는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게 되었다고 자랑스레 말할지 모른다. 그런 주장에
대해 바론 알렉산더 험볼트는 이렇게 얘기한다.

“욥이 대답하지 못한 것은 과학자들도 아직 대답하지 못한다. 그
것은 그들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다. 과학자들은 물론 2차적인 원
인에 대해서는 매우 명석하나, 그러나 1차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항
상 벽에 부딪친다. 그들은 위대한 원인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으며,
사실 위대한 원인을 원하지도 않는다.”³⁴⁾

33) (38:1-3) Ridout, Job, pp.210,211.

(2) 무생물 세계의 경이로움을 보라(38:4~38)

38:4~7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통해 여호와께서, 친히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의 세상의 창조를 언급하되, 그 규모와 그 둘레와 그 떠받치는 것과(물론 우주에 떠 있었다), 그리고 천사들의 환호소리를 언급하셨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셨다.

38:8~11 우주에서 지리와 대양으로 전환하면서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바다를 정해진 해변에 제한하고, 더 이상 넘지 못하게 금하고, 바닷물을 어린아이처럼 구름과 흑암으로 썼는지를 묘사하셨다.

38:12~18 이어서 그분은 아침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묘사하셨다. 아침 햇살이 하늘을 가로질러 달려 곳곳마다 비추고, 흑암 중에 행하는 악인을 쫓아내듯 정체를 드러내고, 땅의 표면을 진흙에 인을 치듯 윤곽을 드러내고, 만물의 색깔을 아름다운 옷처럼 드러낸다. 악인에게는 더 좋은 ‘빛’인 흑암은 물러나고 그들의 악한 음모는 좌절된다. 그분은 바다의 근원과 죽음의 세계와 땅의 넓이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하라고 욥에게 도전하셨다.

38:19~24 하나님은 이어서 빛의 근원과 속성에 대해 욥에게 물으셨다. 태양은 그 충분한 답변이 못되는데, 왜냐하면 태양이 제 위치에 있기 전에(창 1:16)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창 1:3). 욥이 그 답을 알만큼 나이가 들었는가? 그리고 환란과 전쟁의 때에 하나님이 이따금 동원하신 눈과 우박에 대해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한 지점에서 온 듯한 빛과 동풍이 어떻게 땅 표면에 흠어지는가?

38:25~30 이어서 주제가 날씨로 바뀌어, 욥은 폭우와 우레에 대

34) (38:1~3) *Eleven Lectures on the Book of Job*, p. 278. 윌리엄 켈리가 인용.

해서, 그리고 어떻게 광야에 비가 내려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비와 이슬과 얼음과 서리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 물이 돌처럼 굳어지고 해면이 어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38:31~33 천문학만큼 인간의 무가치함을 보여주는 학문은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별과 천체를 다스리거나, 그것들을 그 궤도에 두거나, 그것들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결정할 수 있느냐고 욥에게 물으셨다.

오늘날 인간이 과학을 통해 자연을 놀랍게 다스리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31절에 근거한 스피전의 다음과 같은 말은 매우 균형 잡힌 생각을 갖게 한다.

“네가 묘성을 매어 떨어지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욥 38:31).

혹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려 하면 자연의 웅대함이 곧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알려준다. 우리는 모든 반짝이는 별들의 아주 적은 수라도 움직일 수 없으며, 아침 광선의 한 줄기도 제지할 수 없다. 우리는 능력에 대해 말하지만 하늘은 우리를 비웃는다. 묘성이 봄에 포근히 비출 때 우리는 그 세력을 막을 수 없으며, 삼성이 높은데서 다스리며 날이 겨울의 사슬에 푹푹 매여있을 때 우리는 그 얼어붙은 띠를 풀 수 없다. 계절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환하되 우리 중 아무도 거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하나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요?”³⁵⁾

38:34~38 확실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구름에게 외쳐 비를 내리게 하고 번개를 명하여 즉시 순종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인간이 이 모든 영역에

35) (38:31~33) Spurgeon, *Morning and Evening*, Devotion for March 21, Evening.

서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얻는지 욥은 하나님께 말해줄 수 있는가? 인간은 구름을 구성하는 수포의 분자 수는 말할 것도 없고 구름의 수도 헤아릴 지혜가 없다. 그리고 티끌과 흙덩이로 굳어버린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때를 결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³⁶⁾

(3) 생물 세계의 경이로움을 보라(38:39~40:2)

38:39~41 하나님은 이제 무생물 세계에서 생물 세계로 전환하셨다.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서 그분은 욥에게 그분의 기이한 섭리를 상기시키셨다. 어떻게 그분이 그 손을 펴서 굴과 삼림에 있는 위엄 있는 사자로부터 먹을 것이 없는 까마귀와 그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의 식욕을 만족시키시는가?

39:1~8 욥은 오직 하나님만이 회임(懷妊) 기간과 출생습관과 산염소와 암사슴의 본능을 온전히 아신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았다. ‘들 나귀’(‘야생 당나귀’라고도 함)는 매인 것과, 성읍의 삶과, 마구를 업신여기며 광야와 산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는다.

39:9~18 들소 역시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섬김의 삶을 거부한다. 특이한 날개를 지닌 타조는 어떠한가? 타조는 어리석게도 깨지기 쉬운 곳에 알을 낳고 그 새끼를 가혹하게 다룬다. 그러나 타조는 말과 그 탄 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다!

39:19~25 하나님은 이어서 누가 군마(軍馬)에게 힘을 주거나 그 목에 갈기를 입혔느냐고 욥에게 물으셨다. 위엄 있고 두려움을 모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는 이 당당한 짐승은 호령과 나

36) (38:34~38) 36절이 34~38절의 날씨현상에 대한 내용을 중단시키는 듯 보이므로 다른 여러 가지 번역이 시도되었다. 히브리어 원문은 다소 난해하다.

팔소리와 창과 큰 창이 부딪치는 소리를 전혀 개의치 않고 맹렬히 싸움터로 뛰어나간다.

39:26~30 욥이 매에게 지혜를 주어 남방으로 가게 했는가? 그가 독수리를 가르쳐 날게 하고, 높은 바위 끝에 둥지를 만들게 하고, 멀리서 짐승의 시체를 살피게 하고, 그리고 그 새끼로 먹이를 찾도록 훈련시키게 하였는가?

40:1~2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전능자에게서 흠을 찾는 욥의 무례함을 꾸짖으셨다. 만일 그가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 있다면, 확실히 그는 방금 들은 질문 목록에 답할 수 있어야 했다!

2) 욥의 반응(40:3~5)

40:3~5 여호와께서는, 자연 세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는바가 없을진대 욥이 섭리의 영역에서 그분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꾸짖을 자격이 과연 있느냐고 물으셨다. 이 말에 욥은 마침내 제 위치로 돌아가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다. 여호와의 광대한 지식에 압도되어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 욥에 대한 여호와의 두 번째 도전(40:6~41:34)

(1) 대장부처럼 대답하라(40:6~14)

40:4~14 그러나 욥의 뉘우치는 반응이 미미하자,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폭풍 가운데서 그를 꾸짖으셨다. 그분은 욥에게 대장부처럼 대답하라고 도전하셨다. 욥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지적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분을 정죄했다. 그러나 이제, 욥으로 하여

금 하나님 위치를 취하여 전능성을 드러내고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게 하라. 그로 하여금 보좌를 취하여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화미(華美)를 스스로 입게 하라. 그로 하여금 죄인에게 진노를 쏟고 교만한 자를 낮추게 하라. 만일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을진대 여호와께서 그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실 것이다.

(2) 하마를 생각해 보라(40:15~24)

40:15~24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읊을 지으신 것처럼 함께 지으신 베히모쓰(*behemoth*, 거대한 짐승; 우리말성경에는 ‘하마’로 되어있음-역주)를 생각해보라고 읊에게 도전하셨다. 이것은 베히모쓰와 리바이어탄(*Leviathan*, 거대한 바다짐승; 우리말 성경에는 ‘악어’로 되어있음-역주)이 고대에 잘 알려진 신화적인 짐승이라는 일부 주석가들의 주장을 일축한다.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짐승을 인간처럼 피조된 것으로 제시할 수 있겠는가?

베히모쓰란 단어는 단순히 가축(베헤마)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히브리어의 복수형이다. 메레디스 클라인은 이렇게 설명한다.

“복수강세형으로 나온 ‘베히모쓰’란 이름은 ‘뛰어는 짐승’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의 으뜸과 같은(19절) 수식하는 표현일 것이다. 리바이어탄에 대해서도 유사한 최고의 수식어가 사용되었다(41:33,34).”³⁷⁾

하나님은 ‘베히모쓰’를 그분의 창조의 으뜸, 즉 동물세계의 최고의 전시물로 제시하셨다. 우리는 그것이 초식성 양서류이며 아주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그늘지고 습한 곳에 거하며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읊이 이 짐승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는가?

37) (40:15~24) Meredith G. Kline, “Job,” in *Wycliffe Bible Commentary*, p. 488.

베히모쓰는 종종 하마와 동일시되며,³⁸⁾ 루이스 세콘드의 붙어역 같은 역본들은 하마로 옮겨놓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상상을 해도 하마가 ‘창조물의 으뜸’으로 불릴 수는 없다. 코끼리나 맘모쓰는 그러한 수식어에 어울릴 수 있으나 하마는 그렇지 못하다! 아이들은 동물원에 가면 하마의 예쁘장하고 뭉뚱한 꼬리를 보고 즐거워한다. 백향목같은 꼬리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일부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베히모쓰가 지금은 소멸된, 아마 아프리카 정글 오지에 있던 동물이었음에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사실 공룡과 같은 파충류가 이 표현에 가장 어울린다.³⁹⁾

(3) 악어를 생각해 보라(41장)

하나님은 욥의 원망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너는 마땅히 참으로 위대하고 위엄 있고 영광스런 분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41:1~9 또 하나의 거대한 양서류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 독특한 리바이어탄이다. 욥이 그것을 다룰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자 하셨다. “그것을 한번 건드려 보라. 다시는 건드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싸운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8절, TEV). 고대 가나안 문학에서 리바이어탄이란 용어는 ‘머리가 일곱

38) (40:15~24) 예를 들어, 바네스는 본문을 하마에 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묘사를 동원했다. “부리부리한 눈과 날찍한 콧등, 독특하게 머리에 붙은 턱을 갖춘 이 동물의 큰 머리는 그 모양이 기괴하다. 그 턱을 벌리니 분홍색의 살이 통통 쥘, 그리고 섬찝한 모양의 엄니로 무장한 어마어마하게 큰 입과 혀가 특히 놀랍다”(“Job” 2: 247,248). 이 표현이 지니는 문제는, 바네스의 하마에 대한 묘사는 훌륭하지만, 엄니나 살이 통통 쥘 분홍색 입 등은 욥기에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베히모쓰의 턱과 머리나 콧등도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다(40장).

39) (40:15~24). Ken Ham, “What Happened to the Dinosaurs?” *ANSWERS to Some of the Most Asked Questions on Creation/Evolution*(Sunnybank, Australia: Creation Science Foundation Ltd., 1986). Henry Morris, *The Remarkable Record of Job*(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0).

인 바다 용'을 가리켰으나, 앤더슨이 지적한대로, 그것은 “리바이어탄이 이 읍기에서도 여전히 신화적인 괴물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⁴⁰⁾

영어에서 우리는 그 단어들 자체의 이방 문화적인 기원을 전혀 믿지 않은 채 목요일(Thursday), 1월(January), 지옥(hell) 등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한다. 용례(用例)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는 짐승을 생각해보라고 읍에게 도전하신 것이다. 비록 그 짐승이 어떤 것인지 오늘날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말이다. 흔히 이 짐승은 나일강의 악어로 추측되며, 그에 관한 여러 묘사들을 보면 그 파충류에 잘 어울린다.

베히모쓰가 주로 땅에 거하는 반면, 리바이어탄은 주로 물에 거한다. 인간은 갈고리와 줄로 그것을 잡을 수 없다. 그것을 집에서 기르거나 애완용으로 삼을 수도 없다. 연회의 장식으로 삼을 수도 없다. 그 갑옷 같은 가죽은 창이나 작살을 거부하며,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낙담이 되어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

41:10~11 하나님은 묘사를 중단하고 관련된 질문을 던지셨다. 사람들이 일개 짐승을 그렇게 두려워할진대 그 짐승을 지으신, 영원하고,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만물의 주인이자 창조주이신 그분은 얼마나 더욱 두려워해야 하는가? 클라인은 이렇게 설명한다.

“본문의 요점이 여기에 밝혀져 있다. 읍은 같은 피조물조차 제어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통해서 창조주의 보좌에 오르려는 시도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했다.”⁴¹⁾

41:12~34 리바이어탄으로 돌아가 보자. 그 몸집은 육중하고 그

40) (41:1~9) Andersen, *Job*, p. 289.

41) (41:10,11) Kline, “*Job*” p.488.

힘은 대단하다. 그 등은 거친 보호막이다. 그것은 골대를 씌울 수 없다. 그 입과 이빨은 압축기와 같다. 그 가죽과 비닐은 쇠붙이로 덮은 갑옷과 흡사하다. 시적인 표현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뭔가 그것을 건드릴 때 그 반응으로 재채기하는 모습과, 눈과 입과 콧구멍이 움직이는 모습을 두렵게 묘사하셨다. 리바이어탄의 힘은 가공할 만하며 그 몸은 단단하다. 그것은 아무 두려움이 없으며, 주위를 휘저으면서 강한 자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며, 일상적인 무기들은 그 등에 부딪치면 튕길 뿐이다. 그것이 진흙을 기어갈 때면 배에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붙었듯이 움푹 패인 자국이 남는다. 그것이 물을 헤쳐갈 때면 솔의 물이 끓듯이 물결이 요동하며 흰 거품을 낸다. 아무리 동양적인 과장법을 감안한다해도, 악어는 아무리 크다 해도 ‘모든 교만한 것의 왕’으로 불릴 만하지 못하다.⁴²⁾

여기에 언급된 들짐승과 아마도 공룡에 대한 묘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 준다. 그것들은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묘사하셨다. 따라서, 그분이 사슴과 까마귀 같은 무해한 짐승에서 시작해서 점차 규모가 커져서 짐승 중 가장 큰 땅의 베히모쓰와, 짐승의 왕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바다의 리바이어탄까지 묘사하신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4) 욥의 겸손한 반응(42:1~6)

42:1~6 욥은 압도당했다. 이제 충분했다! 그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시인했다.

42) (41:12~34) 리바이어탄은 바다에 사는 공룡이었을 수도 있다. 네 개의 큰 날개(다리, 혹은 물갈퀴-역주)와 아주 긴 목을 갖춘 파충류에 대한 이 묘시는 거대한 바다 생물로서 소멸된 것으로 믿어지는 파충류인 ‘장경룡’(plesiosaurus, 長頸龍)이었을 수도 있다. 욥기 41장의 묘시는 이 생물이나 그와 유사한 바다 공룡과 일치한다. 유명한 ‘네스호 괴물’에 대한 묘사도 ‘장경룡’과 일치한다.

이제 그는 여호와에 대해 들을 뿐 아니라 그 눈으로 직접 보았으므로 스스로를 원망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⁴³⁾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섭리와 주권에 대한 생생한 계시를 받았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뵈는 것과 다름없었던 것이다.

욥기 1:1에서 욥은 ‘흠이 없다’고 불리었다. 그런데 여기 욥기 마지막에서 그는 자신을 원망했다. 이것은 여러 세대 동안 하나님의 성도 중 뛰어난 자들이 경험해온 바이다.⁴⁴⁾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자기가 보기에는 미친해진다”라고 D. L. 무디는 표현했다.⁴⁵⁾

5. 결언 : 욥의 승리(43:7~17)

1) 욥의 친구들이 책망 받고 회복됨(42:7~9)

42:7~9 여호와께서는 이어서 그분을 잘못 제시한데 대해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들을⁴⁶⁾ 책망하셨다. 그들은 모든 고난이 죄의 징벌이라고 주장해왔다. 그것은 욥의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큰 번제(일곱 수송아지와 일곱 수양)를 드렸다.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

43) (42:1~6)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신현’(神顯)을 통해 욥에게 나타나셨을 수도 있다.

44) (42:1~6)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파산한 죄악성을 인식한 몇몇 성경 인물들을 꼽으면 모세(출 3:6), 이사야(사 6:5), 베드로(눅 5:8), 바울(행 9:4), 요한(계 1:17) 등이다.

45) (42:1~6) Moody, *Notes from My Bible*, p. 62.

46) (42:7~9) 욥에게 강론한 네 번제 사람인 엘리후가 책망 받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게다가 그는 이 책에서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의 조언은 아마도 정확했을 것이며, 친구들의 그릇된 조언과 하나님의 욥에 대한 엄위한 답변 사이의 ‘연결점’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앞서 언급한 엘리후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이론과도 부합한다.

으며, 그 결과 그들에 대한 심판이 철회되고 욥은 기쁘게 받으신 바 되었다.

2) 욥의 변성이 회복됨(42:10~17)

42:10~12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욥이 전에 당한 손실을 갑절로 회복시키시되 순서를 뒤바꾸어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나귀의 순으로 회복시키셨다.

42:13~17 욥은 또한 일곱 아들과 세 딸을 얻었는데, 이전의 자녀들이 아마도 천국에 있었을 것이기에 식구가 두 배로 늘어난 셈이었다. 욥은 140년을 더 생존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을 처음보다 더 축복하셨다. 그래서 욥은 나이 들고 기운이 차서 죽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서 욥은 사단이 지적했듯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몸의 질병으로 흉측스럽게 일그러진 욥이 회복된 후에 아리따пки 그지없는 딸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닐 수 없다(아버지들은 어여쁜 딸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들의 이름이 교훈적인데,⁴⁷⁾ 여미마는 ‘비둘기’를, 긋시아는 ‘향기로운 계수나무 껍질’을, 그리고 게렌합복은 ‘눈썹 화장’을⁴⁸⁾ 각각 뜻한다. 욥은 또한 그들에게 오라비와 함께 기업을 주었는데 이는 아마도 족장시대에는 일반적인 관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47) (42:13~17) 리도우트는 그 이름들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그것들은 욥의 시련의 열매이다. 비둘기는 슬픔의 새의 부드러움과 사랑을 말해준다. 계수나무는 욥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향기를 말해준다. 그리고 화장품은 욥의 고난의 결과의 아름다움을 말해준다. 사랑, 향기, 아름다움, 이들은 우리의 슬픔에서 생겨난다. 그것들처럼 아리따운 딸들은 없다”(Job, pp. 263,264).

48) (42:13~17) 고대 여성들은 입술보다 눈 화장을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한 솔로몬의 고백을 예시해준다!

6. 결론 : 욥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사실 인간의 고난의 신비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웨슬리 베이커의 표현을 보자.

“욥기의 종착점에 이르러서도 해답은 기록된바 없다. 논리적인 이성을 만족시킬 것이 없다.”⁴⁹⁾

그러나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첫째로, 욥의 고난은 그의 개인적인 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증거하셨다(1:8). 또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이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징벌하신다는 생각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셨다(42:8).

둘째로, 비록 욥이 자신이 범죄한 까닭에 징벌 받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의 시련이 그 마음에 도사린 교만과 자기정당화와 적의감을 드러내주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계시를 받고(42:1~6)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42:10) 연후에야 비로소 회복되었다.

욥기를 통해 우리가 고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이러하다.

- (1) 의인도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 (2)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다.
- (3)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막으로 두르신다.
- (4) 하나님은 질병이나 고난을 보내지 않으신다.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눅 13:6; 고후 12:7).
- (5) 사단은 악인(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과, 초자연적인 재난(하늘의 불)과, 날씨(대풍)와, 질병(욥의 악창)과 죽음 등의 영역을 어느 정도 다스린다.

49) (결론) Wesley C.Baker, More Than a Man Take: A Study of Job, p.128.

(6)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신자에게 그러한 재앙을 임하게 할 수 있다.

(7)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 종종 이렇게 고백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8)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사단이 아닌 여호와께로부터, 그분의 허락 아래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9)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항상 설명해주시지는 않는다.

(10) 고난은 인내를 갖게 한다.

(11)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찾아갈 때 우리는 판단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12) 그들을 방문하는 시간은 짧아야 한다.

(13) 인간의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위로할 수 있으시다.

(14) 욥기 끝에서 우리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심을 본다(약 5:11). 또한 우리는 때로 잘못된 적어도 이생에서 바로잡아진다는 것을 배운다.

(15) 욥의 고난 중의 인내는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해주었다.

(16) 욥의 인내는 사단이 거짓 고소자요 거짓말쟁이임을 증명해주었다.

(17) “인간은 그를 둘러싼 것들보다 위대하며, 그의 소유에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임하든 하나님은 예전처럼 진실로 찬양과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

(18) 우리는 예외를 허락지 않는 일방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19) 사단은 편재하지도, 전지 전능하지도 않다.

(20)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의롭고 선하시다.

성경 다른 곳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비침을 얻을 수 있다.

(1) 때로 고난은 삶 속의 판단 받지 않은 죄의 결과이다(고전 11:32).

(2) 고난은 인내, 오래 참음, 겸손 등의 영적인 은혜들을 개발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롬 5:3,4; 요 15:2).

(3) 고난은 주님께서 자신의 형상이 보다 온전히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신자의 삶에서 불순물이나 불결함을 제거해준다(사 1:25).

(4)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신 동일한 형태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준다(고후 1:4).

(5)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구주의 대속의 고난이 아닌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그분께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한다(빌 3:10).

(6) 고난은 하늘과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실물 교훈이 된다(살후 1:4~6). 그것은 하나님이 다만 그 베푸시는 은총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 때문에 사랑을 받으실 수 있음을 보여준다.

(7) 고난은 아들 됨의 보증인데, 이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이다(히 12:7~11).

(8) 고난은 성도들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한다(고후 1:9).

(9)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가까이 가게 한다(시 119:67).

(10) 고난은 장래 영광을 약속해 준다(롬 8:17,18).

(11)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결코 허락지 않

으신다(고전 10:13).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이다”(약 5:11).

참고 문헌

- Andersen, Francis I. *Job: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London: InterVarsity Press, 1976.
- Baker, Wesley C. *More Than a Man Can Take: A Study of Job*.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6.
- Delitzsch, F. "The Book of Job."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9,10. Repri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71.
- Green, William Henry. *The Argument of the Book of Job*. Reprint. Minneapolis, MN: James & Klock Christian Publishers, 1977.
- Ham, Ken. "What Happened to the Dinosaurs?" *Answers to Some of the Most Asked Questions on Creation/Evolution*. Sunnybank, Australia: Creation Science Foundation Ltd., 1986.
- Kelly, William. *Eleven Lectures on the Book of Job*. Reprint. Denver: Wilson Foundation, n.d.
- Kline, Meredith G. "Job." In *Wycliffe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2.
- Minn, H. R. *The Burden of this Unintelligible World of The Mystery of Suffering*. Auckland, New Zealand: Whitcombe & Tombs Limited, 1942.
- Morris, Henry. *The Remarkable Record of Job*.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0
- Ridout, Samuel. *The Book of Job: An Exposition*. Seventh Prin-

ting. Neptune, N J : Loizeaux Brothers, 1976.

St. John, Harold. *Job, The Lights and Shadows of Eternity*(pamphlet). New York: Bible Scholar, n.d.

Zockler, Otto. "The Book of Job." In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Vol.4.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Reprint, 1960.

시편

(시편 1편~106편)

Psalms

시편 서론

“진실로 나는 이 책을 영혼의 모든 부분의 해부도라 부르고 싶다. 왜냐 하면 이 거울에 투영되지 않은 마음의 파동을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슬픔, 곤경, 두려움, 의심, 소망, 고통, 혼돈, 감정 폭발 등 인간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이 여기에 아주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존 캘빈)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만일 당신이 성경 중 한 권만 갖고 황량한 섬에 갇히게 된다면 어떤 책을 택하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선택을 할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나, 부득불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시편을 택할 것 같다! 그 주제의 범위가 방대하고 그 열거된 삶의 경험들이 풍부하고 그 예배가 극히 장려하게 묘사되어 있기에 나는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풍성한 영의 양식과 찬양과 기도에 필요한 뛰어난 효력의 연료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서두의 인용문으로 보아 아마 캘빈도 시편을 택했을 것이다.

그레햄 스크로기도 아마 시편 쪽으로 표를 던졌을 텐데,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 시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한지! 창조, 섭리, 구속 등 모든 주제들에 우리의 영혼은 온통 사로잡히고 만다. 하늘과 땅, 바다와 창공, 생물과 무생물이 다 여호와의 찬양하도록 부름 받는다.”¹⁾

처음 시편을 상고할 때는 몇몇 시편들에서 생각의 일정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종종 좌절을 경험한다. 논리의 흐름이 때로는 산만하고 때로는 가려지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는 듯 보인다. 알버트 바네스와 C. S. 루이스의 다음 두 설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시편은 대부분이 서정시(抒情詩), 즉 하프나 수금 가락에 맞춰진 시로서, 악기에 맞춰 사용되며, 읽혀지기 위한 것이 아닌 노래로 불려지기 위한 것이다.”²⁾

“시편은 반드시 시로, 즉 모든 파격(破格)과 모든 형식과 과장법과 논리적이 아닌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지닌 서정시로 읽혀져야 한다.”³⁾

이러한 통찰은 전혀 새로운 이해의 창을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다.

2. 기자

시편은 종종 “다윗의 시”로 불리어지나 그러나 절반 정도만(73편) 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의 것으로 직접 돌려진다. 12편은 아삽의 것이며, 10편은 고라 자손의 것이며, 2편은 솔로몬, 그리고 모세, 에단, 허만, 에스라 등에게 1편씩 돌아간다. 49편, 혹은 약 3분의 1이 기자익명이다.

그러나 시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다윗의 생애와 관련하여 생각한다. 한 이름 없는 작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한다.

“다윗의 하프 소리가 여전히 우리 귓전에 울리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이새의 아들의 기도와 찬양을 이렇게 한테 모으셨다. 건축

1) (서론) Graham Scroggie, *Daily Notes on the Scripture Union*.

2) (서론) Albert Barnes, *Notes on the Book of Psalms*, 1:19.

3) (서론) C. S. Lewis, *Reflections on the Psalms*, p. 10.

은 음악이 응결된 것이라고 혹자는 표현했다. 시편은 마음의 음악이다. 때로는 애처롭고 슬프고, 때로는 어두움과 번뇌로 가득하고,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평온하고 행복한 다윗의 영혼의 음악으로서, 그 소리를 듣는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격려를 받도록 성령에 의해 보존된 것이다.”

3. 연대

시편은 모세 시대에서 에스라 시대까지(B.C. 1400~400) 약 1천년에 걸쳐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다윗에서 히스기야까지(B.C. 1000~700) 3백년 동안 기록되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은 구약 전체(물론 율기는 모세 이전 시대의 것일 수 있다)와 맞먹는 기간에 걸쳐 기록된 것이다.

*시편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기록들

본문	메시아에 관한 표현	성 취
2:7	하나님의 아들	마 3:17
8:2	자녀들에게 찬양 받으심	마 21:15,16
8:6	만유의 통치자	히 2:8
16:10	죽음에서 부활하심	마 28:7
22:1	하나님께 버림받으심	마 27:46
22:7,8	대적에게 조롱당하심	눅 23:35
22:16	손과 발에 못 박히심	요 20:27
22:18	옷을 제비뽑음	마 27:35,36
34:20	뼈가 꺾이지 않음	요 19:32,33,36
35:11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당하심	막 14:57
35:19	연고 없이 미움받으심	요 15:25
40:7,8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심	히 10:7

41:9	친구에게 배반당하심	눅 22:47
45:6	영원한 왕	히 1:8
68:18	하늘로 올리우심	행 1:9~11
69:9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요 2:17
69:21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우심	마 27:34
109:4	대적을 위해 기도하심	눅 23:34
109:8	배신자의 자리를 채움	행 1:20
110:1	대적 위에 다스리심	마 22:44
110:4	영원한 제사장	히 5:6
118:22	하나님의 건물의 모퉁이 돌	마 21:42
118:26	주의 이름으로 오심	마 21:9

4. 배경 및 주제

시편은 다섯 권으로 나뉘며, 각 권은 송영으로 마감된다. 제 5권의 송영은 시편 150편 전체이다.

F. W. 그랜트는 시편이 주제별로 모아져 있다고 주장한다.⁴⁾ 그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발견되는 다섯 권의 시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1)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지혜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 1~41편).
- (2) 백성들의 황폐함과 말일의 구속(시 42~72편).
- (3) 백성들을 다루시는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시 73~89편).
- (4) 실패한 첫 사람이 둘째 사람으로 대체됨과, 세상이 그 아래 세워짐(시 90~106).
- (5) 하나님과 인간이 마침내 함께 거하는 신적인(영적인-역주)

4) (서론) F. W. Grant, "Psalms," in *The Numerical Bible*, 3:10.

- (2) 메시아 시—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올 영광을 다룬 시.
- (3) 예언 혹은 천년통치 시—이스라엘의 미래의 환란과 그 후에 올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대망하는 시.
- (4) 회개의 시—시편 기자가 죄를 깊이 자복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시.
- (5) 저주의 시—그분의 백성의 대적에게 복수해 줄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

그밖에 많은 시들이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 혹은 공동적인 찬양과 경배를 표현하며, 또 어떤 시들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섭리를 해설한다.

시편의 해석

본 주석은 줄곧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별을 유지한다. 많은 시들, 특히 악인에게 저주를 부르짖는 시들은 율법 아래 사는 유대인에게 전적으로 해당되며 교회시대 신자들에게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교회 시대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권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 중요한 세대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편을 해석하는데 있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편을 주의 깊게 대하는 독자라면 누구나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사이에 긴밀한 유사점이 있음을 간파한다. 이 세 부류 모두 핍박과 고난과 슬픔과 증오와 버림받음과, 그리고 높임 됨과 영광과 환희를 경험했다. 본 주석은 그러한 유사점들을 종종 지적해 보일 것이다.

시편의 적용

모든 성경이 직접 교회를 ‘향해’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경이 교회를 ‘위해’ 유익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이 시편 기자의

경험 가운데 투영된 것을 보면서 시편에서 위로와 가르침과 책망과 권면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우선적으로 유대적인 성격을 지닌 가르침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유대인의 성전은 모든 신자로 구성되고 성령이 거하시느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편에 나오는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우는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 대해 말해준다.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말해준다.

이러한 열쇠들을 사용할 때 시편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것이 되며, 해석상의 많은 문제들이 사라진다.

시편의 부제들

시편에 붙은 부제들은 아주 오래된 것이며 아마 본문의 일부일 것이다. 그러나 그 중 많은 부제들의 의미와 목적이 매우 모호하며, 그런 까닭에 본서에서는 그 대부분에 대해 주해를 생략했다. 단순히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거듭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5. 개관

1. 제1권(시 1~41편)
2. 제2권(시 42~72편)
3. 제3권(시 73~89편)
4. 제4권(시 90~106편)
5. 제5권(시 107~150편)

시편 주해

1. 제1권(시 1~41편)

1편 : 행복한 삶

시편은 최악된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일반적인 환상을 제거하면서 시작한다. 날마다 세상은, 참되고 지속적인 만족은 육체의 정욕에 탐닉함으로 발견된다는 생각 속에 세뇌당하고 있다.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잡지 등 모든 것이 한결같이 만족에 이르는 길을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permissiveness)이라고 제안한다. 순결한 삶은 “칭교도적인 것”으로 거부된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있다.

1:1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삶의 방식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는 악인과 접촉할 때 그들과 연루되기를 피하며 그들의 죄와 비웃음을 묵인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서 자신을 완전히 격리시킨다는 뜻은 아니다. 그 대신 그는 그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증거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 즉 영원한 기쁨의 유일한 근원 되신 분께 인도하기 위해 힘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진정한 친구이지만, 악인과 한 부류는 아니다.

1:2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란 상상이

불가능하다. 그는 여호와와의 말씀에 대한 만족을 모르는 갈망을 소유한다. 그는 성경을 사랑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그것을 통해 그의 삶이 풍성해지며, 그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1:3 죄를 멀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강하고 건강하고 결실이 풍부한 나무의 모든 특질을 소유한다.

‘물가에 심겨졌다’⁵⁾—그는 양분과 생기를 끊임없이 공급받는다.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다—그는 성령의 은혜를 드러내며, 그 언행심사가 항상 때에 맞고 적절하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그의 영적인 삶은 주기적인 변화를 거둬들이지 않으며, 지속적인 내적인 소생함으로 특징지어진다. D. L. 무디의 표현대로 “여호와와의 모든 나무는 항상 푸르다.”⁶⁾

이러한 류의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물론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와 사귄 가운데 거하고, 따라서 그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매와 성공을 거두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자아의 지배를 받는 활동은 시간과 돈과 정력을 크게 낭비하게 한다.

1:4 악인은 그렇지 않다. 즉 그들은 잘 심겨지지도 못하고 결실하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고 형통하지도 못한다. 겨와 같이 그들은 알갱이나 실체가 결여되어 있다. 삶의 폭풍이 불어올 때 그들은 불안한 모습을 드러낸다. 강풍이 그들을 쫓아낸다.

1:5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물론 그들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의미는 그

5) (1:3) “심다”로 번역된 단어인 샤투(*shatul*)은 문자적으로 ‘ 옮겨 심다’를 뜻하며(Koehler-Baumgartner,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p. 1015), 이는 거듭난 사람에게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

6) (1:3) D. L. Moody, *Notes from My Bible*, p. 64.

들이 적절한 방어책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흔히 하는 말로, 그들은 설 다리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결코 의인의 회중에서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에서 영원히 쫓겨날 것이다.

1:6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그분은 그들의 삶을 아실 뿐 아니라 그들을 또한 인정하신다. 이 얼마나 죄악된 삶의 종말(영원한 죽음!)과 대조되는가!

그러나 사람의 운명이 그 삶의 방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결정적인 요소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거듭났느냐 하는 것이다. 의인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 그의 의로운 삶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새로운 생명의 결과이다. 악인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주 예수님께 무릎꿇기를 거절한 사람이다. 그는 구주를 소유하는 대신 자신의 죄를 그대로 소유하며, 그로써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인친다.

2편 : 변치 않는 선포

이 시를 제 위치에 두려면 대환란이 끝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재림과 통치 직전의 시점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때는 열왕과 열방의 거대한 연합체가 그리스도께서 세계통치권을 취하시는 것을 제지하려는 단호한 결의로 한데 뭉칠 것이다.⁷⁾

7) (2장 서론) 사도행전 4:25~28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시편 2편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시켰다. 물론 본문은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연합했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성취는 여전히 미래에 있다.

2:1~3 그러나 그런 연합체는 나약한 시도임을 드러낼 것이다. 시편 기사는 이렇게 물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들과 유대 백성이 그런 가능성 없는 모의를 꾀하는가? 어떻게 이방 열왕과 유대 방백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부음 받은 자의 권위에 반역하는데 성공하겠는가?”

2:4~6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어리석은 오만함을 비웃으실 것이다. 그분이 그들의 불끈 쥔 주먹과 광포한 부르짖음을 조롱하실 것이다. 그들의 자랑과 위협은 사자 앞에서 쥐가 짹짹거리는 격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침묵을 깨실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진노와 맹렬함에 놀라 그 대적이 두려워 떨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변개할 수 없는 그분의 결정을 듣게 될 것이다. 일단 하나님이 그러한 결정을 선포하시면 그 성취는 이미 이뤄진 것처럼 확실한 법이다.

2:7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를 더하실 것이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둘 사이의 대화에서 먼저 자기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드러낼 것이다. 이 선언은 적어도 네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33에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인용되었다. 또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태어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골 1:18). 그리고 끝으로, “오늘날”은 그리스도께서 왕위에 오르실 미래의 날을 가리킨다고 어떤 이들은 주장한다.

2:8 그러나 아버지께서도 덧붙여 말씀하셨다. “내게 구하라. 내

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우주적인 지배권을 약속하신 것이다. 온 땅이 그분의 권위에 복종할 것이며, 그분의 통치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다.

2:9 마침내, 하나님은 모든 복종치 않는 것과 거스르는 것을 다스릴 권위를 그리스도께 부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을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다른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와 천년통치 동안에 그러한 권위를 행사하실 것임을 알게 된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철장으로 다스리며 오만한 머리를 드는 일체의 반역을 징벌하실 것이다.

2:10~11 성령의 음성이 다시 들린다. 감동적인 구령의 호소를 통해서 그분은 열왕과 방백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길 것을 촉구하셨다. 그분을 거절하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지만, 그분을 믿는 것은 안전과 참된 행복을 가져온다.

2:12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를 믿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다. 반면에, 전능자를 불신하고 거역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불합리한 일이다.

3편 : 감정변화에 대한 연구

만일 우리가 감정이 쉬 변한다면 다윗 역시 그러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어두운 절망에서 고요한 확신으로 감정이 급변하고 있다.

3:1~2 처음에 다윗은 대적에게 압도되었다. 그들의 우월한 수로 인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많은 대적이 나를 에워쌌으니 어찌 할꼬?” 또한 그는 대적의 웅성대는 말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그의 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소망을 끊어버렸다고 비난했다.

2절은 ‘셀라’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로 끝난다.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71회 중 첫 번째 사례이므로 여기서 잠시 그 단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불행히도 여기서의 고찰은 설명이라기보다는 무지를 고백한 것이라 하겠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제안된 의미들을 열거하고 독자로 하여금 최선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뿐이다.

“셀라”는 목소리나 악기 연주소리를 크게 하는 것, 즉 크레센도(crescendo)를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은 “멈추어 그것을 생각해보라”라고 말하는 듯한, 막간 내지 휴식을 가리킬 수 있다.

“그것은 70인역에 ‘디아프살모스’로 옮겨졌는데, 그것은 크게 연주하는 것(‘포르테’)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간주(間奏)를 의미할 수도 있다(후자가 더 가능성 있다).”⁸⁾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다 카포’(DC) 같은 반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악장(樂章)의 종결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것은 경의 내지 존경의 표로 몸을 굽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3:3 이 시의 분위기가 3절에서 바뀐다. 다윗은 눈을 대적에게서 예호와께로 돌렸으며, 그것은 그의 온 전망을 변화시켰다. 즉시 그

8) (3:1,2)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3:2096.

는 여호와 안에서 자신이 방패와, 영광의 근원과, 그의 머리를 드시는 분을 소유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방패로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적의 살해로부터의 완전한 보호를 허락하셨다. 그의 영광으로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동안 그에게 쌓이던 수치와 비난과 비방 대신 영예와 위엄과 변호를 허락하셨다. 그의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서 여호와께서 그를 격려하고 높이셨다.

3:4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참되고 탁월한 생각에 감명되어 다윗은 기도로 여호와께 나아갔으며, 자신의 간구가 열납되고 응답되었다는 즉각적인 확신을 얻었다. 하나님은 그 성산에서, 즉 그분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응답하셨다.

3:5~6 여호와와의 보호를 확신한 까닭에 시편 기자는 누워 잠이 들었다. 그것은 극히 달콤한 잠이요, 삶의 극한 상황 중에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편안한 밤을 보낸 뒤에 다윗은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마음상태를 평정케 하신 이가 여호와시라는 의식과 함께 깨어났다. 이제 그는 천만인이 그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대적을 두려움 없이 대면할 용기를 얻었다!

3:7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난 밤 우리를 지탱해준 은혜가 오늘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지속적인 구원을 간구했다.

3:8 다윗에 관한 한, 여호와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이 그 놀라운 구원을 지속적으로 베푸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
하시기를 구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요동하는 감정은 이 시의 표제어를 다시 한
번 살펴봄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이 그 아들 암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의 대적의 우두머리는 그의 아들이었다! 대적이 이방 침략자
들이었어도 극히 곤란했을 터인데, 대적이 다윗의 반역한 아들의
지휘를 받고 있었기에 거기에 슬픔과 비통함이 더해졌다.

4편 : 은밀히 평온케 하시는 분

4:1 다윗은 여호와와의 존전에 들어가서 그분을 ‘내 의의 하나님’이
라고 불렀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
을 믿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사람들은 모욕하고 배척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며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아신다!

이어서 다윗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덧붙였다.
다비의 새 번역을 보면 “압박을 당하는 중에 주께서 나를 크게 하
셨다”라고 옮겨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압박이 목표물의 돌레나 부
피를 축소시킨다고 생각되나, 그러나 하나님은 압박을 사용하여 영
적인 확장을 가져오신다! 형통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별로 없으
나, 역경은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준다. 스펀전은 이렇게 말한바 있
다.

“나는 안락하고 편안한 때와 행복한 순간들에서 얻은 모든 은혜
가 보잘 것 없다는 것이 두렵다. 그러나 슬픔과 고통과 탄식에서 얻
은 은혜는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 내가 하는 일은 해머와 머루,
불과 철근을 의존하지 않는다! 고난이 내 집에서 가장 훌륭한 장비

이다.”⁹⁾

과거에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다윗은 다시 그의 말에 귀기울이시도록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생겼다.

4:2~3 다윗의 호소의 직접적인 배경은 2~5절에서 추론할 수 있다. 그는 거짓을 일삼는 자들에게 모욕과 비방을 받고 있었다. 그 비방자들은 그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그의 인격을 말살하고, 근거 없는 고소와 공공연한 거짓말로 그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격노할는지 묻는 다음, 하나님이 그의 편이므로 그를 넘어뜨리려는 그들의 노력이 소용없을 것이라고 일깨워주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그분의 눈동자”와도 같다(스 2:8). 그들의 이름은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사 49:16). 그분은 그들이 부를 때 들으시고 속히 그들을 도우러 일어나신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한 바울의 고백(롬 8:31)을 미리 들려주고 있다.

4:4 다윗의 대적은 그 뜨거운 분노를 식혀야 했다. 만일 분노하려면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해야 한다. “분내어(우리말 성경 난하주 참조-역주) 범죄치 말지어다”라는 문구는 에베소서 4:26에 인용되었는데, 거기서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권면하는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은 옳으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여기 시편 4편에서는 물론 악인을 대상으로, 분노를 과격함 행동으로 표출하지 말라고 경계한 것

9) (4:1) Charles H. Spurgeon, “*Choice Gleanings Calendar*”에서 인용.

이다. 그들은 고요한 밤에 자리에 누워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운 일의 어리석음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그들의 비방이 그치고 그들의 악한 계획이 무산될 것이다.

4:5 담대한 전도자의 추진력을 드러내며 다윗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에 실질적인 의를 더하라고 악인에게 권고했다. “공의를 제물로 삼으라”(Gelineau). 그러나 이 일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4:6 많은 사람들이 번영과 행복을 원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선(善)을 보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축복하는 자 없는 복을 구하고 하나님 없는 선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의 모든 혜택을 원하면서 그 혜택을 주시는 분은 원하지 않는다.

그들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취소서”라고 말하며 모든 선의 근원되신 분께로 직접 나아간다.

4:7 그가 여호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불경건한 자들이 곳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항아리에 포도주가 차고 넘칠 때 맛보는 기쁨을 훨씬 능가한다.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한 수확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만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Knox).

4:8 여호와의 충족성을 확신한 까닭에 시편 기자의 내적인 파문은 가라앉는다. 이제 그는 그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이심을 아는 가운데 평안히 누워 잠잘 수 있다. 이 8절로 된 짧은 본문에서,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가!

5편 : 아침 기도

5편의 부제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이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위와 비슷한 부제가 붙은 까닭에 우리는 다 시금, 많은 학자들이 이 부제를 영감된 본문의 일부로 믿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히브리어 원문을 좇은 어떤 성경 역본들에서는 이 부제들이 본문에 1절로 포함되어 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부제가 실은 바로 앞에 있는 시의 끝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가 않다.

이 부제들의 큰 문제는 그 뜻이 종종 모호하다는 것이다. 여기 5편에서는 그것이 악기의 반주를 가리키지만, 다른 데서는 그 시가 불러질 수 있는 또 다른 노랫가락을 가리킬 수 있다. 예를 들어 57편은 부제가 “멸하지 마소서”(set to do not destroy, 우리말 성경은 ‘믹담 시’라고 되어 있음-역주)인데, 이는 이 당시 잘 알려진 노래의 제목인 듯하다. 종종 그 의미가 모호해서 NKJV 역자들은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표기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시편 16편에서는 “다윗의 믹담”¹⁰⁾이라고 옮겨져 있다. 우리에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시편을 즐기는 것은 그 부제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5편은 다윗이 의인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대조적인 태도를 묵상하고 있는 아침 기도이다.

5:1~2 먼저 그는 그의 말을 들으실 뿐 아니라 그의 심사(묵상)도 감찰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 그것은 가치 있는 요청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처럼 쉽게 우리의 묵상을 해석하실 수 있다.

시편 기자는 그의 묵상을 들으실 뿐 아니라 그의 부르짖는 소리

10) (5장 서론) Koehler와 Barmgartner는 ‘믹담’은 ‘뒹다’는 뜻의 아카디아어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며, 따라서 “속죄의 시”를 의미할지 모른다고 추론한다.

도 들으시도록 하나님께 구한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한 말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목소리의 억양과 깊이와 열정을 암시한다.

여호와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은 그가 여호와와 더불어 누리는 다정하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드러낸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라는 표현에서 그는 참되신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유일한 대상임을 보여준다. “당신께, 오직 당신께.” 그 관계는 소유적인 것일 뿐 아니라 배타적인 것이었다.

5:3 다윗의 기도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것이었다. 매일 아침 여호와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매일 아침 이 하나님의 사람은 찬양과 기도의 단을 쌓고, 그날을 보내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 자신을 계시해주실 것을 기다렸다. 너무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다. “우리는 부두에 서서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쉬 지치는 까닭에 많은 응답들을 놓쳐버린다”라고 F. B. 메이어는 말했다.

5:4~6 다윗은 늘 대적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기억함으로써 그 기도의 확신이 견고해졌다. 신자들은 그 안에 은혜의 보좌에 이르는 길이 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형태의 악행을 기뻐할 수 없으시다. 악은 그의 밤손님이 될 수 없다. 오만한 자들은 이 왕 앞에 서는 은총을 입을 수 없다. 그분은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미워할 수 없으시다는 널리 퍼진 이야기를 무효화시키는 진리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거짓말쟁이를 징벌하고 모든 살인자와 속이는 자를 증오할 것을 요구한다.

5:7 죄악된 대적들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비 혹은 은혜의 풍성함을 좇아 여호와의 존전에 즉각 들어갔다. 그

는 모든 경건한 유대인이 그렇듯이 깊은 경외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했다. 실제 성전은 다윗이 죽은 후에 세워졌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막을 가리킴이 분명하다(삼상 1:9; 3:3; 삼하 22:7).

5:8 다윗은 대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에, 주변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그를 인도하고 그의 길을 선명히 밝혀줌으로써 그분의 의로 우심을 나타내달라고 여호와께 구했다.

5:9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종을 변호하고 악한 대적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한다. 그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의 내면 세계, 즉 그 생각과 동기는 완전히 부패하고 악하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썩은 냄새를 풍기며 언제든지 희생물을 삼키려 한다. 그들은 상습적이며 신실치 못한 아첨꾼들이다.

5:10 그들의 운명은 정당하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들의 악한 계략은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들의 무수한 불의가 그들을 쫓아낼 것을 요구한다. 그들의 으뜸 되는 죄는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이다.

5:11~12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대적을 감찰하고 계시는 한, 그분 편에 선 자들은 기뻐할 이유가 항상 있으며, 그분이 그들의 강하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심을 발견하고 기뻐 외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변치 않는 보호자 되신 그분을 높일 것이다! 그에 대해선 아무 의문이 없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며, 그를 방패로 보호하듯이 은혜로 두르실 것이다.

6편 : 이중의 환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나, 다윗은 대적의 극심한 압박으로 인해 슬픔이 가중되었다. 아마 그들은 그의 절망적인 상태를 고소한 듯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6:1 다윗은 자신의 질병을 어떤 죄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이해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종종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먼저 스쳐가곤 한다. 그리고 그런 진단은 때로 옳다. 어떤 질병은 신자의 삶에 자백되지 않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한다(고전 11:30).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발판으로(요 9:3; 11:4), 혹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롬 5:3), 혹은 죄를 예방하기 위해(고후 12:7), 혹은 과로(過勞)의 자연스런 결과로(빌 2:30), 혹은 연로함으로(전 12:3~6) 질병을 허락하신다.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첫 번째 반응은 우리의 삶에 자백되지 않은 죄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여호와께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구해야 한다. 그 다음엔 의사에게 찾아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아닌 여호와 자신을 의뢰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대하 16:12). 모든 치유는 기적적이든 일상적이든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만일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분이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고난이나 혹은 죽음을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필요한 은혜는 그것을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주어진다.

6:2~3 시편 기자는 육성으로, 아주 또렷또렷하게, 치유를 호소했다. 그는 힘이 소진했다. 그의 뼈가 계속해서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의 내면 세계 전체도-감정과 지성과 의지-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반응이 더딘 것처럼 보였다. 어느 때야 그분이

고난당하는 자를 은혜로이 고치시겠는가?

6:4 다윗은 무관심한 태도로 보이는데서 돌이켜 그의 생명을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여호와께 구했다. 그가 불행에서 건져달라고 구하는 유일한 근거는 여호와의 변함 없는 자비이다.

6:5 이어서 치유를 위한 특이한 논증, 즉 만일 다윗이 죽으면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가 살아있는 한 여호와를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잊혀질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논증은 육체에 관한 어느 정도 유효한데, 왜냐하면 죽은 몸은 기억도 찬양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과 혼에 관한 한, 이 논증은 구약 성도들이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 지녔던 제한된 지식을 반영한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계시 덕택에 이제 우리는, 신자는 죽을 때 훨씬 더 좋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위해 그 땅에 속한 몸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빌 1:23). 그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편히 쉰다(고후 5:8). 요컨대, 신자는 영혼이 잠자는 대기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존전에 의식적인 상태로 거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다윗은 그가 받은 빛을 훌륭히 사용하여 기도에 잘 적용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소유한 더 뛰어난 빛을 잘 사용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찬양과 간구가 올려질 수 있겠는가!

6:6~7 우리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그의 묘사를 통해 시편 기자가 처한 환란의 정도를 얼마간 헤아릴 수 있다. 그는 탄식과 신음 중에 탈진했다. 그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셨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푹 패였고, 그의 시력은 모든 대적의 압박 때문에 쇠

하였다. 그의 삶은 환란으로 넘쳤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보였다.

6:8~10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킨다. 은밀하고 기이한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의 탄식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그에게 생겼다. 그는 그런 확신에 힘을 얻어 대적에게 떠나가라고 명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벌하려고 일어나실 때 그들은 갑작스레 부끄러운 패배를 당할 것임을 알기에,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위협에 움츠러들지 않는다.

“오 주님, 주의 존전에서 보낸 한 시간이
우리 속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얼마나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져가는지!
얼마나 메마른 땅에 소나기와 같은 생기를 불어넣는지!
우리가 무릎꿇을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낮아지는 듯 하고
우리가 일어날 때 멀고 가까운 모든 것이
밝은 햇살 아래 당당하고 뚜렷이 모습을 드러내네.
우리가 무릎꿇을 때 얼마나 약한 존재이며
우리가 일어날 때 얼마나 능력이 충만한지!
이 일을 어찌 그릇 하리요.
우리 홀로 기도하면
강하지 못하고
때로 걱정에 압도되고
늘 나약하고 상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주와 더불어 기도하면
기쁨과 능력과 용기가 솟아나네.”
(리차드 체네빅스 트렌취).

7편 : 압박당하는 자의 부르짖음

히브리어 부제는 이 시를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노래한 다윗의 ‘식가온’”이라고 밝히고 있다. F. W. 그랜트는 ‘식가온’이란 단어가 기자가 열정적으로 몰입한 방랑시, 혹은 크고 열정적인 찬양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송시(訟詩)의 대상인 ‘구시’는 사울과 같은 지파 출신으로서 아마도 그의 부관 중 하나였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다윗의 사악한 대적이었다. NKJV는 ‘식가온’을 ‘묵상’이라고 옮겼다.

7:1~2 열정적인 호소를 통해 다윗은 추적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 찢긴 무력한 새끼 양처럼, 질뚝거리고 기진할 것이다.

7:3~5 구시는 아마도 사울의 생명을 해하려하고 그 물자를 약탈하려 한다는 죄목을 포함한 긴 죄목으로 다윗을 비난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그는 그런 죄를 범치 않았다. 그의 손은 약탈을 한 적이 없다. 그는 그렇게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 왕에게 보복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행했다면 그는 기꺼이 응분의 책임(쫓기고 사로잡히고 짓밟히고 죽임을 당함)을 지고자 했다.

7:6~8 그러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기에 그는 담대히 여호와께 진노로 일어나 대적을 징벌하고 무고한 자를 변호해 달라고 호소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큰 재판관을 집행하시는 모습을 묘사한다. 큰 무리가 법정에서 모였다. 여호와께서 재판 자리에 앉아 민족들을 재판하신다. 다윗이 구하는 바는, 다만 그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재판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교만한 요청처럼 들릴 수

있으나, 우리는 다윗이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퍼부어지는 고소들에 대해서만 의를 주장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7:9~11 9절은 하나님의 압제받는 백성들의 오랜 부르짖음을 보여준다. 모든 경건한 심령은 죄악의 다스림이 끝나고 의인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사이에, 인간의 생각과 동기를 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직한 자와, 매일 악인에게 분노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의 방패 혹은 보호자가 되신다.

7:12~13 하나님은 훌륭한 병기고가 있으시다. 악인이 회개치 않으면 그분이 칼을 갈고, 불붙은 화살을 쏘려고 활을 팽팽히 당기신다. 하나님의 모든 병기는 다 치명적이다!

7:14~916 결국 다윗은 그의 대적이 그 뿌린 것을 거둘 것을 확신했다. 그의 죄는 잉태, 임신, 출산, 죽음의 잘 알려진 과정을 따를 것이다. 대적은 먼저 시편 기자를 죽일 음모를 잉태한다. 곧이어 그는 악한 생각들을 임신한다. 그런 다음 모반 계락을 출산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되돌아간다. 그는 자기 자신의 덫에 걸리며,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꾸민 모든 잔해와 폭력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반전을 통해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온다.

7:17 이러한 공평한 정의로 인해 다윗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 여호와께 감사를 올리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8편 : 사람이 무엇이관대?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이 위대하시다. 그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가련할 정도로 미미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엄청난 영광과 존귀를 부여하셨다. 그 사실의 경이로움이 다윗으로 장려한 탄성을 발하게 한다.

8:1 여호와와 위엄은 사람이 볼 눈만 있다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자연과학의 모든 영역은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증거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 행성과 별과 무한한 우주공간은 하나님이 실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부분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왜곡된 인간들은 그 증거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양 훌훌 떨어버린다.

8:2 그러나 순전한 믿음을 지닌 어린아이들은 단순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부른다. 하나님이 그것을 즐기시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언하신 그대로이다(마 11:25).

우리가 ‘어린아이’를 문자 그대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주님의 제자들로 생각하든지 간에, 그들이 그분의 대적으로 인해 여호와를 위한 성채(城砦)를 이루고 있음이 여전히 사실이다. 그들은 종종 순전한 질문 내지 천진난만한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을 잠잠케 할 수 있다. 큰 풍선을 터뜨리는데 작은 편이면 죽하듯이, 이러한 어린양의 순수한 제자들은 종종 창조와 섭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는 자들의 오만한 허세를 땅에 떨어뜨린다!

8:3 어떤 과학 분야도 천문학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미미함을 명명백백하게 선언하지 못한다. 거리가 광년(光年, 빛의 1년 간 여행 거리)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사실이 문제의

요점을 잘 말해준다. 빛은 1초에 186,000마일을 달리고 1년은 3,150만 초이므로, 빛이 1년 간 달리는 거리만 해도 무려 6조(兆) 마일이 나 된다! 그러나 어떤 별들은 지구에서 수십 억 광년 떨어져 있다. 그런 수치를 천문학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밤하늘을 응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생각들에 사로잡힌다. 달과 별이 그분의 손가락으로 만든 작품이라니! 무수한 은하수와, 우주의 광활한 거리와, 행성들을 궤도상에 아주 정확히 붙들고 있는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한없이 움츠러든다.

8:4 상대적으로 말해서, 지구라는 행성은 우주의 한 점 티끌에 불과하다. 그러할진대 그 행성에 붙어있는 일개 인간은 어떠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개개의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심이 있으시다.

8:5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대로¹¹⁾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인간은 지상의 다른 피조물들은 소유하지 못한 능력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좋다고 선언되었으나, 인간 창조에 대한 평가는 “심히 좋다”였다.

8:6~8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인간은 각종 동물과 새와 물고기와 파충류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다. 인간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현재는 그러한 확실한 지배권을 누리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히 2:5~9). 개가 사람에게 짖고, 뱀이 사람을 물고, 새와 물고기가 사람의 손길을 벗어난다. 그것은, 죄가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오자 인간은 그보다 하

11) (8:5)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다. NKJV 각주를 보라.

등한 피조물에 대한 절대 지배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분은 인간이 정녕 지배권을 소유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으며, 아무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만물이 지금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인간의 지배권을 마침내 회복시키실 분)을 바라본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서 인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 쓰고 계신다. 언젠가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스리기 위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천년왕국에서, 첫째 아담에 의해 상실된 지배권이 마지막 아담에 의해 회복될 것이다.

8:9 이어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새로운 감사로 함께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편 : 보응의 날

만일 갈대아 역분의 비문(碑文)이 정확하다면, 다윗은 여기서 골리앗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승리를 뛰어넘어 그분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시는 히브리어 철자의 전반부에 기초한 아크로스틱(acrostic, 각 행의 머릿자 등을 모으면 말이 되는 유희시, 일종의 글자 수수께끼-역주)이다.¹²⁾

9:1~2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행

12) (9장 서론) 시편 10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뒷 부분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어떤 이들은 9편과 10편이 본래 하나였다고 믿는다.

사에 대해 감탄한다. 여기서 그는 그분의 창조나 구속 행위에 대해서보다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파하시느 그분의 놀라운 공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다윗은 그 자신이나 인간의 무기나 기술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 여호와께 대한 그의 사랑과 헌신을 볼 때 우리는 종종 얼마나 냉랭하고 무감각한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9:3~4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웅장한 싸움에 대해 회상한다. 물론 그의 진술의 완전한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실현될 것이다. 그분을 보기만 해도 대적은 돌이켜 달아난다. 그들은 일대혼란에 빠질 것이며, 달아나기도 못한 채 망할 것이다. 의인은 그 날에 영광스런 보좌에 앉으신 왕에 의해 변호 받을 것이다. 마침내 세상은 의로운 심판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것이다.

9:5~6 이방 압제자들은 신랄히 책망 받을 것이며,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은 영원히 잊혀질 것이다. 그들은 그 과시하던 문명의 폐허 속에 묻힐 것이다. 지금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도시들이 완전히 뿌리뽑힐 것이다. 워싱턴, 모스크바, 오타와 등등의 이름들이 영원히 잊혀질 것이다.

9:7~8 대적은 모두 사라질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항상 그러하셨듯이 의롭고 신실하신 분으로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그분은 찬란한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셔서 절대적인 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서 공평한 몫을 얻을 것이다. 바울은 아덴의 설교에서 이 8절 전반부를 사용하여, 그 미래의 심판의 집행자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설명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행 17:30,31).

9:9~10 세상의 압제받는 모든 무리가 그분이 그들의 높은 망대요 견고한 피난처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분을 아는 모든 자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의 믿는 바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음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9:11~12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찬양을 부를 뿐 아니라,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을 알리고, 그분의 백성의 흘린 피를 보수하시는 그분이 그들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으신다(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드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방 백성에 대한 선교적 역할을 성취할 것이다.

9:13~14 그러나 천년왕국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13,14절은 절망적인 현재 상황으로 돌아오게 한다! 다윗은 여전히 대적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며, 그렇게 되면 시온의 문에 다시금 그의 즐거운 찬양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9:15 그런 다음 그는 다시 한번, 유대인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유대인을 잡기 위해 판 구덩이에 빠지고 하나님의 옛 백성을 잡기 위해 놓은 그물에 걸려들 때로 건너뛴다. 그것은 역사의 반복이요,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세운 교수대에 스스로 달린 사건의 또 하나의 예이다.

9:16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자신을, 악인으로 그 뿌린 것을 거두

게 하심으로 상황을 공평하게 만드시는 분으로 계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셀라”의 의미는 확실치 않다. 그것은 강조의 뜻일 수 있다(3편 주해 참조).

9:17 “악인이 음부(히브리어로 ‘스올’)로 돌아감이어”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 단어를 육체에서 분리된 상태 혹은 무덤에 국한시키지 않았다. 여기서의 문맥은 지옥 자체를 의미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의 운명이다.

9:18 궁핍한 자가 항상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동일하게 확실하다. 낙스가 옮긴 대로, “고난당하는 자의 인내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천년왕국 때에 성취될 것이다.

9:19~20 장차 올 의의 통치에 대한 다윗의 생각은 그 날의 도래를 바라는 갈망을 불러일으킨다. 여호와께서 인간의 계획을 파하고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구하는 기도가 흘러나온다. 전능한 재판장 앞에 설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두려움 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10편 : 공적(公敵) 제1호

여기서 시편 기자는 으름 되는 악을 묘사하기 위해 히브리어 철자 후반부에 기초한 아크로스틱을 사용한다.¹³⁾ 이 “공적(公敵) 제1호”는 죄의 화신(化身)처럼 보이기에 우리는 자연 그를 7년 환란 초기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과 연결시키게 된다. 그 불법의 사람은 신(神)이나 숭배의 대상으로 불리는 모든 것을 거슬러 스스로를 그 위에 높일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의 하나님 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

13) (10장 서론) 앞의 해설을 보라.

님이라고 선언할 것이다(살후 2:3,4). 그를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경제적인 제재와 핍박과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10:1)

10:1 이 시의 서두에서 우리는 조만간 우리 모두가 던지게 될 질문을 대하게 된다. 무죄한 자가 고난당하고 악인이 아무 거칠 것 없이 다스리는데 왜 여호와께서는 잠잠히 계시는가? 이와 같은 의문이,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행동을 취하게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믿음을 갖도록 북돋워주고, 그리고 우리로 끝까지 견디도록 도전을 준다.

압제받는 자의 기도(10:2)

10:2 악인은 차마 볼 수 없는 거만한 태도로 아무 힘없는 성도들을 사냥한다. 의인을 해하려고 베풀어둔 그 운명에 그들 스스로 빠지는 것보다 무엇이 더 그들에게 적합한 운명이겠는가?

대적의 실체(10:3~11)

10:3~4 그 모든 계획하는 바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는 부를 쌓고자 미친 듯이 애씀으로 여호와를 모독하고 멸시하는데, 이는 금을 숭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삶의 방식은 자기만족적이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분이 존재하시지 않는 양 살아간다.

10:5~6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되어 가는 듯하다. 어떤 면에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늘 붙어 다니는 환란을 피해간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지침들은 악인에게는 너무 높다. 그는 영적인 진리나 거룩한 원리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는 그의 대적을

철저히 경멸하며, 자신의 안전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시는 동안 환란 없는 삶을 누릴 것이다.

10:7~8 그가 머무는 곳마다 대기는 죄악으로 얼룩질 것이 상상된다. 그는 어떤 이를 속이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협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건설적인 얘기는 결코 하지 않는다. 항상 범죄와 파괴에 대한 얘기뿐이다. 다른 강도들처럼 그는 무죄한 자를 덮치려고 아무 경비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기다린다. 무죄한 자가 지나갈 때 그는 그를 기습한다. 그는 항상 의심치 않는 자와 힘없는 자를 찾아다닌다.

10:9~11 굴속의 사자처럼 그는 먹이를 덮칠 준비가 되어 있다. 사냥꾼처럼 그는 공갈과 강압과 뇌물과 종속과 혹은 죽음으로 희생물을 그의 덮으로 유인한다. 그 불행한 희생물은 그 죄악의 엄청난 힘에 압도당한다. 절망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셨으며, 그분이 다른 곳을 살피시고 그분의 자녀의 위경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느낀다.

총성된 자의 부르짖음(10:12~18)

10:12~13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들어 압제자를 심판하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취하실 시간이다. 왜 악의 세력이 그 불경건과 불신앙 중에 계속 머물도록 허락되었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회계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허용되어야 했는가?

10:14~15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그분은 모든 불의하고 패역한 행동을 주의 깊게 계산하시며, 따라서 장차 올 날에 완전히 갚을 수 있으시다. 그러므로 외로운 자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자신을 고아의 친구로 증명하지 않으셨던가? 여호와께서 충성된 자의 부르짖음에 귀기울이시되, 악인의 팔을 꺾고 그 마지막 흔적까지 징벌할 때까지 그의 악함을 드러내심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10:16 이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신원(伸冤)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때에 악하고 압제하는 열방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멸망할 것이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사 41:11~13).

10:17~18 우리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다. 그분은 모든 시련에 필요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며,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들을 굶어 살피사 그들에게 공의가 베풀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도, 세상에 속한 자가 더 이상 가난하고 아무 힘없는 자를 압제하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11편 : 믿을 수 있는데 왜 도피하는가?

시편 11편은 암울한 시대를 위한 좋은 처방책이다. 전쟁, 폭력, 범죄, 부패, 정치적인 불안 등 모든 상황이 암담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삶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다윗이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다윗이 앞문을 열자 한 당황한 방문객이 불쑥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일그러졌고, 그 눈은 흥분으로 빛났고, 그 입술은 떨고 있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재앙이 임박했으니 산으로 도망하라고 다윗에게 일렀다. 이 시는 비관적인 방문객의 절망과 낙심을 불러일으키는 조언에 대한 다윗의 답변이다.

11:1~3 다윗은 먼저 여호와를 그의 피난처로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을 고백한다. “너희가 믿을 수 있는데 왜 도피하는가?” 그런 다음 그는 그의 평안을 방해하려는 자들을 꾸짖는다. 1절 후반절에서 3절까지는 부정적인 조언자의 말을 담고 있음을 주목하라. 그것은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로 시작된다. 그는 사실상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셈이다. “너는 작은 새처럼 무가치하고 아무 힘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도망가는 거야. 행악자들이 이제 상황을 장악했어. 그들은 잔뜩 무장한 채 성실하고 법대로 사는 시민들을 썩 죽이려고 해. 법과 질서가 사라졌고 사회의 기강(터)이 흔들리고 있어. 상황이 그러하니 너처럼 의로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니?”

11:4~6 무슨 소망이냐구? 물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며, 아무것도 그분의 계획의 성취를 막을 수 없다! 지상의 나라들은 일어났다 망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서 요동하지도 않고 요동할 수도 없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안정과 평온을 훼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인생의 행사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분은 인생의 행사를 감찰하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 평가를 내리신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지만 강포를 행하는 자들은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심판의 폭우를 내리실 것인데, 그 비는 불과 유황을 쏟아 부을 것이며 그 바람은 태워 죽이는 열기일 것이다.

11:7 하나님은 강포한 자는 미워하시고 의인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의를 사랑하신다. 정직한 자의 궁극적인 보상은 하나님 존전에 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의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인해 당황할 필요가 없다. 곤란한 상황의 물결이 때로는 우리를 거스르는 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목적의 물결이 결국 승리하고 말 것이다.

“그분이 모든 곳을 다스리시며
만물이 그분 아래 섬기네.
그분의 모든 행사는 순전한 축복이요
그분의 길은 한 점 흠 없는 빛이네.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나
땅과 하늘은 증거하네.
하나님이 보좌에 주권자로 앉아 계서
만물을 놀랍게 다스린다고.”(저자 익명).

12편 :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12:1 인간 가운데, 특히 그 언어에 있어서, 진실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까닭에 1절의 기도가 드러진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러 오소서. 경건성이 죽었고, 비열한 세상에서 진실한 마음이 희귀해졌나이다”(Knox).

12:2 이어서 충실치 못한 세대에 대해 세 가지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한다.

거짓-그들은 노골적인 형태의 속임만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 반(半)진실, 과장, 약속파기 등의 잘못을 범한다.

아침-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진실치 못한 찬사를 늘어놓는다. 칭찬과 아침은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 그가 소유치 않은 것으로 알려진 미덕을 돌리는 것은 아침이다. 그리고 아침은 대개 간계한 혹은 이기적인 동기가 깔려있다.

두 마음-그들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 마키아벨리(Machiavelli, 이탈리아의 외교가, 정치가. 권모술수 정책을 제창-역주)처럼 그들은 이중성과 음모를 행한다.

12:3~4 하나님의 참 성도들의 오랜 바램은, 여호와께서 친히 불경건한 자의 아침하는 입술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전략이 행동할 것이며,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신들은 원하는 바를 말할 완전한 자유가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의 입술을 그분이 무력화시키시는 것이다.

12:5~6 가난하고 곤고한 자의 신음에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일어나 “그들이 갈급해 하는 구원을 허락하겠다”(Gelineau)고 약속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흠 도가니에 일곱 번 연단한 은 같이, 즉 가장 정련된 은 같이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속임이나 아침이나 이중적인 의미나 오류가 없다. 그것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12:7 그러기에 신자는 이 세대에서 보호받기 위해(그 공격만이 아니라 일체의 형태의 타협이나 동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본능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이킨다.

12:8 마지막 구절은 “이 세대”, 즉 끊임없이 배회하며 죄악을 높이고 미덕을 조롱하는 악한 세대에 대한 묘사이다. 그것은 잠언 30:11~14에 묘사된 그 세대이다.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세대)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세대)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세대)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세대)가 있느니라.”

13편 : 어느 때까지니이까?

“어느 때까지니이까?”라는 표현이 네 번 다윗의 입술로부터 나온다. 대적(사울로 추측)에게 맹렬히 쫓기는 중에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수레가 더디 오는지 의아해했다. 그를 압박하는 다음 네 가지 두려운 짐에서 벗어나게 할 도움이 과연 오지 않는 것인가?

그는 하나님이 그를 잊으셨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와 은총에서 끊겨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날마다 영혼의 깊은 좌절을 경험했다.

그는 늘 패배자의 입장에 서는 부끄러움을 당했다.

13:1~4 하나님은 다윗의 곤경을 주목하고 두 가지 재난을 피하도록 속히 도움을 보내셔야 한다. 첫째는 다윗의 죽음이며, 둘째는 그의 대적의 자궁하는 지결임이다. 만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눈에 생기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눈은 곧 영원히 죽음 속에 잠길 것이다. 만일 여호와께서 물결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면 대적이 곧 이겼다고, 다윗이 완전히 패했다고 자랑할 것이다.

13:5~6 이제 결과에 대해선 아무 의문이 없다. 시편 기자는 응

답이 오고 있다고 믿는다.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의뢰하는 까닭에 그는 자신이 살아서 대적에게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그는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해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다.

이 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시험과도 같다. 그 시험들은 한숨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감한다!

14편 : 어리석은 자의 신조(信條)

14:1 어리석은 자의 신조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원치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것은 불합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첫째로, 그것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전지성)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이 내 지식의 한계를 넘어 존재하기란 불가능하다.” 둘째로, 그런 태도는 자신이 어디에나 존재한다(편재성)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한번에,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며,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중에 우주의 어느 곳에 존재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한 입장은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경이로움, 즉 우주의 광활함, 행성의 놀라우리만큼 정확한 운동, 인체의 난해한 구성, 인간의 뇌의 경이로운 구조, 물과 흙의 놀라운 특성 등등의 경이로움을 무시해버린다.

예를 들어, 생명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지구의 성격을 살펴 보라. 헨리 보쉬는 하나님의 주의 깊고 놀라운 계획의 실례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구는 시간당 약 1천 마일의 속도로 지축을 중심으로 돈다. 만일 시간당 100마일로 돈다면 낮과 밤이 열 배 길어질 것이며, 지구는 불탔다 얼었다를 반복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식물이 살 수 없다!

만일 지구가 달처럼 작다면, 중력이 너무 약해서 인간의 필요에

충분한 대기를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지구가 목성이나 토성이나 천왕성처럼 크다면 중력이 너무 커서 인간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일 지구가 금성처럼 태양에 가까이 있다면 아무리 더운 지역에서도 매일 밤 눈과 얼음을 보게 될 것이다. 만일 바다가 현재의 면적의 절반이라면 강우량이 현재의 4분의 1로 감소될 것이다. 만일 바다의 면적이 8분의 1 늘어난다면 연중 강우량은 4배 증가될 것이고, 지구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광활한 습지가 될 것이다.

물은 화씨 32도(섭씨 0도)에서 동결된다. 그러나 만일 바다가 그 온도에서 언다면 재앙이 미칠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극지방의 눈이 녹는 양이 균형을 잃을 것이며, 얼음이 수세기 동안 쌓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바다에 소금을 넣어 그 빙점을 달리 정하신 것이다.”¹⁴⁾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은 너무 희박해서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무신론자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것은 그들의 지성 지수(IQ)가 아닌 도덕지수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고 가증히 행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신조와 품행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낮을수록 그 도덕성도 낮아지기 쉽다. 원인으로서든 결과로서든, 무신론과 영지주의는 타락한 삶과 관계가 있다. 바네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은 흔히 죄악된 삶으로 이끄는 욕망에 기초하거나, 아니면 타락한 중에 계속 머물면서 장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보려는 욕망을 지닌 채 사실상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 의해 옹호된다.”¹⁵⁾

14) (14:1) Henry Bosch, *Our Daily Bread*.

14:2~3 여호와께서 아담의 자손 중에 하나님을 찾으며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늘에서 굽어 살피셨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인간은 본질과 실제행위에 있어서 죄인이다. 만일 홀로 내버려둔다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이다.

바울은 죄가 온 인류와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기 위해 로마서 3:10~12에서 이 시의 처음 세 구절을 인용한다. 여기 이 시에서, 물론 그 묘사가 확실히 사실이긴 하지만, 다윗은 온 인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대조적으로 공공연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불경건한 자들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나간 자들이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도 발견치 못하셨다.

14:4 그들의 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고 죄를 징벌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마치 떡 먹는 일처럼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일인 양 신 자들을 삼키기 않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위하심을 안다면 기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14:5~6 여호와께서 무죄한 자 편에 서실 때 불의한 자는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은 늘 가난한 자들의 단순한 믿음을 조롱했으나, 이제는 그들이 부인하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피난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14:7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시온에서 오실 것이

15) (14:1) Barnes, 'Psalms', 1:114.

다. 그리스도의 유대인 성도들이 유일한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열방 중에 포로된 데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건짐 받을 때 이스라엘의 기쁨은 한량없을 것이다.

15편 :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15:1 하나님이 그 친구로 택하시는 자가 누구인가가 15편의 주제이다. 이 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 자격은 거듭나는 것이다. 새로운 출생 없이는 아무도 그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 없다. 그 위로부터 나는 출생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경험되며, 인간 편의 공로와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다.

이 시 자체로 보면, 구원이 인간의 의로운 성품 내지 고상한 행위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성경과 관련해서 보면, 단지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은 거룩한 삶을 가져오는 믿음임을 의미할 뿐이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처럼, 다윗은 여기서, 주님에 대한 참 믿음은 이 시에 묘사된 그런 선한 행실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시는 시온 시민의 모든 미덕을 망라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타난 묘사는 전체적인 특징은 암시해주나 전체를 다 열거하지는 않는다.

15:2 무엇보다도 시온 시민은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한 삶은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이다. 그는 온전하고, 원숙하고, 균형 잡혀 있다.

둘째로, 시온 시민은 옳은 것을 행한다. 그는 더럽지 않은 양심을 잘 관리한다. 그는 악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무르기보다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고자 한다.

이 사람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믿을 수 있다. 그는 거짓을 말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그의 말은 그를 구속(拘束)한다. 그의 ‘예’는 ‘예’이고, 그의 ‘아니오’는 ‘아니오’이다.

15:3 그는 그 혀로 참소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가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을 볼 수 없다. 비방과 추한 말은 결코 그의 입술에서 흘러 나오지 않는다. 그는 남을 해치기보다 덕을 끼치기 위해 그 입술을 훈련시킨다!

그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다만 그가 바라는 것은 도와주고, 격려하고, 가르쳐주는 것뿐이다. 그의 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을 때면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중단시키고, 다른 이에게 얘기가 전해지지 않도록 당부한다.

15:4 그의 눈에는 도덕적인 구별이 흐릿하지 않다. 그는 죄와 의, 어두움과 빛, 악과 선을 분별한다. 그는, 그의 불경건함을 진솔하게 지적한다는 점에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반면에, 그는 믿음의 권속 안의 모든 자들과, 마음을 열고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는 일단 약속을 하면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올지라도 그것을 지킨다. 예를 들어 어떤 신자가 그의 집을 85,000달러에 팔기로 약속했다고 하자.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집을 아주 큰 회사에 90,000달러에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첫 매입자와 약속을 했으며, 이에 그와 계약을 맺었다.

15:5 그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가족의 다른 일원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모세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취할 수 있었으나(신 23:19,20), 동료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출 22:25; 레 25:35~37).

만일 율법 아래 사는 유대인이 그 원리의 지배를 받았다면, 은혜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더욱 그러하겠는가!

끝으로, 의인은 무죄한 자에게 뇌물을 취하지 않는다. 그는 공의를 왜곡하는 것을 미워하며, “모든 사람이 제 값이 있다”는 옛 속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이 시간과 영원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특징을 상고해 보라. 그런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존전에서 평안히 머물 수 없다!

16편 :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시편 16편을 이해하는 열쇠는 사도행전 2:25~28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서 베드로는 8~11절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열쇠로 문을 연 다음, 우리의 놀라운 구주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아버지께 직접 아뢰는 기도소리를 들어보자.

16:1~2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피난처 되신 분께 보호를 호소하신다. 30년 간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구주께서는 하나님을 주(主)로 인정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다함 없는 열정으로 즐거이 고백하셨다. “주를 떠나서는 나의 선함이 없다”(우리말 성경에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되어 있음-역주)는 말은 구주의 무죄성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충족을 발견하셨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증거하는 말이다. 이 증거는 시편 73:25의 고백과 비교할 수 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16:3 그러나 메시아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다고 해서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들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요일 5:1,2). 주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를, 그 안에서 모든 기쁨을 발견하는 땅의 존귀한 백성으로 여기신다. 어느 연로한 하나님의 성도의 유사한 고백을 들어보자.

“인생을 시작한 첫 날부터 이 시간까지, 나는 최악된 죽을 인생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존귀를 입어왔다. 나의 벗들은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내게 친절을 베풀어왔다.”¹⁶⁾

16:4 하나님의 참 경배자들과 현저히 대조를 이루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그 참가자의 삶에 슬픔의 흔적을 남긴다. 아마 우상숭배자들에게 임하는 최대의 심판 중 하나는 그들이 그 숭배 대상과 같아진다는 것이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드님은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奠祭)에 참여하는 것을 일절 거부하신다. 사실 그분은 그들에 대해, 혹은 그들의 이교도 의식에 대해 관용을 암시하는 태도로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거부하신다.

16:5~6 그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산업(분깃)과 잔은 여호와이시다. 그분의 모든 부요와 즐거움은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분의 기업의 경계를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지혜롭고 놀랍게 자신의 삶을 세세히 계획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그것을, 전망이 뛰어난 아름다운 곳과, 아름다운 것들로만 이뤄진 기업에 비유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해주시는데 대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혹 우리가 불평을 하

16) (16:3) 자료를 구할 수 없다.

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16:7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삶의 모든 순간에 지도와 교훈을 베풀어주신 신실하심으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한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라 잠을 못 이루는 시간에도 그분의 마음이 그분을 교훈했다. 시간은 낭비됨 없이 그분을 위로하고 축복하는데 드러졌다. 그리스도의 이같은 경험은 얼마나 종종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되풀이되는지!

“빛의 아들들 가운데 많은 훌륭한 시인들이
그 아름다운 작품에 대해 고백하는 말,
‘나는 밤에 그것을 배웠다네.’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많은 아름다운 찬송이 처음 흘러나온 곳은,
어두운 방 그늘이네.” (저자 익명).

시편 16편 나머지 구절들은 오순절 날 베드로에 의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인용되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옵음이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씌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 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행 2:25~33).

그러면 베드로 한 말의 요지를 살펴보자(베드로의 해설이 없었다면 이 시의 대부분 요지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1)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25절). 다윗은 그 몸이 지금도 예루살렘 무덤에 있으므로 그 자신에 대해 말했을 리가 없다.

(2) 선지자로서 시편기자는 그분의 보좌에서 다스릴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실 것을 알았다.

(3)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혼을 음부에 머물게 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썩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리라고 예언했다.

(4) 하나님은 실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으며, 오순절 날 일어난 일은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얻으신 결과였다.

이상의 서론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시의 마지막 구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6:8 먼저, 메시아께서는 자신이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있다고 일절 모호함 없이 고백하신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삶의 목적이었다. 메시아께서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행치 않으셨다. 모든 일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행해졌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성경에서 “우편”(오른손)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능력(시 89:13), 안전(시 20:6), 존귀(시 45:9; 110:1), 기쁨(시 16:11), 은총(시 80:17), 지원(시 18:35).

여기서는 안전과 안정을 가리킨다.

16:9~10 하나님의 변함 없는 돌보심과 보호를 확신하며 구주께서는 미래를 확신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분의 마음은 기뻐했다. 그분의 영(우리말 성경 난하주 참조-역주)은 즐거워했고 그분의 육체는 안전했다.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거나 자신의 육체로 씌움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음부(스올)에 대한 언급은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은 구약에서 무덤이나 “저승”(netherworld)이나 혹은 육체를 떠난 상태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그것은 헬리어 “하데스”(지옥)와 동일하다. 음부는 지리적인 위치가 아닌 죽은 자의 ‘상태’-인격이 육체에 분리된 상태-를 가리켰다.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죽은 자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반면에, 신약의 동의어인 ‘하데스’는 ‘불신자’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음부는 매우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단어였다. 그것은 죽음 후의 삶에 대해 명확히 표현해주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정확한 지식보다는 불확실함을 더 표현해주었다.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드러내셨다(딤후 1:10). 오늘날 우리는 불신자가 죽으면 그의 영과 혼은 하데스라 불리는 고통의 상태에 처하고(눅 16:23) 그 몸은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자의 영과 혼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올라가고(고후 5:8; 빌 1:23) 그 땅에 속한 몸은 무덤에 들어간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라고 구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육체가 분리된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으실 것을 그분이 미리 알고 계셨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분은 비록 음부

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곳에 머물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부패 과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다. 기적적인 보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몸은 사흘동안 썩음에서 보존된 것이다.

16:11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의 복스런 주님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을 자신에게 보여주실 것을 온전히 확신하셨다. 그 길은 궁극적으로 그분을 하늘로, 하나님 존전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거기서 그분은 기쁨의 충만과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할 것이다.

17편 : 영구적인 수수께끼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그 대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양심은 그 징벌이 정당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범한 잘못과 무관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러한 고난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의를 위한 고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구적인 수수께끼이다.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가져갔다. 거기서 그는 공정한 재판을 확신했다.

때로 다윗은 자아의 뒷에 걸려 스스로를 변호하는 듯 보인다. 그는 자신의 의와 정직과 순종을 큰 소리로 항변한다. 그것은 마치 그가 죄 없는 완전의 상태에 도달한 듯 들린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이 아닌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만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대적들이 현재 자신에게 드러내고 있는 적의감을 자극할 만한 아무 잘못도 자신이 범치 않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다윗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다.

17:1~2 “여호와여, 내 송사는 정당한 것이오니 들어주시기를 원 하나이다. 나는 지금 부당하게 핍박을 받고 있사오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는 아무 속임이나 진실의 숨김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뢰겠나이다. 당신의 법정 앞에서 나는 사면(赦免)을 원하나이다. 당신의 눈으로 일의 모든 측면을 살피신 뒤에 공평하게 결정을 내리소서.”

17:3~5 “만일 당신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려거든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나를 시험하소서. 아무리 철저히 살필지라도 당신은 저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힐 만한 아무 유효한 이유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는 정직히, 진실을 말하고 있나이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악함이 관계되는 한, 나는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강포를 멀리할 수 있었나이다.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닌 당신의 명령과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나는 당신께 순종하는 길을 행해왔나이다. 내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였으니, 곧 나는 그렇게 할 기회가 많았으나 내 대적에게 강포를 행치 않았나이다.”

17:6~7 “이제 내 문제를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당신이 듣고 응답하실 줄 믿고 당신께 공정한 심판을 호소하나이다. 당신은 대적에게서 피할 곳을 찾는 자들을 오른 손으로 건지시는 구원자시니이다. 내가 이제 당신께 달려가오니 당신의 기이한 인자를 놀라운 방법으로 내게 보이소서.”

17:8~12 “나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소서-‘나는 눈동자가 어떻게 속눈썹과 눈꺼풀과 눈썹과 눈구멍과 그리고 신속히 올라가

는 손에 의해 보호를 받는지 생각해봅니다'(F. B. 메이어). 당신의 날개의 보호와 사랑의 그늘 아래 나를 숨기소서. 그러면 내가 내 모든 소유와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 하는 악인들에게서 안전하리이다. 당신이 잘 아시듯이 그들의 기름진 마음은 동정을 베풀 줄 모르며 그들의 입은 지금 나를 해하려는 일을 오만스레 떠벌리고 있나이다. 그들은 몰래 나를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들은 지금 나를 에워쌌나이다. 그들의 눈은 마지막 타격을 가할 틈을 노리고 있나이다. 그들은 잔뜩 굶주린 사자와 숲에 웅크린 젊은 사자처럼 잔인하고도 간교하게 나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기다리나이다.”

17:13~14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러 오소서. 그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소서. 당신의 칼로, 이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 악인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지소서. 당신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충분히 주셨나이다. 그들의 자녀들도 그 아이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풍족히 받았나이다.”

17:15 “그들은 나에게 관계되는 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나이다. 나의 관심은 물질적인 보화보다는 영적인 보화에 있나이다. 나는 범죄한 사람이 아닌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으로서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것으로 만족하나이다. 나는 깰 때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E. 벤도 사무엘은 15절이 요한일서 3:2의 모든 요소를 내포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최고의 만족: 요한일서-‘...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시편-‘나는...만족하리이다.’

놀라운 변화: 요한일서-‘...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시편-‘...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확장된 비전: 요한일서-‘...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시편-‘...주의 얼굴을 보리니...’¹⁷⁾

고린도전서 15:51~55과 계시록 22:4도 보라.

18편 :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능력

우리는 49절이 로마서 15:9에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인용된 사실에서 이 시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더 자세히 상고해보면 그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시는 진실로 온통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 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귀(높이 되심), 재림 및 영광스런 왕국을 생생하게 묘사해준다.

우리 구주의 부활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엄청난 싸움에 대해 이만큼 생동적으로 묘사한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차후로 미룬다.

18:1~3 이 노래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데 대해 여호와께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능력과 안전과 안정과 구원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표현들을 보라. “나의 힘...나의 반석...나의 요새...나를 건지시는 자...나의 하나님...나의 피할 바위...나의 방패...나의 구원의 뿔...나의 산성...”

18:4~6 사망이 고난당하는 구주에게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빨리 바뀌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분은 자신을 줄에 묶이고, 점점 파도

17) (17:15) E. Bendor Samuel, *The Prophetic Character of the Psalms*, p. 26.

에 압도당하고, 줄에 얽히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올무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는 한가지 대처,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어감으로부터(from dying) 건짐 받기를 구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이다(요 12:27). 그분이 간구하신 것은 죽음 가운데서(out of death) 건짐 받는 것이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히 5:7).

깊은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었음을 확신하셨다. 이 시의 나머지는 어떻게 겻세마네와 골고다에서 울려 퍼진 임마누엘의 애처로운 부르짖음이 전능성의 모든 힘을 그분을 위해 기동시켰는지를 보여준다. “그 소리는 약하고 외로웠으나 그 응답은 만물을 뒤흔들었다”라고 F. B. 메이어는 표현했다.

18:7~15 7~19절에 이르면 마치 전쟁이 터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시에 일어난 바로 그 사건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지옥의 무리 사이에 벌어진 것이다. 사단과 그 온 무리가 주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의하고는 예루살렘 성 밖 무덤에 진을 쳤다. 만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는데 성공한 그들의 공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주의 인봉된 무덤 앞에 집결한 것이다.

그 때에 하나님이 하늘을 드리우고, 세상이 경험한 가장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며 강림하셨다. 사도 바울은 후에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이라고 표현했다(엡 1:19,20). 우주를 창조한 능력보다 더 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진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

의 부활의 능력이 그 첫 부활의 아침에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의 무리를 물리치셨다.

하나님이 접근하시자 땅이 진동한다. 그분의 진노는 맹렬하여 그 코에서 연기가 흘러나오고 그 입에서 뜨거운 불이 뿜어져 나오고 솟불 덩이가 대적들에게 날아가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분이 그룹과 같은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흑암과 천둥과 번개와 우박이 대적에게 한꺼번에 퍼부어짐으로 세상은 뒤흔들린다. 홍해를 건널 때처럼 바다와 강이 전능자의 진노가 쏟아지는 엄청난 광경에 놀라 그 물밑이 드러난다.

18:16~19 놀라운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원수가 완전히 패하여 물러날 때까지 부수고 때리고 뭉개고 상처 입히고 불구 되게 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여전히 인봉된 무덤에서 그리스도를 취하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뿐 아니라 대적의 영역을 넘는 승리의 승전을 허락하시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사 자신의 우편에 앉히신다. 즉, 바울이 말하듯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다(골 2:15).

18:20~30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근본 원리 내지 비결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살리시는 데는 어떤 도덕적인 필연성이 있었다. 그 필연성은 그리스도의 죄 없고 흠 없는 삶과,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분의 한결같은 헌신과, 그리고 그분의 갈보리 십자가 사역의 완전성에 연유했다.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속성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구주를 무덤에서 일으킬 것을 요구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엄위한 선언이 의미하는 바다(롬 6:4). 하나님의 영광스런 성품이 부활을, 도덕적으로 필연적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완

전한 인격적인 의에 대한 보상이 되게 했다.

다윗이 20~30절을 기록할 당시는 그 말씀들이 그에게 완전히 해당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아들이자 주(主)가 되실 분에 관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한 것이다(마 22:41~46).

18:31~42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한다.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려고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살후 1:7,8).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고…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물을 치겠고…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계 19:13,15).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우선적으로 전사(戰士)로 묘사되어 있다. 그것은 그분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은 우선은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러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징죄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는 다른 성경본문과 일관된다(유 15절).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전쟁할 준비를 갖추신 후에(31~37절)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대적을 좇아 완전히 멸하신다(37~42절).

18:43~45 원수를 무찌르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지상왕국을 세우시고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다스리신다. 그분은 이제 땅의 모든 열방의 머리이다. 구속받은 이스라엘과 구속받은 이방인이 함께 영화를 얻으신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에 기꺼이 복종하여 섬긴다. 그밖에 이방인들은 두려움에 못 이겨 복종한다.

18:46~50 이 시는 처음 시작할 때처럼 주 예수께서 놀랍게 자신을 변호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장면으로 마감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자요 그

분의 아들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 우리 역시 열방 중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해야 마땅하다.

19편 : 하나님의 두 책

19:1~2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선 우주의 광활함에 대해 하는 얘기를 생각해보자. 만일 우리가 빛의 속도-1초에 186,000마일 혹은 1년에 약 6조(兆)마일-로 여행한다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지점에 도달하려면 100억 년이 걸린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의 머나먼 한계에는 여전히 훨씬 미치지 못한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전혀 한계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무한한 우주공간의 한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별과 그밖에 다른 천체들의 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우리는 육안을 통해 약 5천 개의 별을 볼 수 있다. 작은 망원경으로는 약 2백만 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반사 망원경인 팔로마 망원경으로는 개개의 별은 말할 것도 없고 수십억 개의 은하계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에서 천체까지와 각 천체들 간의 거리에 대해 생각해 보자. 어떤 이는 그 거리를 이렇게 묘사했다. 1,000마일을 가는데 1페니가 든다면, 달 여행은 2.38달러, 태양 여행은 930달러가 들지만,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여행은 2억 6천만 달러가 든다.

빛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별들에서 지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억 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들여다보는 것은 실은 머나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 안드로메다 성운(星雲)을 바라보는 것은 현재의 그것이 아닌 200억

년 전의 그것을 보는 것이다!

별들이 창공에 한데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간의 거리는 너무 멀어서, 마치 외로운 등대선(船)들이 1백만 마일씩 떨어진 채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창조 세계가 이렇게 광대할진대 창조주께서는 얼마나 더욱 광대하시겠는가! 하늘은 밤낮 그분의 능력과 지혜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다. 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의 경이로움을 끊임없이 선포한다. (성경에서 ‘궁창’은 하늘의 넓은 공간을 가리킨다.) 아이작 왓츠의 표현대로, “자연은 그 지으신 분의 영광을 소리 높여, 널리 전파한다.”

19:3~4(상) 언어도, 말도,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없으나 별들의 설교는 온 땅에 통하고 그 메시지는 세계 끝까지 이른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기만 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을 감지할 수 있다(롬 1:20). 우주의 어마어마한 넓이와 구성은 “만일 당신이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 과학에 의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켈빈 경(卿)의 말을 확증해 준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 경탄할 만한 질서정연함과, 하나님의 손길이 그 완벽한 상호관계 속에 분명히 나타난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우주의 구조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성, 일단 그 아름다움과 완벽함에 매료되고 나면, 그 모든 것을 우연과 요행으로 돌리는 대담무쌍한 어리석음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느끼게 된다. 단연코, 최고의 지혜가 그 일을 계획하고 무한한 능력이 그 계획을 집행했음이 분명하다.”¹⁸⁾

19:4(하)~6 시편기자는 둥근 하늘을 하나님이 해를 위해 예비

18) (19:3,4) Immanuel Kant, 'General History of Nature', 추가자료는 구할 수 없다.

하신 커다란 장막으로 보았다.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모양은 신랑이 그 방에서 나오는 것 같다. 해는 장사가 기분 좋게 경주를 하듯이 둥근 하늘을 움직인다. 그 길은 하늘 동편 끝에서 시작해서 서편 지평선까지 내려온다. 물론 우리는 해가 실제로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돌면서 그러한 광경을 연출해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시 형태로 된 대목에서 성경은 종종 우리가 일상 언어를 사용하듯이 인간이 흔히 쓰는 언어를 사용한다.

해의 온기를 피하여 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는 온 세상을 밝히 드러내며 구석구석마다, 틈바구니마다 예외 없이 그 빛 앞에 굴복시킨다.

19:7~9 그러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여러 권의 자기계시 책 중 하나에 불과하다. 7절은 하나님의 계시의 두 번째 책(‘여호와와의 율법’)을 소개해준다. 이 두 권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려 깊은 사람들의 경배를 불러일으킨다. 시편 주석가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칸트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는 것을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내 위의 별빛 반짝이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적인 법, 이 두 가지가 내 영혼을 끊임없는 감탄과 경외감으로 채운다.”¹⁹⁾

그러나 그 두 권의 하나님의 책은 차이가 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능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으로 계시해준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그분을 그분의 백성과의 언약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계시해준다. 하나님의 행사(works)는 그분의 지식과 능력을 계시해주나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계시해준다. 과학적인 진리는 우리의 지성을 자극하나 영적인 진리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자극

19) (19:7~9) Alexander Wright의 *The Psalms of David and the Higher Criticism, Or Was David “The Sweet Psalmist of Israel”?* p. 109에 인용된 Wallace의 ‘Kant’에서 발췌한 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중에,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와의 율법으로 만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증거, 여호와와의 교훈, 여호와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와의 규례 등으로도 묘사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덟 가지 탁월한 특질을 지녔다고 고백한다. 즉, 그것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오래 지속되고, 진실하고(이 두 가지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음-역주), 그리고 의롭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놀라운 사역 중 다섯 가지를 열거한다. 즉, 그것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경계한다.

19:10 말씀의 가치는 금으로 계산될 수 없다. 그러나 금과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책 속에는 큰 보화가 숨어 있으며, 우리의 최대 관심은 그것을 찾는 것이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잠 25:2).

나는 금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람 중에 내가 성경에서 영적인 보화 덩어리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사람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내가 꿀을 참 좋아하지만 그 맛은 결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맛만큼 달콤하지는 않다! 내가 성경에서 이제까지 발견한 부요와 만족은 도저히 형언할 길이 없다.

“이 오랜 책은 나의 안내자요 내 결의 친구일세.

그 책이 내 길을 밝게 비추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약속들은

내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네.

나는 매일 그 약속에 귀기울이네.” (에드문드 필리펀트).

뜻하지 않게, 여기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아름다운 표현이 나온다. 가장 순전한 꿀은 짜내는 꿀이 아니라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송이꿀)이다.

19:11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성경에 의해 신자는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피하고, 죄를 미워하고,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도록 가르침 받는다. 말씀의 교훈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참된 성취를 발견한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는 복된 삶을 누린다! 그 모든 것 위에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상급을 쌓는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 4:8).

19:12 그러나 여호와와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패자임을 깨닫고 다윗과 함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라고 외친다. 바네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 요구하는바가 극히 순결하고 거룩하고 엄격하고, 그 요구사항이 극히 광범위한(모든 언행심사를 판단한다) 율법을 생각할 때, 그가 그러한 율법에서 떠난 횡수를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이와 비슷한 고백이 시편 119:96에서 발견된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²⁰⁾

성경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죄를 일깨워줄 때, 우리는 숨은 허물(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는 숨겨졌으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못한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도 역시 죄는 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백에는 항상 숨은 죄가 포함되어야 한다.

20) (19:12) Barnes, *Psalms*, 1:175.

19:13 그러나 시편은 알려지지 않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고범죄, 즉 교만과 자기신뢰에서 생겨나는 죄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교만은 우주의 으뜸가는 죄였다. 그것은 루시퍼의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반역을 일으켰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편 기자는 그러한 오만한 죄가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만일 그 지배를 피할 수 있다면, 큰 죄과(특히,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께 반역을 하는 큰 죄과)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한다.

19:14 찬미의 고백이 끝났다. 다윗은 피조 세계의 책과 계시의 책을 크게 높였다. 이제 그는 그의 말과 목상이 그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여호와 앞에 열납되게 해달라는 마감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한 것은 능력과 안전과 구원의 의미를 나타내려는 표현이다.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죄와 노예됨과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값 주고 되사시는 분이시다.

20편 :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나라가 전쟁의 위협에 처해 있다. 그의 군대를 싸움터로 이끌기 전에 다윗 왕은 제사를 드리러 나아왔다. 수많은 왕의 신복들이 왕의 승전을 기원한다. 1~5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백성들의 기도에 힘입어 왕은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개입하시리라는 확신을 표현한다(6절). 그의 확신은 백성들에게로 넘쳐흘렀으며, 이제 그들의 기도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해졌다(7~9절).

백성들의 기도(20:1~5)

20:1 전쟁 전 날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싸움을 앞둔 왕의 기도

에 응답하사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는 그들의 바램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 시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이름이 세 차례 언급된 것을 본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1절).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를 세우리니”(5절).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7절).

윌리엄스는 이 이름들을 이렇게 적절히 바꿔 표현했다.

보호하시는(Defending) 이름.

전시되시는(Displayed) 이름.

구원하시는(Delivering) 이름.

20:2 기대하는 도움의 근원이 밝혀져 있다. 시온의 성소는 하나님의 지상 거처였으며, 따라서 성소에서 도와주실 것과 시온에서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할 만했다.

20:3 소제와 번제를 가져오는 왕의 신실한 순종이 여호와께서 사랑으로 그를 기억하시는 특별한 이유로 제시된다.

20:4~5 왕의 바램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계획과 목적을 승리로 인치시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들은 이미 승리의 소식이 선포되어 기쁨과 흥분 속에 승리를 기리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를 세우고 그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은 백성들이 한 말인지, 제사장이 한 말인지, 아니면 왕이 한 말인지 확실치 않다. 어쨌든 그것은 가치 있는 기도이다.

왕의 응답(20:6)

20:6 백성들의 관심어린 기도에 고무되어, 왕은 여호와께서 진실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모든 필요한 도움을 보내시고, 그 무한한 능력을 놀랍게 드러내며 개입하실 것이라는 지식 안에서 즐거워한다.

백성들의 확신에 찬 기도(20:7~9)

20:7~8 그러한 확신은 파급성이 있다. 그들의 지도자의 확신에 감명 받은 헌신된 백성들은 더 이상 대적의 기세 등등한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적으로 그 견고한 병거와 잘 훈련된 말을 자랑하게 하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가득 쌓인 무기고보다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낫다. 제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여호와께서 그저 바라보시기만 해도 땅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와의 편에 선 자들은 전쟁의 연기가 사라진 뒤에 여전히 서 있을 것이다.

20:9 그러한 평안한 마음으로 백성들은 다시 한번 왕에게 승리를 허락하사 구원을 바라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주실 것을 여호와께 구한다.

적용

이 시의 역사적인 적용은 다윗이 암몬 사람과 아람 사람을 물리친 일에서 발견할 수 있다(삼하 10:14~19).

그러나 또한 이 시는 그분의 부활을 위한 기도로 주 예수님에게 적용될 수도 있다. 그분의 믿는 백성들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그리스도의 갈보리 희생을 하나님이 만족히 여기셨음을 드러내 보이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메시아께서는 사단과 그 군대와 전쟁을 벌이실 때 최종 결과를 확신하신다. 이 20편은 첫 부활절 아침의 환호를 대망한다.

이 시는 또한 사단의 영토로 나아가는 선교사들이나 여호와를 위해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21편 : 승리에 대한 감사

이 시와 앞의 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의 시에서 우리는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왕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여기서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 동일한 백성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승리를 재진술한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기이한 일을 회고한다(1~7절). 그런 다음 그들은 왕의 모든 대적이 궁극적으로 굴복될 것을 바라본다(8~12절). 끝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한다(13절).

승리의 달콤함(21:1~7)

21:1~4 왕은 여호와께서 전쟁의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드러내신 일을 즐거워한다. 그는 여호와의 시기적절한 개입을 생각하며 찬양으로 흘러 넘친다. 하나님은 그가 갈망한 승리와 그가 기도한 형통을 허락하셨다. 여호와께서 승리와 번영의 복으로 그를 맞으러 나가셨다. 지극히 높이신 분께서 그의 머리에 쇠하지 않는 정금 면류관을 씌우셨다. 왕의 보호를 위한 간청에 응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 즉 영영한 장수를 허락하셨다. 이 표현은 아마도 다윗의 경우에는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할 것이나, 문자적으로는 메시아의 무한한 부활의 생명을 가리킨다.

21:5~7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때 그 아름다움이 더해진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이 그리스도에게 큰 존귀를 허락하셨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고 그분의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히 2:9). 그렇다.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영영토록 지극한 복으로 삼으셨다! 지극히 높은 곳에 앉히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 존전에서 기쁨이 충만하시다. 그리스도를 그러한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은 여호와께 대한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신뢰였다. 아울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인자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보증할 것이다.

왕의 대적의 운명(21:8~12)

21:8~10 여기서 백성들은 왕에게 직접 이야기한다. (앞 단락에서는 여호와께 아뢰고 있었다.) 만일 우리가 왕을 메시아와 동일시한다면 본문은 그분의 재림시에 그리스도의 대적이 당할 운명을 묘사해준다.

그분의 오른손이 그 모든 대적을 찾아낼 것이며,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은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멸하는 도구는 불이 될 것이다. 그분은 “불꽃 중에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살후 1:7,8). 그분은 또한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고 그들의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실 것이다.

21:11~12 그리스도의 우주통치권을 빼앗으려는 그들의 음모는(시 2:2,3에도 묘사됨)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정확히 쏘실 때 그 반역자들은 두려워 떨며 물러갈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함(21:13)

21:13 마지막 구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일로 인해 찬양을 받으신다.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분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 그 능력을 드러내신 일로 인해 찬송이 울려

퍼진다. 이것은 메시아의 높임 받음을 기원하고 마침내 그분을 만주의 주로 인정할, 이스라엘 잔존자의 노래이다.

22편 : 고난과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

‘버림받았네! 하나님이 그 자신의 본질과 분리되었네.

그리고 아담의 죄가

의로우신 아드님과 아버지 사이를 엄습했네.

임마누엘의 홀로된 부르짖음이

그분의 우주를 뒤흔들었을 때

‘나의 하나님, 내가 버림받았나이다!’

그 소리가 홀로, 아무 메아리 없이 올라갔네.

그분의 거룩한 입술로부터,

그분의 잃어버린 피조물 가운데서 올라갔네.

어떤 신자도 그렇게 버림받았다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네.”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

22:1~2 극히 엄숙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에 접근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전에는 아마 이보다 더 거룩한 땅에 서 본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고 계시는 골고다에 이르렀다. 3시간 동안 땅은 짙은 흑암으로 뒤덮였다. 이제 “임마누엘의 홀로된 부르짖음”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진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절한 질문 뒤에는 두려운 실체가 있다. 즉 고난당하는 구주께서 문자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다. 항상 그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이셨던 영원하신 아드님이 이제 버림받으셨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완전한 인간이신 분께서 하나님께로서 단절되는 처참한 상태를 경험하셨다.

문제는 “왜?”, 왜 하나님의 거룩하고 죄 없으신 아드님이 그러한 3시간의 어두움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응축된 두려움을 겪으셔야 했는가 이다. 성경은 그 답을 말해준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공의로우시며, 그것은 그분이 죄를 발견할 때마다 징벌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죄에게 미소를 던지거나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두 번째 요소로 우리를 인도한다. 주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불의의 대가를 지불할 책임을 스스로 떠맡으셨다. 우리가 진 빛은 그분의 계산서로 넘겨졌고, 그분은 기꺼이 그 모든 빛을 위한 보증이 되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겠는가? 그분의 모든 의로운 속성은 죄가 처벌될 것을 요구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그분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 속죄양이 되신 것을 내려다보신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자가 되셨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워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의문이 없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로운 진노의 모든 맹렬함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파도가 그 죄 없으신 희생자에게 덮쳤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사 우리로 결코 버림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깊고 깊은 고난에 대해 읽을 때 우리는 항상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초를 당하셨다는 민감한 인식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우리는 그 모든 진술에 ‘우리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첨부해야 한다. 그분은 버림받으셨다-우리를 위해서.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그분이 부르짖으시는 것을 들을 때 나는 그 부르짖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안다. 그리고 하늘이 낮에도 밤에도 그

분께 침묵한 것도 나를 위해서였다.

22:3 어떤 면에서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버림받은 이유를 설명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의 값이 지불될 것을 요구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거룩성이 요구하는 것을 내어주셨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셨다. 이제 “엄격한 공의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으며, 자비가 그 준비된 것을 내어줄 수 있다.”

22:4~5 그러나 다시 한번 들어보라! 구주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아버지께 아뢰며, 족장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들의 믿음의 부르짖음은 결코 응답이 없지 않았다. 그들이 구원을 부르짖고 실망한 때는 한번도 없었다. 그들의 죄와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적이 없으셨다. 그러한 선고(버림받음 역주)는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양을 위해 보류되었다!

22:6~7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 즉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미천한 피조물 취급을 당하셨다. 그분은 친히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백성들에게서 조롱과 거절을 당하는 쓰라림을 맛보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지켜보던 무리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영원한 연인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믿을 수 없게도 그들은 그분의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신뢰하는 듯한 면을 비웃는 노래를 비죽이며 부르기가까지 했다.

22:8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은 야유하는 무리가 십자가에서 한 말 그

대로다(마 27:39,43).

22:9~11 그러나 이제 인자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베들레헬을 기억하신다. 그분을 처녀의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그분을 연약한 어린 시절 동안 보호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그분을 유년 및 청년 시절 붙드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이러한 과거의 사랑의 관계를 근거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무섭고 외로운 시련의 순간에 가까이 오시도록 하나님께 호소하신다.

22:12~13 증오로 가득한 갈보리의 무리 중 많은 수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그들을 바산의 힘센 소와 찢고 부르짖는 사자에 비유하신다.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 지방은 풍부한 목초지와 강하고 살찐 짐승들로 유명했다. 아모스는 후에 사치를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바산의 암소라고 했다(암 4:1).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바산의 황소를 언급하신 것은, 그 순간에도 그분을 죽이려고 가까이 덤벼드는 동족 백성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들은 에워싼 황소와 같았을 뿐 아니라 찢고 부르짖는 사자와도 같았다. 이스라엘의 메시야가 이르자 그들은 사자가 어린양을 덮치듯 그분에게 덤벼들고 있었다!

22:14~15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난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분은 완전히 탈진하셨다. 그분은 물같이 쏟아지셨다.

십자가에 매어 달림으로 뼈가 위치를 이탈하는 고통이 따랐다. 그분의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그 몸의 기관들이 마구 헝클어졌다. 예를 들어 그분의 마음(심장)은 가슴속에서 촛밀같이 녹았다.

견딜 수 없이 약해졌다. 그분의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말라버렸다.

갈증이 그칠 줄 몰랐다. 그분의 혀는 그 잇들에 붙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망의 진토에 두신 것이 분명했다.

22:16~17 앞서 유대인 고문자들을 황소와 사자로 비유하여 표현하셨듯이 이제 그분은 이방인 꺾박자들을 개에 비유하신다. 개는 유대인이 흔히 이방인을 가리켜 말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다(마 15:21~28). 여기서는 특히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개떼처럼 그분을 에워싼 로마 군인들을 가리킨다. 이 행악자 무리가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 그들은 그분의 알몸에 가까운 몸을 보면서 그분의 뼈가 주름잡힌 살갓으로 불쑥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며 서로 히죽거리며 놀려댔다.

22:18 그런 다음, 이 시의 여러 놀라운 예언 중 하나로서, 주 예수님은 군병들이 자신의 겂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을 것을 내다보신다. 이 일이 수백 년 후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는 것이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요 19:23,24).

22:19~21 이 시에서 마지막으로 구주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호소하신다. 그분은 칼과 개의 세력에서 건져달라고 구하시는데, 이 둘은 이방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칼은 정부의 권한을 상징하는데(롬 13:4), 여기서는 사형권을 지닌 로마 정부를 가

리킨다. 개는 앞서 말한 대로 이방인 군병들을 가리킨다. 이어서 2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자 입과 들소 뿔에서 구원해달라고 구하신다. 12,1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하고 빌라도에게 말한 유대 백성들을 가리킨다(요 19:7).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는 21절과 22절 사이에 뚜렷한 승리의 막간이 되고 있다. 그것은 이 시의 두 부분을 결합시키는 연결점이다. 이제 이 시는 애절한 호소에서 즐거운 노래로 분명히 전환된다. 주 예수님의 고난은 이제 영원히 지나갔다. 그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바뀐 것이다!

이 두 구절 사이에 시편 기자는 일순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으로, 갈보리에서 감람산으로 옮겨놓는다! 비록 이 시가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막간에 구주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시대 전체가 포함된다는 것을 안다.

22:22 이 시의 이 지점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 세상에 다시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한 잔존자는 천년통치의 모든 영광을 갖춘 왕국으로 들어갔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이 시의 전반부에 나오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해 자신의 유대인 형제들에게 증거하고자 하신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회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신다.

22:23~24 다음 구절들은 그 미래의 천년 통치시에 구속받은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실 말씀의 요지를 보여준다. 세 가지 엄위한 언급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라고 일컬으신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

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외하라고 권하신다. 그렇게 경외하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갈보리에서 올라간 그 고통스런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견디신 고난을 멸시하지 않으셨으며, 그 얼굴을 그 아들에게서 영원히 숨기지도 않으셨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빌 2:9~11).

22:25 하나님은 메시아의 찬송의 대상이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고난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를 공적으로 찬송할 것을 서원하셨으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그 서원을 갚으실 것이다.

22:26 다음 여섯 구절에서 화자(話者)가 바뀐다. 이제 성령께서 화자가 되셔서, 평화와 번영의 천년왕국 동안 펼쳐지게 될 이상적인 모습을 묘사하신다.

그 때에는 빈곤이 사라질 것이므로 가난한 자(우리말 성경에는 ‘겸손한 자’로 되어 있음-역주)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다.

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할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그분을 찬송할 것이다. 그 모든 경배하는 자들을 향해 성령께서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라는 축복을 선포하신다.

22:27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땅의 모든 끝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올 것이다. 열방의 모든 족속이 한 무리를 이루어 경의를 표하며 경배드릴 것이다.

22:28~29 여호와께서 친히 온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그 통치권은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열방을 다스리실 것이다. 땅의 모든 큰 자들이 그분의 통치에 굴복할 것이며, 모든 죽을 인생들(“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다”)이 그분 앞에 절할 것이다.

22:30~31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대대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덕을 선포할 것이다. 한 특별한 메시지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질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큰 사역을 의롭게 마치셨다는 것이다. 이 22편은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구속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일곱 번째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지닌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는 말씀으로 끝난다(요 19:30). 여러 세기가 흘러가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감사에 찬 놀라움으로 복음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해질 것이다.

23편 : 위대한 목자

23편은 아마도 모든 문학작품 가운데 가장 사랑 받는 시일 것이다. 엄숙한 공석에서 읽혀지든 아니면 주일학교 시간에 암송되든 간에 이 23편은 항상 변함 없는 매력과 죽지 않는 메시지를 지닌다. “시편 23편이 태어난 날이 복이 있을지라”라고 한 연로한 신학자는 표현했다.

J. R. 리틀프라우드의 개요는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행복한 삶의 비결-모든 필요가 채워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행복은 죽음의 비결-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행복한 영원의 비결-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²¹⁾

23:1 전세계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선한 목자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의 행위로 그분을 실제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그분의 양이다. 그분의 구속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지만, 실제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유효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나의’(my)라는 인칭 대명사에 달려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시의 나머지는 나에게 속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분이 진정 나의 것이며 내가 진정 그분의 것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23:2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므로 나는 내 영혼이나 육체에 필요한 양식이 부족치 않을 것이다.

그분이 나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므로 나는 생기가 부족치 않을 것이다.

23:3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므로 나는 활력이 부족치 않을 것이다.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므로 나는 도덕적인 지시가 부족치 않을 것이다.

한 꼬마가 이 시를 낭송하려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21) (23장 서론) J. R. Littleproud, 추가자료는 구할 수 없다.

걱정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색다른 번역을 보고 깜짝 놀라기에 함께 웃은 일이 있는데, 그 꼬마는 틀린 것이 아니라 옳았다. 그는 정확한 단어는 놓쳤지만 정확한 의미는 잡은 것이다. 만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3:4 그리고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목자께서 바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 즉 자백하고 버리지 않은 죄이다. 그러나 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부터 그 쏘는 것을 빼앗아 가셨다. 그분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 이제 사망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 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

“사망아, 무덤아, 나는 네 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는 빛이 지불되었기 때문이네.
그 어둡고 두려운 시간에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지워졌네.” (마가렛 L. 칼슨).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사망에 종종 따르는 고난에 대한 어떤 불길한 예감을 가질 수 있다. 한번은 한 노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장막을 거둬 가시는 것에는 마음 쓰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좀 부드럽게 거둬 가시기를 바라고 있지요!”

또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기 전에는 임종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가는 것(이것이 훨씬 더 좋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망이 그 두려움을 상실한 것이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혹은 ‘죽는

것은 얻는 것이다'-역주).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위로와 보호와 인도의 도구이다. 필요할 때면 그분은 또한 교정의 지팡이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 대부분의 양들은 때때로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

23:5 그 사이에, 목자는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 그 상에는 그분이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위해 사신 모든 신령한 축복이 배설된다. 그 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상징한다. 비록 원수에게 둘러싸였지만, 우리는 평안과 안전 가운데 그러한 축복들을 누린다.

J. H. 조웁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동양의 손님맞이는 손님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한다. 그를 장막에 인도해들이고 그 앞에 음식을 배설한다. 그 동안 그를 뒤쫓던 추적자들은 문가에 서서 씩씩거린다.’”

그분은 또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목자들은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제사장들의 경우 기름 붓는 것은 그들을 사역에 위임하는 것을 뜻한다. 왕들의 경우 기름 붓는 것은 즉위식과 관계가 있다. 모든 신자는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다. 이 기름부음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그에게 보증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은혜의 부요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감사에 찬 고백을 터뜨리게 된다.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네.

그리스도 안의 무한한 부요로서
그분은 베풀고, 베풀고, 또 베풀시네.” (애니 존슨 플린트).

23:6 끝으로 행복한 영원의 비결이 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호위를 받아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아버지 집에 이른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는 얼마나 복 받은 거지들인가!”라고 한 가이 킹의 고백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다.

24편 : 영광의 왕이 뉘시뇨?

24편은 대환란 끝에 일어나는 영광스런 사건을 대망한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그치고 주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사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것은 세상이 이제껏 보지 못한 개선행진이다. 지켜보는 자들은 한 때 구주의 고난의 깊이에 놀랐듯이 이제는 그분의 영광의 높이에 할 말을 잃는다.

24:1~2 무리가 그 성에 가까이 이르자 땅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선포가 울려 퍼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권에 대한 선언이다. 그런 다음 그 이유가 주어진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지은 분이시다. 그분이 물들을 한 곳에 모으고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셨다. 그분이 강들을 만드시되 일부는 땅 위에, 일부는 땅 아래 두셨다. 그러기에 이제 그분이, 실은 그분의 소유인데 오랜 세기 동안 거부되어온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오신다.

24:3~6 다음 네 구절은 그 나라에 들어가 천년간의 평화와 번영

의 통치를 누릴 백성들을 묘사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믿는 잔존자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구속받은 이방인들이다. 그들은 그 선한 성품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듯 보이나, 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의 성품은 그들이 위로부터 태어난 결과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요 3:3,5).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 옷을 어린양의 피로 희게 한 귀한 성도들이다.

그들의 성품의 네 가지 특징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손이 깨끗하다. 다시 말해서 그 행실은 의롭고 흠이 없다. 그들은 마음이 청결하다. 즉 그 동기가 정직하고 그 생각이 부패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거짓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끝으로, 그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증거함으로 정의를 굽게 하지 않는다. 그들의 손과 마음과 뜻과 입술 등 모두가 의롭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종이 될 사람들이다. 전에는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 그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에 의해 변호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천년왕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요, 쓸모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24:7~8 나는 이 행렬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며 1~6절을 노래하는 모습을 즐겨 목상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노래 소리는 행렬의 선두에 선 전령의 나팔소리에 의해 중단된다. 그는 예루살렘 성문의 파수꾼들에게 외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성벽 위의 한 파수꾼이 인상적인 어조로 크게 외쳐 묻는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그 대답이 또렷하게 크게 울린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24:9~10 그들은 이제 성에 더욱 가까이 이르렀고 성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전령이 영광의 왕에게 문을 열어드리라고 다시금 명한다. 다시 한 번 왕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라고 대답한다.

이어서 왕께서 그 못 박혔던 손에 우주통치의 홀을 쥐신 채 그분의 충성스런 종들과 함께 그 성에 들어가신다.

F. B. 메이어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가실 때 우리 안에서 성취되며, 땅과 그 거민이 그분을 주로 맞이할 때 그 완전한 실현을 볼 것이다.”²²⁾

25편 : 여호와의 비밀

이 시는, 비록 히브리어 철자 중 하나는 생략되고 하나는 두 번 사용되었지만, 아크로스티크(글자 수수께끼) 시이다.²³⁾ 통일된 주제는 발견하기 어려우나, 그 대신 우리는 여기서 철자상의 연결 외에 달리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도와 묵상의 모임을 볼 수 있다.

25:1~3 먼저 보호의 기도가 나온다. 다윗의 대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은 듯하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유일한 신뢰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윗의 두 가지 간구는, 자신이 여호와를 의뢰함으로써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리심으로 그의 대적이 만족해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이다. 의도적으로 거짓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넘치는 수치를 당케 해주시기를 바랐다.

22) (24:9,10) F. B. Meyer, 'F. B. Meyer on the Psalms', p. 35.

23) (25장 서론) 'י'(레쉬)에 해당하는 문자는 18,19절 모두에 나오는 반면, 'ק'(코프)는 18절에만 나온다.

25:4~5 다음 단락에서 시편 기자는 한 제자가 가르침을 구하는 모습을 그린다. 그는 여호와와 길을 알고, 그 길로 행하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의 동기는 그의 구원의 하나님, 즉 그의 모든 소망을 둔 분에 대한 사랑에 기인한다.

25:6~7 이어서 다윗은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여호와와 오래 참는 자비와 인자에 호소하며, 과거에 큰 은혜를 베푸신 것(마치 잊어버리셨듯이!)을 기억해 주실 것을 여호와께 구한다. 혹 그러한 요청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불완전한 이해를 드러낼지라도, 그는 그림자의 시대에 살았고 우리는 복음시대의 온전한 빛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다윗이 젊을 때 지은 죄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지난 죄는 으레 그런 영향을 끼치는 법이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죄를 잊고, 그분의 인자를 좇아서, 그분의 선하심을 위하여 그를 기억해달라고 여호와께 간절하게 구한다. 그러한 기도는 물리칠 수가 없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지고, 하나님의 망각의 바다에 장사되고,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25:8~10 다윗은 이제 기도에서 묵상으로 나아간다. 그는 여호와와 가르침 사역을 생각하며 깊은 감격에 사로잡힌다. 여호와께서는 근본적으로 선하고 정직하신 까닭에 진리와 공의와 구원의 도로 죄인들을 가르치신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겸손이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우리 자신이 가르침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는다면, 곧 우리는 옳은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 순종하는 자들은 불행한 삶을 고집하지 않으며, 인생은 하나님의 변함 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의 증거로

가득함을 알게 된다.

25:11 다윗은 이제 용서를 위한 기도로 돌아온다. 그의 죄의 심각성을 철저히 인식한 까닭에 그는 “주의 이름”을 근거로 호소한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종종 그 사람 자신을 대표하므로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특히, 그분의 자비와 은혜)을 용서의 유일한 근거로 언급하고 있다. 다윗 자신의 공로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다!

25:12~13 다시 한번 그는 기도를 중단하고 영적인 독백에 들어간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최선을 즐기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그런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것을 경험할 것이다.

확실한 인도—하나님이 그에게 갈 길을 보이실 것이다

개인적인 형통—그는 풍성한 기업을 누릴 것이다

가정적인 안전—그의 자녀가 땅을 소유할 것이다

거룩한 사귄—그는 여호와께서 그 마음과 뜻을 친밀히 계시하시는 친구의 범주에 들 것이다

25:14 본 절은 의문의 여지없이 이 시의 핵심구절이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크게 사랑 받는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이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교체되는 놀라운 이상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던 제자인 요한에게 밋모섬의 영광스런 계시가 주어졌다.

25:15 다윗은 그 자신을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에 포함시킨다. 그의 눈은 항상 믿음과 소망 중에 위를 앙망하며, 그는 여

호와께서 그가 현재 걸려든 환란과 곤경의 그물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한다.

25:16~21 그물에 대한 언급은 다윗으로 영적인 환상에서 깨어나 현재의 곤경에 대해 기도하게끔 자극을 준다. 그는 외롭고 괴로웠다. 그 마음의 근심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비로 그를 돌아보시고,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환란을 살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해주실 것을 간청한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께, 그를 대적과 그 맹렬한 증오에서 보호하사 여호와를 신뢰한 대가를 보게 해주실 것을 구한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그가 기도한 것은 그 자신의 청렴함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구원하사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다.

25:22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며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 기도한다. 이것은 장차 올 환란 시대 동안에는 이 시와 같은 시가 경건한 유대인 잔존자의 고백이 될 것을 암시해준다.

26편 : 성별(분리)의 시

26편을 처음 대할 때는 그것이 굉장한 이기주의자의 작품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좀 주의 깊게 살피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성별된 삶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면의 뜻을 헤아려 볼 때, 우리는 다윗이 이제까지 불경건한 자들과 사귀며 그로써 여호와께 불충성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다.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으로 구체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

에 대해 자신은 “잘못이 없음”을 호소하는 것이다.

26:1~3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변호를 구한다. 그의 고발자들의 말과 상반되게, 다윗은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해왔다. 그는 일관되게 여호와를 의지해왔다. 야금술(冶金術)에서 빌려온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는 진실성과 정직성을 시험받고, 그 불순물로 인해 풀무에서 연단받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그 마음(사랑)과 그 뜻(동기) 모두에 있어서, 그는 항상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그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해왔으므로 자신의 결백이 입증될 것을 확신했다.

26:4~5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들(우리말 성경에는 ‘허망한 사람’으로 되어 있음 역주)과 같이 앓는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사귀는 것을 의미한다.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간사한 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속이는 자들과 과시하는 자들과 기꺼이 한 무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다. 반대로, 그는 행악자들과 한 무리가 되는 것을 미워했으며, 악한 자와의 사귀를 피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보여주었다.

26:6~8 그러나 그의 분리는 단지 악인에게서 떠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것이었다. 여호와의 단에 가까이 이르기 전에 다윗은 그 손에서 죄와 더러움을 반드시 깨끗이 했다. 그런 다음 헌신된 예배자로서 그는 마음을 다해 감사 찬송을 부르고 여호와의 기이한 일을 진술했다. 그에게 있어 예배는 금욕적으로 견뎌야 할 지루한 의식이 아니었다. 그는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런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전을 진실로 사랑했다.

26:9~11 그는 이 세상에서 행악자들과 함께 하기를 거절했으므로 다음 세상에서 그들과 같은 운명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는 삶에 있어서 죄인과 살인자와 뇌물 주는 자들의 습관을 멀리했다. 이제 그는 죽음에 있어서 그들과 한 무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한다.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아왔으므로 이제 악인의 운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대우받게 해달라고 구한다.

26:12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삶의 평탄한 기초 위에 서서 다윗은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서원한다.

우리는 이 시에서 다뤄지지 않은 분리의 한 측면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비록, 그들의 악함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면에 있어서는 죄인들과 마땅히 분리되어야 하나,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말해주어야 할 때는 그들과 동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셨다. 그분은 그들을 영접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을 타협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또 용서가 필요함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에 대해서 라일 감독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분은 ‘아버지의 일’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의 식탁에 이르셨다. 그분은 이 바리새인의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죄에 대해 증거하셨다. 그분은 이 바리새인에게 죄를 값없이 용서받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셨다. 그분은 믿음의 구원하는 성질을 선포하셨다. 만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의 집을 방문하고 또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 일을 계속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이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차린 식탁에서 예수께서 시몬의 식탁에서

하셨듯이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이 그들이 대답해야 할 질문이다.”²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볼 질문이다.

27편 : 예수님의 체포와 심문

27편은 모든 면에서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이 시를, 갈보리를 바로 앞둔 그 운명의 시간에 우리 주님을 사로잡은 깊은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각별한 주의를 끌게 된다.

27:1 예를 들어, 성전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리스도를 체포하려고 겻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눅 22:53).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분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셨을지도 모른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스며들 때 그분의 빛이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즉 땅의 대적들에게서 그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의 요새, 즉 폭풍 때의 피난처이셨다. 그러한 보호로 인해 그분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셨다.

27:2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분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대답했다. “내로

24) (26:12) J. C. Ryle, *Expository Thoughts on the Gospels, Luke*, 2:239.

라”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자 그들은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다(요 18:6).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다음 말씀을 생각하고 계셨는지도 모른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들은 그물에 걸린 새를 던지듯 그분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자’로서의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그 인성의 옷깃을 찢고 빛을 발하자 체포자들은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다.

27:3 요한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겿세마네 동산에 온 강도 때가 군사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하속들로 구성되었다고 말해준다. 그들은 등잔과 횃불과 병기를 들고 왔다(요 18:3). 그분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온전한 평온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찰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27:4 가련한 베드로가 자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한가지 바램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길은 먼저 십자가를 지나야 했기에 그분은 그 고난과 부끄러움을 감내하고자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 그분의 고백은 이러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집에 거하여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얻기로 굳게 결심
한다.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27:5 마침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했다(요 18:12). 곁에 선 자들이 보기엔 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을지도 모른다.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
신 보호를 의지하고 있었다.

27:6 군병들이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데리고 갔다(마
26:57). 가야바는 전에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
다고 유대인들에게 조언한 인물이었다(요 18:14). 비록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그분을 하늘과 땅 사이의 십자가에 높이 올리우고자 계획
했으나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올리움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기 생명이 걸린 재판 자리에서, 또 그 결과가 사형일 것을 알고
있는 중에, 이 얼마나 이상한 낙천주의인가! 그런 중에도 그분은 영

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계셨다. 그분이 가야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마 26:64).

27:7~8 이에 그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을 범했노라고 외쳤다. “너희 생각이 어떠하뇨?” 하고 지켜 선 자들에게 그가 묻자,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라고 그들이 답했다. 여기서 나는 구주께서 다음과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마음에 그려볼 수 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27:9 이 때는 제자들이 이미 그분을 버리고 달아난 뒤였다(마 26:56).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이 그분의 도움이 되셨으며,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 이 중대한 순간에도 자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한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지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27:10 우리가 아는 한, 다윗의 부모는 그를 버리지 않았으며 우리 주님의 부모도 그러했다. J. N. 다비가 이 구절을 보다 정확히 옮긴 듯 보인다.

“혹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해도 여호와는 나를 취하셨다.”

27:11~12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재판에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그분을 죽이려고 굳게 결심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를 유도했다. 그러나 그들은 두 증인이 나타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고 고소할 때까지는 결정적인 증거를 꾸며낼 수 없었다(마 26:59~61). 예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것이었다(그분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신 것이다)(요 2:19, 21). 그러나 재판 자체가 허위였으므로 그 증거가 받아들여졌다. 이제 우리는 구주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27:13 이어서 우리는 격분한 군중이 빌라도의 법정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소리치르는 것을 듣는다(마 27:22, 23). 복스런 주님도 그 소리를 들으셨으며, 그 의미하는 바를 아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 순간에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27:14 그러나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어떻게 그것을 이제까지의 해석에 맞추겠는가? 나는 이 구절을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하신 고별의 말씀, 즉 그분의 아버지를 신뢰하신 주님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한마디 개인적인 권면으로 생각하고 싶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28편 : 하나님의 침묵

28:1~2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오직 당신께만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으로서 그 이름이 의미하는바 안전과 능력과 안정이 되십니다. 당신께 구하오니 내게 귀를 막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악인과 함께 죽는 것(당신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보좌에 도움을 호소할 때, 당신의 성소, 즉 지극히 거룩한 곳을 향해 내 손을 들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28:3 결코, 결코 나를 악인의 운명에 처하게 버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다른 이들에게 불의를 피하며, 이웃에게 부드럽고 화평하게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을 품습니다.

28:4 여호와여, 그들을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그들의 행위와 그 행사의 악함을 따라 다루십시오.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십시오.

28:5 그들의 행위와 그 손의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행사와 당신의 손이 하신 일에 전혀 감사치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께서 그들을 다시는 지을 수 없는 건물처럼 허물 것입니다.

28:6 여호와여, 내가 기도드리는 동안 당신의 성령께서 나의 간구가 상달되어 응답되었다는 놀라운 내적인 확신을 내게 주셨으며, 그로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28:7~8 어떤 이는 이 구절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 썼다.

“여호와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의지하나이다.
 그리하여 나는 도움을 얻었고, 내 마음은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감사를 올리나이다.
 그분의 모든 택한 백성에게도
 그분은 능력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복스런 기름부음 받은 아들에게
 그분은 구원의 능력이시니이다.”

28:9 여호와여, 당신께서 나를 건지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내가 한가지를 더 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시오. 당신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축복하십시오. 인자하고 부드러운 목자처럼 그들을 잘 먹이시고 당신의 팔로 영원토록 그들을 안아 드십시오.

여호와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29편 : 여호와의 소리

29:1~2 당신은 날씨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는가? 다윗은 폭풍이 이스라엘에게 휘몰아치는 것을 보고 원망이 아닌 찬양할 마음이 생겼다. 사실 그는 폭풍 가운데 나타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깊이 인식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모든 친군에게 호소한다.

“오,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여호와를 경배하세.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세.

순종의 금과 겸손의 향을 가지고

그분 앞에 무릎꿇고 경의를 표하세.

이는 그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일세.” (J. S. B. 몬셀).

29:3~4 “여호와의 소리”란 표현이 일곱 번 사용되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폭풍에, 구체적으로는 뇌성에 적용되는 듯하다.

처음에 폭풍은 지중해를 넘어 내륙으로 레바논으로 이동한다. 뇌성이 포성이 울리듯 많은 물 위에 울려 퍼진다. 그것은 가공할 힘과 위엄의 소리이다.

29:5~6 이제 레바논 산들이 폭격당하고 있다. 커다란 백향목들이 번개를 맞아 쓰러진다. 갑작스레 광포한 바람이 숲을 몰아치자 나무들이 물결치듯 휘어져, 마치 레바논 일대가 송아지처럼 뛰고 시론(혈문)산이 들송아지처럼 뛰는 듯했다.

29:7~8 번개가 남쪽으로 줄무늬를 낸다. 가데스 광야가 자연의 맹공격의 위용에 뒤흔들린다.

29:9 폭풍이 남쪽에서 사그러드는 것을 보고 다윗은 그 마음의 경탄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로 그는 여호와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신다고 말한다. 날씨의 격변이 곧 새끼를 낳으려는 짐승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시편 기자는 삼림이 말갭게 벗겨진 것을 바라본다. 나무들이 불과 수분만에 있을 다 잃은 채 보기 흉하게 서 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것이 “영광!”이라고 외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전(성전)은 자연 세계, 특히 폭풍으로 요동하고 있는 지역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번개의 화살, 우레의 창, 몰아치는 광풍, 삼림, 광야 등 모든 것이 결합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고 있다.

29:10~11 폭풍은 사라졌으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계신다. 그분의 보좌는 큰 홍수를 포함한 땅의 격렬한 대변동에 요동하지 않

는다. 그분의 주재권은 자연적인 재앙에 방해받지 않는다. 삶의 모든 혼란 가운데서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능력과 평강을 주실 수 있다. 그분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기를 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대환란 동안에 북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몰아쳐 올 군사적인 폭풍을 예표하고 있다고 믿는다(3~9절). 그 환란 기간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지상 백성에게 능력과 평강을 주실 것이다(10,11절). 이러한 해석은 신중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W. E. 바인은 이 시를, 먼저 아마겟돈에 나타난 다음(계 16:16) 그 중심에 보스라가 있는 가데스 광야(사 63:1)로 끌어 내려가시는 재림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본다.²⁵⁾ 그렇다면 이 시는 그 때에 이스라엘을 침략한 열방의 완전한 패망을 시적으로 묘사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고 날마다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이 있게 마련이다. 하나님의 소리는 삶의 햇살 아래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들린다. 아무것도 그분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없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 아이언사이드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시는 그 연단과 압박과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 그분이 구원에 능하시다는 것을 깨달은 영혼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다. 그러기에 그 마음은 그분을 의지하고 평강을 누린다.”²⁶⁾

30편 : 치유에 대한 찬양

우리들 대부분은 심한 질병에서 회복되는 그 안도감을 한두 번쯤

25) (29:10,11) W. E. Vine, *Isaiah*, p. 205.

26) (29:10,11) H. A. Ironside, *‘Studies on the Psalms’*, p. 173.

경험해보았다. 우리는 의사, 마취, 집중 치료, 영양보급, 피하 주사, 알약복용 등에 대해 넉더리를 내며 작별을 고했다! 우리는 우리의 회복이 “현대 의학 덕택”이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치료를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께 감사의 찬미를 올리는 것을 쉬 잊어버린다.

그러나 다윗은 잊지 않았다. 그는 성전을 봉헌할 때에 이르러 중한 병에서 막 회복된 듯하다. 어쨌든 그의 치료자인 여호와께 찬양 드리는 이 시의 배경은 성전봉헌식이었다.

30:1~4 이 시는 우선, 건강을 회복시키신 데 대해 진실된 감사로 여호와를 높일 것을 가르쳐준다. 다윗은 아주 낮은데 처했었다. 그의 생명의 빛이 희미했다. 그의 대적이 모두 그의 압박한 죽음을 즐거워했다. 그 때에 그는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사 그를 벼랑에서 건져내셨다. 그것은 음부의 소멸을 겨우 피한 것이요, 무덤에 내려가는데서 겨우 부름받은 것이었다.

이 30편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함께 찬양하도록 초청함으로써(독창을 합창이 되게 하라!) 우리의 기쁨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찬송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30:5 이어서 그는 극히 아름다운 두 가지 대조의 형태로 그러한 찬양의 이유를 제시한다. 낱스 역(譯)은 이 구절을 아주 훌륭히 옮기고 있다.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평생 지속된다.
슬픔은 밤의 손님에 불과하며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

여기서 잠시 개인적인 간증을 해보겠다. 필자의 가정이 큰 슬픔에 빠진 적이 있었다. 친구들이 몰려와서 위로의 말을 전했으나 아무 말도 슬픔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다 좋은 뜻에서 한 말이었으나 충분치 못했다. 이 때 H. A.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시편 30:5을 인용한 짧은 글을 보내왔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바로 그 말씀이었다. 슬픔의 구름이 싹 가셨다!

그 후로 나는 어두운 슬픔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다른 많은 신자들에게 이 구절을 전할 기회를 가졌으며, 그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은 감사의 꼬덕임을 일으켰다.

30:6~7 이 시의 다음 교훈은 물질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이 들기 전에 다윗은 형통했으며 자기를 의지했다. 그는 시련과 환란에서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했다. 그는 큰 산처럼 요동치 않을 듯했다. 그는 가능한 모든 형태의 보호와 안전장치로 자신을 감쌌다. 아무 두려울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때에 문제가 발생했다. 마치 밤중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 듯했다. 그분이 진노하여 그 은총을 거두신 듯했다. 삶이 악몽으로 변했다.

30:8~10 그러나 그 악몽은 다윗의 기도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형통할 때는 그의 기도가 단조롭고 힘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병이 들자 그는 강렬하고도 진지하게 기도했다. 그는 만일 자신이 죽으면 전능자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항변했다. 시편 기자의 생명 없는 몸은 전능자를 찬송할 수 없으며, 그의 진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러한 논증은 그다지 깊은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사실 교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함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도들에 대해 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시에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본바 있다.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의 진노의 증표로 이해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분의 진노가 아닌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안다(히 12:6). 그러나 우리는 종종 질병과 고난이 그분의 진노의 증표라는 그릇된 생각에 빠지곤 한다.

이어서 9절에서 다윗은 죽음이 신자에게 있어 모든 찬양을 종결시키는 듯이 말한다. 이 세상에서의 찬양과 증거에 관한 한, 물론 그의 말은 옳다. 그러나 신약의 가르침에서 신자는 죽을 때에 그 몸은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그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후 5:8; 빌 1:23). 신자는 의식을 지닌 채 주님 존전에서 이 땅에서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을 예배드린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딤후 1:10).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 영역에서 제한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과 기도와 열정과 헌신에 있어 우리를 능가한 듯 보인다는 점이다!

30:11 이제 다윗에게 돌아와 보자. 9,10절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어서 10절과 11절 사이에 그 응답이 왔다. 그는 여호와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 이 시의 마지막 두 구절은 그의 회복을 회고한다. 다윗에게 그것은 장례식의 슬픔과 혼인예식의 기쁨의 차이와도 같았다. 혹은 달리

표현하면, 새 옷으로 바뀌 입는 것과 같았다. 하나님이 그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

30:12 다윗이 고침 받은 한가지 결과는 그가 무덤 속에 잠잠히 누워있지 않고 이제 생명 안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영영히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가 원하던 것이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으며, 나는 그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내게는 부끄러운 느낌을 갖게 한다. 나는 늘 내가 병들었고, 긴박하고 필사적인 기도로 하늘 문을 두들겼고,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로이 응답하신 일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 때 나는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잊었다. 나는 병고침을 너무도 당연시했다. 나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

하나님이 다윗의 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을 보고 감탄하도록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본을 좇도록 하기 위함이다!

31편 : 여호와의 손에 부탁하다

이 31편 5절은 이 시가 고난 중에 죽어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과 분명한 관계가 있음을 일깨워주는데, 이는 그 고백이 그분의 십자가의 마지막 외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물론 어느 시의 한 구절이 명백히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구절도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이 시의 경우엔 모든 구절이 메시아와 적어도 얼마간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편 이 시를 분석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

음과 장사와 부활을 시간 순으로 추적하는 대신 이 시는 고난과 부활 사이를 번갈아 오간다. 그러나, 우리는 C. S. 루이스가 지적한대로 “시는 시이며, 시는 낭송되기 위한 것이지 교리적인 논문이나 설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²⁷⁾

구원을 위한 기도(31:1~5상)

31:1 서두에서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계신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오셨다. 이제 가장 깊은 고난의 순간에, 그분은 여호와를 자신의 유일하고 충분한 피난처로 다시금 신뢰한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의뢰한데 대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신다. 그것은 그 이름의 영예가 그 아들의 부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매우 강력한 기도이다.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은 의(義)의 행동이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구주께서는 잘못된 신뢰의 희생물로 드러나실 것이며, 그로써 부끄러움을 당하시게 될 것이다.

31:2~3 탁월한 의인법(擬人法)을 사용하여, 외로운 고난당하는 분께서 하나님께 갈보리로 귀를 기울이실 것을 요청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절박한 호소를 들으시고 속히 도우러 오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분은 더 나아가 여호와께 견고하고 요동치 않는 피할 바위가 되시고, 모든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는 강한 요새가 되실 것을 요구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바위와 요새요, 그분의 유일한 보호와 안전이셨다.

“내겐 다른 피난처가 없네.

나의 무력한 영혼은 당신을 붙들고 있사오니

27) (31장 서론) Lewis, *Reflections*, p. 10.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늘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소서.” (찰스 웨슬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예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호소하신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던가? 진실로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과 영광으로 구원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라는 요청을 받으신다.

31:4 구주를 사로잡기 위한 죽음의 그물이 비밀히 쳐졌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안전하고 강한 피난처시기에, 그 그물에서 자신을 빼어내고 무덤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신다.

31:5(상) 누가는 예수께서 이 5절 상반절을 큰 소리로 인용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아무도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앗아가지 못했다. 다만 그분이 자원해서, 그 능력을 온전히 소유한 가운데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다. 이 고백은 그 때 이후로 여러 세기를 내려오면서 루터, 나스, 후스 등 임종을 맞은 여러 하나님의 성도들에 의해 되풀이되어 왔다.

부활에 대한 찬양(31:5하~8)

31:5(하)~6 5절 중간에는 분명한 구분점, 즉 죽음에서 부활로의 전환, 기도에서 찬양으로의 변화가 있다.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자를 죽음과 무덤에서 구속하셨다. 그것은 그 아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영광스럽게 보상하신 것이었다.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경멸만을 받을

것이다!

31:7~8 이제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위에 머무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해 찬양의 노래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진다. 그것은 그분의 모든 곤란을 온전히 감찰하신 사랑이요, 그분을 대적의 세력에 넘겨주기를 거절하신 사랑이요, 구주를 구덩이에서 끌어 내사 그 밭을 ‘부활의 땅’인 넓은 곳에 세우신 사랑이었다.

깊은 환란(31:9~13)

31:9~10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심문과 십자가 처형에 앞선 그 생애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는 죄인들의 극심한 증오를 견디시면서 그 슬픔의 사람께서 하신 기도를 들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떨시와 거절을 당하신 그분은 환란 중에 여호와의 바라보고 은혜로이 돌아보실 것을 호소하셨다. 그분의 눈은 큰 슬픔으로 숙패였고, 그 혼과 몸은 슬픔으로 쇠진했다. 그분은 근심으로 기진하고 탄식으로 소진했다. 그 참담한 지경으로 인해 그 기력이 다하고 그 뼈들도 쇠하였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라는 표현을 죄 없으신 구주께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친히 짊어지는 ‘우리’의 죄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절은 메시아에게 적용될 수 없다.

31:11~13 이 오래 참으시는 고난자께서는 이어서 자신을, 모든 대적의 조롱거리요 이웃에게 놀라운 광경으로 묘사하신다. 그들은 그분을 피해 길을 가로질러 가거나 그분이 오는 것을 보면 좁은 길로 피해갔다. 그분은 그들의 기억에서 속히 사라졌고 깨진 그릇처럼 버림받 되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므로

밤낮 두려움이 그분을 에워쌌다.

이러한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은 누가 당하든 참으로 비극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주의 창조주요 생명과 영광의 주(主)에 대한 묘사이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구원을 바라는 기도(31:14~18)

31:14~17(상) 슬픔과 탄식이 믿음의 기도로 대체된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는 그분이 여호와를 자신의 소망이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시대(때)가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사실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발견하신다. 그러한 위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형통할 때나 슬픔을 당할 때나 한결같이 경험해왔다.

“우리의 때는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거기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당신의 돌보심에 맡기나이다.” (윌리엄 F. 로이드).

이같이 신뢰와 복종을 다짐하신 후에 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대적의 사슬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기도하신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은혜 가운데 하감해 주시기를 기도하신다. 그분은 여호와의 변치 않는 사랑을 근거로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을 호소하신다. 다시 한번 그분은, 오직 여호와만 자신의 구원자로 앙망하는 자신이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신다. 이 표현은 물론, 문자적인 성격을 희생하고 문체를 강조한 수사법적인 표현이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신뢰한데 대해 부끄러움을 당할 가능성은 일절 없었다. 그분은 그 사실을 아셨으며, 우리도 그것을 안다. 그러나 감동적인 기도나 시를 대할 때 엄격한 문자성을 고집하면 뭔가 주요한 것을 잃게 된다.

31:17(상)~18 악인에게로 관심을 돌리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잠잠히 음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비방한 그들의 거짓된 입술을 잠잠케 해달라고 구하십니다. 어떤 신실한 사람들은 본문의 어조가 그리스도 인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죄인들의 난폭함과 그 죄의 사악함과, 그리고 그 희생자의 무죄함을 생각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 표현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게 된다!

하나님은 큰 피난처(31:19,20)

31:19~20 다시 한번 이 시는 절망에서 기쁨으로, 탄원에서 찬양으로 전환된다. 위엄있는 어조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를 비할 데 없는 피난처로 높이신다. 그분은 하나님을 그분(하나님)의 믿는 백성을 위해 쌓이둔 고갈되지 않는 은혜의 곳간의 책임자로 묘사하십니다. 그분은 인생 앞에서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찾기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한 보화를 풍성히 쏟아 붓기 위해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존전은 그분의 택한 성도들이 사람의 간사한 꾀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란한 다툼’이라고 낙스가 표현한 것을 피하는 충분한 피난처가 되신다.

개인적인 감사(31:21,22)

31:21~22 주 예수님은 포위된 성처럼 대적으로 완전히 에워싸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바 있었다. 그런데 놀라게도 그분이 여호와께 완전히 버림받으신 듯 보였다. 그러나 그 두려운 세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여호와를 사랑하라!(31:23,24)

31:23~24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신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합당하게도 다른 모든 사람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믿는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교만한 거역자들에게는 응당한 징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의뢰할 수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직면한 신자들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확신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32편 : 죄사함!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다! 그 느낌은 어떤 묘사로도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엄청난 짐이 벗겨지고, 빛이 청산되고, 양심이 씬을 누리는 안도감이다. 죄책이 사라지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맛본다. 다윗에게 있어 그것은 큰 허물을 사함 받고 그 죄가 가리어지고 그 불법을 짐 지우지 않고 그 영혼을 속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했다. 오늘날 신자에게 그것은 단순히 죄를 가리우는 것(이것이 속죄의 구약적인 개념이었다) 이상을 의미한다. 신약시대의 신자는 자신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바다에 영원히 장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32:1~2 로마서 4:7,8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에도 행위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주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 시편 32:1, 2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의존한다. 그는 구원을 노력하거나 자격을 갖추어 얻는 의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죄 사함을 받은 죄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복을 묘사하는데 있어 행위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여기에서, 다윗이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의(義)를 전가하시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고 추론한다(롬 4:6).

32:3~4 이어서 다윗은 작은 열쇠로 바꾼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다음 고집스럽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를 거절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비밀로 하려고 애썼다. 아마 그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걸” 하고 합리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집스레 자백을 거절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자신의 양심(his own best interests)과 더불어 싸우고 있었다. 그는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으며, 그 모든 것은 그 마음의 풀리지 않은 번민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매 순간 그를 무겁게 누르고 저지하고 가로막고 좌절시키고 있음을 인식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삶의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지 않았다. 평온한 날들은 사라졌고, 메마른 광야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들뿐이었다.

32:5 뉘우침 없이 그렇게 한 해를 지낸 뒤에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한 마디(“내가 범죄하였나이다”)를 스스로 토설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 모든 부끄러운 이야기가 고름 짜듯 흘러나왔다. 이제는 꾸미거나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다윗은 마침내 죄를 그 본연의 이름으로 부른다. “내 죄를…내 죄악을…내 죄의 악을…” 죄를 자백하자마자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죄의 악을 사하셨다는 즉각적인 확신을 얻는다.

32:6 그의 기도 응답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백성도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끔 자극해준다. 여호와와 사귄 가운데 사는 자들은 환란 때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홍수가 그들을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32:7 전에는 그렇게 완고하고 뉘우치지 않던 자가 이제는 자신을 회개하고 마음이 부수어졌다.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이 그의 은신처요 환란에서 보호하시는 분이요, 구원의 노래로 그를 두르시는 분이라고 시인한다.

32:8~9 8,9절은 다윗의 말인지 여호와와의 말씀인지 의문을 남긴다. 만일 다윗의 말로 이해한다면 본문은 “용서의 자연적인 반응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특히 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한 제이 아담스의 말을 상기시킨다.²⁸⁾ 만일 다른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본문은 여호와께서 인도를 약속하시고, 끊임없는 굴복이 필요함을 교훈해 주심으로써 다윗의 경배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돌아온 실패자(bac-kslider)를 위해 잔치를 배설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앞길에 대한 감독적인 지도와 삶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그러나 또한 주의사항도 있다.

말과 같이 아무 명령이 없는데도 마구 앞으로 나가려 하거나, 노새와 같이 지시를 했는데도 앞으로 가기를 완고히 거부하지 말라. 두 짐승 모두 유순히 따르게 하려면 재갈과 굴레가 필요하다. 신자는 모름지기 순종의 길로 행하도록 고된 삶의 훈련을 가할 필요 없이 여호와와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

32:10~11 다윗이 이는 한, 의인은 모든 면에서 악인을 능가한다. 그 둘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많은 슬픔이 악인의 유산이다. 그러나 겸손한 신자는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이 그 주위를 두른다. 따라서 의인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이 외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28) (32:8,9) Jay Adams, *Competent to Counsel*, p. 124.

33편 : 새 노래

이 시의 첫 구절과 앞의 시의 마지막 구절은 분명히 관련이 있어 보인다. 두 구절 모두에서 기자는 의인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촉구한다. 그러나 이 시는 의인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를 밝힘으로써 그 주제를 잘 장식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적의 활동이나 핍박이나 환란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 시는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고, 여호와께서 만유의 주재로 인정받으시는 평화로운 분위기이다. 즉, 이 시는 이방인의 압제가 분쇄되고 야곱의 환란의 때가 끝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작에 속한 시이다.

33:1~2 1~7절은 이스라엘에게 경배를 촉구하고, 8절은 이방인에게도 그것을 촉구한다. 찬양은 심히 아름답고 마땅한 바이기에 가능한 가장 감미롭고 세련된 악기(수금과 열 줄 비파)로 연주해야 한다.

33:3 새 노래는 구속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죄 사함(시 32편) 뒤에 오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속한다. 그러나 그 노래는 천년왕국이 개막될 때 구속받은 이스라엘에 의해 매우 특별한 모습으로 불려질 것이다(계 14:3).

33:4 이 새 노래는 여호와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행사를 기념한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실하고 의롭고 불변하고 믿을 만하다. 그분의 모든 행사는 신실히 행해진다. 그것은 창조에 나타나 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 8:22). 그것은 섭리 가운데 나타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협력하고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그리고 그것은 구속에 나타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33:5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와 인자하심에 대한 증거가 온 땅에 가득하다.

33:6~7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분이 다름 아닌 능력의 말씀으로만 하늘과 그 빛나는 별들을 지으신 데 나타나 있다. 그분은 손쉽게 바다를 정한 선 안에 가둬두셨다. 어떤 이들은 이 두 마디 언급을 이스라엘과 이방 열국을 가리키는 시적인 암시로 해석하여, 하늘의 별은 이스라엘을(창 15:5), 그리고 노한 바다는 주 예수님에 의해 그 재림시에 마침내 분쇄될 이방 열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33:8~9 어쨌든 하나님은 극히 위대하시므로 온 인류는 마땅히 그분을 경외하고 최고의 경의를 표해야 한다. 그분의 말씀은 물질을 이루는 거룩한 능력이었다. 그분의 명령에 의해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다.

33:10~11 인류 역사를 통해 불경건한 나라들은 하나님을 훼방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공모해왔다. 그러나 번즈가 말한 대로, “그들은 스스로 만든 최고의 계략에 스스로 말려들어 미쳐버린다!” 하나님은 그 대적들이 꾸민 간교한 전략을 마침내 좌절시킨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분의 목적의 성취를 훼방할 수 없다. 그분은 항상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모든 계획이 실현될 것이다.

33:12 그러므로 축복의 길은 하나님과 협력하는데 있다. 여호와를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들은 그분이 그 자신의 기업으로 빼신 백성이다.

33:13~17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하감하사 온 인류를 온전히 살피신다. 아무것도 그분을 피하지 못한다. 그분은 모든 일을 아시며, 더더욱,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아신다. 그분은 육신의 무기로 싸우는 자들을 아시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신다.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보다 육군과 해군과 공군을 의지한다. 최고의 병기가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그들이 언제나 깨달을지!

33:18~19 하나님은 또한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과, 필요한 도움을 위해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을 살피신다. 그들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다. 그분은 각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주목하신다.

33:20~22 시편 기자와 그의 백성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는 의문이 없다. 그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돕는 자요 보호자로 의뢰한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모든 것을 의뢰함으로써 참 복을 발견해왔다. 다만 그들이 구하는 바는 오직 그분만을 계속 의뢰하며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의 햇살을 계속 쬐는 것이다.

34편 : 새로운 출생의 시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서 발견된다. 사울의 추적을 피하는 중에 다윗은 아기스, 혹은 아비멜렉(이 시의 표제어에 의하면)이란 이름의 가드의 블레셋 왕에게 도피처를 구한바 있었다. (아비멜렉은 인명이 아니라 칭호였을 것이다.) 그 대적의 왕

이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다윗은 성문에 쓰러진 채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체를 했다. 그 왕은 더 이상의 미치광이는 필요 없다고 하며 다윗을 내쫓았고, 다윗은 아들람 굴로 피신했다. 그 사건은 시편 기자의 다양한 경력 가운데 영웅적이거나 용맹무쌍한 기록 중 하나는 확실히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그는 그 사건을 여호와의 의한 극적인 구원으로 보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 시를 기록했다.

오랜 세기를 거쳐오는 동안 신자들은, 주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 받은 그들 자신의 간증을 훌륭하게 표현해주는 까닭에 이 34편을 사랑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 시를 한번 살펴보자.

34:1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것을 베푸시는 분에 대해 우리 마음에 끊이지 않는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말할 수 없이 값진 선물이다. 혹 우리가 여호와의 종일토록 송축한다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 그분을 송축함이 우리 입술에 계속 머문다해도 그 주제를 결코 고갈시킬 수 없다. 인간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영토록 충분히 감사치 못할 것이다.

34:2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성품이나 성취가 아닌 여호와의 자랑한다. 은혜의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다만 죄를 지었으며 그리스도께서 홀로 구원을 이루셨음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어야 한다. 만일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완전하고도 값없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증거를 듣고 귀기울인다면 그들 또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34:3 확실히 구원받은 영혼은 홀로 구속을 즐거워하는데 만족치 않는다. 그것은 너무도 놀라운 주제이기에 그는 그와 함께 여호와의 높이고 모두 함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모든 이웃에게 축

구한다. 어떤 부부들은 이 말씀을 결혼반지에 새겨 넣기도 한다.

34:4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인의 영혼을 가만히 감싸실 때 여호와를 찾고자 하는 거룩한 본능을 그 속에 심어주신다. 구원받은 죄인은 나중에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먼저 자기를 찾으셨음을 깨닫는다! 그것은 다음 찬송시와도 같다.

“내가 주를 찾았으나 후에 안 것은
그분이 내 영혼 움직여 그분을 찾게 하려고
나를 찾으셨네.
오 구주여, 내가 당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찾으셨네.” (익명).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응답하사 우리를 모든 두려움(미지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자백되지 않고 사함 받지 못한 죄를 지닌 채 죽어 가는 두려움, 백보좌 심판 앞에 설 두려움)에서 건지신다.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네 죄가 사해졌으니 평안히 가라!”는 그분의 절대적인 말씀을 듣게 된다.

34:5 그러나 그것은 개인만의 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는 광채를 입는다. 찌푸린 얼굴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고 낙심과 절망은 즐거움으로 바뀐다. 여호와께 삶을 의탁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그분은 신뢰하는 영혼을 낙담케 할 수 없으시다.

34:6 우리는 곤고함과 파산과 수치와 무력함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기꺼이 고백한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다.

“빈 손으로 나아와 당신의 십자가만 붙드네.”

여호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우리의 곤고함이 그분의 무한한 자원을 움직인다. 그분이 우리를 굽어 살피사 모든 환란에서(우리 손으로 짠 죄의 올가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34:7 믿는 자는 구원만이 아니라 보존도 받는다. 여호와와의 사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의 호위병이 되사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모든 위험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분의 양은 하나도 멸망할 수 없다(요 10:28).

34:8~9 구주를 아는 자들은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사마리아의 네 문둥이들처럼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서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왕하 7:9). 여기 전도자의 외침을 들어 보라. “너희는 여호와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믿을 만한 긴박한 초청이다. 우리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복음증거를 생각하고 논증하고 전파할 수 있지만, 모든 증거가 끝난 뒤에 그 사람이 직접 맛보아 알아야 한다. G. 캠벨 머독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만물과 섭리가 제시하는 외적인 증거들에 대해 논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임재가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을 알게 된다.”²⁹⁾

이어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초청이 따른다. 그것은 믿음의 삶에 대한 촉구이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29) (34:8,9) G. Campbell Murdoch, *From Grace to Glory*, p. 66.

말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고 기적적이고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할 것을 권함받는다. 이것은 마태복음 6:33의 메시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10 젊은 사자는³⁰⁾ 때로 먹을 것이 부족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하고 모든 것에 충족하신 공급자이시기 때문이다!

34:11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고 보호하고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침도 준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후 2:11~14).

그러기에 여기서 시편 기자는 그 아들들에게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 (1) 통제된 혀-악과 궤사한 말이 없는 혀.
- (2) 분리된 걸음-악에서 선한 행실로 분리된 걸음.
- (3) 화평한 성품-바울이 말한 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한” 성품(롬 12:18).

30) (34:10) 어떤 학자들은 “젊은 사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본문의 의미는 차이가 없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9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한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보강하기 위해 이 시의 12~16절(상)을 인용한다. 그 복은 여호와와의 은총, 즉 그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다(시 34:15).

34:16 16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그 상반절만 인용했다.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는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데도다”라고 한 나머지 부분은 인용하지 않았다.

이 구절의 전반부는 어느 시대든 해당된다. 그리고 그 후반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성취될 것이다.

34:17 의인은 여호와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을 지닌다. 그분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며 모든 환란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바네스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허락받은 특권, 즉 기도의 특권은 아무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다.

17절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환란 ‘자체로부터’(from)가 아닌 환란 ‘가운데서’(out of)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신자들은 환란에서 면제되지 않는으나 강한 구원자를 소유한다! 그것이 중요한 차이이다.

34:18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는 거절하지만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은 거절치 않으신다. 그분은 친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다가가 시며, 늘 손을 내밀어 그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신다.

34:19 앞서 언급했듯이 의인은 고난이 많다. 아마 앞으로 언젠가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들보다 더 고난이 많았던 지난날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모든 고난은 이생에 국한한다. 게다가 우리는 그것을 홀로 감당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구원을 확신한다. 그분이 죽은 자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언젠가 죄와 질병과 슬픔과 고난과 죽음이 없는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34:20 그러나 죽음에서조차도 여호와께서는 그 성도들의 몸을 보호하신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구절은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요 19:33,36).

물론 여기서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기록된 유월절 어린양이 예표하는 모형의 완전한 실체이시다.

“…뼈도 꺾지 말지며”(출 12:46).

34:21~22 이 시의 마지막 두 구절은 “죄를 받으리로다”(condemned)라는 표현이 붙어있다. 악인의 경우엔 재앙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며, 그들은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와 종들은 그 영혼을 구속하신 분을 소유하며,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아무도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 8:1)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사랑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호라티우스 보나르).

이와 같이 신자는 시간과 영원에서 구원과 보호와 그리고 풍성한 공급하심을 체험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것이 이 시의 메시지이다.

35편 : 친구가 배신자로 변하다

35:1~3 건전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윗은, 풍부한 무기로 친히 무장하시고 잔인한 대적으로 돌변한 시편 기자의 명목뿐인 친구들을 즉시 처분하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고 일어나사 잘 겨냥한 창을 던지며 다윗에게 “내가 저들을 처치하고 네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35:4~6 이들 예비 살인자들이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고 그들의 사악한 음모가 분쇄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공정한 처사일 것이다. 그들이 바람 앞에 겨처럼 무력하고 허약해지고 여호와의 사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 모습 중 하나)에 의해 무참히 쫓겨난다는 것은 의로운 처사일 것이다. 그렇다.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러지고 그 뒤를 여호와의 사자가 맹렬히 쫓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마땅한 보응이다.

35:7~8 그들은 아무 까닭 없이 시편 기자를 대적하는 음모를 꾀하며 들짐승을 잡듯이 그를 잡고자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예기치 않게 그들을 습격하여 그들로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소서!”

35:9~10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념할 것이다. 그의 모든 존재가 여호와를, 아무 힘없는 자를 그 대적의 막강한 세력에서, 무기력하고 곤고한 자를 약탈자에게서 구원하시는 비할 데 없는 분으로 인정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35:11~14 시편 기자의 마음의 깊은 번민을 이해하려면 그를 거스려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 전에 그의 친구들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제 그들이 그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 그를 헐뜯고 고소한다. 그들에게 베푼 모든 인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대가로 증오를 받고 있다. 그가 슬픔에 잠긴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랐다. 다윗이 그들을 측은히 여기며 근심했다. 그는 심지어 먹지도 않았다. 그는 슬픔으로 고개를 떨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절친한 친구나 형제를 위해 하듯 했다. 그는 사람이 그 모친의 죽음을 애도하듯이 슬퍼했다.

35:15~16 그러나 다윗이 재난과 곤경을 당하자 그들은 즐거워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일어나 그를 비난했다. 그들은 그를 끊임없이 비방하며 공격하기 위해 거리에서 배회하는 나태한 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빈정거리며 그를 조롱하는 동시에 증오심으로 이를 갈았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경험은 주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 앞에서 당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며, 이 시의 여러 표현들은 그분의 경험에 적용해볼 수 있다.

35:17~18 여호와께서 행동에 옮기시기 전에 언제까지 그 모든 불의를 관망하시겠는가? 무죄한 자를 대적의 공격에서 건지시고 그 귀한 생명을 그 인간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실 때가 이르렀다.

35:19~21 다윗의 대적들이 그의 멸망을 비웃고 눈짓을 주고받

으며 승리를 자축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그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중하고 준법적인 시민들에 대해 거짓 소문을 꾸며내는 것뿐이다. 어찌다 조금만 미끄러지는 것을 볼 때면 그들은 “하하! 우리가 예상한 대로네! 네가 넘어지는 것을 봤어”라고 떠벌린다.

35:22~25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도 보셨나이다. 그 참담한 상황을 다 지켜보셨나이다. 조용히 숨어 계시지 마소서.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잠에서 깨어 나를 보호하고 내 의로운 송사를 변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실 때이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변호해주시고(당신은 늘 의를 행하시나이다) 나의 멸망을 바라는 자들의 기대를 좌절시키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저들로 그 소원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또 나를 보라는 듯이 멸망시킨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게 하소서.

35:25~26 여호와여, 내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철저히 멸시당하게 하소서. 저들로 나를 향한 그 오만한 태도로 인해 낭패와 불명예로 옷 입게 하소서.

35:27~28 그러나 나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는 모든 자들로 기꺼이 외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게 하소서. 그들로 당신을 섬기는 자들의 형통을 심히 기뻐하시는 당신은 진실로 위대한 여호와라고 증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 혀도 잠잠치 않고 당신의 의와 찬양 반기에 합당하심을 항상 사람들에게 전하겠나이다!

36편 : 큰 죄, 더 크신 하나님

36:1~4 다윗의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는 악인의 죄열을 생

생히 묘사해준다. 죄인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을법한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두려움을 부인한다. 그는 자기 죄가 증명되어 징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쭐댄다. 그의 말은 죄악과 속임으로 가득하다. 그는 덕망 있고 순종적인 삶을 비웃는다. 그는 잠자리에 들어야 할 때도 새로운 음모를 꾸미며, 다음 죄의 유혹에 기꺼이 “네” 하며 악한 일을 착수한다.

36:5 여호와와의 온전하심은 그러한 죄인의 타락함과 완전히 대조된다. 예를 들어 그분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미친다. 바네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것은 극히 고귀하여 하늘까지 미친다. 즉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만큼 높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에 나타난다거나 그 기원이 하늘이라는(그것이 사실이지만) 뜻이 아니라 그 성격이 극히 고귀하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 높다는 뜻이다.”³¹⁾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다. 즉 그것은 창공의 넓이만큼 무한하다는 것이다. A. W. 핑크는 이렇게 설명한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실하심은 모든 유한한 이해력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위대하고 광대하고 비할 데 없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결코 잊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주저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그 선포하신 모든 약속이나 예언을 정확히 지켜오셨으며, 그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나 경고를 유효케 하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민 23:19). 그러므로 신자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

31) (36:5) Albert Barnes, 추가자료는 구할 수 없다.

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외친다 (렘애 3:22,23).”³²⁾

36:6 하나님의 의(義)는 그분이 지으신 안정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의지할 만한 큰 산들과 같다. 그분은 의로운 일을 행하리라고 항상 믿을 수 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입증되었다. 하나님의 의는 죄가 징벌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징벌 받아야 한다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복스런 아들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극히 견고한 까닭에 그분은 우리의 죄가 그분의 죄 없으신 아들에게 지워진 것을 보시고 심판의 잔을 그 아들에게 쏟으셨다. 이제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의로운 근거를 갖게 되셨다. 유효한 대속물에게 형벌이 치러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구주의 피 안에서 증거되었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네.” (알버트 미들레인).

하나님의 판단은 큰 바다와 같다. 이것은 그분의 선포와 결정과 생각과 계획은 놀랍도록 심오하고 정밀하고 지혜롭다는 뜻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감탄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시적인 구원, 즉 그 피조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것은 얼마나 크신 자비인가! 그토록 많은 인간과 그토록 많은 동물과 새와 물고기를 돌보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생각해보라.

32) (36:5) Arthur W. Pink, *The Attributes of God*, p. 47.

인간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며, 하찮은 참새의 경우에는 한 마리도 너희 하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36:7 인간의 삶에 들어오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것은 인자하고 주권적이고 무한하고 원인이 없으며 그리고 불변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그 인자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1743년 존 브라인은 이렇게 표현했다.

“어떤 입술도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으며, 어떤 마음도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 그것은 ‘지식을 뛰어넘는 다’(엡 3:19). 유한한 이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그려볼 수 있는 최대의 개념은 그 참된 속성에 무한히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개념을 뛰어넘는 정도는 하늘이 땅에서 먼 것보다 더 멀다. 그것은 대적하는 모든 산 위에 높이 파도치는 바다이며, 그것에 관심 있는 모든 자에게 모든 필요한 복을 흘러보내는 샘이다.”³³⁾

그런 까닭에 인생이 그분의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발견한다. 불행히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기를 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특권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모든 민족과 계층과 문화의 사람들이 그 비할 데 없는 날개 아래서 안식과 소생과 안전을 발견해왔다.

36:8 거기에는 보호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공급도 있다. “저희가 주의 집의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여호와와 그의 집의 양식과 비교할 양식이 있겠는가? 또한 그 기쁨과 비교할 것이 있겠는가? F.

33) (36:7) John Brine, Arthur W. Pink의 *The Attributes of God* p. 80에서 인용.

B. 메이어는, 하나님은 슬픔은 잔으로 주시지만 기쁨은 강으로 주신다고 표현했다!

36:9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원천 내지 근원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본다. 자연적인 빛이 사물을 실제 모습대로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빛은 우리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우리로 영적인 실제와 세계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에 대해 올바른 안목을 갖게 해준다.

“뛰어난 풍경화가인 코롯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자연의 아름다운 곳 중 한 곳에 있는 자신을 볼 때면 내 작품에 대해 화가 난다.’ 그는 화실에서는 자기 작품에 만족했지만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보면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이유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헤아려보면 우리의 자량은 부끄러움이 된다.”(Choice Gleanings).

36:10~11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높디높은 봉우리들을 척량한 후에 이새의 아들은 인간의 필요라는 계곡으로 돌아와 자신을 악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해주실 것을 기도한다. 11절은 10절을 설명해준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자와 구원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되, 교만한 자들의 발을 막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악인의 손을 막아 그를 멀리 쫓아내지 못하게 해주실 것을 구한다.

36:12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믿음은 시편 기자로 하여금 악인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한다.

37편 : 참 평강

다윗은 생애 동안 불경건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그는, 우리가 악한 계략과 독한 말의 희생물이 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준다.

37:1~2 우선, 행악자로 인해 불평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밤에 침상에 누워 그 격분했던 일을 다시 떠올릴 위험성이 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이 한 말과 행동을 생각한 다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생각하고 그런 다음 보다 적절한 말로 맞받아 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그러는 중에 곧 우리 마음은 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는 이리 저리 뒤척거리며 잠이 언제 올지 걱정하게 된다! 우리의 불평은 우리 자신만을 상하게 한 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이다. 심판의 날이 곧 그들을 베어 쓰러뜨릴 것이며, 그들의 화려했던 경력은 시들고 쇠잔할 것이다.

37:3 그것(그들로 인해 흥분하거나 그들처럼 되기를 바라지 말라)이 이 시의 소극적인 측면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첫째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 이 의뢰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아무 근거 없는 허울좋은 낙관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건치 않은 자를 징벌하고 의인을 상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깊이, 견고하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정직한 자는 정녕 땅에 거하여 안전을 누릴 것이다. 마귀나 사람들의 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양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요 10:27~29). 아버지 집의 거처는 그

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다(요 14:1~6).

요한 웨슬레는 사무엘 브레드번이란 한 동료 설교자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는 5파운드짜리 지폐를 동봉한 다음 이렇게 써넣었다. “사랑하는 새미 형제에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에 대한 감사의 표로 브레드번은 이렇게 말했다. “난 종종 자네의 편지에 인용된 성경구절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곤 하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토록 유익한 성경해설은 전에 본적이 없네.”

37:4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픈 큰 소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인도해오고 계심을 확신하며, 당신의 유일한 소원은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강력한 대적이 고비마다 당신을 반대하고 제지하고 훼방을 했다. 그런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 답은, 그분의 때에 그분이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줄을 알고 여호와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15).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4).

37:5~6 아니면 당신이 오해와 거짓 소문과 비방에 시달릴 수도 있다. 만일 조금이라도 진실이 내포되어 있다면 그 비방을 저버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순전히 거짓이요 악의적인 비방이다. 그럴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 문제를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라. 그 짐을 그분께 내어드리라. 그분이 당신 대신 행하시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온전히 보상받을 것이다. 당신이 결백함을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바네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만일 당신이 비방을 받는다면, 만일 당신의 인격이 모독당하고

얼마간 큰 손상을 입는다면, 만일 악한 자들의 계략으로 당신에게 비난이 퍼부어져 어떻게 대처할지 모를 상황에 처한다면, 그 때 만일 당신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격을 보호하고 먹구름을 말끔히 거둬주실 것이며, 당신의 인격과 행동의 동기에 관한 모든 것이 구름 없는 태양처럼 깨끗해질 것이다.”³⁴⁾

37:7~8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 뒤에 다음 단계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분이 당신의 짐을 지고 계시므로 당신은 그 짐을 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너무도 종종 그런 과오를 범한다. 우리는 그분께 주저주저하며 염려를 건네주고는 신속히 그것을 다시 가져온다.

“날마다 내 염려를 그분께 던져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내 믿음은 던져버리지 말라고 그분이 명하시네.
아, 그러나 나는 어리석게도 무의식중에
내 믿음은 던져버리고
내 모든 염려는 스스로 지네.” (T. 베어드).

“참아 기다리라.” 신자의 자원은 여호와 안에 있다고 거듭해서 말하는 것을 주목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3절).

여호와를 기뻐하라(4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5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7절).

(여호와를) 참아 기다리라(7절).

때로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참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행하실 줄을 확신하고 기다린다(롬 4:21).

34) (37:5,6) Barnes, 'Psalms', 1:320.

또 한번 다윗은 “불평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 이 말을 반복하는가? 물론 강조를 위해서이다. 사람들의 우리에게 대한 태도에 마음 쓰지 않기로 결심한 후에도 우리는 종종 다시 그 일을 떠올리며 온통 우리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파괴적이며 위험한 일이다. 비록 악한 자가 그 길에 형통할지라도(비록 그가 악한 꾀를 이루는데 성공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감정적으로 혼란에 빠지거나 분과 적개심과 악의와 증오심을 키워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러한 감정 상태에 빠지도록 우리 자신을 방치한다면 결국 그것들은 강포한 언어와 행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가해자가 되고 만다.

37:9~11 세상의 모든 잘못이 바로잡아질 날이 올 것이다. 그 때에 행악자들은 끊어질 것이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성도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소유할 것이다. 머지 않아 악인은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늘 출입하던 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 날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전례 없는 번영을 온전히 누릴 것이다. 그 날이 언제 임하겠는가? 교회에게는 그 날이, 구주께서 그분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취하여 그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시작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열방의 믿는 잔존자들에게는 그 날이, 주 예수께서 그분의 대적을 멸하고 평화의 천년 동안 다스리기 위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시작될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 영광스런 날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바라보셨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5).

37:12~13 그 어간에 사기꾼과 강포자와 압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계락을 꾸민다. 그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

게 극도의 적의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이를 가는 소리에 분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회계의 날이 멀지 않음을 아신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대적을 그와 같이 초연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37:14~15 종종 “진실은 영원히 교수대에 달려있고, 거짓은 영원히 보좌에 앉은” 듯이 보인다. 악인은 잘 무장되고 잘 훈련되어 있다. 반면에 의인은 잘 구비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속임을 당한다. 그러나 도덕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변치 않는 법칙이 작용한다. 죄인의 길은 그 끝이 험악하다. 죄는 언젠가 반드시 화를 당하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부메랑 효과가 항상 작용하여, 그들의 칼이 그들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의 병기가 망가지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다.

37:16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엄청난 부(富)보다 나은 것은 여호와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는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비할 데 없는 부를 상세히 밝힌 후에 이렇게 덧붙인다. “...있는 바를 죽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13:5).

37:17~18 악인의 팔(즉, 그들의 힘)은 부러질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무한한 능력에 의해 붙들린바 될 것이다. 그분은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 즉, 그 날들에 행해진 모든 일과 그 일들이 마침내 가져올 결과를 아신다. 그분은 의인의 기업, 즉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벧전 1:4,5)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아신다.

37:19 성도들은 환란이 올 때 그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들은 숨겨진 영적인 자원이 있다. 기근의 날에 그들은 특별한 종류의 풍족을 누린다. 첫째로, 그들은 희생적으로 사는 법을 배웠기에 양식이 부족할 때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다. 한편 그들은 광야에서 식탁을 능히 배설하시는 여호와를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보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모든 만나에는 특별하고 비밀한 향기가 있다.

37:20 그러나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이 시 전체에서 이러한 죽음의 종의 여호와의 대적들을 향해 울린다. 그들은 악한 자, 행악자, 그 길이 험통한 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여호와의 대적,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 악인의 지손, 범죄자 등으로 불린다. “악하다”는 단어는 이 시에 14번 언급되어 있으며, 중심개념 중 하나이다.

여호와의 대적은 풀의 무성함 같다. 그들은 푸른 잎사귀와 꽃으로 번성하다가 그 다음날 추수하는 자에게 베임당하거나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시들어버린다.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37:21 악인은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갚을 마음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을 뜻할 것이다. 그러나 돈이 있음에도 왜 갚지 못하는가? 그것은 항상 지불 능력 이상으로 빌리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은 탐심의 지배를 받는다. 돈을 잃으면 그는 그 잃은 돈을 메우기 위해 돈을 빌린다. 그는 외상으로 큰 건물을 지은 뒤에 갚을 날이 오면 자신의 재물이 줄어드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

번드레한 겉모양 이면에는 경제적인 몸부림이 숨어 있다.

의인은 종종 부족하면서도 매우 마음이 넉넉하여 항상 받기보다는 주고자 한다. 그들은 정녕 베풀기를 원하는 신자는 그 필요가 부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8).

37:22 의인과 악인의 운명은 그들의 여호와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자들은 그분의 저주 아래 처하여 멸망할 것이다.

37:23~24 의인의 걸음은 여호와에 의해 정해진다. 이 23,24절에 나오는 ‘사람’은 문맥으로 보아 ‘의인’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그분과 사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길을 계획하고 인도하신다. 그분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행하는 자를 붙드신다. 그러한 사람은 시험과 환란을 당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손으로 안전하게 붙드시기 때문에 결코 함몰되지 않는다. 또한 의인은 죄에 빠질지라도, 혹 그것이 본 절이 말하는 그런 류의 넘어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호와께 버림당하지 않는다.

37:25 다윗은 평생동안(이 시를 쓸 당시 그는 노년이였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본적이 없었다. 만일 어떤 이가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예를 알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줄 수 있다. 첫째로, 다윗이 말한 것은 의인이 ‘완전히’ 버림받은 예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다윗은 예외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원칙을 언급했을 것이다. 성경은 종종 그러한 예를 보여 준다. 즉, 성경은 영적인 법칙의 정상적인 작용을 포괄적인 진술로 묘사하고 있다. 예외가 전체적인 원리들을 반증하지는 못한다.

37:26 의인은 그 자손을 보내어 구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그럽이 베풀고 종일토록 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는 근면과 절약과 보존을 실천한다. 열심히 일하고, 물건을 신중히 사고, 낭비를 없애고, 사치를 피함으로써 그는 기금을 모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 그의 후손은 집에서 그런 교훈들을 잘 배워서 평생에 걸쳐 실천함으로써 복을 받는다.

37:27 이 구절은 선행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듯이 보이는 성경의 여러 구절 중 하나이다. 우리는 에베소서 2:8~10과 디도서 3:5과 같은 구절에서 사실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선행의 열매를 맺으며, 그런 신실한 성도들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37:28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분의 성도들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그분의 공의에 합한 일이다. 그것은 성도들이 영생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사주려고 죽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 치러진 값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신자의 안전함에 대해 묵상하기를 즐긴다(18,24,28,33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 자신들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 F. W. 디슨은 이렇게 설명한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얻는 길이 하나뿐이라는 확신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 말씀을 붙들고 믿으라. 하나님은 당신

이 그분의 소유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그분이 결코 당신을 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라.”³⁵⁾

그러나 의인은 영원히 보존되는 반면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운명을 생각해본다는 것은 슬픈 과제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소망으로부터 영원토록 분리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는가?

37:29 이스라엘의 으뜸 되는 소망은 메시아의 통치 아래 그 땅에 거하는 것이었다. 경건한 유대인들도 아마 하늘 소망이 있었을 것이나(히 11:10), 그러나 구약시대의 강조점은 평화와 번영의 황금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누릴 물질적인 축복에 있었다. 의인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이란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 나라가 1천년간 지속된 뒤에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란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영원 상태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은 계시록 21:1에 언급된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리라는 약속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계속된다.

37:30~31 의인의 말은 지혜로 가득하다. 그의 말은 건전하고 성경적이고 확실하다. 그는 왜곡된 것이나 속이는 말이 아닌 공의를 말한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로 인해 그 발이 죄와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는다. 스피전의 말대로 의인은 이러하다.

“최선의 장소에—그 마음에

최선의 결과를 낳는—그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35) (37:28) F. W. Dixon, 추가자료는 구할 수 없다.

최선의 것-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다.”

37:32~33 악인은 무죄한 자를 덮쳐 멸할 기회를 찾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무죄한 자를 적의 세력에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며, 그에 대한 재판이 열릴 경우 그가 유죄 선고를 당하게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의 보호자와 변호자시다.

37:34 그러므로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믿고(여호와를 바라고) 순종하는(그 도를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다른 길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아니다. 여섯 번째로 시편 기자는 그러한 자는 모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런 다음 그는 한가지 확신을 덧붙인다. 악인이 멸망할 때 신자들은 그 광경을 지켜볼 것이다. 그들은 그 두려운 사건에 관련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형태의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이다.

37:35 다윗은 인간의 삶을 관찰하는데 예리하고 지각이 있었다. 그는 악하고 오만한 사람이 그 본토에 심은 푸른 나무처럼 세력을 뻗치는 모습을 본적이 있었다. 그 나무는 옮겨 심겨지는 불행을 당치 않은 듯 보였다. 그것은 여전히 그 본토에 심겨진 채 왕성하고 장대했다. 그 악인은 것처럼 번성하고 세력이 있었다.

37:36 그러나 다음 순간 다윗은 그곳을 지나쳤고 그 사람은 가버렸다. 다윗은 그를 찾았으나 아무데서도 찾지 못했다. 그 사람은 잠시 번성했다. 그의 세력은 잠시뿐이었다. 그러나 곧 그는 사라졌고 그의 번성과 세력도 사라졌다.

37:37~38 시편 기자는 완전하고 정직한 자와 범죄자의 차이를

살피라고 우리에게 권한다. 화평한 자에게는 후손이 있으나 악인의 장래는 끊어질 것이다.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육체적인 후손의 긴 계보가 있다.” 톨릭은 화평한 자에 대해 말하기를, “그런 자는 마침내 형통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악인은 그러한 약속된 미래가 없다.

37:39~40 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구주요 환란 때에 그들의 힘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때 본능적으로 그분께 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까닭에 그분이 자신들을 돕고 구원하고 건지신다는 것을 발견한다. 당신은 지금 환란 중에 있는가?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이 당신을 돌보실 것이다!

38편 : 죄에 대한 슬픔

만일 “나의 죄”(3절), “내 죄악”(4절), “나의 우매함”(5절), “나의 재앙(상처)”(11절) 등의 표현이 없다면 이 시는 구주의 고난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만하다. 아마 이 시에 나오는 나머지 표현 중 많은 부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고난당하시는 주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인 적용은 확실히, 그가 범한 죄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 중에 있는 다윗에게 해당된다.

38:1~4 먼저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노하신 하나님의 책망과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징계로 여기며 여호와께 그 손길을 거뒀달라고 구한다. 전능자의 화살이 시편 기자의 몸과 마음을 과녁 삼았으며, 하나님의 손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그는 온 몸이 병들었다. 질병은 그의 뼈속까지 침투했으며 모두 그의 죄

때문이었다. 그의 죄악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식했다. 거대한 물결 마냥 그 죄악이 그를 덮쳤다. 엄청난 돌덩이 마냥 그 죄악이 그의 기력을 산산이 부숴다.

38:5~8 그의 몸은 여기저기 찌어 악취가 나는 상처뿐이었다. 그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인식했다. 그는 고통으로 몸이 구부러졌고 쇠약함으로 움츠러든 슬픔의 화신(化身)이었다. 그의 몸은 높은 열이 들끓었고 그 열기를 피한 곳이 없었다. 그는 싸울 기력이 전혀 없었다. 온 몸이 상한 채 신음소리로 겨우 그 상태를 표현할 뿐이었다.

38:9~11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의 괴로움과 그가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다윗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고, 그의 기력은 급속히 쇠하고, 그리고 그의 눈은 빛을 잃고 있었다. 그의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은 마치 문둥병자를 피하듯 그를 피했으며, 그의 친척들도 그를 찾아오기를 주저했다.

38:12~14 그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은 음모와 위협과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모든 위협에 귀기울이지 않았으며, 방어하거나 자기를 변호하거나 그들을 꾸짖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38:15~17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다. 그는 대적들이 자신의 혹독한 재앙을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다. 그러나 현재 그는 고통에 시달렸고 인간의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다.

38:18 소생된 솔직함과 상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는 의도 없이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자백하며 “송구하옵니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자는 결코 용서가 거부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셨다(잠 28:13). 만일 그런 약속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절망적인 운명에 처할 것이다.

38:19~20 다윗의 생각은 다시 한번 대적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약하고 병들었지만 그들은 왕성하고 강건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의 공정성을 인정하는 반면, 대적들이 아무 까닭 없이 자신에게 악의를 품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으나 그 보답으로 미움만을 받았다. 그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근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선을 좇는 자라는데 있었다.

38:21~22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를 버리지 말고 가까이 계셔서 속히 도와주실 것을 호소했다. 나의 구주 하나님이 되소서!

39편 : 마음의 불

39:1~3 “나는 극한 곤경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거역하거나 원망을 발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불신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한 내 입에 재갈을 물리기로 서원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할 만한 어떤 구실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일절 드러내지 않은 채 병어리처럼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분개와 당혹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주께서 왜 나로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꼭 참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내 영혼의 고통을 어루만지면 만질수록 내적인 압박은 더욱 커졌습니다. 끝내

내 모든 억압된 감정들이 의문에 찬 기도로 분출되었습니다.”

39:4~6 “여호와여, 이 악몽 같은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는지요? 나의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으며, 언제 그 날이 다할는지 말씀해주옵소서. 기껏해야 내 생명의 길이는 내 손의 넓이에 불과하며, 당신의 영원에 비할 때 내 평생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물거품처럼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림자같이 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미친 듯 이리저리 분주히 활동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는 아끼고 모으며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배은망덕한 자와 우매한 자와 낯선 이들이 즐기도록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39:7~8 “그런 고로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특히 내 삶에 이렇게 혹독한 환란을 가져온 죄에서) 건지옵소서. 나는 우매한 자들이 나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39:9~10 “당신은 내가 이 환란이 온 후로 침묵을 지킨 것을 아십니다. 그것은 그 일이 당신의 허용적인 뜻에 의해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께 구하오니 내게서 징계의 손을 거두소서. 나는 당신의 거둬되는 징책으로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39:11 “여호와여, 당신이 여러 가지 형태의 징계로 사람의 죄를 바로잡으실 때 그는 귀한 옷이 좁에 먹히듯이 쇠망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모두 물거품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39:12~13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나오니 내 기도 소

리를 들으시옵소서. 내 절박한 호소를 듣고 응답하소서. 내 눈물에 냉담하지 마소서. 결국 나는 이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룻밤을 지나는 길손 같으며, 내 열조와 같은 유목민입니다. 다만 구하오니, 내게 심판을 그치시고 나로 인생의 무대를 떠나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기 전에 얼마간 건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40편 : 나를 건지셨네!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6~8절)라는 잘 알려진 문구는 이 시를 메시아시로 보게 한다. 그 문구는 히브리서 10:5에서 주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시는 전반부는 메시아의 부활을 다루는 반면 후반부는 그분의 십자가 고난으로 돌아가는 듯이 보인다는 점에서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한 생각의 후퇴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이들은 전반부에서는 구주께서 그 부활을 내다보시며 그것을 마치 이뤄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시의 종반에 나오는 고난의 기도를 대환란 때의 유대인 잔존자들에게 적용시킨다. 본서에서는 이 시 전체를 주 예수님에게(먼저는 그분의 부활에, 그 후에는 그분의 십자가 고난에) 적용하고자 한다. 만일 이렇게 연대적인 순서를 위반한 것이 서구인의 사고방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동양인들은 시간적인 순서를 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기 바란다.

40:1 화자(話者)는 메시아 예수이시다. 그분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기도를 듣고 죽음에서 그분을 건져주실 것을 오래 기다리셨다. 우리의 복스런 주님도 항상 즉각적인 기도응답을 받지 않는 못했다. 그러나 그분은 ‘지체’가 반드시 ‘거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때에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두운 중에 신뢰하는 축복을 모르지 않도록
너무 이르지 않으며,
헛되이 신뢰하는 불행을 알지 않도록
너무 늦지 않네.”

40:2 구주께서는 자신이 죽음에서 건짐 받는 것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 받는 것에 비유하신다. 죄와 사단과 죽음과 무덤에 대한 승리자로 무덤에서 나오사 영원히 사신다는 것이 생명의 수여자에게 의미하는 바를 누가 헤아릴 수 있으리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건짐 받으시는 일은 독특한 일이었으나, 그보다 낮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삶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알 듯이 삶은 깊은 웅덩이들로 가득하다. 성령에 의해 그의 죄를 찢림 받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특히 ‘기가 막힐 웅덩이’ 안에 있는 것이다. 죄에 빠진 신자 또한 배역자의 수렁에 빠진 자신을 발견한다. 질병과 고난과 슬픔의 수렁이 있다. 종종 우리는 갈길을 몰라 방향할 때 어두운 굴속에 갇힌 듯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때로는 깊은 슬픔과 고독과 좌절의 늪에 빠진다. 그런 일들은 기도하고 부르짖고 신음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잊지 못할 경험과 시간들이다. 우리는 우리 구주의 본으로부터 여호와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어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40:3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자 근원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 입에 새 노래를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양의 노래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 대한 증거를 가져온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 주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사실이였다. 그 텅빈 무덤의 기적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인도된 믿음의 순례자들의 끝없는 행렬을 생각해 보라!

40:4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들을 생각하며 부활하신 구속자께서는 모든 영적인 생활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를 선포하신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성취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 다른 길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와 주인(선생)으로 인정할 때만 우리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음 받은 존재들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간이 있다”라고 파스칼은 적절히 표현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주여, 주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안식을 발견하지 못하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와 거짓신을 좇는 자들을 멀리한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착각 중 두 가지인, 교만한 자들의 명예가 중요하다는 생각과, 물질주의, 쾌락, 성적인 탐닉 등의 거짓 신들이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해 속임 당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충만한 기쁨은 우상의 신전에서 숭배하는 무리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존전에서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에 더 관심이 있다.

40:5 그러한 사실은 메시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분의 행사와,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생각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분의 자연적인 창조

의 무한한 세계를 누가 충분히 묘사하겠는가? 그분이 베푸신 영적인 축복들(선택, 예정, 칭의, 구속, 화목, 용서, 구원, 중생,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침, 성령의 보증, 기름부음, 거룩케 함, 양자됨, 후사, 영화 등)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의 모든 자비를

내 영혼이 두루 살피니

그 모습에 감복되어

놀라움과 사랑과 찬미에 사로잡히나이다!” (조셉 에디슨).

40:6 앞서 말했듯이 6~8절은 이 시를 명백히 메시아적인 시로 분류케 한다. 히브리서 10:5~9에서 우리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신 고백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제사와 예물을 규정하셨지만 그것은 결코 그분의 궁극적인 의도를 표현해주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들은 장차 올 더 좋은 것의 모형이자 그림자로 규정된 것이다. 그것들은 임시방책으로서 제 역할을 지녔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진정 그것들로 만족치 못하셨다. 그분에게 그것들은 죄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 까닭에 이상적인 것이 못되었다. 번제와 속죄제의 본질적인 연약성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대신 사랑하는 아들의 귀를 여셨다. 이것은 단순히 구주의 귀가 아버지의 뜻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열렸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러한 자발적이고 준비된 순종의 태도에서였다.

ERV 난하주에는 “나의 귀를 여셨다”(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셨다’로 되어 있음-역주)는 표현이 “나에게 귀를 뚫어주셨다’로 옮겨져 있다. 어떤 해석자들은 이것이 출애굽기 21:5,6의 히브리 종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만일 어떤 종이 제 7년에 해

방되기를 원치 않으면 문지방에 대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음으로 영원히 그의 주인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것이 상징하는 실체인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을 통해 자원하는 종이 되셨으며(빌 2:7),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섬기실 것이다(눅 12:37).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라는 문구는 히브리서 10:5에 인용되면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표현을 바꿀 권위에 대해 말하자면, 처음에 시편 40편에서 그 말씀을 하신 동일한 성령께서 그것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그 의미를 뚜렷하게 밝히실 권리가 있으신 것이다. “귀를 뚫었다”는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표현은 아마 부분(여기서는 ‘귀’)을 전체(여기서는 ‘몸’) 대신 취하는 비유법(제유법[提喻法]이라고 한다)인 듯하다. 신약은 성육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해설해준다.

40:7~8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그것은 유순한 체념이 아니라 전폭적인 기쁨으로 이뤄졌다. 그 때에 그분은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 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단순히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열의와 준비된 마음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머리에만 있지 않고 그 가슴 깊이 새겨졌던 것이다.

40:9~10 본문은 그분의 지상사역을 묘사해준다. 그분은 대회 중에서, 즉 이스라엘 온 집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주신 것을 숨겨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과 지속적인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사랑 등의 위대한 진리들을 홀로 간직하지 않으셨다.

40:11 이 시의 나머지(11~17절)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듯하다. 우리는 구주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시는 소리를 듣는다. 이 부분은 그분이 10절에서 방금 하신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관계를 풀어 설명하면 이렇다. “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구원과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사랑을 증거했나이다. 그러므로 내게서 그러한 인자를 거두심으로 나의 증거를 무효화하지 마소서. 그 인자가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게 하소서!”

40:12 그분의 절박한 호소의 직접적인 이유는 갈보리의 고통이 그분을 덮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무수한 재앙’은 무수한 죄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결과는 원인과 관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죄악은 사실 우리의 죄악(그분이 그 무서운 형벌을 치르기로 약속하신 죄)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의 고통은 극심하여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다. 우리로 사면과 용서를 얻게 하려고 그분이 견디신 고난의 깊이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40:13 극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도움(즉각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하늘 문을 두드리셨다. 마치 “나를 제발 구원하소서, 지금 바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시는 듯하다. 그것은 승리를 거두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감동을 받아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40:14~15 그 대적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악에 상응하는 형벌을 요구하셨다. 그분의 생명을 해하려는 시도로 인해 그분은 그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케 되기를 바라셨다. 그분의 재앙을 바란 까닭에 그분은 그들이 쫓겨남과 수치를 당하기를 기대하셨다. 그분의 불행 을 즐거워한 까닭에 그분은 그들이 자신들이 심히 낮아진 것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고자 하셨다. 그러한 감정은 사랑의 하나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어떤 이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인간은 사랑을 거절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의 형벌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40:16 하나님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항상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는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고 항상 말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40:17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힘은 미약하고 그 필요는 절박했다. 그러나 그분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생각하신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으셨다. 어떤 이의 말대로, “가난과 필요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는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은 그 사랑하는 아들의 도움이자 구원자 이시다. 그러므로 마지막 간구의 외침에서 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셨다. 그 응답은 머지 않아 올 것이다. 제 3일에 아버지께서 내려오셔서 이 시의 초반부에서 살펴 보았듯이 그분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시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의 응답을 본 다음 기도 자체를 보게 된다. 이것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라고 하신 약속을 생생하게 보여준다(사 65:24).

41편 : 병상(病床)의 기도

다윗은 병들었고 그의 대적은 그 병이 치명적이기를 바랐다. 그들은 그가 그 병으로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미 서로 즐거워했다. 다윗에게 또 한가지 슬픈 일은 반역자 중 하나가 전에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이다.

41:1~3 그러나 병상에 누운 자는 아무 위로가 없지 않았다. 먼저 그는 여호와께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여기서 ‘빈약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질병으로 건강이 약한 자를 의미하는 듯하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자신이 행했다(질병 중에 있는 모든 자를 돕고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제 그는 여호와께서 환란 때에 그를 건지신다는 약속을 주장했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보호막으로 그를 두르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다. 그는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본 일로 좋은 평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의 악한 뜻에 내어주지 않으실 것을 확신했다. 그 대신 그분은 병상에 누운 다윗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의 건강과 기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환자의 침상을 편안하게 고쳐주시는 간호사로 묘사되어 있다.

41:4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과거에 병들고 약한 자를 돌아본 일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롭게도 기도로 자신의 질병을 여호와께 가져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병고침을 호소하되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요구하듯 호소했다. 모든 질병이 신자의 삶의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다. 예를 들어 나이든 사람들의 질병 중 많은 것이 노화로 인한 정상적인 쇠퇴과정의 일부이다. 그러나 때로는 죄와 질병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여호와의 존전에 급히 나아가 진실되게 자복해야 한다. 그 모든 경우에는 위대한 의사의 용서만이 세상 의사의 처방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41:5 그 어간에 시편 기자의 원수들은 다윗이 죽었다는 전갈이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가 언제나 죽지? 언제나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라고 그들은 서로 물었다.

41:6 이따금씩 그 악인 중 하나가 문병시간에 찾아왔지만 그는 위로의 말이나 희망과 격려의 말이 전혀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다윗을 비방하는데 이용할 정보를 찾는 듯했다. 그는 그곳을 떠난 후 상상 가능한 모든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41:7~8 병든 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계속 퍼졌으며, 악한 자들은 다윗에게 재앙이 임했다고 미리 짐작했다. 그들은 그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으며 곧 죽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41:9 아마도 ‘가장 비극적인 일’은 절친한 친구였던 자의 배신이였다. 삶의 모든 슬픔 가운데 이것(당신과 가까이 사귀던 자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분명 가장 고통스런 일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유다의 배신에서 구주께서 경험하신 슬픔이며, 또한 그 대장을 쫓는 자들의 삶에 종종 일어나는 경험이다.

주 예수님은 9절을 유다와 관련하여 인용하셨다. 그러나 의미심장하게도 그분은 “나의 신뢰하는바 나의 가까운 친구”라는 표현을 생략하셨다. 유다가 그분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은 그를 결코 믿지 않으셨으며, 이에 단순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다(요 13:18).

41:10 다윗은 말하자면 그를 등뒤에서 찌른 자를 떠나 여호와께로 나아가 자비를 구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을 때 그는 여호와를 신실히 의지했다. 그리고 “나를 일으키사 나로 저희

에게 보복하게 하소서”라는 좀 이해하기 힘든 요청을 했다. 언뜻 보기에는 다윗과 같은 인품의 소유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그가 여호와와의 기름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다는 점과, 그리고 소요와 반역을 처리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그의 의무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개인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악행과 배반을 너그러이 용납할 수 있었으나, 왕으로서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41:11~12 다윗은 그의 대적들의 음모가 좌절되는 것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고백했다.

“주께서 나를 완전한(정직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위의 번역에 의하면, 다윗이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하는 듯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대적에 비하면 그는 미덕의 표본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삶에서 정직과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붙드신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겔리뉴(Gelineau)의 번역은 다소 수공이 간다.

“주께서 나를 붙드시면

내가 아무 해를 당하지 않고 영영히 주 앞에 세움을 입겠나이다.”

이 번역에 의하면, 다윗의 정직성이 아닌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다. 여호와와의 붙드시는 은혜가 이생의 안전과, 하늘의 왕 앞에서 서는 축복을 영영히 보장한다.

41:13 확신과 평은 가운데 이제 시편 기자는 마지막 찬양과 함께 그 목소리를 높였다.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경배 받기에 합당하시다. 다윗은 그 찬미에 두 번의 아멘을 덧붙였으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제2권(42~72편)

42편 :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어떤 이들은 이 시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동안 추방생활 중에 고백하는 소리를 듣는다.

또 어떤 이들은 거절과 고난의 시기에 메시아의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

또 어떤 이들은 장차 환란 시기에 유대인 잔존자들이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듣는다.

또 어떤 이들은 첫 사랑의 시절을 추억하며 주님과과의 친밀한 사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신자에게 이 시를 적용하기를 좋아한다.

다행히도, 그 모두가 적절한 적용이기에 그 중 한가지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시편 특유의 융통성이다.

42:1 하나님과의 사귄을 바라는 우리의 내적인 갈망은 가슴을 헐떡이며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시냇물을 찾아 메마른 들판을 헤매는 사슴의 애절한 열망에 비유할 수 있다. 가말리엘 브레드포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자신에게 투영시켰다.

“나의 변치 않는 한가지 소망은
내 발이 어디에 섰든지
늘 예민하고 지대하고 빈번하고
만족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는 것.”

42:2 우리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그 갈증을 채울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우상이 아닌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

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만 온전히 만족되는 갈망이다.

“당신의 얼굴을,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채를 내게 비취소서.

그러면 당신의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꿈꾸지 않으리.

그보다 못한 모든 빛은 어두워지고

그보다 못한 모든 영광은 희미해지리.

세상의 아름다움은 결코 다시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리.”(익명).

42:3 여호와에게서 분리되는 그 고통을 누가 묘사하겠는가? 그것은 그치지 않는 눈물을 식물 삼는 것이요, 감소되지 않는 불행의 삶이다. 그것으로도 죽하지 않는 듯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대적의 조롱소리가 슬픔을 가중시킨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 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삼하 16:8).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보고 한 말도 그러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마 27:43).

42:4 물론 좋은 시절에 대한 기억도 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사귄 가운데 행하던 때가 얼마나 놀라웠던가를 기억할 때 그러한 사귄이 없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나스는 그의 역본에서 4절의 분위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옮겨놓았다.

“그러나 마음을 녹이는 기억이 되살아나는구나. 전에 내가 어떻게 무리와 어울려 기쁨과 감사의 소리와, 성일의 들끓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였던가.”

42:5 행복했던 지난날에 대한 생각은 영적인 낙심으로 이끌며 비판과 믿음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갈등을 일으킨다. 영혼은 좌절되고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러한 무거운 마음 상태에 도전을

촉구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만일 이것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는 영적인 낙관주의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감정일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100%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이다(시 17:15; 계 22:4).

42:6 낙심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되풀이된다. 그러나 믿음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리라는 확신에 찬 주장으로 되받아 친다. 아마 이 세 장소는 세 가지 영적인 경험을 상징할지 모른다. 그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해 보이는 것은, 그것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지(the land of exile)를 대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전을 방문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전의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42:7 이 7절을 대할 때, 우리의 영적인 본능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갈보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의 파도와 물결이 엄몰할 때 주 예수께서 부르짖으시는 소리를 듣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폭포가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그분 위에 내리쳤다.

“그 고통의 마지막 장면을 보라.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괴로워하시는 그분께

하나님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퍼부어졌네.

얼마나 비할 데 없는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네.” (J. J. 홉킨스).

42:8 그러나 죠지 물러의 말대로 “믿음은 시련을 먹고 자란다.”
따라서 우리는 확신에 찬 신자가 이렇게 확언하는 것을 듣는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것이 3절의 ‘밤낮’에 대한 답변이다. 거기서 시편 기자는 “내 눈 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었다. 그러나 이제 낮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밤은 찬송과 기도로 충만하다. 즉,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입증되는 것이다.

42:9~10 다시 한번, 이번에는 대적의 집요한 압박으로 인해 낙심이 찾아온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잊으신 듯하다. 홀로 버림받은 신자는 애곡하는 자처럼 방황한다. 그는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소리로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Gelineau)라고 말한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리신 듯했다. 그래서 대적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으로 끊임없이 그를 괴롭힌다.

42:11 그러나 믿음은 항상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있다.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대적과 압제에서 건짐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네 구주와 네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했다.

“처방은, 낙심에 도전하고, 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깨어 경성하고, 위를 향해 달려가고, 분주히 움직이고, 경주를 달리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팔짱을 끼고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43편 :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

이 시는 앞의 시와 쌍둥이 시이다. 이 둘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여 NEB는 한 작품인양 한데 결합시키고 있다.

43:1~2 여기서 우리는 시온에서 경배하기를 원하나 경건치 않은 나라와 불의한 자의 방해를 받은 한 추방객(an exile)의 계속되는 기도를 본다. 이것은 대환란 기간에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적그리스도에 의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압제당하는 모습을 예표할 수도 있다.

먼저는 변호와 도움을 청하는 호소가 나온다. 시편 기자는 믿지 않는 동족과 불법의 사람에 대한 그분의 백성들의 송사를 변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궤하지만 여전히 그분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믿음의 고민 중 하나이다. 그것은 승자의 편에 섰지만 여전히 대적의 압제를 당하는 믿음의 수수께끼 중 하나이다.

43:3 이어서 시온에 돌아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기도가 뒤따른다. 이 고백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과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로 이뤄진 호위대를 원했다. 그는 그것이 앞을 인도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뒤를 받침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즐거이 되돌아올 것을 확신했다.

43:4 3,4절에 나타난 상황의 진전을 보라.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하나님의 단에,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참된 경배자는 지리적인 위치나 건물이나 단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그분께로 직접 나아간다!

43:5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전망으로 밝은 빛을 받아,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낙망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도전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확실히 너를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해주시실 것이라고 그는 격려한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네 가장 좋은 하늘 친구가
가시발길을 지나
기쁨의 목적지로 인도하리!” (카타리나 폰 슐레겔).

44편 :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패배의 쓰라림은 전날의 승리를 기억함으로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숨겨진 듯 보일 때 비로소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44:1~3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개입하는 스릴 넘치는 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이교도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그것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셨다. 가나안 족속들을 굴복시킴으로 그분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다. 그들이 낙토(樂土)를 차지한 것은 어떤 군사적인 우월함 때문이 아니었으며, 또한 그들이 승승장구한 것도 그들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한 오른손과 그 전능한 팔과 그들

에게 부여된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이었다.

44:4~8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은 그분을 찬양하도록 감동을 받는다. 그분은 무가치한 야곱의 무가치한 자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위대한 왕이요 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대적을 파하고 침입자들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활은 승리의 무기로 신뢰할 수 없으며, 칼은 충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대적을 완전히 혼란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이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자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44:9~12 그러나 그 어간에 그들의 노래를 탄식으로 바꾼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사 그들로 수치를 당케 하신 듯했다. 군대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없이 나아갔다가 곧 패하여 당황하며 물러났으며 대적들이 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부(富)를 빼앗아 갔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양떼를 도살자들에게 넘기고 그 남은 자들을 이방 열국에 흩으셨다. 마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값없이 팔아 넘기신 것처럼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대적들은 대가를 지불함 없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버렸다.

44:13~16 가련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 유대 백성을 비방하기 위해 속담과 모욕이 동원되었다. 오랜 역사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열국 가운데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들의 부끄러움은 피할 길이 없었다. 그들의 낮은 대적의 모욕과 조롱으로, 복수심에 불타는 원수의 목전에서 늘 수치심으로 물들었다.

44:17 이 모든 패배와 수치에 있어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이스라엘

편에서 어떤 두드러진 잘못 때문에 그 일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때에는 고난과 죄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백성들의 환란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에 기인한 듯 보였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위해 고난당하는 경우였다.

44:18~19 재난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거나 그분의 언약을 범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임했다. 그들은 그분에 대한 사랑이나 그분이 그들에게 정해주신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승냥이의 버려진 땅에 홀고 사망의 그림자로 덮으셨다.

44:20~22 만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상을 숭배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는가? 그분은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아신다.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다. 백성들은 여호와와의 관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견디고 도살장에 끌려갈 짐승처럼 학대를 받고 있었다.

수세기 후에 사도 바울은 동일한 상황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묘사하기 위해 시편 44:22을 인용했다(롬 8:36).

44:23~26 이 시는 23절의 절박한 호소에서 절정에 달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주무시는 듯한 모습에서 일어나 그분의 백성을 위해 개입하라는 촉구를 받는다. 그분의 백성이 티끌 중에 엎드려져 있는데도 과연 하나님이 무관심과 냉담함 중에 그 얼굴을 숨기실 수 있는지, 시편 기자는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기상나팔을 울린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45편 : 만왕의 왕

45:1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쓰기는 쉬웠다. 사실 그의 마음은 왕에 대해 구상한 시를 쓰려는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 표현이 그의 붓에서 자유롭게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이 문자 그대로 타고난 시인처럼 느껴졌다. 그의 혀는 능숙한 서기관(scribe, 우리말 성경에는 ‘필객’이라고 되어 있음·역주)의 붓과 같았고, 설령 우리가 이 능숙한 서기관을 성령과 동일시한다해도 지나친 비약은 아니다.

45:2 먼저 우리는 왕 자신에게로 인도된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비할 데 없다. 그분은 만 사람 위에 뛰어난, 온전히 사랑스런 분이시다. 그 입술은 은혜를 머금어서 그 언어가 극히 감미롭다. 그분의 탁월함 까닭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영영히 복을 주셨다.

“당신은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온전히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의 입술은 은혜로 가득하고

당신의 부드러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영영 당신을 복주시니

우리가 무릎꿇고 고백하는 말,

모든 찬미함이 당신 안에 거합니다.” (저자 미상).

45:3~5 이어서 거의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즉 그분이 권능과 큰 영광으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에로 인도된다. 이번에는 그분께서 겸손한 나사렛 목수로서가 아니라 대적을 무찌르는 전사로서 오신다. 옆구리에 칼을 차고 능한 자가 영광과 위엄 중에 강림하신다. 그분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신다. 그분의 못 자국난 오른 손은 대적을 향해 힘차고 능숙하게 칼을 휘두른다. 그분의 화살은 왕의 대적의 심장을 명중하고, 만민이 그분 앞에 물결치듯 엎드러진다.

45:6~7(상) 이제 전쟁의 연기가 가시고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발하여 그분을 하나님으로 일컫고 그분의 통치를 영원한 통치로 인정하신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8,9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로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 일컫고 계신 사실을 주목하라. 어떤 번역은 이 6절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라는 문구를 “주의 신적인 보좌가 영영 지속되며...”라고 옮기고 있다. 그런데 그 번역들도 이 구절을 히브리서에 인용할 때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라고 옮겨놓았다. 요컨대, 단지 그리스도의 보좌만 신적인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천년간의 지상통치를 마친 후에 그분의 지상 나라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벧후 2:11).

그리스도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홀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이다. 여기서의 의미는 메시아가 완전한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통치는 또한 절대적으로 거룩할 것인데, 이는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45:7(하)~8 그분의 정의와 정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 예수님에게 부여 다른 모든 통치자들보다 높게 하실 것이다. 즐거움의 기름은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위임받는데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을 가리킨다(출 30:22~25). 우리 주님은 제사장-왕이시므로 여기에 기름이 사용된 것이다. 몰약과 침향은 그 기름의 두 주요 원료였으며, 육계는 아가서 4:14에 언급된 '귀한 향품' 중 하나였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위(位)와 사역의 비할 데 없는 향기를 말해준다. 몰약과 육계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특별히 가리킨 것일 수 있는데, 이는 그것들이 장사를 위해 그분의 몸을 준비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요 19:39).

상아궁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분을 즐겁게 한다. 그것은 인간의 눈물과 탄식의 날이 끝나고 황금시대가 마침내 밝아왔음을 즐거워하는 온 세상의 기쁨을 널리 알리는 왕궁의 교향악이다!

45:9 왕은 권능의 날에 외롭지 않다. 세상 군왕들의 딸들이 왕궁의 시종드는 자 중에 있다. 그 우편에는 오빌의 금으로 만든 보석으로 단장한 왕후가 있다. 그러면 누가 왕후인가? 여기서 우리는 왕후를 교회로 보려는 유혹을 거부해야 하는데, 이는 교회는 구약 계시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엡 3:5~9; 골 1:26). 우리가 믿기에 왕후는 이스라엘 민족 중 구속받은 잔존자들이며(겔 16:10~14), 그 시종들은 이스라엘의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이방 민족들을 가리킬 수 있다.

45:10~11 왕후는 신분을 알 수 없는 음성(아마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명성과 그 아버지의 집을 잇으라는 권함을 받는다. 물론 이 말은 그녀를 회심 이전의 삶에 매이게 하는 결속을 끊고 그녀의 주인인 왕에게 온전히 헌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권면은 누가복음 14:26의 우리 구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다른 모든 사랑이 상대적으로 미움을 받을 정도로 깊어야 한다.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아름다움은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 그분은 주(主)시므로 마땅히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소유를 받으셔야 한다.

45:12 두로의 부유한 딸이 예물을 가지고 왕후에게 나아올 것이다. 그렇다. 세상의 부유한 자들이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올 것이다.

45:13 이어서 왕의 딸이 왕 앞에 나타나기 위해 예법에 맞는 장려한 복장을 갖추고 궁중에 모습을 드러낸다. 전에는 죄에 탐닉하며 살았지만 이제 그녀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그녀의 방에 나타난다.

45:15~16 그리고 그녀는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또 시종 드는 처녀들을 거느리고 왕에게로 인도된다. 그들은 크게 즐거워하며 나아가 마침내 왕이 거하시는 궁전에 들어간다.

“그들이 그들의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때 그들 자신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의 기쁨과 아들의 기쁨과 성령의 기쁨과 거룩한 천사들의 기쁨이 어떠하겠는가! 극히 정결하고, 극히 아름답고, 극히 매혹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른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작자 미상).

45:16~17 마지막 두 구절에서 성부 하나님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말씀하신다. 그분은 군왕의 합당한 후계자가 될, “세상을 나눠 통치할”(낙스) 아들들을 그분에게 약속하신다.

왕 자신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의 이름이 세세토록 찬양 받을 것이다. 백성들이 그분을 경모하기를 멈출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46편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1차 세계 대전 중에 스코틀랜드 고지방의 한 섬 마을에서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다. 자원자들이 육지로 건너가기 위해 부두에 집결할 때마다 그 친지와 친구들이 그곳에 모여 이렇게 노래불렀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스코틀랜드 예배용 시에서)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큰 위기를 맞아 이 시로부터 위로
를 얻은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다. 병상에서, 장례식장에서, 박해의
구렁텅이에서, 고난과 비극의 비좁은 방에서 이 위엄에 찬 시가 읽
혀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소성함을 얻었는지 모른다. 시
련과 박해를 당하던 어거스틴 수도승 출신의 마틴 루터란 사람으로
하여금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그 유명한 종교개혁 찬송시를
짓게 한 시가 바로 이 시였다. 그 메시지는 영원하고 그 격려하는
힘은 다함이 없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G. 캠벨 물건은 이렇게 그
제목 붙였다.

- “1~3절—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믿
음에 대한 도전
- 4~7절—주께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시다—믿음의 비밀
- 8~11절—세상의 평화와 전 세계적인 지배—믿음에 대한 변호”

일반적으로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이 앗수르의 여우
인 산헤립에게 에워싸인 중에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은 사건으로 여
겨진다(왕하 18:13~19:35; 사 36:1~37:36). 이 때에 유다 백성은 하
나님이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체험했다. 따
라서 이 시는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신 분을 높
이 찬양하고 있다.

46:1~3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매우 현재적인 도움(우리말 성경에는 ‘큰 도움’이라고만 되어 있음—

역주)이다. 또한 그분은 “열악한 환경에서 넉넉한 도움을 주실 수 있다”(NASB 난하주). 우리의 안전과 보호가 부나 군대가 아닌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이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라! 어마어마한 화산폭발에 휩싸인 듯 땅이 녹아 내린다고 상상해 보라. 지진이 일어나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던져진다고 상상해 보라. 홍수가 넘쳐 땅을 삼키거나 산들이 자연의 대격변으로 뒤흔들린다고 상상해 보라.

여기서 말하는 산들이 제국이나 도시를 상징하고 바다가 열국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보라.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고 나라들이 요동하고 분열되고 있다. 세상 나라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으로 갈팡질팡하며 전례 없이 강렬한 환란이 온 세계를 휩싸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최악의 상황이 닥칠지라도 아무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46:4 그분 자신이 그 시내가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강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강이 어떤 성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듯,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러하시다. 아니 그분은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과 소생의 샘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강이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닐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돌림 같을 것이라”(사 33:21).

46:5 예루살렘이 요동치 않을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좌정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새벽에 예루살렘을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고 어두운 밤이 계속되었으나, 이제 곧 아침이 밝아올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마땅한 자리를 취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능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46:6 세상 열방이 분노하고 왕국들이 동요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노 중에 말씀하실 때 땅은 그분 앞에 부복하여 녹을 것이다.

46:7 이 고백은 세상이 자연의 대변화와 정치적인 격변과 전쟁과 질병과 말할 수 없는 곤경에 휩싸일 대환란 때를 특별한 면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 때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과 거역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 때에 이스라엘 민족 중 믿는 잔존자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고백할 것이다.

이 구절의 확신에 찬 표현은 극히 아름답다. 만군의 여호와, 즉 천군 천사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속이는 자’ 또는 ‘간청하는 자’를 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으신다. 이 두 개념을 결합해보면 천군 천사의 하나님이 또한 무가치한 죄인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무한히 높으신 분이 또한 아주 가까이 계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의 모든 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시다.

46:8 8절에 이르러서는 혼란과 재난이 끝났다. 인간의 날이 마감되었다. 이제 왕께서 예루살렘 보좌에 좌정하셨다. 우리는 나아가 그분의 승리의 싸움터를 살피라는 권고를 받는다. 어디를 둘러봐도 그분의 패배한 대적의 잔재들을 볼 수 있다. 대환란 때와 그분의 영광스런 출현시에 임한 두려운 심판의 증거들이 온 천지에 널려 있다.

46:9 그러나 이제 평강의 왕이 보좌에 앉아 계시므로 온 세상에 전쟁이 그쳤다. 회의와 동맹과 정상회담이 이루지 못한 일을 주 예

수께서 그분의 철장으로 이루신다. 무장해제가 논의를 넘어 실행된다. 각종 무기가 고철로 변하고, 무기제조에 사용되던 기금이 이제 농사와 그밖에 생산업에 투자된다.

46:10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 확고하고 위엄 있게 울려 퍼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모든 두려움이 진정되고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 그분의 백성은 쉬을 누릴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의 도모는 이뤄진다. 그분은 열방 위에 뛰어나시며, 온 땅 위에 뛰어나시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라는 찬송시의 저자인 카타리나 폰 슐레겔은 이 10절에서 영감을 받았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네 하나님이 과거처럼 미래도 인도하시리.

네 소망과 네 믿음을 굳게 하라.

현재 알 수 없는 것들은 마침내 밝아지리니

내 영혼아 잠잠하라.

바람과 파도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을 잠잠케 한 그분의 음성을 아직도 기억하리.”

46:11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얼마나 상황이 어둡든지 간에 신자는 여전히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는 분이 우리편일진대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무가치한 벌레와 같은 야곱,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 불확실한 삶의 폭풍에서 우리 모두가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요새이다!

“잠잠하라. 아침이 오리니

밤이 그칠 것이라.

네 빛이요 네 신실한 친구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일을 내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라.
위를 보라. 잠잠하라.” (플로렌스 윌스).

47편 : 복된 새 해가 밝았다!

메시아의 황금시대의 첫 해를 기념하는 행사가 해질 무렵 국립 극장에서 성스런 연주와 더불어 열렸다. 프로그램의 중심은 최근의 세계정세 변화에 비추어 새로운 의미를 얻은 생동력 넘치는 시편 47편이었다.

47:1~4 이 시가 시작되자, 청중은 최근의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이방 열국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촉구 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찬양대가 전혀 없이 감정을 터뜨리며 리드 미컬하게 박수를 쳤다. “지존하신 여호와께 엄위하시고”라는 대목에 이르자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최근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관식 때에 “온 땅의 큰 임군”으로 선포된 일을 기억했다. 환란 때에 이스라엘을 심히 대적했던 열방을 그들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일을 기억하며 그들은 그분께 감사를 올렸다. 다음과 같은 찬양이 불려지면서 잔잔한 환호의 물결이 온 극장을 휩쓸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셀라).”

47:5 대적을 복종시키기 위해 전사(戰士)로 강림하신 메시아가 이제 그분의 백성의 기뻐 외치는 소리와 그분의 압도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소리 가운데 예루살렘 보좌에 올라가신 분으로 높임을 받으셨다.

47:6~7 찬양대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왕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더 이상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갈보리에서 찢린 손이 세계정부의 통치권을 쥐고 계신 것을 인정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모두가 훌륭한 시(지혜와 묵상의 마스길)로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47:8 거듭해서 찬양대는 메시아-왕의 신성을 강조했다. 그분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 보좌가 거룩함 위에 세워진 분이시다.

47:9 다음 노래가 불려질 때 아마 어떤 이들은 뭔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과거에는 방백들이 종종 이스라엘을 바다에 몰아넣으려고 함께 모였었다. 그러나 찬양이 계속되면서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께 예물을 드리고 있었다.

세상의 방패가 백성의 보호자로 임명된 통치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분은 세상의 모든 세력가들 위에 지존하시다.

합창이 끝나자 평론가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처럼 뜻깊은 로쉬 하사나(신년절)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48편 : 무엇을 보았는가?

이방 침략자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 이르렀다. 성안에 있는 백성들은 오랜 포위생활을 겪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전망이 암담했다. 그 때 여호와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적군은 뿔가에 놀라 혼비백산 중에 퇴각했다. 예루살렘은 멸망에서 보호받았으며, 큰 찬양의 물결이 하나님께 올려졌다. 이 48편은 그런 순간의 기쁨을 잘 드러내 준다.

48:1~2 여호와는 말할 수 없이 광대하시다. 그분은 능력과 지식과 영광과 은혜에 있어 광대하시다. 그분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광대하다. 그분의 판단은 찾을 수 없고 그분의 길은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은 그토록 광대하시기에 극진히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 그분은 위대한 창조주로, 위대한 보존자로, 위대한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위대한 구속자로, 그리고 그분의 백성의 위대한 구원자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다. 여기 48편에서는 특히 그분의 성과 그분의 백성의 구원자요 보호자로서의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을 동등한 수준에서 일컫는다. 그들은 그 성을 그 성전의 내소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짓는다. 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그분의 거룩한 산꼭대기에 위치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다. 아름다운 면류관에 박힌 보석처럼 그것은 극진히 아름다운, 온 땅의 보석이다.

때로 시온산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은 “먼 북쪽에” 혹은 “북방에”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낙스와 겔리누는 “지구의 극단(極端)”이라고 옮겨놓았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고대 백성들이 보기에 실로 그러하다. 그곳은 사람들을 끄는 자력의 구심점으로서, 세계의 종교와 정치와 문화의 수도로 관심을 모으는 곳이다. 아울러 그곳은 큰 왕의 성으로서, 장차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 지상에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수도이다.

48:3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할 만한 보호자로 알리

셨다. 그 성의 멸망이 목전에 있을 때 그분이 어떻게 기적으로 그 성을 건져내셨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다. 그 일이 일어난 경위는 이렇다.

48:4 적군이 성 바깥에 군대를 밀집시켰다. 그들은 엄청난 군사력으로 공격할 준비를 갖췄다. 군사적으로 말해서 그 성은 적의 군사력에 대항할 아무 희망이 없었다.

48:5 그 때 침략군은 뭔가를 보고 사기를 잃고 말았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본문에 묘사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을까? 그런 작은 성을 보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두려워 떨었을 리 없다.

그보다는, 그들과 보이지 않는 세상 사이의 막이 치워지자 천사의 군대가 그 성을 보호하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그 산이 불말과 불수레로 가득 찼거나(왕하 6:17), 여호와의 사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 모습)가 나타난 것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사 37:36).

48:6~7 솔직히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그 용맹한 전사들의 사기를 빼앗아갈 만큼 두려운 광경이었다. 그 광경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 적진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들은 앞을 다투어 달아났다. 그들의 곤경은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될 만했다. 침략자들의 혼비백산한 모습은 큰 배가 폭풍을 만나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48:8 성 안의 백성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기적적인 승리로 돌변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기초자요 보호자라는 것을 늘 들어왔으나 이제는 그것을 눈으로 직

접 본 것이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들어온, 하나님이 그 성을 영영히 붙드신다는 사실을 목도했다”(낙스).

48:9~11 이에 그들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 그들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을 묵상할 이유가 풍성했다. 그들은 하나님은 그 이름이 알려지는 곳마다 그 오른손이 의로운 승리로 가득한 분으로 찬양받으신다는 사실을 묵상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은 기뻐하고 유다의 작은 성들은 즐거워하라고 촉구했다.

48:12~14 이제 그들은 일종의 전후(戰後) 여행으로 그 성 주위를 살피고 있다. 그들은 망대의 수를 세고(모두 제자리에 있다), 성벽을 살피고(모두 흠이 없다), 그리고 궁전들을 둘러보도록(적군이 오기 전처럼 훼손되지 않았다) 피차 격려했다. 그것은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할 놀라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예루살렘을 조금도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셨는가! 그들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라고 후대에게 가르칠 것이다.

어떤 이는 14절을 이렇게 옮길 수 있다고 적절히 제안한바 있다.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니 죽을 때까지, 죽음 너머까지, 그리고 죽음 저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49편 : 악인과 그들의 부(富)

인생의 커다란 수수께끼 중 하나는 악인은 종종 물질적인 번성을 누리고 신자들은 종종 가난을 경험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그토록 탐욕스레 의지하는 부

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들을 실망시킬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들은 그것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며, 또한 그것이 그들이 무덤에서 썩는 것을 막지 못한다. 결국 여호와가 아닌 돈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이 이 49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요지이다.

49:1~4 이 메시지는 만민과 개개인, 귀한 자와 천한 자, 빈한 자와 부한 자를 막론하고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것은 통찰력이 가득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정제된 지혜의 메시지이다. 다윗은 그러한 일반적인 삶의 불평등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가 그 해답에 이르고는 그 깨달은 바를 수금에 맞춰 노래했다.

49:5~9 사실, 압제자들이 바짝 뒤따르고 핍박자들이 악한 음모로 에워싸는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그들의 대적은 금과 그것이 주는 권력을 의지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자랑한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돈은 그들의 형제나 그들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을 구속하는데는 엄청난 대가가 요구된다. 재정적인 협상으로 죽음의 날을 연기시키려는 시도는 영원히 실패할 뿐이다. 지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사거나 무덤을 피할 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8절은 괄호가 쳐졌듯이 삽입부분이다(우리말 성경은 아무 표시가 없다-역주). 7~9절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저로 영존하여 구덩이를 보지 않게 못하리니.”

49:10 머지 않아 지혜 있는 자도 죽는다. 또한 부유한 우준한 자와 무지한 자도 죽고 그 부를 타인에게 남겨둔다. 지혜 있는 자는

그 부를 타인에게 남겨둔다고 말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라. 그의 마지막 유언장은 아마 이러한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내 재물을 주님의 일에 드렸노라.”

49:11~12 이 세상에서 재물을 모을 만큼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들이 죽을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듯 보인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집이 영영히 지속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무한히 오래 살 것이라고 그들에게 속삭인다. 그들은 집과 거리와 마을을 그들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진리는, 아무리 지위 높은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짐승과 같다. 물론 다른 점에서 인간은 짐승과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몸은 무덤에 내려가지만 그 영과 혼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몸은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든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든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이나 짐승은 그렇지 못하다.

49:13~14 그것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인 아닌 그들의 부를 의지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죽으며,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은 그들의 심오한 지혜를 되새긴다. 필연적으로 몸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운명을 지닌 까닭에 그들은 죽음이란 목자에 의해 무참히 무덤으로 끌려가고 있는 양과 같다.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자와 나사로처럼 입장이 뒤바뀔 것이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눅 16:25).

부자의 모든 장려함과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그는 음부밖에 거할

곳이 없으니, 그가 이 땅에서 누리던 집과 얼마나 대조되는가!

49:15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되는 얼마 안 되는 부활에 관한 빛줄기 중 하나를 대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구약의 기지들은 죽음과 그 너머에 관해 매우 불분명한 견해를 드러낸다. 그러나 여기서 시편 기지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해체된 상태에서 건져내사 부활한 몸에 재결합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라는 표현에서 그는 하나님이 에녹과 엘리야를 영접하신 일과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49:16~19 그러므로 경건치 않은 자가 부유해지고 그 집이 갈수록 멋있고 고급스러워진다고 해서 신자는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세상이 그가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이다! 그는 죽을 때 아무 재산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는 아무 영화도 지니지 못한 채 빈손으로 무덤에 들어간다. 살아있는 동안 그는 그의 행복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그가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칭찬한다. 그러나 머지 않아 그는 열조와 같이 죽어서 그들과 함께 기나긴 어두운 밤을 지날 것이다.

49:20 사람이 지상의 재물과 명예를 굳게 붙들 수 있는 길은 없다. 멸망하는 짐승에게 찾아오듯 사망이 반드시 그에게 찾아온다.

의인도 악인처럼 죽지 않느냐고 혹자는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다. 주님께서 그 사이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의 요점은, 악인은 그 모든 부를 뒤에 두고 떠나지만 의인은 무한한 부라는 그들의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 간다는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성경에서는 흔히 부자가 악인과 동일시된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보다 부를 의지하는 것은 정죄한다(그리고 부를 의지하지 않은 채 그저 소유만 하는 것은 어렵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정죄한다. 성경은 강압과 불의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을 정죄한다. 그리고 성경은 버림받고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의 필요를 무시한 채 부를 끌어 모으는 것을 정죄한다.

50편 : 하나님의 진행중인 심판

이 시의 배경은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이스라엘이 피고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증인인 법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정을 오래 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막연한 재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법정은 온 세상에 흩어진 그분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평가이다.

개정 중인 법정(50:1~6)

50:1 먼저 재판장께서 이스라엘 전역(동에서 서까지)에³⁶⁾ 있는 모든 백성을 그분의 재판석 앞에 서도록 소환하신다. 그분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이 재판장의 목소리에 권위를 부여한다.

50:2~3 이어서 재판장께서 찬란한 영광의 구름(쉐키나)의 형태로 시온산 성전에 있는 그분의 처소를 떠나신다. 그분은 더 이상 그분의 백성의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시온산에 임하셨듯이 그 앞에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 광풍이 몰아치는 중에 임하신다. 그러나 이번에는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내

36) (50:1)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에레츠*)는 '세상'과 '땅' 모두를 의미한다.

적,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임하신다.

50:4~5 그분은 재판석에 앉자 곧 천지를 증인석에 앉도록 소환하신다. 그런 다음 시종들에게 피고를 데려오라고 명하신다. 먼저 그분은 제사로 그분과 언약한 자들이라고 묘사하신 이스라엘 성도들을 재판하고자 하신다. (그것은 호렙산에서 작성되고 제물의 피로 인준된 율법의 언약을 가리킨다-출 24:3~8.) 그분의 신실한 자들에 대한 재판은 7~15절에 발견된다. 후에 그분은 악인에 대한 특별 재판을 여신다(16~19절).

50:6 하늘이 하나님의 재판의 공의로움을 증거하도록 소환당한 다. 하나님 자신이 재판장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모든 사실을 완전히 알고 계시고 절대적으로 공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판결은 지혜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뜻한다.

의식주의의 죄(50:7~15)

50:7 하나님은 이제 검사의 입장에 서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증거하신다. 인간 사회에서는 재판장이 검사를 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그러나 여기서는 전적으로 타당하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다름 아닌 지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50:8 하나님은 우선, 이스라엘이 그분께 제물을 가져오는 일은 등한히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신다. 그들은 번제를 가져오는데는 신실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러한 의식이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의무를 완전히 면제해준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1년 내내 어머니께 무관심하다가 어머니 생일에 초콜릿을 사드리고 그것으로 할 일을 다한 체하는 딸들과 같았다! 또는 아버지에게 전혀 감사를 표하지 않다가 아버지 생일이면 선물을 갖다드리는 아들

들과 같았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짐승의 제물로 그분의 단을 채우고는 정작 그분 자신은 냉대했다고 지적하신다. 제물을 바치는 일에 관한 한 그분의 백성은 아주 세심했다. 그러나 여호와 자신과의 친근하고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은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F. B. 메이어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시는 하나님의 전의 의식에 외양적으로 순종하는데 만족하고 마음의 사랑의 경의는 표하지 않는 위선자들을 엄히 꾸짖는다.”³⁷⁾

50:9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의 집에서 수소나 그들의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종교적인 의식에 만족하는 의식주의자가 아니시다. 제사제도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결코 올바른 외적인 행동이 잘못된 내적인 태도를 가리는데 사용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

50:10~13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멈추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짐승, 즉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을 하나도 취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것이다. 그분은 주리지 않으신다. 혹 주리실지라도 그분은 먹을 것이 풍부한 곡간이 있기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수소의 고기나 염소의 피에서 양분을 얻거나 만족을 얻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자족(自足, self-sufficient)하신다.

50:14~15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37) (50:8) Meyer, 'Psalms', p. 63.

(1) **감사.** 어떤 예물도 단순한 감사를 대신할 수 없다. 너무도 종종 우리는 그 소중한 어머니를 소홀히 여기다가 어머니가 죽은 뒤에 값진 수의(壽衣)를 입혀 감사를 대신하려는 가족과도 같다!

(2) **서원을 행함.**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사랑과 경배와 섬김과 헌신의 서원)을 갚으며.”

(3) **기도로 교통함.**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대한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기도소리를 즐겨 들으시며,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과 그분 자신과의 친밀하고 다정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신다.

그러나 악인에게는...(50:16~21)

50:16~17 재판장은 이제 이스라엘 중에 다른 부류, 즉 종교적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은 공공연하게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들이 성경을 경건하게 인용하거나 언약의 축복을 소유했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신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의 잘못을 일일이 열거하신다.

그들은 교훈을 미워했다. 아마 그들은 스스로를 교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건설적인 비판을 환영하거나 적어도 받아들이는 대신 이 위선자들은 그것을 분히 여기고 조언하려는 자들을 공박했다. 그가 여호와일지라도 그러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성경말씀에 깊은 경외심을 표하는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그들 뒤로 던져버렸다.

50:18 그들은 성별의 길을 거절했다. 그들은 도적과 간음하는 자와 더불어 짝함으로써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

50:19~20 그들의 말은 악했다. 그들의 입은 악을 무절제하게 토해냈다. 그들은 거짓말과 속임수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들의 가까운 친척도 그들의 악한 비방에서 안전하지 못했다.

50:21 하나님이 즉시 그들을 징벌하지 않자 그들은 그분이 그들처럼 경솔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분의 오래 참음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임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침묵을 깨고 위에 열거한 죄목으로 그들을 책망하신다.

경고와 약속(50:22~23)

50:22~23 이 시는 경고와 약속으로 마감된다. 경고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양 그분을 잊고 사는 자들에 대한 것이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자처럼 덮쳐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러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로 나아오는 자들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이러한 순종의 길로 행하는 모든 자는 위험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할 것이다.

51편 : 참회의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연금술은 더러운 죄악에서 참회와 찬양의 아름다운 향기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말한바 있다. 우리는 이 51편에서 그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표제어가 설명하듯이 이 시는 밧세바와 간음을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를 선지자 나단이 담대히 지적한 후에 다윗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의 죄를 철저히 깨달은 가운데 다윗은 그 부서지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부터 이 참회의 고백을 토로한다.

우리는 그의 고백을 이렇게 풀어쓸 수 있다.

51:1 하나님여! 내가 당신의 인자를 구합니다! 나는 형벌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 사실을 의지하여 당신께 마땅한 처분대로 나를 대하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인자는 극히 풍성하며, 그런 까닭에 나는 감히 당신께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범한 내 두려운 죄를 도말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51:2 당신의 끈은 선을 벗어난 모든 사례로부터 나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표적을 벗어난 그 두려운 길들로부터 나를 깨끗케 해주옵소서.

51:3 오 나의 하나님, 나는 내가 당신의 율법을 범한 것을 밝히 시인합니다. 나의 죄는 밝히 드러났고, 나의 회개 또한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죄책이 밤낮 나를 따라다니며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견딜 없습니다.

51:4 이제 나는 내가 당신께, 오직 당신께 죄를 범했음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물론 나는 밋세바와 그녀의 충실한 남편 우리아에게도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그 용감한 지휘관에게 행한 나의 배은망덕한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나 나는 모든 죄가 우선적으로 당신께 대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율법이 손상되었습니다. 당신의 뜻이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 편에 서서 나 자신을 대적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선고에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며, 아무도 당신의 결정에서 흠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51:5 여호와여, 나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더 나아가 나는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내 모친에게 부끄러움을 돌리거나 나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는 뜻이 아

닙니다. 내 말은 단지 내가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이 본성적으로 죄악되다는 뜻입니다.

51:6 그러나 당신은 죄를 미워하시고 사람의 내면의 진실함을 원하시기에 이제 나는 당신께 나아가 내 마음 깊이 지혜를 가르쳐주시기를 구합니다.

51:7 당신은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 우슬초와 흐르는 물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레 14:1~8). 여호와여, 나는 도덕적인 문둥병자의 위치를 취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소서. 내가 정하겠습니다. 나를 씻겨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겠습니다.

51:8 나는 죄를 범했을 때 내 노래를 잃었습니다. 나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로 다시금 즐거운 가락을 듣게 하소서. 범죄한 상태에서는 마치 당신이 내 뼈를 꺾으시나로 절름발이가 되게 하신 듯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룩한 절기에 당신 앞에서 춤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로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춤추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꺾인 뼈들을 고쳐주소서.

51:9 오 나의 하나님, 당신께 구하오니 심판과 징벌 중에 내 죄를 바라보는데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소서. 나의 무수한 죄악들의 마지막 남은 흔적마저 다 지워주소서. 그것들은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요!

51:10 지난 일을 돌아보니 모든 문제가 내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사고생활이 오염되었습니다. 나는 악한 생각을 즐기다가 마침내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나

는 당신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만일 샘이 깨끗하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시내도 깨끗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 모든 내면의 자아를 새롭게 하사 앞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일에 견고하게(정직하게) 하소서.

51:11 여호와여, 나를 포기하거나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나는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간다가나 당신의 성령이 내게서 취함을 입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이 시대에서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께 불순종하는 길로 행할 때는 그들에게서 당신의 성령을 취해 가십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삼상 16:14). 그 결과를 생각하면 심히 두렵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나를 그러한 운명에서 건지소서.

51:12 앞서 말했듯이 나는 내 노래를 잃었습니다. 내 영혼이 아니라 내 노래를 잃었습니다. 당신의 구원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었습니다. 이제 회개와 자복과 그리고 죄를 버리며 당신께 나아와, “부러진 줄로 다시 한번 소리를 울리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의 즐거움만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당신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로 기꺼이 당신께 순종하며 범사에 당신을 기쁘시게 하도록 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51:13 내가 용서받으면 그 한가지 결과로, 다른 범죄자들에게 용서와 화평에 대한 당신의 도를 적극적으로 전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행하신 일을 들으면 그들도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51:14 그리고, 하나님이며, 만일 당신이 나를 피를 흘린 죄에서

건지신다면 온 세상이 당신의 구원에 대한 나의 증거를 들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아의 피를 흘린 죄책이 나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지난 부끄러운 일을 깨끗이 씻어주시면 내가 영원히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51:15 내 입술이 내 죄로 인해 이제까지 굳게 닫혔습니다. 당신의 용서로 내 입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 입이 당신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드러질 것입니다.

51:16~17 여호와여, 나는 용서받기 위해 의식이나 예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에 당신은 의식주의자가 아니십니다. 만일 당신이 짐승의 제물을 원하신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는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당신이 제사와 예물을 정하긴 하셨으나,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당신의 궁극적인 이상(理想)을 표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옵니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당신은 내가 가지고 온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51:18 그리고 여호와여, 나는 나 자신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소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소서. 내 죄가 당신의 일의 진전을 필경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에 누를 끼쳤습니다. 이제 아무 방해함 없이 당신의 일을 진전시키소서.

51:19 우리 모두가 당신과 사귄 가운데 행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 그 때 당신은 우리의 의의 제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말해주는 제물이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시고 불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신의 단에 수소를 드릴 것입니다.

52편 : 밀고자의 정체를 밝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상 21,22장에서 발견된다.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다. 그는 도피중인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 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곧바로 사울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고했으며, 그 대가로 아히멜렉과 그밖에 84명의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일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들을 죽인 뒤에 그는 놉에 사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죽이고 마울과 짐승까지 멸하였다.

1~4절은 도액의 성품을 보여주고, 5~7절은 그의 운명을 보여준다. 그리고 8,9절은 그와 대조되는 시편 기자의 성품을 보여준다.

52:1~4 다윗의 첫 질문은 자신의 극악한 죄악을 자랑하고 “종일 토록 하나님의 충성스런 종을 모함하는” 밀고자의 패역을 공박한다. 적그리스도의 원형(原型)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역한 자는 사람들을 논단하는 비방을 일삼는 날카로운 혀를 소유했다. 그는 선보다 악을 훨씬 더 좋아했고 진실보다는 거짓을 즐겨 말했다. 거짓의 화신(化身)인 그는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말을 일삼았다.

52:5 하나님과 인간의 정의(正義)는 모두, 시편 기자가 도액과 그 모든 동류들에 대해 예언하는 운명에 의견을 같이한다. 하나님은 돌무더기로 변한 건물같이 그를 멸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를 장막에서 낚아채어 산 자의 세상에서 완전히 뿌리뽑으실 것이다.

52:6~7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날을 보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놀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그 밀고자의 처지를 비웃을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52:8~9 시편 기자의 성품은 극히 대조를 이룬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하는데, 감람나무는 번성과 결실을 상징한다. F. W. 그랜트는 감람나무를 이렇게 설명한다.

“...영원한 생명의 신선함으로 푸르른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기름)이 거하는 나무이다. 그것은 악인이 쫓겨나는 그 ‘장막’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전 안에 있다.”³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은 도둑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겠다고 다짐한다.

그가 영원히 할 또 한가지는 여호와께 그 행하신 일, 즉 악인을 징벌하고 의인을 변호하시는 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그분의 이름이 선하고 그분의 모든 어떠한 힘이 선한 까닭에 그분의 충성스런 성도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53편 : 무신론의 어리석음

시편 14편과 이 시의 주된 차이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또는 야웨)에서 엘로힘으로 바뀐 것이다.³⁹⁾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그분의 백성의 복지에 관심이 깊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38) (52:8,9) Grant, “*Psalms*,” 3:212.

39) (53장 서론) 시편 14편에서는 여호와란 이름이 네 번, 엘로힘이란 이름이 세 번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엘로힘이란 이름이 일곱 번 나온다.

(여호와, 주)의 존재를 부인한다.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가 우주를 붙들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주권자되신 하나님(엘로힘)의 존재를 부인한다.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부인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창조주가 어느 특별한 민족이나 무리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또 어떤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을 일절 부인한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53:1 어리석은 자는 저능아나 우둔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는 그 시대의 교육에 있어서는 매우 총명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섭리에 대한 증거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 그는 의도적으로 알지 않는다. “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진리를 인정하기를 악의적으로 거절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무신론은 때로는 원인으로서, 때로는 결과로서 타락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엘로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가증한 악을 행하는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 중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53:2 이제 이야기는 무신론자에서 인류 전체에게로 전환되는 듯하다. 바울은 모든 인류의 전적인 타락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로마서 3장에서 본문을 인용한다. 물론 그 기소는 옳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류를 굽어 살피셨으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지혜가 있는 자를 하나도 찾지 못하셨다. 성령의 우선적인 사역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53:3 그들은 모두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물러났다. 그들은 모두 타락하게 되었다. 여호와께 호의 내지 인정을 받는 의미로 볼 때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53:4~5 다시금 특정 부류의 죄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배도자들에게로 전환하는 듯하다. 그들은 얼마나 안목이 짧은가? 그들은 잔인하고 경솔하다. 그들은 떡 먹듯이 신실한 잔존자들을 해하려 한다.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이 전혀 없는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아무 감각이 없어 보인다. 하나님은 그분의 충성스런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의 뼈를 흡수할 것이다.

53:6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은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기도한다. 그는 시온에서 나와 모든 믿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시다(롬 11:26).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 날에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이다.

54편 :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달아날 때에 십 사람이 두 번 그의 행방을 사울 왕에게 알렸다(삼상 23:19). 그러한 밀고자, 사람들로 인해 고난당하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기도인, 이 시의 고백을 낳았다.

54:1 첫 번째 호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할 것과 하나님의 힘으로 변호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 내지 속성을, 그분의 힘은 그분의 전능성을 말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대적으로부터의 일시적인 구원을 의미한다.

54:2~3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끈질기게 간구하는데서 시편 기자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다.

그 강포한 자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 피에 주리고, 하나님에 관해 아무 관심이 없는 배도자들이 다윗을 멸하려 했다.

54:4~5 하나님이 해답이시다. 여호와께서 신자의 생명을 붙드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언젠가 그분이 재앙과 파멸로 그분의 백성의 대적에게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지식은 곧바로 “여호와여, 그렇게 하소서. 당신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로 저들의 악한 행사를 종결 지으소서”라는 기도로 이어진다.

54:6 그 때에 1절의 구원하는 이름은 경배 받는 이름이 될 것이다. 다윗은 여호와께 낙헌제를 드리고 여호와와 이름(모든 선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보배로운 이름)에 감사할 것이다.

54:7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은 마치 모든 환란이 지났고 대적의 종말을 이미 목격한양 말한다. “아마 아직은 위험의 와중에 있었지만 그는 이미 실현된 것처럼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물건은 설명한다.⁴⁰⁾ 이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히 11:1).

55편 : 네 집을 맡겨 버리라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믿을 만한 조언자 중 하나였으나 후에 변절하여 찬탈자인 압살롬의 측근이 되었다. 이 시에서 우리는 그러한 충격을 받은 다윗의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유다에게 배신당하신 구주 예수님의 영혼의 쓰라린 아픔

40) (54:7) G. Campbell Morgan, *An Exposition of the whole Bible*, p. 240.

도 엿보게 된다. 아울러 이 시는 장차 올 적그리스도의 음모 아래 고통당하는 잔존자들의 기도를 미리 보여준다.

55:1~2(상) 절망에 처한 영혼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다양하고도 독특한 접근방법을 지니게 마련이다. 적극적으로는 “귀를 기울이시고”라는 요청이 있다. 소극적으로는 “숨지 마소서”라는 호소가 있다. “내게 주의하소서(굽히소서)”라는 경청을 바라는 호소와, “응답하소서”라는 행동을 바라는 호소가 있다.

55:2(상)~5 이어서 개인적인 상황과 절실한 필요를 일일이 밝히고 있다.

근심으로 편치 못하며 탄식하다.

원수의 소리와 압제를 당하다.

죄악의 짐으로 눌림 당하다.

노하여 뿔박함을 당하다.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파하다.

사망의 위험이 미치다.

두려움과 떨림이 이르다.

황공함(두려움)에 압도당하다.

55:6~8 그의 우선적인 바램은 그 모든 환란을 멀리 벗어나는 것이다. 만일 날개가 있다면 광야의 한적한 곳으로 날아가고 싶었다. 그는 그의 주변에서 휘몰아치는 광풍을 속히 피하고 싶었다.

55:9(상) 그러나 이제 그의 두려움은 타오르는 분노로 바뀐다. 그는 음모자들의 강포로 심히 격분하여 여호와께(그들을 멸하라는 것인지 그들의 계획을 멸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멸하시라고 호소한다(우리말 성경은 ‘저들을 멸하소서’라고 대

상을 밝히고 있다(역주). 또한 그는 그들의 혀를 나누시라고 하나님께 구한다. 이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암시하는 듯하다(삼하 15:31).

55:9(하)~11 이새의 아들이 자신이 정복하고 택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니 강포와 분쟁으로 가득 찼다. 주야로 그 두 가지 악이 성 주변과 성 위에 쌓였다. 평화의 성이 이제 죄악과 잔해함의 성으로 전락했다. 악독이 그 가운데 있고 압박과 궤사가 정의와 공평이 있어야 할 거리를 떠나지 않았다.

55:12~15 다윗의 분노의 중심에는 물론 매정하게 배신당한 아픔이 있다. 만일 그 배신자가 공공연한 원수였다면 그 고통이 다소 견딜만했을 것이다. 만일 그 조롱과 모욕이 노골적인 대적으로부터 왔다면 시편 기자는 그러한 공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름 아닌 그의 동료,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의 친구가 그를 등뒤에서 찌른 것이다. 함께 성막의 뜰을 거닐며 달콤한 사귄을 나누던 자들 중 하나가 그를 대적한 것이다. 그 사람과 그 추종자들의 배신은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여 속히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마음 깊이 자리하기” 때문이다(Gelineau).

55:16~21 그러나 그러한 감정적인 혼란 중에서도 다윗은 기도의 응답으로 도움이 올 것을 확신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근심과 탄식이 구주의 귀에 이를 것이다. 그를 대적하여 진친 자들의 수적인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화를 분깃으로 취하고 나아올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듣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것은 변치 않으며, 즉 회개치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정죄이다. 그것은 배신자, 즉 그 손을 펼쳐 친구들을 해하고
우정과 충성의 언약을 깨뜨린 가까운 동료에 대한 정죄이다. 그의
말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 보였지만 실상은 뿔뿔한 칼이었다.

55:22 이 시의 절정은 이 22절이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환란 때의 최선의 방책은 환란을 피해 달아나는 것
이 아니라 여호와께 그 짐을 맡겨 버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
리도 비숍 혼이 표현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교훈을 배울 수 있
기를 바란다. “전에 우리의 죄와 슬픔의 짐을 담당하신 그분께서 이제
와 영원히 우리의 염려의 짐을 담당하시도록 그분께 허락할 것을
요구하신다.”

55:23 살인과 속임을 일삼는 자들은 일찍, 험악하게 죽을 것이다.
아히도벨이 그러했고(삼하 17:14,23), 유다도 그러했다(마 27:5). 그
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구원을 의지할 수 있다.

56편 :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다윗이 그의 동족을 피해 가드의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도피처
를 찾아야 했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삼상 21:10~15; 27:
4; 29:2~11). 그러나 사울 왕의 맹렬한 대적으로 인해 그는 그 지경
에까지 이르렀다(혹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56편은 그
당시 두려움과 믿음 사이를 오가던 그의 마음을 묘사해준다.

56:1~2 그는 그를 뒤쫓는 자들의 끊임없는 압박을 생각하며 하
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한다. 그 대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종일 밀려드는 세 가지 두려움을 주목하라.

“...압제하나이다”(1절).

“나의 원수가...나를 삼키려 하며”(2절).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5절).

그의 원수들이 오만하게 그를 치고, 끊임없이 그에 대해 악을 도모하고, 손을 잡고 힘을 합치고, 그를 덮치려 잠복하고, 계속해서 그의 거동을 살피고 있었다(2,5,6절). 필경 조만간 그를 죽이려 덤벼들 참이었다.

56:3 그러나 믿음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는 확신에 찬 선언과 함께 근심의 구름을 제거한다. 텔리취가 표현한, 그러한 “도피자의 활기찬 패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의 신실하심에 기초한다. 그분은 모든 대적을 합친 세력보다 더 강하시며, 아울러 그분은 해를 당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의 허용적인 뜻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이 우리 주위에 두르신 보호막을 뚫을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56:4~6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라는 담대한 도전에 대해, 우리의 이성(理性)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지. 꺾박하고 상해하고 불구로 만들고 그리고 아예 썩 죽일 수도 있지”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일이 끝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다윗의 담대함을 우리 구주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 10:28).

56:7 그를 죽이려는 대적들의 집요한 시도를 묘사한 뒤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을 분노 중에 낮추사 그들의 악행을 갚아달라고 호소한다.

56:8 여기에 우리 주님의 부드럽고 친근한 돌보심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가 있다. 그분은 우리의 유리함, 혹은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몸짓을 계수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의 눈물조차 세세히 헤아리시는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아달라고 구할 수 있다. 이것은 애도하는 자들의 고대 풍습, 즉 그들의 떨어지는 눈물을 작은 병에 담아 죽은 친구의 무덤에 두어 살아남은 자들의 애정을 기념하는 풍습을 암시해줄 수 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예수께서 후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눈물을 그분의 책에 기록해두신다.

56:9 다윗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적을 물러나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능히 대적하겠는가?(롬 8:31).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는 오직 하나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가?’라는 이 문제에 비해 부차적인 것들이다.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초월한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56:10~11 4절의 후렴구가 10,11절에 되풀이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다른 두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엘로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YHWH)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엘로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기자는 그분의 보호의 손길을 온전히 확신한 가운데, 그리고 나약한 인간이 그를 해하기에 무능함을 비웃으며 전능하신 이요 언약을 지키시는 이의 약속을 찬송한다.

56:12~13 장래의 구원에 대한 현재의 확신으로 인해 다윗은 여호와께 한 서원을 이루고 그분께 진 감사의 빛을 갚겠다고 고백한다. 여전히 적진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안에서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이 건짐을 받고 그의 발이 실족치 않았다.

57편 :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동굴(아둘람 굴이나 엔게디의 굴)에 숨어 있으면서 이 시를 썼다. 그 앞에는 두 가지 실재(은혜로운 하나님과 무서운 대적)가 늘 존재한다. 이 시는 둘 사이를 오가는데, 그러나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서운 대적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크며, 진자(振子)는 그 방향으로 기운다.

늘 존재하시는 하나님(57:1~3)

57:1~3 시편 기자는 그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는 양 구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로, 즉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는 과분한 축복으로 보고 구한다. 자신이 어둡고 눅눅한 굴속에 갇힌 것을 잊은 채 그는 자신을 어미닭의 품에 안긴 병아리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자로 여긴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삶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머물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이러한 특권적인 위치에서 그는 아무도, 아무것도 그분의

백성의 삶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 응답이 하늘로부터 올 때, 그것은 믿는 마음에는 구원을 의미할 것이나, 그를 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의미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성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사건(demonstration)이 될 것이다.

늘 존재하는 대적(57:4)

57:4 대적은 찢고 삼키는 잔인하고 사나운 사자처럼 무섭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위협의 와중에도 편안히 누워있다. 이는 믿음이 거둔 실로 놀라운 승리가 아닐 수 없다.

늘 존재하시는 하나님(57:5)

57:5 11절에서 반복되는 후렴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대적을 멸하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데서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는 다만 그분의 영광이 하늘 위와 온 세계에 높아지기만을 소원한다.

늘 존재하는 대적(57:6)

57:6 대적이 이새의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용의주도한 계락을 세웠으며, 그의 영혼은 무겁게 짓눌렸다. 그들이 그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으나 그러나 그들 자신이 거기에 빠지고 말았다.

늘 존재하시는 하나님(57:7~11)

57:7~11 시편 기자의 마음이 여호와께 노래하기로 확정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가 그의 영혼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의 먼지를 떨어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가 찬양소리로 새벽을 맞기로

결심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사적이고, 지역적인 찬양회가 아닐 것이다. 그는 만민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찬송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처럼 무한하고 그 진실하심이 궁창처럼 한량없기 때문이다.

F. B. 메이어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으로 개인적인 슬픔을 딛고 일어섰듯이” 우리는 그분이 높임 받으시는 것을 보려는 위대한 열정으로 우리 자신의 하찮은 슬픔을 극복해야 한다.

58편 : 재판관들이 재판을 받다

58:1~2 이 시는 불의한 재판관과 통치자들에 대한 거센 항의로 시작된다. 세상의 세력가들이 무대에 있다. 그들의 판단이 정직했는가? 그들이 일반 백성에게 공의를 베풀었는가? 그 답은 분명 “아니다”이다. 그들은 중심에 온갖 종류의 악을 꾸몄다. 그런 다음 그들의 손이 그 마음이 계획한 강포를 행했다. 땅은 공의의 왜곡으로 가득했다.

58:3 주제는 부정직한 관리에서 그들이 속한 보다 넓은 부류의 악인에게로 넓어진다. 그들의 타락은 살아가면서 발전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출생으로 소급해 올라갈 수 있다. 그들의 불법과 거역은 타고난 것이다. 그들은 말을 배우면서 곧바로 거짓말을 시작했다.

58:4~5 그들의 말은 뱀의 치명적인 독처럼 비판적이며 악의적이다. 그들의 귀는 술사가 아무리 능숙하게 연주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귀먹은 코브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58:6~7 다윗은 자연 세계를 통해 그들의 악함을 묘사했듯이, 이제는 심판에 대한 적절한 비유를 찾아 자연 세계로 다시 들어갔다. “그 사나운 사자들의 이를 꺾고 그들의 잔인한 어금니를 뽑으소서. 그들로 땅 속으로 속히 사라지는 물이나 지하로 신비롭게 사라지는 시내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7절 후반절의 원문의 표현은 확실치가 않다. 그것은 “저들로 축이 잘려나간 화살처럼 무디고 무해하게 하소서”라는 뜻일 수 있다.

58:8 이어서 달팽이의 세계로 들어갔다. “달팽이가 점액 자국을 남긴 채 ‘소멸해가듯이’, 그 악인들도 사람들의 왕래하는 자취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달팽이가 실제로 점액상태로 해체되는지 여부는 표현법상 중요하지가 않다. 불타는 집이 “연기 속에 올라간다”라고 말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성경에 나오는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억지반론을 펴는가?

다음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일광을 보지 못하듯이 그 행악자들이 일찍 죽게 해달라는 저주가 이어진다. “악인의 눈은 결코 열리지 않았고 그들의 가능성은 결코 전개되지 않았다. 죄인은 유산아요, 결코 성취되지 않는 약속이다”라고 스크로기는 말했다.⁴¹⁾

58:9 끝으로 시편 기자는 불타는 가시나무가 그 위의 가마솥이 데워지기 전에 회오리바람에 흩어지듯이 그들이 갑자기 제거되게 해달라고 구했다. 맥클라렌은 이렇게 설명한다.

“시편 기자가 상상하는 그림은 여행자 무리가 장막 주위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인 듯하다. 그들은 가마솥 아래 장작을 집어넣고 그들의 허기를 채워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물이 끓거나 음식이 요리되기 전은 말할 것도 없고, 가마솥이 채 데워지기 전에 회오리

41) (58:8) W. Graham Scroggie, *‘Psalms’*, p. 50.

바람이 불어와 불과 가마솥과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다.”⁴²⁾

58:10 본문은 히브리어 원문상 불확실한 점이 일절 없다. 본문은 악인이 징벌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높임을 받고, 악인의 피에 그 발을 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만일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귀에 보복적이요 무자비한 처사로 들린다면 J. G. 벨렛과 함께, 이른해 시대에는 심판을 즐길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원수갚음으로 그분의 신적인 영광을 입증하시는(vindicates) 때에는 심판을 즐길 수 있다는 말로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타락한 압제자들에게 더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병든 감상(感傷)이요 악한 연약이다”라는 물건의 말을 생각할 수 있다.⁴³⁾

58:11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심판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의인이 보상을 받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사람들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59편 :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하나님

여기서 다윗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집을 에워싸고 단단히 지키고 있는 까닭에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급박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있다.

59:1~4 “나를 건지시고…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온다. 그 어조는 격하고, 당돌하고, 절박하다. 불경건한 자들이 그의 피에 주려 있다. 그들은 호시탐탐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며 그를 멸하려고 연대하여 공조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까

42) (58:9) A. Maclaren, W. Graham Scroggie의 ‘Psalms’ 2:49에서 인용.

43) (58:10) Morgan, ‘Exposition’, p. 242.

닭 없는 음모였다. 시편 기자는 그들이 비난하는 반역과 불충성을 범치 않았다. 그들은 그가 아무 허물이 없는데도 그를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일어나사 다윗을 건지러 오신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59:5 잠시 이새의 아들은 그의 직접적인 대적을 넘어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완전한 징벌을 호소하는 듯 보인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 사바오쓰,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것은 그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모든 어떠한 심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지닌 하나님에 대한 이중 명칭들이다.

59:6~7 거리를 돌아다니는 들개 떼처럼 그들은 사납게 어슬렁거리며 시편 기자를 에워싸고 있다. 그들이 쉴새없이 울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온 성에 울렸다. 그들은 오만하게도 아무도 자신들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59:8~9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알려졌다. 그리고 자궁하는 열방을 내려다보시며 비웃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무감각한 어리석음을 비웃으신다. 이 위대한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요 그 바라는 대상이요 그 확실한 보호자시다.

59:10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고난 중에 신음하는 모든 시대 영혼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의 대적이 패배당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실 것이라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

59:11~13 11절의 기도는 독특하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의 심각성을 가벼이 생각하지 않도록 대적을 갑자기 떨하지 말아달라고 여호와께 구했다. 만일 징벌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그들의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질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시편 기자가 꺾박자들에게 기대하는 무서운 심판의 목록에는 궁극적인 멸망이 포함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흠어지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에 의해 엎드러지게 되기를 구했다. 그는 그들이 극도로 자랑할 때 사로잡힘을 당하고 그들이 한 악한 말에 대해 책임지게 되기를 구했다. 끝으로 그는 그들이 그 저주의 말과 거짓말로 인해 완전히 파멸되기를 구했다. 그 때에 마침내 동에서 서까지 온 세상은 하나님이 정녕 야곱의 자손을 돌보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59:14~15 그 사이에 그 인간 개들은 성에 돌아와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시편 기자의 생명을 찾다가 얻지 못하고 분노할 것이다.

59:16~17 그 개들은 저녁에 으르렁거릴 것이나 이새의 아들은 아침내 노래할 것이다. 그는 환란 날에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주신 여호와의 힘과 인자하심을 높일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는 그 대적이 사라지고 구주의 능력과 사랑이 영원한 노래의 주제가 될 아침이 올 것이다.

60편 :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다

표제어에 의하면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 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일만 이천 인을 죽은 때”이다. 아마 이 아람 및 에돔과의 전쟁 중에 일시적으로 패배한 때가 있어서 다윗이 이같이 간절히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하늘 문으로 달려간 듯하다.

이 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이스라엘의 패배는 여호와께서 말미암았다(1~4절).
- (2) 이스라엘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다(5절).
- (3) 궁극적인 승리가 여호와에 의해 약속되었다(6~8절).
- (4)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필요로 한다(9~11절).
- (5) 이스라엘의 신뢰는 여호와께 있다(12절).

이스라엘의 패배는 여호와께서 말미암았다(60:1~4)

60:1~3 다윗은 에돔-아람 연합군에게 당한 피해를 보고 받고 그 재난을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신 결과로 이해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절하셨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분이 진노 중에 이스라엘의 산성을 무너뜨리고 무력하게 대적의 공격을 당하게 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자비하심으로 돌아오셔서 그분의 격퇴당한 군대를 회복하실 때가 아닌가!

그 땅은 마치 큰 지진으로 산산이 찢겨진 듯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기초가 무너졌다.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채 온 나라가 흔들흔들했다. 여호와께서 그 틈을 기우시고 그분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신다면!

온 백성이 무서운 시련을 겪었다. 고난과 패배의 포도주가 그들로 만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했다.

60:4 이 구절은 원문상 다소 모호하다. 새흘정역(NKJV)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깃발을 세우사 진리로 인해 휘날리게 하셨다는 의미일 수 있다(우리말 성경도 같은 뜻이다). 그러나 개정역(RV) 난하주는 정반대의 의미를 말해준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를 주사 활(弓) 앞에서 달아나게 하셨다.”

그렇다면 다윗은 꾸밈없는 빈정거림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기(旗)가 승리의 기가 아닌 패배의 기, 즉 적군 앞에서 퇴각을 표하는 깃발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다(60:5)

60:5 참담한 패배의 지경에서 기도가 흘러나온다.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주의 사랑하시는 자”로 일컬으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구원과 승리와 사권의 회복을 탄원했다. “오셔서 주의 친구들을 건지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도우시고 응답하소서”(Gelineau).

궁극적인 승리가 여호와에 의해 약속되었다(60:6,7)

60:6~7 6~8절은 하나님이 성소에서, 이스라엘 온 땅을 다시 차지하고 그분의 이방 대적을 정복하겠다는 그분의 결심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세겜, 숙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등은 모두 이스라엘의 영토이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그분의 소유라고 주장하신다. 그분은 요단 서편의 세겜과 서편의 숙곳 골짜기를 나누실 것이다. 그분은 요단 건너 길르앗 땅과 요단 양편에 걸친 므낫세의 두 영토를 차지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중앙에 위치한 에브라임은 그분의 머리의 보호자, 즉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선봉장이 될 지파이다. 그리고 유다는 그분의 홀이다. 야곱의 임종 예언에 의하면(창 49:10) 그것은 통치하는 자리를 의미한다.

60:8 이어서 주변 열국 중 세 나라에게로 관심을 돌려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신다. 사해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모압은 그분의 목욕통이 될 것이다. 그분은 에돔에게 그분의 신을 던질 것인데, 이는 강제로 차지하고 굴복시키고 그리고 아마도 모욕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법이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승리를 외칠 것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필요로 하다(60:9~11)

60:9 이 시점에서 화자(話者)가 바뀌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⁴⁴⁾ 본문은 여호와의 음성일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강한 성에 인도할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을, 에돔의 수도(보스라, 셀라, 페트라 등 여러 가지로 불리운다)가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고백으로 이해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城)은 에돔 나라 전체를 의미한다. 다윗은 자신이 에돔에게 그분의 신을 던지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기를 소원했다.

60:10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분의 백성에게 숨기신 까닭에 그것은 헛된 소망이었다. 그분이 그들을 버리셨다. 그분은 더 이상 승리의 보증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신다.

60:11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분의 환란당한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싸우실 것을 호소한다. 하나님의 도움은 필수적인 것이나 사람의 도움은 무익하다.

이스라엘의 신뢰는 여호와께 있다(60:12)

60:12 이 시는 확신의 고백으로 마감된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큰 전과를 올릴 것을 확신한다. 그들의 대적은 그분의 발아래 밟힐 것이다.

적용

신자의 적(敵)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이다. 신자 스스로는 그들을

44) (60:9) NKJV 편집자들은 8절을 인용부호로 마치는데 동의한다.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충분치 못하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다.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이 60편은 고난 중에 낙심한 유대인 잔존자들이 메시아의 구원과 승리를 바라볼 마지막 날 최종적인 성취를 볼 것이다. 그 때에 이스라엘 땅이 각 지파에게 분배될 것이며, 그 대적들은 쫓겨날 것이다.

61편 : 나보다 높은 바위

다윗은 여호와와 놀라운 관계에 있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믿음의 눈에는

어떤 지상의 것보다 더 많이 보이고

어떤 가까운 지상의 결속보다

더 마음을 사로잡고 더 친근한

살아있는 빛나는 실재이시다.” (작자 미상).

특히 위험한 때에,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그는 그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는 법을 배웠다.

여기서 그는 또 한 번의 아슬아슬한 위기에 처해 있다. 상황의 압박이 그의 마음을 눌러 더할 나위 없이 날카롭고 명료한 기도가 흘러나오게 했다. 이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과 번민과 고통 중에 발하는 영원한 고백이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기 때문이다.

61:1 다윗의 친근한 음성이 만유의 주재되신 분의 보좌에 들려온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다. 그분의 종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만유의 주재께 즉시 열납된다.

61:2 “내 마음이 놀랄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는 문자적으로 땅 끝에 있지 않다. 그는 문자적으로, 안전과 구원이 요원해 보이고 삶이 끝나고 죽음이 시작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했으나, 그러나 은혜의 보좌가 유일한 탈출구임을 알기에 그는 공황을 얻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곳으로 나아간다. “기도에 있어 거리는 아무 의미 없으며, 어떤 극한 상황도 기도의 장벽이 될 수 없다”고 혹자는 말한바 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진정한 영적인 본능은,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석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반석은 그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곳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주었다. 물론 여호와께서 그 반석이시다(삼하 22:32). 반석이란 표현은 성경에서 단순한 사람에 대해 사용된 적이 없다.⁴⁵⁾ 반석은 사람보다 더 큰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그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반석은

45) (61:2) 마태복음 16:18에 관해서 G. 캠벨 물건은 이렇게 말한다. “그분이 유대인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만일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 이 단어의 비유적인 용례를 추적한다면 그것이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만 사용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의 대화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베드로 위가 아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가지고 장난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항상 신성을 상징하던 그들의 오래된 히브리어 비유인 ‘반석’을 취하여 ‘하나님 자신이요 그리스도,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마 물건이 한 말의 한가지 예외가 신명기 32:31에서 발견될 것이다. “대적의 반석(rock)이 우리의 반석(Rock)과 같지 못하니...” 그러나 여기서도 ‘반석’은 신성의 상징이다(비록 거짓 신이지만).

적이 보지 못하게 숨을 곳이 있기 위해 틈이 있어야 한다.) 마침내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는 자신의 발걸음을 지도할 지혜나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여호와께 자신을 친히 그분(영원한 반석)께로 인도해 달라고 구했다.

61:3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반석이심을 확증해준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뢰할만한 피난처요 의인이 달려가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견고한 망대심임을 이미 입증해왔다(잠 18:10).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그분은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다.

61:4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셀라).”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하는데 실패할 리가 없다! 그러한 친근한 사랑과 단순한 신뢰는 결코 거절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신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삼상 13:14). “주의 날개 밑”이란 표현은 피 뿌린 속죄소를 덮은 그룹의 날개를 가리킨 표현일 것이다.

61:5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기업’ 혹은 유업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가나안 땅(출 6:8), 이스라엘 백성(시 94:5), 하나님의 말씀(시 119:111), 가정의 자녀(시 127:3), 해를 당하지 않음(사 54:17), 성막 내지 성전(렘 12:7) 등에 사용되었다. 그 중 마지막이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우선적인 의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앞 구절이 하나님의 장막을 언급하고 그룹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업을 영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골 1:12).

61:6~7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흥미롭게도, 이 두 구절에서 다윗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전환한다. 그는 이제까지 분명히 그 자신과,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삼하 7장)에 대해 말해온 것으로 보아, 여기서는 다른 왕(King)을 가리키는 듯 보인다. 만일 우리가 본문을 다윗에게 적용한다면, 본문은 다윗 자신의 장수와 그의 나라의 장구함을 요청하는 내용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 적용한다면 본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

- * 그분의 생명이 뿔박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연장되었다(히 7:16).
- * 그분의 연대는 모든 세대에 미칠 것이다(히 1:12).
- *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좌정하실 것이다(히 1:8).
- * 변하지 않는 사랑과 진실하심이 호위병처럼 그분을 두루 보호할 것이다(시 91:1~16).

탈굴에 나오는 고대 유대인의 해설도 본문이 왕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한다.

61:8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와 같이, 극한 상황으로 시작된 이 시는 평온하게 마감한다. 다윗은 자신보다 높은 반석에 이르렀으며, 이제 기쁜 나머지 여호와를 계속 찬양하고 경배와 사랑과 섬김의 서원을 갚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고난이 압박하면 여러 가지 서원을 하다가 고난이 지나가면 쉬 잊어버리는 그런 자들과 같지 않다. 그는 “기도에는 꺾충 뛰

고 찬양에는 절뚝거리는” 자가 아니다.

이 61편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찬송시에 영감을 주었다.

“때로 긴 그림자가 드리우고
목적지까지 길이 거칠어 보이고
때로 큰 슬픔이 광풍처럼 영혼을 엄습할 때!

후렴: 그 때 나를 반석으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그 때 나를 반석으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때로 날이 길어 보이고
내 발이 피곤하고 길은 멀고 험할 때
반석의 복된 그림자는 얼마나 감사한지!

축복의 때나 슬픔의 때나
가파른 산을 올라갈 때나
어두운 계곡을 지날 때나
나를 반석으로 가까이 이끄소서.” (에라스투스 존슨).

62편 : 하나님만 바람이여!

62편의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라는 것이다. ‘오직’ (only), ‘…만이’(alone)라는 표현의 반복은 우리의 온전하고 나뉘 없는 신뢰에 대한 그분의 배타적인 권리를 강조한다.

하나님은 다음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1,2,6,7절).

우리의 반석(2,6,7절).

우리의 산성(2,6절).

우리의 영광(7절).
우리의 피난처(7,8절).
능력의 근원(11절).
인자함의 근원(12절).

하나님을 신뢰와 능력의 근원으로 삼는 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2절).
대적을 담대히 꾸짖는다(3절).
대적의 계획과 전략을 간파할 수 있다(4절).
흔들리지 않는다(4절).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을 알기를 원한다(8절).

사람들이 종종 신뢰하는 다섯 가지 다른 대상이 있는데 그러한 신뢰는 반드시 실패한다.

- (1) 천한 자, 즉 일반 백성은 입김처럼 잠시 있다 사라진다.
- (2) 높은 자는 방백이든 부유한 자든, 도움과 안전을 줄 듯 하나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거짓되다. 천한 자든 지혜 있는 자든 저울에 올려보면 너무 가벼워 믿을만하지 못하다.
- (3) 확대는 의지할 만하지 못한 어리석은 방법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냄새를 풍긴다.”
- (4) 탈취는 권력과 부를 얻는 지름길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릇되어 얻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마련이다.
- (5) 정직하게 수고해서 얻은 부도 여호와 대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F. B. 메이어는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과 돈의 도움을 구하며 헛수고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아마도 이 시는 압살롬의 반역에서 영감을 얻은 듯하다. 반역자

들은 다윗을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뒤흔들어 놓았다. 그들의 목표는 그를 높은 위, 즉 왕위에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충성을 보이는 체하며 음모를 꾸몄다. 도피중인 왕은 그의 충성스런 신복들에게 요동하지 말고 계속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권면한다. 그의 대적은 사람과 돈을 의지하고 있었으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었다. 그 자신의 신뢰는 여호와께 있었다. 거듭해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능력과 사랑의 근원이라고 그에게 확신을 주셨다. 그분의 능력은 신실한 자를 구원하고 대적을 멸하는데 사용되며,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고 축복하는데 사용된다. 그는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는 모든 자에게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목도할 것이다.

이 시에 대해 존 도니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글을 지었다.

“그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영광이라.

그가 나의 피난처니 어떤 대적이 나를 쫓으리요?

그가 나의 산성이니 어떤 유혹이 나를 찌리요?

그가 나의 반석이니 어떤 폭풍이 나를 흔들리요?

그가 나의 구원이니 어떤 슬픔이 나를 낙심케 하리요?

그가 나의 영광이니 어떤 비난이 나를 욕되게 하리요?”

63편 : 생명보다 나으므로

일시적으로 왕위를 빼앗긴 채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요단 동편을 향해 유대 광야를 지나는 힘들고 고된 피난길에 올랐다(삼하 15:23 ~28; 16:2; 17:16). 그의 정치적인 지위는 하락했지만 그의 영적인 활력은 높았다.

63:1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 자체는 단순하고 어린이아이같이 순전하나 그 의미는 세상을 내포한다.

나의 하나님—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

나의 하나님—다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원히 남는 보화.

나의 하나님—모든 위기의 순간에 넉넉한 자원.

그리고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라. 특히 우리 자신이 종종 얼마나 냉랭하고 소극적인지를 생각할 때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는 일찍(인생과 매일의 삶 모두에서 일찍) 여호와를 찾았다. 그리고 그는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그분을 찾았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의 육체는 하나님을 앙모했는데, 이는 그의 전 존재가 영원하신 분과의 사귀기를 갖고자 부르짖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갈망은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을 지나는 여행자의 갈증과 같이 강렬했다. 이것은 세상(메마른 불모지)을 적절히 묘사해준다.

63:2 그는 예루살렘 성소에서 경배하던 때와, 깊은 묵상에 사로잡혀 모든 권능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뵈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을 회상한다. 이제 그의 영혼은 영광과 권능 중에 계신 여호와에 대한 새로운 계시 외에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신적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뵈옵는 이것을 가리켜 아름다운 이상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불리든 간에 그것은 다른 모든 영광을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이게 만드는 경험이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8세기 아일랜드 찬송시).

63:3~4 이어서 험난한 유다 광야로부터 훌륭한 경모(敬慕)의 서

사시가 올려진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은 생명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낫다. 인간의 입술은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최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의 손은 찬양과 기도로 그분께 올려질 때 성취감으로 고동친다.

63:5~8 어떤 잔치도 이 거룩한 사김과 비교되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은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지며, ‘기쁜 입술’은 우리의 영광스런 주님을 묵상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넘치는 감사로 반응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셨는가? 누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는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은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우리를 보존하시며 위에 있는 상급을 바라고 꺾대를 향해 달려가도록 힘을 주신다.

63:9~10 “대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론 나를 없애기로 작정한 대적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멸망당할 운명이다.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며 정중히 장사되지 못하는 불명예를 치를 것이다.”

63:11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사실, 그분께 충성을 서약하는 자는 즐거이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을 즐기는 자는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64편 : 활과 살

64편에는 두 번의 궁술시합이 나타나 있다. 예선은 악인과 의인 사이에 치러진다(1~6절). 본선은 하나님과 악인 사이에 치러진다(7~10절).

64:1~6 첫 번째 시합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보인다. 의인 다윗이 수많은 악인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그는 화살이 없었으나 그들의 전통은 화살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는 기도라는 비밀무기가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동료(Partner)에게 도움을 청했다. 먼저 그는 두려움과, 악인의 은밀한 계략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 대적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렸다. 그들의 혀는 칼처럼 날카롭게 잘 연마되었다. 그들은 비난의 화살(독한 말)을 쏘려고 활시위를 당겼다. 그들의 공격은 은밀한데서 반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예기치 않게 온다. 그들은 무고한 자를 멸하려는 결심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그들은 시편 기사를 몰래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세우면서 아무도 그들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저희는 각각 간계한 마음과 심히 교활한 피로 계략을 잘 짰다”(6절, 모ffet).

64:7 이제까지는 모든 것이 악인의 뜻대로 되어 가는 듯했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는다(출 14:14). 이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대하 20:15).

64:8 따라서 두 번째 시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분의 활(단수)을 쏘시는 모습을 본다. 과녁을 정확히 뚫었다. 그들은 상하여 땅에 엎드려진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말을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시며, 모든 지켜선 자들이 두려워 달아난다.

64:9~10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한다. 그 일이 신속히 전파되며, 사람들은 의(義)가 승리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로 인해 의로운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의뢰한다. 의를 사랑하는 자는 다 즐거워할 것이다.

65편 : 천년왕국의 추수의 노래

65편은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추수의 노래”로 사용되는데, 그 우선적인 의미는 주님의 재림 때의 상황을 다루고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

65:1 이스라엘이 오랜 세기에 걸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동안 시온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에 관한 한 황량한 불모지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대 백성이 그분께로 회복될 때 찬양이 거기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잠잠한 중에 그분을 기다릴 것이다. 마침내 서원이 그분께 이행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무릎이 그분께 꿇을 것이라는 그분 자신의 서원을 의미할 수 있다(사 45:23). 그것은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는 시편 22:22의 메시아의 서원을 가리킬 수도 있다. 혹은 그것은 박해받는 잔존자들이 대환란의 두려운 고통 중에 아뢰 사랑과 경배와 섬김의 서원을 의미할 수도 있다.

65:2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선적인 대상인데 비해 여기서는 대상이 모든 인류로 확대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는 아름답고 고귀한 칭호로 알려져 있다. 회심한 열방은 믿음의 기도로 그분을 붙들 것이다.

65:3 여기서 화자(話者)가 바뀌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첫 문장에서는 메시아께서 엄청난 죄짐 아래 무너졌던 그분의 갈보리 대속사

역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 잔존자들이 그것이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과’였다고 즉시 인정한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그들은 말한다(사 53:5).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죄를 자복하는 즉시로 그들의 죄과가 모두 사해졌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65:4 이 구절 역시 전반부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후반부는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복스런 아드님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사 42:1)이라고 말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 가까이 자신에게 오게 하신, 벨기세대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분은 여호와 의 딸, 즉 그분께로 특별히 가까이 다가가는 자리에 거할 것이다.

이어서 잔존자들이 하나님의 집, 즉 그분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온전히 만족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한다. 이러한 성전에 대한 언급은 이 시의 다윗 저작권에 대한 의문을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죽기 전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전’이란 단어가 때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의 성막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때 의문은 사라진다(삼상 1:9; 3:3; 삼하 22:7).

65:5~7 잔존자들이 여전히 말하고 있다.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두려운 심판으로 그들의 대적을 의롭게 징벌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그분은 자신을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이 의지할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전능하심으로 허리를 두른 채 그분은 초자연적인 힘의 역사로 산들을 그 위치에 견고히 세우셨다. 노한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은 그분께는 아무것도 아니다(예를 들

어, 갈릴리 바다에서). 또한 이방 백성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이 역시 그러하다.

65:8 땅 끝에 거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는 징조와 이적을 두려워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또한 일출과 일몰의 땅에 거하는 믿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65:9 9절부터 13절은 파종부터 추수하기까지 추수하는 한 해를 묘사하는데, 그것은 특히 저주가 사라지고 풍성한 수확이 일반화될 천년왕국의 상황에 적용된다.

봄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손님과 같다. 그분은 그분의 강(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서 비를 내리신다. 그렇게 땅이 준비되자 그분은 뿌릴 씨를 주신다.

65:10 성장하는 계절을 맞아 경작된 밭고랑에 물이 공급되고, 비가 와서 덩어리진 흙을 녹이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싹이 쭉쭉 올라온다.

65:11~13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곡식의 생산과정을 축복하신다. 그분의 발길이 지나는 곳마다 풍성한 시내가 흐른다(Knox). 초장이 풍부한 꼴을 내어준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즐거워하듯이 풍성한 곡물로 덮여 있다. 초장은 무수한 양떼로 덮인 까닭에 양털 옷을 입을 듯하다. 골짜기에는 익은 곡식이 운율에 맞춰 물결친다. 모든 자연이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축하하는 듯하다.

66편 : 오라, 보라, 그리고 들으라!

66:1~4 처음 네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온 땅에게 하나님을 찬양

하는데 참여하라고 촉구한다. 그것은 즐거운 노래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기념하는 노래여야 한다. 그 찬양이 영광스러울 것은 그 대상이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이다. 온 우주의 찬양의 고백이 여기에 주어졌는데, 그것은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다.

“주여, 주의 이루신 일이 엄위합니다. 주의 권능이 심히 커서 주의 대적이 주 앞에 엎드립니다. 마침내 온 땅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는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널리 애송될 것이다.

66:5~7 5~12절에 ‘우리(의)’, ‘우리를’이란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문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 잔존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보라고 촉구하며 열방에게 전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믿게끔 한다. 그분의 권능이 나타난 두 가지 두려운 일이 상기되고 있다. 그분은 홍해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뤄진 대로(大路)를 내셨다. 그리고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신발을 적시지 않고 건널 수 있었다. 그 때 이스라엘 중에 얼마나 기쁜 찬송이 터졌는지! 백성들은 그 능하신 다스림이 한이 없고 그 눈이 열방을 계속 감찰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을 높였다.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다.

66:8~12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신 그 놀라운 방법으로 인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그 표현이 신속히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뜨거운 열에 단련되는 은 같이 시험받고 있다(10절).

그물에 갇히듯이 옥에 갇혀 있다(11절).

고된 종살이에 끌려간다(11절).

힘없는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12절).

불과 물을 통과하듯이 두려운 위협에 노출된다(12절).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히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풍부한 곳(천년왕국 때의 이스라엘의 초자연적인 번성을 가리킨다)으로 인도해 들이셨다. 윌리엄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는 사단과 인간의 그칠 줄 모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천년왕국이 밝아오는 날 시온산에 나타나 이 9절의 진리를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공정히 가해진 징계(10~12절)가 사랑으로 계획되고 지혜로 집행되었다고 증거할 것이다.”⁴⁶⁾

66:13~15 13~20절에서 ‘나’와 ‘나의’는 합창이 독창이 된 것을 암시한다. 여러 훌륭한 주석가들은 화자(話者)가 이스라엘 왕이자 대제사장인 주 예수님이라고 믿는다.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헌신된 삶의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신다. 그분은 환란 때에 약속한 찬양의 서원을 갚으신다. 이것은 그분의 십자가 고난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분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겪으신 고난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는 그들의 모든 환란에 그분이 동참하셨기 때문이다(사 63:9).

여기서 말하는 번제와 수양의 제물과 수소와 염소의 제사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때 외에는 문자 그대로 취할 필요가 없다. 메시아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관련지어, 그것을 그분과 잔존자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에 대한 묘사로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년왕국에서 수정된 제사제도가 다시 제정될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66:16~19 5절에서의 초청은 “와서 보라”는 것이었다. 여기 16절

46) (66:8~12) Williams,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67.

에서는 “와서 들으라”는 것이다. 역사 가운데 행해진 하나님의 일은 볼 수 있으나 영혼에게 행하신 그분의 일은 들을 수만 있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된 기도에 대한 자신의 증거를 들으라고 촉구하신다. 그분은 간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바 있으셨다. 이것은 그분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육체를 입으셨을 때를 가리킨다(히 5:7). 만일 그분이 그 마음에 악을 품으셨다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으며, 따라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다(히 5:7).

66:20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찬양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67편 : 이스라엘의 선교적 소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은 그 민족이 선교적인 특성을 지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에게 다음 두 가지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했다.

(1) 유일신(唯一神)의 진리—하나님은 한 분뿐이다(출 20:2,3; 신 6:4; 사 43:10~12).

(2) 여호와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은 행복하고 번성한다는 진리(레 26:3~12; 신 33:26~29; 대상 17:20; 렘 33:9).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축복의 종점이 아닌 통로가 되는 것이었다. 구약 전체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위한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다는 증거가 무수히 많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그런 측면의 사역에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짐으로써 그들이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바로 그 진리를 부인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쉽게 좌절되지 않는다. 대환란 동안 믿는 유대인 잔존자들이 온 세상에 왕국복음을 전할 것이다(마 24:14). 그리고 이어지는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열방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사 61:6; 슥 8:23).

67:1~2 이 시는 그 때를 대망한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사 이방인을 복음화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리소서”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도(길)이심을 기억해야 한다(요 14:6).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만방에, 혹은 개개인에게 경험될 수 있다.

67:3~4 이어서 이스라엘은 선교적인 열정을 토하며, 거대한 찬양의 물결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열방이 그리스도의 은혜롭고 공평한 다스림과 부드러운 목양의 돌봄을 맛보며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즐기게 되기를 기도한다.

67:5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찬양 받는 것을 듣기를 열망하듯이, F. B. 메이어의 표현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 면류관을 씌워드리기를 소원해야 한다.”

67:6~7 마지막 두 구절은 천년왕국을 이미 도래한 것으로 묘사한다. 곡식이 수확되었고 곳간이 가득 찼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은 열방에게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히브리어 학자인 프랜츠 델리취는 이렇게 요약했다. “그분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는 모든 축복이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道)이다.”⁴⁷⁾

68편 : 우리 하나님이 행차하신다!

이 시는 언약궤를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기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행사를,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로 전진하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합당히 표현해주었다. 궤가 이동할 때 하나님도 이동하셨다.

일반적으로 이 노래는 궤의 역사 가운데 한 특별한 사건(그것이 불명예스럽게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간 다음 오벰에돔의 집에 머무른 후에 시온산에 돌아온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삼하 6:2~18). 이 행진곡은 다음 일곱 부분으로 나뉘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의미를 한결 잘 파악할 수 있다.

- (1) 하나님에 대한 서론적인 찬양(1~6절).
- (2) 시내에서 광야로의 궤의 이동(7,8절).
- (3) 가나안 땅의 진입과 정복(9~14절).
- (4) 다윗에 의한 예루살렘 정복(15~18절).
- (5) 여부스 족에 대한 승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림(19~23절).
- (6) 궤를 예루살렘 성소로 옮기는 행차(24~27절).
- (7)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대망하는 즐거워하는 무리(28~35절).

그 메시아적인 배경에 있어서 이 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갈보리의 승리와 승천과 재림을 묘사한다.

47) (67:6,7) Franz Delitzsch, “Psalms,”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2I:240

서론적인 찬양(68:1~6)

68:1~3 첫 구절은 궤의 이동이 주요 주제라는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 표현은 궤가 처음 시내를 출발할 때 모세가 사용한 표현과 거의 동일하다(민 10:35). 그 거룩한 상자가 진행되는 광경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하시는 때를 암시해준다. 그분의 대적들에게는 그것이 재앙과 쫓겨남을 의미하지만 의인에게는 깊이 뿌리내린 기쁨을 의미한다. 그분의 대적은 여러 갈래로 흩어진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난다. 연기처럼 나약하게, 밀이 녹음같이 무력하게 그들은 비틀거리며 멸망한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원수값음과 보상의 때요 기쁨과 환희의 때이다.

68:4~6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광야에서 여호와를 위해 길을 정리할 때이다(사 40:3; 62:10). 그분의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시다. 그분은 영원토록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다. 무한히 높으신 그분은 외롭고 가진 것 없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변호자)이시다. 그분은 외로운 자들에게는 행복한 가정의 온기와 사귄 배부시며, 그리고 부당하게 정죄를 받아 옥에 갇힌 자들은 거기서 이끌어 내어 형통케 하사 즐거이 외치게 하신다.

거역하는 자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들은 황량한 광야에 감금된다.

이어서 이 서론적인 구절들은 ‘진군가’의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이 행진하신다”라고 말한 다음, 그분의 행진이 의인과 반역자에게 미치는 결과를 대조해 보인다.

영어역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이다—역주), 이 시 전체에는 하나님의 일곱 가지 이름이 나온다. 엘로힘(1절), 야(*Yah*, 4절), 여호와(10절), 엘 사다이(14절), 야 엘로힘(18절), 아도나이(19절), 여호와 아도나이(20절).

궤가 시내에서 광야로 이동하다(68:7,8)

68:7~8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의 진을 거두고 궤를 앞세우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은 실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자연도 그 사건의 엄위함에 사로잡힌 듯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비로 풀어지고 시내산이 그 광경 앞에 진동했다.

가나안 진입과 정복(68:9~14)

68:9~10 9월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일기를 변케 하사 그 땅에 비를 풍성히 내리셨는데, 이는 애굽의 관개(灌溉)와 광야의 가뭄에서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가뭄에 시든 식물이 소생하고 결실함에 따라 온 땅이 생기를 찾았다. 백성들은 여호와로 인해 안식하며 소유가 풍성했다.

68:11~13 이야기의 흐름은 가나안 정복으로 속히 전환된다. 여호와께서 말씀, 즉 대적을 치러 나가라는 명령을 주신다. 그분의 말씀에는 승리의 확신이 암시되어 있다. 이어서 여자들의 큰 무리(가48) 집에서 소식을 전한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한다!” 드보라의 노래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삿 5장), 여자들이 양 우리를 떠나지 않은 채 전리품을 나눈다. 아름다운 옷과 보석으로 단장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은으로 그 날개를 덮은 비둘기 같았으며, 빛이 여러 각도에서 비취자 마치 황금 날개처럼 번쩍거렸다.

68:14 대적에게 그것은 저주스런 무리였다. 하나님이 열왕을 살몬의 눈처럼 흘으셨다.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68:15~18)

48) (68:11~13) “소식을 공포하는 자들”(하페마세렛)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성복수형이다.

68:15~16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방 여부스 족이 차지하고 있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후에 행한 첫 번째 일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간 것이었다. 그 성을 방어하는 자들은 그 성이 난공불락인지라, 소경과 절름발이도 그 성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다윗과 그 일행은 그 견고한 성을 사로잡고 다윗성이라 일컬었다(삼하 5:1~9).

바로 그 일을 여기서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다. 그 성이 정복되어 예루살렘이 택한 성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바산 북쪽에 위치한 혈몬의 눈 덮인 정상이 시온산을 시냇의 눈길로 바라본다. 혈몬은 여러 큰 봉우리를 거느린 위엄있는 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을 지나치고 시온을 그분의 영원한 거처로 택하셨다. 그런 까닭에 혈몬이 시온을 시기하는 것이다.

68:17 다윗은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에게서 취한 일을 회상한다. 그러나 그는 승리의 참 근원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뛰어난 전략이나 그의 군대의 패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수한 병거가 그 성을 파한 것이었다. 시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행진이 이제 시온의 그 영광스런 목적지에 이르렀다.

68:18 다윗은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높은 곳들을 친 일을 기억하며, 혈과 육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높은 산에 오르사 포로를 취해 가시고, 그들의 주와 구주로 그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 전에 반역자들이었던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라보았다.

바울은 18절을 그리스도의 승천에 적용시키고 있다(엡 4:8~10).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즉, 대적에게 영광스런 승리를 거두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허락하셨다. 그분은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상급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받은 선물(시 68:18)을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주셨다(엡 4:8).

여부스 족에 대한 승리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다(68:19~23)

68:19~20 시온을 사로잡은 일을 기억하니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절로 우러나왔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구원자와 심판자 모두로 묘사한다. 구원자로서 그분은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신다”(Knox).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죽음에서 건질 능력이 있으시다.

68:21~23 심판자로서 그분은 그분의 대적, 즉 그들의 불법적이고 악한 행위를 상징하는 긴 머리를 지닌 반역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분은 바산의 들과 깊은 바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로 그들의 피로 밭을 셋게 하고 이스라엘의 개들로 그들의 시체를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22절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을 찾아내는 것을 가리킨다.

궤를 예루살렘 성소로 안치하는 절차(68:24~27)

68:24~27 다윗은 예루살렘을 취한 후 얼마 안 되어 궤를, 그 안치하기 위해 세워둔 장막에 들여올 준비를 했다(삼하 6:12~19). 그 절차가 여기에 묘사되어 있다. 궤가 성소로 옮겨질 때에 “시편 기자는 사실상 ‘보라,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한다.”⁴⁹⁾ 찬양대가 앞서고 악대가 뒤따르고 그 사이에 젊은 여자들이 소고를 친다. 그 노랫소리를 들어 보라.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49) (68:24~27) Lewis, *Reflections*, p. 45.

송축할지이다.”

남쪽 지파들(작은 베나민과 유다)에서 북쪽 지파들(스불론과 납달리)까지 모든 지파들이 참여한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대망하는 즐거워하는 무리(68:28~35)가 성막 안으로 사라지자 밖에 있던 백성들이 마지막 기도(28~31절)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온 땅에 촉구하는 노래(32~35절)에 참여한다.

68:28~29 이 기도는 우선 하나님께 그 힘을 명하고, 그분의 백성을 위해 다시금 그 능력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 시작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호소한다. 이 기도는 성전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고 열왕이 금과 향료를 크신 왕께 예물로 가져올 천년왕국에서 최종적으로 응답될 것이다(사 60:6).

68:30 30절은 원문상 의미가 모호하나 전체적인 요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짐승과 수소의 무리를 꾸짖으실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갈대 사이에 거하는 짐승들(아마도 악어나 하마)은 애굽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소수는 “열방의 평화로운 무리를 다스리는” 다른 지도자들을 가리킨다(Knox).

“모든 이가 은 조각을 발아래 밟기까지”(우리말 성경은 “은 조각을 발아래 밟으소서”라고 되어 있음-역주)라고 옮겨진 문구는 “그 열방이 은을 가지고 당신께 절할 때까지” 혹은 “은으로 부유케 된 열방을 정복하기까지”라는 뜻일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좋은 의미이다. 그리고 같은 문맥에서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흠으소서”(우리말 성경은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흠으셨도다”로 되어 있음-역주)라는 기도가 올려진다. 이러한 간구는 침략자와 전쟁도발자들이 멸망당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온전히 응답될 것이다.

68:31 그 날에 애굽의 사절이 조공을 바칠 것이며, 구스인이 온 땅의 왕을 향해 절박하고 탄복하는 심령으로 그 손을 들 것이다.

68:32~35 마지막 구절들은 땅의 열방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귀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 표현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잘 드러낸다. 그분은 옛 하늘들을 타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분은 웅장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 위에 있는 전능한 분이시다.

그분은 그 거룩한 처소에서 엄위하신 반면, 그 백성을 굽어 살피사 힘과 능력을 주신다.

남은 한가지 고백은 이러하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69편 :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복스런 구속주의 고난과 죽음은 그분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에 잠기는 것이었다. 그분은 친히 자신의 임박한 고난을 세례로 표현하셨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눅 12:50)

그리고 시편 42:7에서 우리는 그분이 이렇게 부르짖으시는 소리를 듣는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극심한 저주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깊이를 체험하셨다.

69:1~3 여기 69편에서 우리는 죽음에 잠기실 때 그분의 거룩한

영혼이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는 특권을 누린다. 물이 그분의 목까지 올라왔으며 그분을 완전히 삼키려 한다. 그분을 도울 아무것도 없다. 그 발 아래는 깊은 수렁뿐이다. 이제 큰 물이 그분의 머리 위를 덮쳐온다. 물은 아주 깊다. 어떤 구속받은 자도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물을 한 곳(갈보리)에 모으셨으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기 위해 그 엄청난 심판의 바다를 건디고 계신다.

굽이치는 물결 너머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분의 절박한 호소가 계속 메아리친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호소해오신 듯했다. 그분의 목은 거칠고 메말랐다. 부르짖느라 탈진했다. 그분의 눈은 혹 하나님의 도움의 조짐을 찾을까 지평선 너머를 내내 살피느라 푹 패였다. 그러나 아무 도움도 오지 않았다.

69:4 분노한 군중은 악독과 증오와 분함과 냉혹함의 감정들을 드러내며 십자가 앞을 배회한다. 얼마나 기이한 광경인가! 우주의 창조자요 유지자께서 죄인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그분의 살인자들이 그분 앞에 모여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그분께 그 호흡이 달려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까닭 없이 그분을 증오한다. 그들은 그분을 멸하려고 거짓말로 그분을 몰아세운다.

“왜? 내 주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그 분노와 원한은 어찌된 연고인가?

절름발이를 뛰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셨건만

왜 저들은 분노하고

내 주를 거슬러 일어나는가?” (사무엘 크로스먼).

이제 구주의 입술에서 마음에 사무친 외마디가 터져 나온다.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섬김과 예배와 순종과 영광을 빼앗기셨으며, 인간 자신은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과의 사귀를 빼앗겼다.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흠치지 않은 것을 물어주려 오셨다.

“그 모든 신성의 충만을 던져버리고
흠으로 된 옷으로 그 하나님 되심을 가리우니
거기서 취하지 않은 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네.” (작자 미상).

이 점에서 그분은 속건제를 생각나게 하신다(레 5장). 속건제의 주된 특징은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입힌 손실을 보상하되 5분의 1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속건제물로서 주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만 보상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을 추가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많은 영광을 얻으셨다. 죄로 말미암아 그분은 피조물을 잃으셨으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은 자녀를 얻으셨다. 그리고 우리도 타락하지 않은 아담 안에서 누렸을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다.

“그분 안에서 아담의 자녀들은 그 아버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자랑한다.”

69:5 5절은 예수께서 스스로 짊어지는 우리의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분은 아무 어리석음도 잘못도 없으셨으나 친히 우리의 허물과 슬픔을 짊어지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그분의 죄로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

69:6 이어서 그분의 거룩한 마음에 한가지 염려의 그림자가 드리

운다. 그분은 그분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사실로 인해 일부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실족케 되지 않을까 염려하신다. 그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신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분의 낮아지심과 버림받으심으로 인해 욕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신다.

69:7~8 그분이 회방을 당하고 계신 것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분의 순종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즐거워하는 그분의 마음이 사람들로 그분의 얼굴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퍼붓게 했다. 순종의 부분적인 대가로 그분은 그 모친의 자녀에게 외면당하는 슬픔을 당하셨다. 그분의 이복 형제들이 그분을 미치광이로 취급했다.

69:9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위한 열정에 사로잡히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 모욕적인 말을 할 때마다 그분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셨다.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동전 바꾸는 자들을 성전 뜰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는 이 69편 말씀을 기억했다(요 2:17).

69:10~12 그분이 여기 지상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행하신 일 중 아무것도 그분의 비방자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분이 금식함으로 그 영혼을 경계할지라도 그들은 흠을 찾아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그분이 경건한 체한다고 비방했다. 그분이 깊은 슬픔에 빠질 때면 동정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말거리가 되었다. 성문에 앉은 지도자들로부터 거리의 술집에 드나드는 술주정뱅이에 이르는 사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는 노래를

불러냈다. 생명과 영광의 주께서 세상에 임하셨는데 술취한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시다니 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69:13~18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은 자신의 유일한 근원되신 하나님께 간청한다. 그분의 기도는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지! 그분의 계속적인 호소로 하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께 합당한 때에 응답하실 권리를 내어드린다. 수렁에 빠지지자, 그분은 신실한 도움으로 구출해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깊은 물과 큰 물과 웅덩이에서 구원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신다. 극한 상황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한 자비에 근거하여 호소한다. 그분의 간구는 짧고 구체적이다. “내 말을 들으소서…내게 돌이키소서…내게서 숨지 마소서…나를 구속하시고 건지소서.”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는 “저들로 나의 그치지 않는 곤경을 조롱하지 못하게 하소서”란 뜻임이 분명하다.

69:19~20 대적에 대한 언급은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 당하신 모든 고초를 상기시킨다. 그분의 생애는 훼방과 수치와 능욕으로 가득했다. 유아기부터 그분은 대적에게 쫓김을 당하셨다. 하나님은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셨다. 그분의 마음은 훼방으로 상하셨다. 오직 사람들의 선(善)만을 바라시는 그 마음이 상하셨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근심과 마음의 무거운 짐이 그분을 낙심케 했다. 슬픔과 고난 중에 있는 그분을 동정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제자들조차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분은 홀로이셨다.

69:21 이어서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성취된, 다윗의 놀라운 예언 중 하나가 나온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이 예언의 성취는 마태복음 27:34,48에서 발견된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유를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쓸개’는 소량으로 진정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쓰고, 아마도 독성이 있는 물질이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대속자로서 완전한 의식 가운데 고난을 당하셔야 했기에 그것을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다. ‘초’는 그분의 갈증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신포도주였다.

69:22 22절에서 시의 어조가 갑자기 바뀌는데, 다음 일곱 구절에서 우리는 죽어가시는 구주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게 한 민족을 징벌해주실 것을 호소하시는 음성을 듣는다. 이 기도는 우리를 놀라게 할만한데,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다(눅 23:34). 그러나 사실 두 기도 사이엔 모순이 없다. 용서는 그들이 뉘우칠 때만 유효했다.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여기에 묘사된 심판 밖에는 대안이 없었다.

본문은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 11:9,10에서 이 22,23절을 이스라엘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진(陣)을 의미하는 ‘그 장막’이란 표현도 분명히 유대적인 암시이다.

본문은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처형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해준다.

‘그들의 상(床)’이 올무가 될 것이다. ‘상’은 하나님의 택한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들의 총합을 가리킨다. 그 특권이 축복이 되는 대신 그들이 정죄당하는 정도를 결정해줄 것이다.

그들이 평안을 경험할 때 그것이 덧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만사가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환란이 닥칠 것이다.

69:23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민족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소경됨을 가리킨다(고후 3:14). 그들은 빛을 거절한 까닭에 빛을 거부당했다.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릴 것이다. 열방 중에 흩어진 채 그들은 발바닥이 쉴 곳을 찾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떠는 마음과 쇠한 눈과 산란한 정신”을 주실 것이다(신 28:65).

69:24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며, 그분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그 처참한 유대인 학살과 포로 수용소와 가스실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큰 슬픔 중에 기억한다. 물론 그러한 악행은 악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한(마 27:25) 백성들의 후손에게 그 일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69:25 그들의 거처가 황폐해질 것이며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고 한 마태복음 23:38의 메시야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 그 말씀은 A.D. 70년 디도와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훼파했을 때 충분히 성취되었다.

69:26 만일 징벌이 가혹하게 여겨지면 그 징벌을 불러온 죄악을 생각해 보라.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케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포도원의 비유에서 소작인들은 집주인의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마 21:38). 그들은 그분이 아들임을 알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였다. 26절 후반부는 순교당할 메시아의 추종자들을 묘사한다.

69:27~28 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혹하다고 지적할 근거가 없게 된다.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기간 내내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히 여기시며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부드럽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게 된다. 오늘날도 복음이 이방인에게처럼 유대인에게도 전해진다. 그리고 22~28절에 묘사된 심판을 당해야 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러한 운명을 고의적으로 선택하는 자들뿐이다.

69:29 이제 죽어 가는 죄인의 친구의 마지막 말이 이어진다.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을 높는데 안전히 두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그리고 그 일은 정확히 이뤄졌다. 하나님이 제3일에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그분의 우편에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다. 죄로 인한 그분의 고난은 영원히 끝났다. 그리고 우리는 즐거워한다!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를 칼로 치시지 않으리.
다시는 잔인한 죄인들이
우리의 영광의 주를 멸시하지 않으리.” (로버트 C. 채프먼).

이제 우리는 노래한다.
“복스런 주님의 머리에 몰아친 폭풍이 이제 영원히 사라졌고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광의 면류관이 주님의 머리에 씌워졌네.” (H. 로시어).

69:30~33 마지막 일곱 구절의 화자(話者)는 부활하신 구속주이시다. 먼저 그분은 자신을 죽음과 무덤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서원하신다. 그분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할 것이다. 이것이 극히 값진 제물보다 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도처의 압제받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구주의 기도를 듣고 그분을 건지셨듯이 곤고한 자의 간구를 듣고 자기를 찾는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실 것을 깨닫고 힘을 얻을 것이다.

69:34~36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세 구절은 밝은 미래를 예고해준다. 이스라엘은 비록 일시적으로 제침을 당하지만 축복의 위치로 회복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분을 바라보고 독자를 위해 애곡하듯이 그분을 위해 애곡할 것이다. 그 날에 그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칠 것이며, 하나님은 시온을 구원하고 유다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분의 종들은 다시는 열방 중에 흩어짐 없이 그 땅에 거할 것이며, 그들의 자손이 그 땅을 상속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주 예수께서 메시아-왕으로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하게 될 천년왕국을 대망한다.

70편 : 속히 도우소서!

70편은 대부분이 40편 13~17절의 반복이다. 표제어는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되어 있다. 이 시는 네 가지 분명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속히 도우소서(70:1).

70:1 물건은 이것을 가리켜 “애절하고 숨가쁜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속히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이 1절에서 우리는 확실히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

철저히 징벌하소서(70:2,3).

70:2~3 이어서 대적의 패배와 물러감을 호소한다. 그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해하기를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조롱한다고 고소한다. 그리고, 그들로 완전히 당황하고 물러가 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극심한 수치로 인해 놀라게 해달라고 구한다.

항상 찬양하게 하소서(70:4).

70:4 본문의 요지는, 만일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구원하러 오시면 그분에 대한 큰 찬양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그분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경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속히 도우소서(70:5).

70:5 다시 한번 속히 도와달라는 가난한 자의 호소가 울려 퍼진다. 다윗은 비록 확신에 넘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그의 도움과 구원자로 믿고 있으며, 그의 그러한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71편 : 노년(老年)

종종 그러하듯이, 우리는 시편 기자의 경험과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벨렛트가 시사하듯이, 이 시는 이스라엘의 노년에 고난받는 잔존자들의 기도로 살펴볼 수가 있다.⁵⁰⁾

71:1~3 처음 세 구절은 시편 31:1~3과 유사하다. 여호와를 피난처와 바위와 산성으로 높이고, 여호와께 시편 기자의 믿음을 보상해줄 것과 건짐과 구조와 구원을 베풀고 피할 바위와 산성으로서 구원의 도움을 베풀 것을 간청한다.

71:4 기도가 계속되면서 과거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와 노년에도 그 인자가 계속될 것에 대한 확신이 커진다.

이 시를 이스라엘에게 적용한다면 4절의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이다. 그의 두려운 전제정치는 성도들의 인내를 요구하고 그들로 절박하게 부르짖게 할 것이다.

71:5~6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요 어릴 때부터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이다. 만일 그가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를 의지했다면 인생의 황혼기에도 의지할 것이 없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출생의 순간까지 추적할 수 있다면 노년에도 찬송할 제목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71:7~8 시편 기자는 그 거절당함과 고난의 깊이로 인해, 그리고 아마도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이상함’이 되었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

50) (71:Intro) John G. Bellett, 'Short Meditations on the Psalms', p. 76.

쳤다. 이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함과 매일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원했다.

71:9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은혜스럽게 늙기 위해서는 자연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노년은 낯선 갈등과 비밀한 두려움, 즉 사랑하는 자들에게 짐이 되는 두려움, 무력한 불구자가 되는 두려움, 이해력을 상실하는 두려움, 속임을 당하는 두려움 등으로 이뤄진 새로운 세계이다. 이 두려움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인생의 가을에 처한 모든 이들을 크게 격려하고 있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71:10~11 물론 그는 그를 비방하고 죽일 음모를 꾀하는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오해하고는 아무 두려움 없이 그를 죽일 채비를 했다.

71:12~13 그러한 위기는 하나님께서 곁에 오셔서 도와주실 것을 간청하는 구조요청을 하게 했다. 하나님은 대적으로 하여금 수치와 패배와 욕과 수욕을 당하게 할 수 있으시다.

71:14~16 그러나 소망이 속히 두려움을 넘어 일어나며, 찬양이 그 힘을 발하기 시작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헤아린다. 그분은 그 괴로움 당하는 자녀를 헤아릴 수 없이 건져주셨다. 시편 기자는 거룩한 결단으로 “내가 여호와 엘로힘의 능하신 행사에 대한 완전한 해설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다.⁵¹⁾

51) (71:14~16) Williams, ‘*Commentary*’, p. 72.

71:17~18 다시 한번, 5~11절에서처럼, 그는 어릴 때부터 노년 까지를 되돌아보며(17~21절),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를 가르치셨으며, 낙스의 표현대로, “여전히 나는 주의 놀라운 기사를 전하고 있다.” 이제 그는 늙어 백발이 되었으나 자신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세대와 장차 올 세대에게 여호와와 능하신 기사에 대해 전할 시간을 달라고 간청한다. 이 기도는 물론 이 시가 성경에 보존됨으로써 응답되었다.

71:19~21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다!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의로움은 하늘보다 높다. 특히 그분이 행하신 큰 일들을 생각할 때 아무도 그분과 비교될 수 없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를 행하셨다고 얘기한다. 그와 같이 여기서 그분은 시편 기자(이스라엘을 포함)로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환란기간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분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소생시키고 무덤 문턱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모욕 대신 존귀를 주시고 위로로 그들을 감싸실 것이다.

71:22 비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기 위해 연주될 것이며, 수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높이기 위해 연주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시편의 다른 대목에서 두 번 사용되었다(78:41; 89:18).

71:23~24 그러나 비파와 수금은 시편 기자의 입술과 영혼과 혀에 의해서 화음을 이룰 것이다. 그의 입술은 떨 듯이 즐거워하며 노래할 것이다.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은 그의 영혼도 크게 즐거워하

며 노래할 것이다. 그의 혀도 온종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할 것인데, 이는 그의 모든 대적이 완전히 혼비백산했기 때문이다.

72편 : 메시아의 영광스런 통치

이 시는 한 지상의 군왕(솔로몬으로 추정)을 위한 기도로 시작한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우리는 기자가 솔로몬을 뛰어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 때는 이 지치고, 싸움이 그칠 날 없는 세상에게 놀라운 날이 될 것이다. 인류가 고대하던 황금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피조물의 신음이 그치고, 평화와 번영이 꽃피울 것이다.

72:1 첫 구절에서 우리는 왕이 세움을 입는 거룩한 행사에서 드러지는 기도소리를 듣는다. 나스는 이것을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위의 계승자로 주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게 하소서”라고 읊었다.

이 72편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모든 “...하리로다”는 구주께서 그 찬란한 나라를 세우실 때 성취될 것이다.

72:2 그분은 백성을 의로 판단하고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다. 부패와 뇌물과 압제가 그칠 것이다. 재판이 엄정히 치러질 것이며, 가난한 자가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72:3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고 정의가 작은 산들을 덮을 것이다. 산은 종종 성경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은 위로 대법원에서 아래로 지방법원까지 모든 법정에서 공평과 정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72:4 오랜 세기를 내려오는 동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압제와 과중한 납세와 핍박과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왔다. 천년왕국에 서는 왕이 친히 그들의 변호자가 되실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단번에, 영원히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을 악용한 자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72:5~6 그분의 백성은 해와 달이 있는 동안, 대대로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할 것이다. 그분의 임재는 풀 위에 내리는 비와 마른 땅에 퍼붓는 소나기같이 복되고 신선할 것이다.

72:7 그분은 진정한 멜기세덱(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분이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번성하고 평화가 풍성하기를 달이 다하기까지 할 것이다. 의가 평화에 앞선다는 것을 주목하라.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사 32:17).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의로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리고 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그분은 언젠가 전쟁으로 황폐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72:8 대영제국의 자랑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식민지들은 세계 열방 중에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우주적이 될 것이다. 그 왕국은 여기저기 식민지가 흩어진 그런 왕국이 아닐 것이다. 모든 열방이 포함될 것이다. 그분의 지배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테 강에서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72:9 임의로 행하던 광야의 유목민들은 마침내 그분 앞에 엎드릴 것이며, 그분의 대적은 멸망할 것이다. 티끌을 밟는다는 것은 비참하고 수치스런 굴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72:10~11 이방 열왕이 조공과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께 나아올 것이다. 여기에 스페인의 지도자와 여러 섬나라의 지도자와 남부 아라비아의 지도자들이 나아온다. 모두가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모든 민족이 예외 없이 그분을 섬기는 까닭에 공항이 방문하는 지도자들로 붐빌 것이다.

“부와 사상과 음악과 미술의 왕들이 이미 그분을 인정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메이어는 말했다.

72:12~15 궁핍한 자에 대한 왕의 깊은 동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버림받은 자들이 능하신 구원자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가난이 사라지고 불의가 지나간 것이 될 것이다. 약한 자와 곤고한 자가 그분께 직접 나아가 그분의 사려 깊은 관심과 즉각적인 조치를 얻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불의하고 잔인한 처사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그들의 삶이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세상에 알리실 것이다.

72:16 땅이 말할 수 없이 비옥할 것이다. 곳곳에 곡식이 차고 넘칠 것이다. 산꼭대기같이 경작한 적이 없는 곳들도 누렇게 익은 곡식으로 물결치며 레바논의 숲처럼 바람에 넘실거릴 것이다.

들판마다 곡식이 가득하기에 성읍마다 사람들이 가득 거할 것이다. 인구가 급증할 것이나 양식이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72:17 그분의 이름이 영구할 것이며, 영원히 사랑과 공경을 받을 것이다. 해가 존재하는 한 그분의 영예가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모든 사람이 그분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열방이 그분을 복되다 할 것이다.

72:18~19 이 시는 송영으로 마감된다. 주 예수님의 영광스런 통

치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다. 그 놀라운 상황을 이뤄내신 이는
그분이시며, 다른 아무도 그 일을 해낼 수 없다. 따라서 마땅히 그
분의 영화로운 이름이 영원히 찬양 받고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
만해야 한다.

72:20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그쳤다. 이것은 이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가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많은 기도가
나오기 때문이다. 아마 그것은 시편 제2권이 이 72편에서 마감되는
것을 의미할지 모른다. 하지만 더 가능성 있는 설명은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예고된 통치가 그의 기도의 궁극적인 성취를 말해준다는 것
이다. 앞 구절들에 묘사된 왕국은 그의 마지막 말의 주제였으며(삼
하 23:1~4), 그의 기도가 지향하는 목표점이었다. 메시아가 보좌에
앉아 다스리실 때 다윗의 소원은 온전히 이뤄질 것이다.

제3권(73~89편)

73편 : 신앙의 수수께끼

73:1 이것은 아삽이 하는 말이다. 먼저 한가지를 분명히 해두겠
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다는 것이 사실임을 안다. 그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기에 아무
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73:2~3 하지만 내가 의아하게 여기는 때가 있었다. 그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이 크게 흔들렸고 내 믿음이 거의 잠시나마 실족할 뻔
했다. 나는 악인이 얼마나 험통한지를(재물이 풍족하고 쾌락을 즐
기고 환란이 없다) 생각하며 그들처럼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73:4~9 모든 일이 잘되어 가는 듯 보인다. 그들은 신자들처럼 육체적인 고난이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의 몸은 건강하고 윤기가 있다. 그들은 당연히 인생을 즐기고 누린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당하는 환란과 슬픔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혹 그런 일이 닥칠지라도 그들은 그다지 큰 손실을 입지 않는다. 당연히 그들은 자만한다. 그들은 공작처럼 뽐내고 호랑이처럼 거침없다. 그들의 몸은 살집으로 부풀고 그들의 마음은 교활한 생각으로 넘실거린다. 그들은 늘 오만하다! 그들은 시종들을 조롱하고 저주하며 쓰레기 대하듯 하며 늘 그들을 위협한다. 하나님도 그들의 악한 생각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들의 언어는 훼방하는 말로 가득하며, 그들은 오만불손하게도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들의 혀는 거들먹거리며 온 땅을 두루 다닌다. 마치 “내가 간다. 길을 비켜라”라고 외치는 듯하다.

73:10~12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을 대단하게 여긴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굽실거리며 공경을 표한다. 악인이 어떤 일을 하든 사람들은 흠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압제자들은 더욱 교만해진다. 혹 하나님이 있다해도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그 악한 일을 계속 도모한다. 그들은 편안히 지내며 갈수록 부유해진다.

73:13~14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경건하고 정직하고 모범되게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는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말씀에 시간을 투자했다. 주님 일에 물질을 드렸다. 공공적이든 개인적이든 주님을 열심히 증거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매일 매일 고난과 징벌을 당하는 것이었다. 나는 믿음의 삶이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했다.

73:15 물론 나는 결코 다른 신자들에게 나의 의심과 불안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정도로 무지하지는 않았다. 나는 ‘확실한 것을 말해 줘. 의심은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족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믿는 영혼을 해치거나 실족케 하지 않기 위해 내 모든 의심을 혼자 품고 있었다.

73:16 그러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 문제는 여전히 내게 수수께끼였다. 그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사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탈진한 상태였다.

73:17 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성소(문자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나는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갔다. 내가 악인이 이생에서 형통하는 문제에 대해 여호와께 불평할 때에 갑자기 ‘그래, 하지만 내세에서는 어떻게 되지?’라는 물음이 전광석화처럼 떠올랐다.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해졌다.

73:18~20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이렇게 아뢰었다. ‘여호와여, 외관상의 모습과 달리 악인의 삶은 불안 불안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낭떠러지의 미끄러운 가장자리를 걷고 있다. 조만간 그들은 천 길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공포의 물결에 휩쓸려 순식간에 끊어질 것이다. 그들은 내게 꿈과 같아서, 밤새 괴롭히다가 아침에 깨어보니 환영(幻影)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다.

73:21~22 이제 나는 나로 시기케 한 것이 그림자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외관상의 형통에 대해 고민하고 괴로워한 내가 어리석었다. 여호와의 공의를 의심함으로써 나는 사

람이 아닌 짐승처럼 행동했다. (그렇게 행동한 저를 용서하소서!)

73:23~24 나의 무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늘 당신과 함께 있으며, 당신은 아버지가 자식을 손에 붙잡듯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의 평생에 당신이 당신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마침내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73:25~26 나는 하늘에 당신이 계신 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나를 더할 수 없이 부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로 그들의 부를 누리게 하소서. 나는 당신으로 만족하고 당신 안에서 모든 만족을 발견합니다. 내 육체는 쇠잔하고 내 정신은 쇠약해져도 하나님은 내 삶의 능력이요 내가 영영토록 바라고 원할 모든 것입니다.

73:27~28 당신을 멀리하는 자는 당신 없이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버리고 거짓 신을 택하는 자는 멸절당할 것입니다. 나는 가능한 당신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보호에 나 자신을 맡겼으며, 당신의 모든 놀라운 기사를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74편 : 기억하라!

이 감동적인 애가(哀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된 일을 회상한다. 또한 그것은 그와 유사한 세 가지 이스라엘의 비극을 미리 내다본다.

B.C. 170~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성소의 더럽혀짐.

A.D. 70년 디도와 로마 군에 의한 성전의 무너짐.

마태복음 24:15에 예언된 성전의 황폐화.

바벨론 파괴자들이 휩쓸고 지나갔을 때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신 듯했다. 그들은 건물 잔해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을 보고 그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의 연기로 정확히 이해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이러하다는 것을 여호와께 상기시켰다.

주의 치시는 양(1절).

주의 회중(2절).

주의 기업의 지파(2절).

주의 산비둘기(19절).

학대받은 자(21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21절).

그들은 또한 “기억하라”는 말을 다양하게 반복한다.

주의 회중을 기억하소서(2절).

시온산을 기억하소서(2절).

원수의 조롱을 기억하소서(18절).

경건치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고 모욕하는지 기억하소서(22절).

74:1~4 그들은 마치 그분이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시는 양 하나님께, 갈대아 군이 성스런 건물을 얼마나 철저히 무너뜨렸는지와 보라고 호소한다. 이어서 그들은 그 일이 일어난 경위를 직접 증언한다. 이방 침략자들은 성소 중앙으로 곧바로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그들의 깃발을 세웠는데, 이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곳에 이교의 식과 우상의 상징물을 들여온 것을 의미했다.

74:5~8 마치 벌목꾼이 도끼날을 휘둘러 삼림을 차례로 쓰러뜨리듯이 이방 군대의 도끼와 쇠파기에 의해 성전의 값진 조각물과

널판들이 부수어졌다. 그곳이 폐허가 되자 그들은 그 위에 불을 놓아 그 하나님의 성소를 철저히 더럽혔다. 이스라엘과 그들의 예배를 완전히 멸할 목적으로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회당을 불태웠다.

74:9 이스라엘의 극한 상황은 세 가지 공백(부재)과 네 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그 공백은 이러하다.

표적이 없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보이지 않았다.

선지자가 없다. 이 때에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겔 3:26).

언제 끝날는지 소망이 없다. 그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74:10~11 네 가지 질문은 이러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대적이 조롱하도록 허락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이 무한히 욕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실까?
왜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성전이 파멸되지 못하게 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그 품에 숨겨두고 계실까?

74:12~17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과거에 그분의 백성을 위해 능력을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소망과 위로를 얻는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분은 여러 곳에서 행한 놀라운 구원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예를 들어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추적을 쉽게 벗어나도록 그분의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셨다. 그런 다음 애굽의 용들, 즉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자 바다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 군대를 몰살시키셨다. 그분은 악어, 즉 애굽의 세력을 상징하는 큰 짐승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해변에 밀려온 애굽인의 시체는 독수리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그분은 광야에

서 샘과 시내가 흐르게 하셨고, 요단강을 말리사 백성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낮과 밤이 그분의 통제 아래 있으며, 해와 달과 별들이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 섬긴다. 그분은 땅의 지리와 지형을 정하셨으며 계절의 변화를 다스리신다.

74:18~21 시편 기자는 그분도 재앙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킨다. 대적이 그분의 이름을 비방했다. 악하고 우둔한 백성이 그분을 멸시했다.

그분의 백성의 곤경은 절박하다. 그들은 그분의 산비둘기인 그들을 잔인한 바벨론 짐승에게 넘겨주거나 그분의 고난당하는 자들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그분께 탄원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의 어두운 곳에 강포와 잔인함이 가득한 이 때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돌아보시라고 그분께 간청한다. 그들은 그분의 압제받는 백성에게 수치가 아닌 존귀를 돌려주시고 그들로 응답된 기도로 인해 그분의 이름을 새롭게 찬양할 큰 명분을 주시라고 그분께 간청한다.

74:22~23 결국 위기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이 그분의 이름의 영예를 지키셔야 하는데 이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날마다 그분을 조롱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쉬지 않고 도전을 일삼는 그분의 원수의 넘치는 조롱을 잊으셔서 안 된다.

75편 : 높임의 근원

74편의 기도는 75편에서 응답된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변호하기 위해 일어나(시 74:22)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멸하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시는 주 예수께서 의로 다스리기 위해 지상에 재림하시는 순간을 대망한다.

75:1 그 날을 대망하며 구주께서 그분의 백성에 앞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행사는 그분이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그 대적을 징벌하기 위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분의 모든 능한 이적은 그분이 그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것을 증거한다(LB).

75:2 동일한 화자(話者)께서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라고 말씀하신다. 그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다(막 13:32). 그 때가 이르면 그분이 상황을 장악하고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라고 한 이시아의 예언(32:1)을 성취하실 것이다.

75:3 인간정부의 기초가 와해될 그 역사적인 때에 그분이 요동하지 않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인간의 사회는 영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지만 그분의 정부의 기둥은 견고하고 안전하다.

75:4~5 그분은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행악자들에게는 “너희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기세 등등하지 말라. 헛되이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75:6~7 “참된 높임은 그 방향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 광야에서 오지 않는다.” 북쪽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대개 침략자가 북쪽에서 오기 때문일지 모른다(침략자가 오는 것은 높임이 아니라 정복을 의미했다.) 또는 북쪽은 때로 하나님의 거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사 14:13; 시 48:2). 어떤 경우든, ‘높아짐’이 인간적 혹은 지상적인 근원에서 오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로서 온다는 의미만은 분명하다. 그분은 어떤 이는 낮추고 어떤 이는 높이시는 절대 통치자이시다.

75:8 낮추는 자로서 그분은 그 손에 잔을 들고 계신다. 그 잔은 심판의 포도주로 가득하다. 그것은 거품이 이는 붉고 잘 섞인 포도주로서 힘과 여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분이 그것을 쏟아부을 때 이 땅의 악한 거민들은 그것을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할 것이다.

75:9~10 마지막 두 구절에서 주 예수님이 여전히 화자(話者)시다.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 즉 그분의 무가치한 백성을 높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악인의 뱀, 즉 그들의 힘과 영예는 꺾일 것이나 의인의 권세와 영광은 증진될 것이다.

76편 : 사람의 노(怒)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B.C. 71년 산헤립이 이끄는 앗수르 군이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위협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성에 가까이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와 사자가 밤중에 그들의 진을 습격하여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이 앗수르의 재앙은 바이런의 서사시 ‘산헤립의 파멸’에 묘사되어 있는데, 그 시는 이사야 37:36에 대한 주해에 전문이 실려있다. 만일 이 76편을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비추어 본다면 그 일이 새롭고도 흥미로운 면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그 사건은 이 시와 함께 돌아볼 만하다.

76:1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과 성소를 위협하던 군대를 놀랍게 격퇴하신 일로 인해 유다에 알린바 되셨다.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상 그 잊지 못할 장을 이루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중에 두드러졌다.

76:2~4 그분은 평강의 성인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삼고, 시온산을 그 거처로 삼으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은 대적의 무기(화살,

방패, 칼 등)를 꺾하셨다.

산 위에 세워진 이 성은 약탈한 산, 즉 예루살렘을 사로잡은 이방 제국들보다 엄위하다. 바꿔 말해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그 손을 들만한 어떤 열강보다 더 영화로우시다.

76:5~6 그것은 앗수르 군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입증되었다. 용맹한 군사들이 갑자기 무기를 빼앗겼다. 순식간에 그들은 무력해졌다. 야곱의 하나님이 한마디 발하시자 말탄자와 말이 함께 사망의 잠에 빠지고 말았다.

76:7~9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두려워할 분이신지! 그분이 일단 노를 발하시면 모든 대적하는 것들이 무력해진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심판을 명하시자 땅이 두려워 떨며, 폭풍 앞의 고요함처럼 잠잠해진다. 그 때에 하나님이 세상의 악행을 바로잡고 압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나아가신다.

76:10 그분은 사람의 노를 변하여 그분을 찬양케 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으시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려 하지 않는 것은 정복당한 장군의 칼처럼 그 허리에 두르신다.

“사람의 노는 주를 찬송하게 되고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실 것이라.
그리고 땅의 재앙으로부터
영원한 소득이 거둬질 것이라.
인간의 악한 마음의 목적이
주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리.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계시니
그러므로 믿으라, 잠잠하라.
‘잠잠하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이 다툼과 슬픔과 눈물의 세상을 지나는 동안
그 약속이 우리의 두려움 사라지게 하네.
천군을 거느리고 만유를 손에 쥐신 이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물을 자 없네.
그 팔을 감당할 자 없네.” (작자 미상).

76:11(상) 여호와와 그의 지극히 크심과 영광스러움에 비추어, 유대 백성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갚으라는 권면을 받는다.

76:11(하)~12 이어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열국이 최고의 통치자, 즉 세상의 방백들을 낮추고 강력한 지도자들에게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능하신 이에게 예물을 바치라는 요청을 받는다.

77편 : 자기성찰을 위한 처방

전반의 열 구절에서 아삽은 자신을 깊이 성찰한다. ‘나’라는 1인칭대명사가 20번 이상 나오는데 반해 하나님의 이름은 7번 나오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도 7번 나온다. 그러나 10절에 이르러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있다. 후반의 열 구절에서는 1인칭 대명사는 3번 뿐인데 반해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사와 대명사가 20번 이상 나온다.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나’를 제거한다.”

어떤 이는 이 시의 흐름을 다음 네 단어로 표현했다.

한숨(sighing)(1~4절).

잠김(sinking)(7~10절).

노래함(singing)(11~15절).

솟아오름(soaring)(16~20절).

77:1~3 먼저 아삽은 하나님께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토로한다.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환란이 그의 삶에 찾아왔다. 궁지에 처한 그는 자신 밖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도 그는 위로가 없음을 불평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기쁨 대신 근심을 가져오는 이상한 상황에 자신이 처한 것을 발견한다. 묵상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이 더 우울해진다.

77:4~6 그는 자신의 심각한 불면증 증상의 탓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린다. 그 마음의 괴로움은 형언할 말이 없을 정도다. 그는 형통했던 지난 좋은 시절을 떠올림으로써 위로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 자신에 사로잡히고 그 안에서 승리를 찾으려 할수록 더욱 그는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된다. 그는 ‘다섯 가지 불신앙의 질문’으로 표현된 의심에 사로잡히고 만다.

77:7~10 첫 번째 질문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를 버리셨다는 깜짝 놀랄 가능성을 제기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멈추셨는지를 묻는다. 세 번째로, 그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약속을 폐하셨는지를 의심한다. 네 번째로, 아마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잊으셨을 것이라는 경솔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끝으로,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공혈을 막으셨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그는 그러하다고 스스로 답한다. 지존자의 오른손이 바뀌었다. 그의 모든 슬픔은 하나님의 그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77:11~13 그러나 11절에,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전환되는 것과 비교할만한 영적인 전환점이 있다. 자기성찰로 인해 깊은 좌절에 빠진 후에 아삽은 눈을 하늘로 돌려, 하나님의 백성이 환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개입하셨던 지난 일들을 돌아보기로

다짐한다. 그것은 즉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모든 행사가 완전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다.

77:14~15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기적적인 능력을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그는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다. 1인칭 대명사가 그의 어휘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자아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

77:16~18 뛰어난 문학적 기법으로 그는 홍해의 물이 위를 올려보다 그 창조주를 보고는 두려워 물러나는 모습을 그려낸다. 대자연이 맹렬한 폭풍에 휘말렸다. 억수같은 비가 쏟아졌다. 천둥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거리며 대지를 밝혔다. 격렬한 회오리바람이 그 일대를 강타했고 대지가 사나운 강풍에 진동했다.

77:19~20 하나님이 친히 바다에 길을 내셨다. 그분이 길을 내사 그분의 백성으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발자국을 보지 못했다. 흔히 그렇듯이, 비록 그분 자신은 그림자에 가리워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풍성한 증거가 있었다.

이 시는 목자되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보호를 통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평화로운 장면으로 마감된다. 처음에 아삽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끝에 이르러서는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 시는 다음과 같은 잘 알려진 말에 대한 좋은 실례이다.

“자아에 사로잡히는 것은 낙심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에 사로잡히는 것은 실망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는 것은 기쁨을 가져온다.”

78편 : 역사의 교훈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사와 이스라엘의 완고한 행사”, 벨렛은 이 시의 메시지를 그렇게 요약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뛰어난 노래 중 하나이다. 그 목적은 우리로 과거에서 교훈을 받아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가르치는데 있다.

역사를 통해 배우라는 촉구(78:1~4)

78:1~4 시편 기자는 그의 백성(우리 모두를 포함해서)에게 주의 길을 기율이라고 촉구한다. 왜냐하면 이제 비유로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말 이면에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그가 그의 민족의 역사의 여러 대목을 돌아볼 때에 거기에는 그가 ‘옛 비밀한 말’이라고 부르는 숨은 교훈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부모가 지난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듯이 우리도 그분의 백성에 대한 여호와와의 은혜로운 섭리와 다스림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의무가 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78:5~8)

78:5~8 아삽은 그의 비유적인 가르침을 율법의 제정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후대에 신실히 전하라는 지시와 함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다음 네 가지였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 소망을 두도록,
그들이 그분의 영광스런 기사를 잊지 않도록,
그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이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아 열조의 거역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불순종과 거역과 배은망덕함(78:9~11)

78:9~11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실망시켰다. 활로 무장했지만 그들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이것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를 받아들이고 두려워 떨었던 일을 가리킬 수도 있다.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는데 실패한 일을 가리킬 수도 있다. 더욱 가능성 있는 설명은, 그들의 특징적인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라는 것이다. 그들은 거둬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 행하신 모든 놀라운 기사를 습관적으로 잊어버렸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을 잊어버림(78:12~14)

78:12~14 그들은 애굽을 잊어버렸다. 소안(타니스) 들에서 강제 노역하던 데서 놀랍게 해방된 일을 잊어버렸다.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일을 잊을 수 있겠는가? 물이 그들 좌우편에 우뚝 서서 그들로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한 그 일을 어떻게 잊겠는가? 낮에는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두려운 불기둥이 그들 앞서 가는 기적이 있었다.

광야에서 물을 기적적으로 공급받은 일을 잊어버림(78:15,16)

78:15~16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의 반석을 쪼개어 물을 흠뻑히 공급하신 일을 속히 잊어버렸다. 그 때 물이 큰 샘처럼 터져 나왔다. 광야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의 기억은 오래가지 못했다.

떡과 고기를 경솔하게 요구함(78:17~22)

78:17~22 그들은 음식에 대해 여호와께 원망하기 시작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들은 지극히 높이신 이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굶어죽게 만들려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냈

다고 불평했다. 그들은 그분의 공급능력을 의심했다. 그분이 물을 주셨음을 마지못해 인정하면서 그들은 그분이 떡과 고기를 줄 마음과 능력이 없다고 의심했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실로 여호와를 격노케 했다. 그들이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대해 그분은 당연히 분노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향해 그 분노의 불이 맹렬히 타올랐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만나 공급(78:23~25)

78:23~25 그들은 떡을 원했다. 그러나 광야에는 수퍼마켓이 없었다. 떡을 만들 재료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곳간을 여사 만나를 비같이 내려 주셨다. 백성들은 떡보다 나은 것으로 잔치를 벌였다. 그것은 천사의 음식이요 하늘의 떡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추라기 공급(78:26~31)

78:26~31 그들은 또한 고기를 원했다. 그러나 어디서 광야의 무리를 먹일 고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동풍을 움직여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새들은 확실히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먼 데서 가져와야 했다. 그런데 그것이 풍성히, 값없이 공급되었다.

백성들이 한창 그 고기를 먹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불어닥쳤다. 그분은 역병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남자 중 가장 건장한 자들을 죽이셨다.

백성들의 거듭된 죄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자비(78:32~39)

78:32~39 그분의 사랑에 대한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신실치 못했다. 하나님의 행사가 전혀 그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분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에 원망을

거듭했다. 그래서 때때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사망과 파멸이 임하게 하셨다. 그것은 잠시간 생존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듯했다. 그들은 여호와께 돌이켜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고 여호와를 열심히 구했다. 그들은 그분이 어떻게 그들에게 놀라운 피난처가 되셨으며, 어떻게 그들을 애굽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생각했다. 그러나 곧 다시 그들은 입술로는 경건을 말하고 행동은 완악한 위선된 삶에 빠지고 말았다. 그들은 변덕스럽고 완고했다.

여호와께서는 놀라운 인내심을 보이셨다. 그분의 지극히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인해 그분은 그들의 만성적인 불순종을 용서하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재앙을 보류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셨다.

백성들의 거역과 원망과 배은망덕(78:40,41)

78:40~41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 보고자 한다(40~58절). 만일 우리가 독자로서 이런 반복을 지루해 한다면 그것이 여호와께 얼마나 노를 자극했겠는지 생각해 보라!

그들이 광야에서 되풀이해서 거역한 것은 그분의 마음을 몹시 슬프게 했다. 그들은 거듭거듭 그분을 시험하고 그분을 제한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가슴아프게 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을 잊어버림(78:42~53)

78:42 그들은 어떻게 그분이 자신을 강한 자로 그들에게 입증하셨으며, 어떻게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그 때까지의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이었다. 그런 그들은 그것을 당연시했다.

78:43 43~53절에서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금 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섯 가지 재앙을 다음 순서로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 재앙—강이 피로 변함(44절).

네 번째 재앙—파리(45절).

두 번째 재앙—개구리(45절).

여덟 번째 재앙—메뚜기(46절).

일곱 번째 재앙—우박(47,48절).

열 번째 재앙—장자의 죽음(49~51절).

78:44 하나님은 그들의 강을 피가 되게 하사 애굽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셨다. 그들이 성스럽게 여긴 나일강이 갑자기 오염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물은 오염되지 않았다.

78:45 그분은 애굽 온 집에 파리 떼를 보내셨다. 그들은 바알세뿔, 즉 ‘파리 대왕’을 숭배했는데 이제 그 신이 돌변하여 그들을 삼키려 했다. 흥미롭게도 그 파리 떼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침입하지 않았다.

그분은 애굽에 개구리 재앙을 보내셨다. 비옥을 상징하는 동물로 숭배되던 개구리 떼가, 그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정지시켰다는 의미에서 그들을 멸하였다. 그러나 그 재앙은 애굽 인들에게만 미쳤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

78:46 하나님은 메뚜기를 보내어 애굽 땅을 뒤덮으셨다. 세라피스란 신이 이 파괴적인 곤충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어졌으나 세라피스는 무력했다. 곡식은 황폐했고 아무 추수할 것이 남지 않았다. 이 모든 재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황충도 메뚜기도 보지 못했다.

78:47~48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과 서리와 번갯불을 동반했다.

그것은 사람과 가축과 양떼와 포도나무와 뽕나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그것은 차별적인 심판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출 9:26).

78:49 이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타인 장자의 죽음이 따랐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의 임함과, 벌하는 사자들의 사역으로 표현한다. 어떤 대목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애굽 온 땅을 다니며 장자를 멸하셨다고 묘사하고 있으나(출 11:4; 12:12,23,29), 출애굽기 12:23에는 그분이 벌하는 자를 대리자로 사용하셨다고 언급하고 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이 벌하는 사자의 무리였다고 암시해준다.

78:50~53 그분은 그분의 분노를 위해 길을 내사 거침없이 노를 발하게 하셨다. 모든 애굽의 가정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재앙 내지 질병으로 장자가 쓰러졌다. 애굽 남자의 꽃이 그날 밤 죽고 말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보호받았으며 히브리인의 아들은 하나도 죽임당하지 않았다.

모든 재앙이 한결같이 차별적으로 임했기에 자연적인 설명으로는 결코 그 이유를 밝힐 수 없었다. 어떻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행사에 감사하기를 그칠 수 있겠는가?

그분은 그들을 양떼처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길 없는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바다가 그들의 대적을 삼키는 사이 그분은 아무 두려울 것 없이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Gelineau). 그것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놀랍게 나타난 장면이었다!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림
(78:54,55)

78:54~55 그분은 그들을 거룩한 땅의 경계로, 그분의 오른손이 그들에게 얻어준 산지로 인도하셨다. 물론 그곳은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거주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눠주셨다. 어떤 목자도 여호와께서 그분의 양떼를 돌보셨듯이 양떼를 온유하게 돌보지 못했다!

그 땅에서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함(78:56~58)

78:56~58 그들이 그분께 감사했는가? 아니다! 사사시대 동안 그들은 그분을 극도로 시험하고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의 계명을 무시했다. 부전자전(父傳子傳)으로 그들은 완전히 신실치 못하고 믿을만하지 못했다. 궁사(弓師)가 믿고 쓸 수 없는 굵은 화살과 같았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으로 여호와를 격노케 했으며 새겨만든 신상으로 그분을 극도로 시기나게 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거절(78:59~67)

78:59~60 시적인 언어를 통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배은망덕한 말을 듣고 진노의 폭풍을 발하시는 모습을 묘사한다. 사실 그것은 여호와께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었다. 다만 오랜 거역의 목록의 끝자락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분이 이스라엘, 즉 반역과 거역의 주모자인 북쪽 지파들을 크게 벌하셨다. 그분은 성막, 즉 그분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 일찍이 택하셨던 곳을 폐하셨다.

78:61~64 이 때에 하나님은 그 능력된 자, 즉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허락하셨다. 그 금으로 덮은 그분의 영광에 대한 상징물이 적의 손에 넘어갔다(삼상 4:11). 이스라엘 백성 중에 큰 살육이 벌어져 보병 3만 명이 전쟁에서 죽었다(삼상 4:10).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삼키웠고 아무 혼인노래도 없었고 처녀들을 위

한 아무 혼인종도 울리지 않았다. 엘리의 타락한 아들인 제사장 홉니와 비느하스가 칼에 쓰러졌다(삼상 4:11). 그들의 과부들이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슬픔에 압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알았다(삼상 4:19~22).

78:65~66 얼마간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의 곤경에 무관심하신 듯했다. 그러나 그 때 그분이 분노를 발하며 일어나, 포도주로 인해 일어난 자처럼 외치셨다. 블레셋 군에게 어떤 소동이 일어났는지! 그분이 그들을 치자 그들은 맥없이 달아났다(삼상 7:10,11; 13:3,4; 14:23).

78:67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분은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자 하셨다. 요셉과 에브라임은 북쪽 열 지파를 가리키는 말로 종종 사용된다.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한 뒤에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영토에 관한 한 두 배의 기업을 상속받았다.

하나님이 유다와 시온산과 다윗을 택하다(78:68~72)

78:68~69 그러나 에브라임이 반역을 주동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통치권에 관한 한 그를 제치고 유다에게 그 영예를 허락하셨다. 그분이 그분의 성소를 지을 곳으로 택하신 시온산은 유다 영토 안에 있었다. 그곳은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요동치 않는 곳이었다.

78:70~71 그리고 그분은 유다 중에서 그분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 그 목자-왕은 양 우리에서 젓양을 돌보고, 자연에서 영적인 진리를 배우며 훈련기간을 보냈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여 그분의 백성 야곱과 그분의 기업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셨다.

이에 다윗은 그 일을 했다.

78:72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 시는 이렇게 평화롭고 목양적인 진술로 마감된다. 그러나 이 시를 떠나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특권이 저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혹 어떤 잘못을 범한다면 그것은 저들의 잘못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갈보리의 사랑의 온전한 불꽃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는 늘 불평하며 거스르며 여호와를 제한하며 감사하기를 잊는가? 그러나 우리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무수히 격노케 했다. 우리는 자주 실족함으로 그분을 슬프게 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왔다.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우리의 불순종의 쓰라린 대가를 맛보게 하시는 때가 온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거절한다면 그분의 치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고 충성스레 섬기기를 거절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섬길 다른 이들을 찾으실 것이다. 우리는 축복을 상실할 것이며, 섬길 더 높은 주인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

79편 : 갇힌 자의 탄식

79편은 74편과 짝을 이룬다. 74편은 주로 하나님의 건물인 성전의 파괴를 다루었다. 이 시도 성전의 파괴를 간략히 언급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파멸과 관계가 있다. 시편 기지는 유다 백성의 처지를 통렬하게 호소하고 구원과 소생을 간구한다.

79:1 이방 압제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침입하여 기갑부대처럼 수도를 쓸어버렸다. 거룩한 전이 그들의 더러운 발로 더럽혀졌고, 사랑스런 도성이 돌무더기가 돼버렸다.

79:2~4 끔찍한 대 살륙이 벌어졌다. 대기는 온통 썩은 냄새를 풍겼다. 유다 인의 시체가 장사되지 않은 채 도처에 널려 있었다. 독수리들이 날아와 덮쳤으며, 육식을 즐기는 짐승들이 먹이 사냥에 나섰다.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강처럼 흘렀고, 침략자들은 시체를 매장하는데는 아무 관심 없었다.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재난을 조롱했다.

79:5~7 그것은 분명 여호와와 맹렬한 분노와 투기하는 노의 징조였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그분의 진노가 불붙듯 할 것인가? 이제 이방에게 진노할 때가 아닌가? 그들은 여호와를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거절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그 땅을 황폐케 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더하였다.

79:8~10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서론이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문제의 핵심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죄가 재난의 근본 원인을 깨닫는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일단 그러한 고백이 나오자 그는 전능자의 자비를 불러오기 위해 거부할 수 없는 논증을 편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한다. 백성들이 지금보다 더 그것을 필요로 한 때는 없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예에 호소한다. 여호와께서는 상하고 누우치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제 그분의 이름의 영예가 걸려 있다. 그리고 끝으로, 대적의 조롱소리를 침묵시켜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복을 가하사 그분의 충성스런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심으로 그분의 존재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이다.

79:11~12 시편 기자는 이어서 갇힌 자의 가련한 탄식을 듣고, 죽게 방치된 자를 그 큰 능력에 걸맞은 방법으로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퍼부은 모든 훼방하는 말로 인해 대적이 일곱 배의 대가를 거두게 해달라고 구한다.

79:13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평화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의미할 것이다. 그분의 사랑하는 양떼는 그분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손에 자손이 일어나 그분의 영예를 노래할 것이다.

80편 : 주의 우편에 있는 자

많은 시편에 담긴 슬픔과 탄식이 여기서도 계속된다. 먼저는 양떼의 모습으로, 그 다음은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용서와 회복을 구한다.

80:1~3 이 호소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향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창 49:24). 그분은 요셉을 양떼같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그분은 영광의 구름 속에서, 지성소의 속죄소를 덮은 그룹 사이에 좌정해 계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듯했다. 성소가 훼파되었다. 이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 자비와 은총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아뢰는 기도가 그분께 올려진다. 그들은 고향 자손이 켈을 운반할 때 행렬의 선두에 있던 세 지파였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용력을 내어(아마 “그 근육

을 움직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포로 된 데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호소한다. 그분의 얼굴이 동정 중에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만 하면 그들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될 것이다.

80:4~7 이스라엘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여호와 엘로힘 사바오쓰) 사이엔 엄청난 거리가 있었다. 그분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도 대해서도 분노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눈물을 양식으로 주시고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주변의 이방 열국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으며, 그들은 대적에게 신랄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해결책은 한가지뿐인데,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엘로힘 사바오쓰)이 은혜와 구원으로 그들을 굶어살피시는 것이다.

80:8~11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냘픈 포도나무처럼 애굽에서 끌어내셨다. 그것을 약속의 땅에 심기 위해 그분은 가나안 열족을 쫓아내셨다. 포도원 주인이 땅을 정리하고 경작하듯이,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심기 위해 애쓰셨다. 이식(移植)은 성공적이었다. 포도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수가 늘어 땅에 가득했다. 포도나무는 번성하고, 하늘보다 높고 백향목보다 강하게 되었다. 그 가지는 한쪽은 지중해까지 미치고 다른 한쪽은 유브라테 강까지 미쳤다. 솔로몬 통치 때에 이스라엘은 동쪽으로 유브라테 강까지 영토를 확장했으나(왕상 4:21,24), 그러나 잠시뿐이었다.

80:12~13 그러나 그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담을 낮추사 약탈자들이 들어와 포도나무를 뽑아가게 하셨다. 멧돼지(우리말 성경에는 ‘수풀의 돼지’로 되어 있음-역주)와 그밖에 짐승들이 들어와 포도원을 황폐케 했다. 먼저는 애굽과 앗수르와 바벨론이, 그 다음 열

마 후에는 바사와 헬라와 로마가 침입했다. ‘멧돼지’란 표현을 사용함으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여러 세기 후에 이스라엘은 ‘멧돼지’가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을 담은 군기(軍旗)를 든 로마군의 침략을 당했다.

80:14~15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만군의 하나님께 그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탄원한다. 그들은 그분이 하늘 도성에서 하감하사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라고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를 붙잡히 여기서 기를 원한다. 탈굦은 흥미롭게도 이 포도나무를 “주께서 주를 위해 세우신 왕-메시아”라고 읊고 있다. 15절에서는 ‘줄기와 가지’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한결 문맥에 맞게 보인다. 그러나 두 구절 뒤에는 메시아가 분명히 소개된다.

80:16 포도나무는 침략군에 의해 베어지고 불태워졌다. 그것들은 여호와와 정죄와 책망으로 망해야 마땅하다.

80:17~18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시 110:1; 히 1:3; 8:1; 10:12). ‘인자’는 그분이 복음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가장 자주 말씀하신 칭호이다. 충만하고 완전한 축복은 그분이 자신의 합당한 위치를 부여받으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그 때에 이스라엘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에 의해 소생함을 입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80:19 잘 알려진 후렴구로 이 시는 마감된다. 그 방황하는 양떼를 회복시켜 달라는 호소가 목자에게 올려진다. 만군의 하나님 여

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시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81편 : 나팔절

영거는 이 유대인의 절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팔절은 모든 일을 쉬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휴일로, 그리고 성회로 모여 나팔을 부는 기념일로 준수되었다. 후대에는 전제(奠祭)가 부어지는 동안 제사장과 레위인이 시편 81편을 노래했으며, 저녁 제사에는 시편 29편을 노래했다. 그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루살렘에 나팔소리가 울려 퍼졌다.…랍비들은, 그 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며, 목자 앞에 지나가는 양떼같이 사람들이 그분 앞에 지나간다고 믿었다.”⁵²⁾

나팔절은 교회가 끌어올려진 후에 이스라엘이 고토로 재집결하는 것을 가리키는 모형이다.

81:1~5(상) 서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야곱의 하나님, 즉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라는 부름을 받는다. 레위인은 악기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 일곱 번째 월삭이 온 것을 알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 날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휴일이다(레 23:23~25; 민 29:1). 그분은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여기서 요셉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중에 그 절기를 세우셨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애굽과 대면한 후에,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그 땅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이 그 절기를 정하셨다는 뜻인 듯하다.

52) (81장 서론) Merrill F. Unger, *Unger's Bible Dictionary*, p. 350.

81:5(하) 5절 후반에 “내가 알지 못하던 언어(language,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으로 되어 있음-역주)를 들었나니”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우리는 화자(話者)가 시편 기자인지,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만일 시편 기자나 이스라엘이 화자(話者)라면 그 언어는 다음을 가리킬 수 있다.

(1) 애굽인의 이방 언어(시 114:1).

(2) 애굽에서 그들을 구속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즉 그들의 영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3) 이 시의 나머지 부분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

만일 하나님이 화자(話者)라면 그 의미는 이러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인정하다’는 의미에서) 언어(애굽인의 언어)를 들었나니.” 윌리엄스의 표현대로 “그분은 애굽인을 그분의 양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이 시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라는 인칭대명사는 항상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로 보아 후자(後者)가 옳은 듯하다.

81:6~7 하나님은 백성들의 어깨에서, 애굽인에게 종살이하던 짐을 벗겨주셨다. 그들의 손은 진흙과 벽돌이 가득한 광주리를 날라야 하는 짐에서 벗어났다. 그들이 부르짖자 그분은 그들을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셨다. 그분은 뇌성의 은은한 곳(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던 구름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던 일을 가리킨다)에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그분은 트리바 물가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그곳은 모세가 반석을 치던 중 하나님의 노를 자극한 곳이었다.

81:8~10 그분은 일찍이 그들에게, 축복의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 충성하는데 있다고 일깨워주셨다. 그분은 우상숭

배를 아주 분명하게 금하셨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상기시키신 후에 그들은, 만일 그들이 입을 크게 열면 그것을 채우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 이 약속은 종종 게으른 설교자들에 의해, 준비가 부족한 것을 정당화하는데 잘못 인용되고 있다. 그저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본문의 의미가 아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이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그분이 허락하시지 못할 좋은 것이란 없다. 게벨라인은 이렇게 적절히 설명한다.

“누가 본문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전능한 주시다. 주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다. ‘네 입을 가능한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 하리라’고 그분은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신다. 다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 대한 순종, 즉 마음과 뜻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⁵³⁾

81:11~16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음성에 귀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은 그분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시고, 그들 자신의 지혜를 좇는 불행한 상태에 내버려두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들의 계속되는 우매함과 완고함을 슬퍼하신다. 그들이 그분을 청종하기만 하면 곧 그분이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들의 대적은 그분 앞에 떨어져 나아올 것이며, 이스라엘은 아무 방해 없이 번성할 것이다(AV). 그분은 가장 좋은 곡식, 즉 가장 좋은 영육간의 양식과, 팔레스타인의 반석 사이에 있는 벌집에서 나오는 달콤한 꿀로 그분의 백성을 먹이실 것이다.

53) (81:8~10) Gaebelin, *'Psalms'*, p. 316.

82편 : 땅의 열왕이 재판을 받다

82:1 법정에서 개정이 선포된다. 재판장이 제자리에 앉았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이 지상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을 꾸짖기 위해 특별 재판을 소집하셨다. 그들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분의 종들로 그분에 의해 임명된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까닭에 ‘신’(gods)으로 불리운다. 물론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그 위치로 인해 그들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따라서 여기에 ‘신’이란 이름으로 위엄이 더해졌다. 그 이름의 기본 의미는 ‘강한 자’이다.

82:2 먼저 하나님은 직무상의 불법으로 인해 그들을 꾸짖으신다. 그들은 뇌물수수와 부당이득의 죄를 범했다. 그들의 관리 아래 부자는 혜택을 받고 가난한 자는 압제를 당했다. 범죄자들이 처벌을 면하고 무고한 자들이 아무 호소할 데 없이 손실을 입어야 했다. 정의의 저울이 압제의 저울이 되었다.

82:3~4 이어서 온 땅의 재판장께서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의 그들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그들에게 상기시키신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그들은 빼앗기고 짓밟힌 모든 자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82:5 그러나 여호와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 개선의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분은 그들이 지식과 지혜로 행하지 못한다고 탄식하신다. 그들 자신도 어두움 가운데 더듬고 헤매는 까닭에 다른 이들의 길을 안내할 가망이 없다. 그들이 의롭고 슬기롭게 행하지 못한 결과로 사회의 기초가 불안하다. 법과 질서가 거의 사라졌다.

82:6~7 그들은 비록 특권에 있어 하늘에까지 높임 받았으나 징벌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이요 지극히 높은 자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 그들로 심판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상황에 처할 것이며 방백 중 하나 같이 엎드려질 것이다. 사실 그들의 형벌 받는 정도는 큰 특권으로 인해 더욱 클 것이다. 우리 주님은 대적과 대면하는 중에 이 6절 말씀을 인용하셨다(요 10:32~36). 그들은 방금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고 고소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요 10:34~36).

서구인의 논리에는 이 논증이 분명하거나 설득력있게 보이지 않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그분의 칭중에게는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작은 자에서 큰 자로 논증을 전개하고 계신 것을 이해했다. 그 논증의 원리는 이러하다.

시편 82편에서는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하나님에 의해 신이라 일컬어졌다. 사실 그들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 때문에 그들은 신이란 칭호로 불리는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즉 그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공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높은 지위에 임명되었다는 것이다(롬 13:1).

만일 신이란 이름이 그렇듯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완곡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주 예수님께는 얼마나 더 완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란 이름이 적용될 수 있겠는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거룩함을 입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것은 그분은 영원부터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버지께

서 그분을 지상사역을 위해 구별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고 계신 것을 완전히 이해했다. 이에 그들은 그분을 잡고자 했으나 그분은 그들을 벗어나 가셨다(요 10:39).

82:8 그러나 이제 이 시의 마지막 구절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아삽은 여호와께 인간사에 개입하사 부패와 불공평 대신 의와 공의를 임하게 해달라고 호소한다. 이 기도는 주 예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응답될 것이다. 그 때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한대로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을 것이다”(사 32:16). 세상은 사회적인 정의와 뇌물과 속임이 없는 도덕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83편 : 6일 전쟁의 시

1967년 5월 28일, 아랍공화국 대통령 가말 압들 나세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총공격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은 전면전이 될 것이다. 우리의 기본 목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6월 5일 전쟁이 발발할 당시 아랍공화국에는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알제리아, 수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및 모로코가 가담했다. 이들 연합군의 이스라엘을 바다로 내몰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6일만에 전쟁은 끝났다. 이스라엘이 논란의 여지없이 승리했다.

이 6일 전쟁 후에 여러 성경학자들에게 시편 83편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시는, 주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 강림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땅에 대한 권리 주장이 돌

이킬 수 없이 확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다.

83:1~5 이 기도는 포위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침묵을 깨고 일어나 결연히 행할 것을 호소하는 기도임이 분명하다.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 호소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인양 아뢰고 있다. “주의 원수가…주를 한하는 자가…주의 백성을…주의 숨긴 자를…주를 대적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곧 그분의 대적임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게 하고자 했다.

세부 내용들은 실제상황에 잘 부합한다.

대적이 완화했다 적군의 살기등등한 위협을 생생히 묘사해준다.

그들은 간계를 꾀했다 러시아 고문단이 배후조종을 했다.

그들은 함께 의논했다 오늘날 아랍정상회담으로 알려진 회의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절을 위협했다 위의 인용문이 증거하는 바다.

그들은 가공할 연합세력을 결성했다 대부분이 이스라엘 인근 국가들이다.

83:8~8 이들 국가들을 현대국가와 일치시키려 할 때 우리는 난관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앓수르가 오늘날의 이라크이며, 아브라함과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엘 인이 아랍의 조상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에돔과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며, 모압과 암몬이 룯의 후손임을 알고 있으나, 그들을 오늘날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블레셋 인은 오늘날 가자 지구(地區)로 잘 알려진 지역에 거주했다. 두로 성은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위치했다. 그발은 페니키아(뵤니게)에 위치한 구블라 내지 비블로스과 동일하다. 어떤 자료는 하갈인을 하갈의 후손으로 분류하여 이스마엘의 계보에 속한 자들로 보지만, 그러한 분류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이 이름들은 여러 면에서 그 배경이 모호한 까닭에 그것들을 오늘날의 중동 국가들과 연결 지으려 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국가들

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어떻게 작은 이스라엘이 가공할 연합세력과 맞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보호받는 자’(3절, 우리말 성경에는 ‘주의 숨긴 자’로 되어 있음; ‘소중한 자’[LB], ‘사랑하는 자’[Gelineau])라는 사실에서 그 부분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 위기의 순간에 그분은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강함을 온전케 하신다. 적군이 모두 그들을 대적할 때 그분은 모든 인간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승리를 보내신다.

83:9~10 이제 포위당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과거에 세 경우에 대적을 물리치셨듯이 현재의 위협을 제거해달라고 호소한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장관 시스라는 기손 강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한 후 엔돌에서 모욕적인 죽임을 당했다(삿 4장). 그들의 시체는 이스라엘 땅의 퇴비가 되었다.

83:11~12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엩은 죽임과 목 베임을 당했다(삿 7:23~25). 이사야에 의하면(10:26) 그것은 길이 기억될 살육이었다.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는 ‘하나님의 목장’을 차지하겠다고 위협한바 있었다. 그들은 오렙과 스엩이 죽임당할 때 이스라엘군의 손을 용케 피했으나 곧 붙잡혀 기드온에서 처형당했다(삿 8장).

83:13~18 그분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호소하면서 이스라엘은 가능한 모든 상상을 동원했다. 징벌의 세부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그들로 굴러가는 검불 같게, 혹은 어떤 이의 표현대로, 흔들리는 갈대 같게 하소서. 그들로 바람에 날리는 초개같게 하소서. 그들로 삼림이 불에 살라지듯 쫓겨나고, 화염에 타

듯 소멸되게 하소서. 그들로 주의 폭풍으로 두려워 떨게 하소서. 그들로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하사 주를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 중에 망하게 하사 사람들로 여호와만이 온 땅의 주재이심을 알게 하소서.

강한 표현이라고? 그렇다. 강하면서 근거가 확실한 표현이다. 하나님의 영예가 위기에 처할 때 사랑은 견고해질 수 있다. 물건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 옛 백성의 노래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는 열정에 크게 사로잡혔다.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의 경우처럼, 이기적인 동기라는 것이 일절 없었다. 이기심은 아무 노래도 못 부르며, 아무 환상도 보지 못한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은 깊은 부드러움과 깊은 강직함을 겸비할 수 있다.”⁵⁴⁾

84편 : 하늘 본향을 향한 그리움!

84편의 우선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그것은 추방당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깊은 열망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이 시는 지역교회의 사권의 자리에 침석하는데 방해받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슴을 태우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적용은 하늘 본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에 병이 든 경건한 순례자에 이 시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84:1~2 어떤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비교되겠는가! 그곳

54) (83:13~18) Morgan, ‘Exposition’, p. 252.

은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독특한 장려함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의 장소이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 분명히 해두자. 그 ‘장소’가 환유(換喻)법으로 알려진 수사법을 통해, 그곳에 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라고 시편 기자가 말할 때 그는 사실 여호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이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고백한다.

84:3 순례자는 자기 자신을 참새와 제비에 비유한다. 다른 시에서 참새는 외로움을 말해주는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102:7). 그리고 참새를 관찰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바람결에 이리저리 쓸리는 힘없는 미물(微物)이라는 것을 잘 안다. 참새와 제비는 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적절히 묘사해준다. 그들은 외롭고 나약하다. 그들이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안식과 안전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여호와와의 단뿐이다.

성막과 성전에는 두 개의 단이 있었다. 하나는 놋단이고 하나는 금단이었다. 놋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금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했다. 그들은 우리 구주의 완성된 사역을 말해준다. 그곳이 우리 영혼이 참새처럼 안식할 수 있는 곳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안식을 찾도록 인도할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84:4 이어서 거룩한 시기심이라고 부를 만한 마음을 토로하며 이 추방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한다.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본향에 간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을 슬퍼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상실이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얻음이

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다.

84:5 5~7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의 축복에서 그곳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자들의 보다 적은 축복으로 눈길을 돌린다. 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먼저, 그들의 힘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 그들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하다(엡 6:10).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가 있다. 세상은 그들의 본향이 아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순례여정에 고정되어 있다.

84:6~7 세 번째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을 샘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그 굴복을 모르는 영혼들은 슬픔의 와중에도 노래하며 눈물 속에서도 무지개를 그려낼 수 있다. 그들은 비극을 승리로 바꾸며 불행을 더 큰 행복의 디딤돌로 사용한다. 그들이 환경을 이겨내는 비결은 “비도 그것을 못으로 입히나이다”(우리말성경에는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로 되어 있음-역주)라는 다음 문구에서 발견된다. ‘비’는 일반적으로 성령의 상징물로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서는 광야 여행자들을 위해 맑고 시원한 물을 공급하는 성령의 소성케 하는 사역을 암시한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 씬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엡 5:26의 경우처럼). 이것이 어떻게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점점 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강건해진다. 겉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고후 4:16). 이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라는 확신에 찬 놀라운 고백이 나온다. 의문의 여지가 없이, 광야여정은 마침내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뵈옵는 기쁨으로 절정에 이를 것이다.

84:8 이제 시편 기자는 감동적인 기도를 터뜨린다. 먼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일컬으며, 그 다음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일컫는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분은 수많은 천사의 무리를 다 스리신다.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무가치한 자의 하나님, 사기꾼의 하나님이다. 생각해 보라! 무수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또한 지렁이 같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한히 높으신 분이 또한 아주 가까이 계신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과 내가 항상 그분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84:9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그곳에 들어가는가?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며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의 위(位)와 사역을 통해서이다. “하나님은 내 구주를 보신 다음 나를 보시네. 나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열납되고 자유케 되었네.”

84:10 하늘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분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아무 비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머무는 영광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자유는 가히 상상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우리는 마음이 들떠 이곳에 머무르거나 주어진 일에 충실하기가 힘들 것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당신의 하나님 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스펀전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최악이 사단의 최선보다 낫다.” 더 나을 뿐 아니라 더 영구적이다. ‘우리 하나님의 전’과 ‘악인의 장막’의 차이를 보라. 전자는 영구적인 거처이나, 후자는 잠시 치웠다 거두는 것이다.

84:11 여호와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을 제공하는 해요, 광야

여정 중에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는 방패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여정 중에 필요한 순간마다 은혜를 주실 것이며, 여정이 끝나 그분의 구속받은 자녀들을 그분의 영원한 본향으로 맞아들이실 때 그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사실 순례자는 이 땅과 천국에서 아무 부족이 없을 것인데, 이는 그분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면 그분은 그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이다. 만일 그분이 어떤 것을 주기를 꺼리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롬 8:32).

84:12 시편 기자가 감격한 마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외침에 우리 마음도 이렇게 반응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85편 :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소서!

이 부흥(소성)을 위한 기도는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알기 쉽게 나뉜다.

이스라엘이 소성함을 입은 과거의 예(1~3절).

다시 소성케 해달라는 호소(4~7절).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림(8,9절).

장래 회복에 대한 약속(10~13절).

여기에 묘사된 회복이 정확히 어떤 사례인지를 밝히기는 불가능하다. 이 시가 고라 자손의 작품인 점으로 보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일을 가리킬 리는 없는데, 왜냐하면 고라 자손은 그 오래 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전에 그렇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다는 것이다.

85:1~3 부흥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의 소유를 회복시키신 때로 묘사되어 있다. 세 가지 조치가 부흥을 가져오게 했다. 첫째는 죄의 자복이었다. 여기에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죄의 자복은 다른 것들이 행해지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도덕적인 필수조건이다. 둘째는 그분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한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진 것이다.

85:4 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용서의 자비가 다시 그것을 빼놓아달라는 호소의 근거가 된다. 믿음은 지난 역사로 만족하지 않고 현재의 사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직접 자복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돌이키시고”라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도 자복에 포함되었음을 암시한다. 회복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백성을 회개시킨 다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런 다음 그분의 진노로 말미암은 징벌을 그치신다.

85:5 여호와를 떠나 있는 시간은 영원한 불행처럼 보인다. 더군다나 5절의 간곡한 호소는 오랜 핍박과 분산을 겪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85:6 영적인 하강은 반드시 기쁨의 상실을 가져온다. 사권이 깨어졌다는 것은 신자의 노래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기쁨은 자백되지 않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를 다시 살

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라는 기도가 하늘로 올려지고 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다시금 기쁨의 종 소리가 울리게 한다. 모든 위대한 부흥에는 노래가 뒤따랐다.

85:7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그분의 자비가 은혜로이 나타난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다른 섭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징계하는 것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우리를 바로잡고 마침내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도 모두 그분의 사랑이다. 방황과 침체와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참으시는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한결같은지! 여호와와의 사랑 같은 사랑은 없다.

그리고 부흥은 여호와와의 구원(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신실치 못함의 모든 결과, 즉 분산과 포로됨과 고난과 무력함과 불행으로부터의 구원이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85:8~9 회복을 구하는 호소를 은혜의 보좌 앞에 올린 후에 시편 기자는 평안한 응답이 오되 속히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린다. 그의 확신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마음을 그분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항상 화평을 말씀하시며, 명령된 데로 돌아가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여기에 언급된 ‘영광’은 영광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과 사귀을 가질 때 그들 중에 거하신다는 것이다.

85:10 부흥을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마지막 구절들에 주어져 있다. 본문은 주 예수께서 장차 올 영광의 시대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전개될 목가적(牧歌的)인 상황을 묘사해준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본문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때는 항상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을 말해준다.

“공홀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간의 삶에서는 진리를 견고히 고수하다보면 으레 사랑과 공홀이 제한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모든 요구사항이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에 의해 충족된 까닭에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변함 없는 사랑을 쏟아 부으실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요구가 구주의 대속 사역을 통해 이뤄진 까닭에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놓였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빛이 갠아졌네.
 엄격한 공의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고
 공홀이 넘치도록 베풀어지네.” (알버트 미들레인).

85:11~13 진리 혹은 진실함은 땅에서 솟아날 것이며, 의는 하늘에서 하강할 것이다. 신자가 그분의 영원한 연인에게 충성할 때 하늘은 여러 배의 축복으로 의롭게 반응한다. 그분의 말씀에 늘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분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시 84:11). 가뭄과 기근이 그치고 그 땅은 풍성한 곡식을 생산한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을 방문하실 때, 그분은 그 의로운 삶으로 그분의 오심을 도덕적으로 대비한 백성 중에 행하신다.

86편 : 이유가 첨가된 기도

이 시에서 주목할 한가지는 다윗이 간구이든 찬양이든 거의 모든 고백에 이유를 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86:1 간구: “여호와여 들으소서.” *이유*: 곤고하고 궁핍하므로

86:2(상) 간구: 보존하소서(4,16절에 ‘중’으로 나온다). *이유*: 경건한 자이므로

86:2(하) 간구: 구원하소서. *이유*: 뚜렷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내 주 하나님이여’란 문구에 암시되어 있는 듯하다.

86:3 간구: 긍휼히 여기소서. *이유*: 온 종일 부르짖으므로

86:4 간구: 기쁘게 하소서. *이유*: 주만 바라봄으로

86:5 *이유*: 이 구절은 앞선 간구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를 제시한 것이거나 6절의 기도와 짝을 이룬 것일 수 있다.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즐겨 사유하심과 긍휼이 베풀어진다.

86:6 간구: 여호와여 들으소서.

86:7 간구: 환란 날에 도우소서. *이유*: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므로

시편 기자는 이어서 찬양으로 전환한다.

86:8 찬양: 여호와의 어떠한 하신 일의 놀라움에 대해.

86:9 찬양: 그분이 모든 열방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한 당하심으로 인해(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것이다).

86:10 *이유*: 하나님은 위대하고, 그 행사는 놀랍다. 다른 신은 없다.

86:11 간구: 주의 도로 가르치소서. 이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 마음을 온전히 바쳤으므로.

86:12~13 찬양: 여기서 다윗은 그의 전존재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리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유: 그를 음부 깊은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크신 공화로 인해. 만일 우리가 이 시를 메시아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그분의 부활을 가리킨 표현일 것이다.

86:14~16 나머지 구절들은 시편 기자의 임박한 위협을 묘사한다. 교만하고 강포한 무리가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알았으며, 이 중요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은 공홀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는 지식 안에서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에 그는 담대히 여호와께, 그에게 돌이키사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즉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한다. 어떤 이들은 “주의 여종의 아들”이란 표현을, 여종의 아들의 경우와 같은 ‘주의 소유’를 뜻하는 비유로 이해한다. 이 시를 메시아시로 이해하는 이들은 ‘주의 여종의 아들’을 아마도 동정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간주한다.

86:17 끝으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은총에 대한 분명한 표증을 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위로하신 것을 보고 자기들의 처지가 불리한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처음에 우리는, 이 시가 그 대부분의 기도와 찬양에 이유가 첨가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바 있다. 그 외에 두 가지 특징을 더 언급할 수 있는데, 첫째로, 다윗은 다른 성경구절을 풍성히 인용하

고 있다. 사실 그는 거의 대부분을 다른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기도나 찬양을 하고 있다. 둘째로, ‘아도나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일곱 번 사용되고 있다(3,4,5,8,9,12,15절에 ‘주’로 옮겨져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은 종종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이 이름을 사용했다. 고대의 성경보관자들은 ‘여호와’라는 감히 일컫기 어려운 이름에 대한 극도의 경외심 까닭에 성경을 크게 낭송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134번 아도나이로 바꿔 불렀다.⁵⁵⁾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해달라는 부분(11절)에 대해서 F. W. 그랜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것이 실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크게 결여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적극적인 죄악에 소모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증거의 효력을 실추시키는 사소하고 잡다한 일에 얼마나 낭비되고 소모되는지!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한(가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몇이나 될는지! 우리는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중간에 멈추어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를 쫓다가 아무 이렇다 할 진보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 나라들과 그 영광’으로부터는 등을 돌리지만, 아이들이 쫓다가 지치고 마는, 또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피식 웃어버리는 엉경귀 털보다도 가벼운 사소한 일들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을 보고 사단은 얼마나 의아해하겠는가!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자. …얼마나 우리는 유일한 유익한 것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불필요한 걱정과 스스로 상상해낸 의무들과, 느슨하게 허용된 편안한 생활과, ‘아무 잘못 없는’ 사소한 일들에 휩싸여있는지! 그들의 삶의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채워가면서 매일 매일 그러한 시험에 직면하기를 주의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는지!”⁵⁶⁾

55) (86:17) E. W. bullinger, ‘The Companion Bible’, Appendix 32, p. 31.

56) (86:17) Grant, “Psalms,” 3:330.

87편 : 왕의 인구조사에 대한 시

예루살렘 시장 테디 콜렉과 그의 동료 저자는 그들의 4천 년 된 도성(古城)의 중요함에 대해 이렇게 경이감을 표현했다.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예루살렘이 왜 그곳에 세워졌으며, 또 왜 그렇게 중요한 곳이 되었는지 오랫동안 궁금하게 여겨왔다. 그곳은 세계의 다른 중요한 도시들의 발전과 번영을 가능케 한 외관상의 특징이 전혀 없다. 그곳은 아무 큰 강이 흐르지 않는다. 그곳은 큰 항구가 바다로 보이지 않는다. 그곳은 대로와 교차로가 지나지 않는다. 그곳은 한 샘이 어느 정도 물을 공급해주긴 하지만, 종종 도시가 정착되는 주된 이유인 풍부한 수자원(水資源)이 가까이 있지도 않다. 그곳은 풍부한 광물도 없다. 그곳은 주요 무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곳은 고대 제국들이 광활한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도 아니었다. 그곳은 실로 특별한 경제적 장점이나 지형적 장점이 없었다. 만일 그러한 장점이 있었다면 오래 전에 사라진 당시의 대부분 마을들의 운명과는 다른 운명을 지닌 작고 이름 없는 산지 마을(예루살렘의 작은 규모를 가리킴-역주) 보다는 더 규모가 컸을 것이다.”⁵⁷⁾

87:1~3 그곳이 중요해진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거룩한 산에 예루살렘을 세우셨으며, 그 땅의 다른 어떤 성읍이나 마을보다 예루살렘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장 큰 영광은 여전히 미래(그곳이 메시아 왕국의 수도, 즉 오래 고대하던 왕의 도성이 될 때)에 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성 시온을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할 그 날을 대망한다.

여기에는 그곳이 많은 열국의 영적인 출생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

57) (87장 서론) Teddy Kollek and Moshe Pearlman, *Jerusalem, A History of Forty Centuries*, p. 12.

가 내포되어 있다.

“말일에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사 2:2, 3).

87:4 그것이 4절에서 염두에 둔 듯한 내용이다. 시온이, 그를 어미로 이는 나라들 중 남쪽의 라합(즉, 애굽)과 북쪽의 바벨론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의인화되어 있다. 또한 사람들이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에디오피아)를 예루살렘에서 났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시온을 세계의 영적 정치적 경제적 수도로 인정하는 나라들에 포함될 것이며, 그곳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 큰 임금께 예물을 바칠 것이다(사 60:5~7).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기를 거절하는 나라들은 가뭄과 재앙을 당할 것이다(스 14:16~19).

87:5 그러므로 시온은 열방이 영적인 재출생을 경험하는 곳으로 인정될 것인데, 이는 지존자께서 친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곳에 시온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87:6 그리고 여호와께서 민족들의 수를 세실 때 그분은 어떤 나라들이 시온의 시민이 되는 참된 목적을 깨닫고 있음을 주목하실 것이다. 그들이 수도를 방문한 목적은; “그 구조에 감탄하거나 그 전쟁을 구경하거나 그 성에 예배드리러 올라온 지파들을 시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도시의 특전을 주장하고 그 보호를 경험하고 그 법을 순종하고 그 행복한 사회에서 삶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영광스런 건축자이자 인도자 되신 분과 더불어 사권을 갖기 위함이다.”⁵⁸⁾

게벨라인은 이렇게 설명한다.

“열방이 하나씩 그 나라로 인도되어 시온의 영광과 축복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 그 때에 시온은 전 세계의 영광스런 수도가 된다.”⁵⁹⁾

87:7 그 때는 축제와 절기의 때가 될 것이다. 노래하는 자들과 춤추는 자들이 함께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고 환호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눈물과 환란의 곳이 아니라, 축복과 소성함의 근원이요, 땅의 모든 열국의 영적인 고향이 될 것이다.

이 시를 마치기 전에 한가지 개인적으로 적용할 점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등록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은 하늘 시민의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다. 유일한 중요한 자격요건은 새로운 출생이다.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것이다(요 3:3~5).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등록하실 때 그분은 “이 사람이 이리이러한 곳에서 거듭났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이 당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당신이 하늘 시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요한복음 1:12에 진술되어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88편 : 가장 슬픈 시

88편에서 우리는 인간의 슬픔과 고난의 밑바닥에 이르게 된다.

58) (87:6) 자료를 구할 수 없다.

59) (87:6) Gaebelien, 'Psalms', p. 332.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곤경을 묘사할 암울한 표현을 찾아 헤매는 듯하다. 그는 분명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불치환자를 위한 격리병동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남은 것이라곤 시체안치소뿐, 이제 그의 얼굴에 천이 덮여지고 그의 시신이 옮겨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88:1~2 이 시에서 유일하게 밝은 지점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서두에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뿐이다. 게벨라인은 그것을 가리켜, 먹구름 사이를 헤치고 비추는 한줄기 빛과 칠흙 같은 어두움을 뚫고 빛을 발하는 별빛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즉시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슬퍼하는 묘사에 빠져든다. 밤낮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으나 아무 응답이 없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뭔가 조치를 취하실는지?

88:3~7 그의 생명은 무수한 환란으로 끊어오르며, 그는 죽음과 무덤을 향해 무기력하게 나아간다. 그는 죽은 것으로 포기되었으며 이미 죽은 자로 간주되었다. 모든 기력이 빠져나갔다. 이제 그는 시체가 널린 전쟁터의 한 의식불명의 군사처럼, 혹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무덤에 다른 사람과 함께 매장된 전사자처럼, 죽은 자 가운데 던져졌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잊혀졌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희망이 끊어졌다고 느꼈다. 지하감옥에 갇힌 포로처럼 그는 하나님에 의해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곳에 던져졌다. 그는 한가지 설명밖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느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분노하셨으며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청난 파도에 삼킨바 되었다는 것이다.

88:8~9 그를 아는 자들도 그를 마치 문둥병자처럼 버렸다. 그들은 그를 가증한 것처럼, 혹은 ‘저주받은 것처럼’(Knox) 대했다. 그

는 피할 곳 없는 공간에 갇혔다. 이전엔 밝고 총총했던 그의 눈은 모든 빛을 잃었다. 그리고 기도는 아무 소용없는 듯했다. 날마다 손을 들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88:10 이어서 그는 일련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죽음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지 말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전했다. 이 질문은 구약 성도들이 죽음과 내세에 대해 지식이 불완전했음을 드러내 주는 한편, 우리로 하여금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더 좋은 것이라는 확신에 대해 무한히 감사하게 한다(빌 1:23). 이어서 이러한 질문이 던져진다.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시겠는가? 그에 대한 암시된 답은 ‘아니다’이다. 율법 아래 사는 유대인에게 죽음은 아무 생산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알 수 없는 망각의 영역이었다.

‘유혼(幽魂)’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는가? 죽은 자들은 여호와의 찬양할 아무 방법이 없는 유령같은 존재로 간주되었다.

88:11~12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무덤에서, 그분의 신실함을 멸망의 장소에서 선포할 수 있을까?

“음부의 어둡고 침침한 공간에서는 어떤 행동이나 말도 할 수 없다고 믿었으므로, 그들은, 찬양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가급적 오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⁶⁰⁾

88:13~18 시편 기자는 새롭게 힘을 얻은 것처럼 여호와와 변론을 벌인다. 살아있는 한 그는 아침마다 간절한 기도를 올릴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철저히 버리시고 아무 동정이나 호의의 빛도 보이지 않으시는데 대해 당혹감을 토로했다. 어릴 적부터 그

60) (88:11, 12) ‘*The New Bible Commentary*’, p. 474.

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두렵게 하심의 절정에 달하여 그는 황망하고 절망적이었다.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밀물처럼 그를 삼켰으며, 그분의 두려우심을 인해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맹렬한 홍수가 그를 에워싸고 줄어들 줄 몰랐다. 파도가 그를 단숨에 삼키려고 밀려들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친구로 하여금 그를 버리게 하신 듯했다. 그의 친구는 어둠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장 슬픈 시는 마감한다. 왜 이 시가 성경에 포함되었는지 궁금하다면, J. N. 다비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한 때 이 시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유일한 성경말씀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낮은 사람을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클라크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성경에서 이 시처럼 경험의 소중함을 말해주는 말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 시는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준다.”⁶¹⁾

89편 :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맺은 언약

89:1~2 서두에서 에단은 다윗 언약에서 표현된 여호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그 자신의 개인적인 기쁨을 선포한다. 그는 그것이 영원히 견고한 까닭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기로 결심한다.

89:3~4 믿음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다윗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 상기시킨다. 다윗이 그분의 택한 종이기에 그분은, 그가 그 위를 이을 후사가 없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나라가 대

61) (88:13~18) A. G. Clarke의 '*Analytical Studies in the Psalms*', p. 219에서 인용.
376 · 신자 성경주석(구약)-시가서(1)

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끊이지 않는 왕조가 영원한 보좌에 앉을 것이다!

89:5 이어서 믿음은 그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와 기사(奇事)를 재진술한다. 마치 예단이 여호와께, 그 이름의 영예가 달려있다고 상기시키고 있는 듯하다.

89:6~8 그분은 하늘의 모든 천군보다 위대하시다. 천상의 존재들이 그분의 기사와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도록 요청받는다. 어떤 천사도 그분과 비교될 수 없다. 그분은 모든 천상의 존재 위에 뛰어나시다. 그들 중 큰 자들도 그분을 두려워하여 서 있다. 그들은 그분이 모든 면에서 위대하심을 인정한다. 신실하심의 옷으로 두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처럼 능한 자는 아무도 없다.

89:9~10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와 도덕적인 완전함에 있어 위대하시다(9~15절). 창조에 있어 그분의 위대하심을 잘 보여주는 한 극적인 예는, 그분이 노한 바다를 다스리고 그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이다. 그분은 오래 전에 푸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일을 행하셨으며, 그분의 백성의 풍랑 이는 삶을 끊임없이 잠잠케 하신다. 섭리에 있어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는, 출애굽 때에 그분이 애굽(라합)을 굴복시키신 것보다 더 좋은 예가 있을까? 그분은 사자가 그 희생물을 덮치듯이 그 오만한 나라를 격퇴하셨다. 그분은 바람 앞에 낙엽처럼 대적들을 흩으셨다.

89:11~13 하늘과 땅은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의 것이다. 세계와 그 만물은 그분이 건설하셨기에 그분께 속했다. 남과 북은 그분께 기원을 둔다. 다불산과 험몬산은 그분을 그들의 창조주로 즐거이

인정하듯 그 머리를 높이 든다. 그분의 팔은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분의 손은 강하다. 그분의 오른손은 모든 것 위에 높으며,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다.

89:14 도덕적인 완전함에 대해서는, 그분의 보좌가 의와 공의의 두 원리 위에 세워진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앞서 간다.

89:15~18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술한 뒤에 에단은 이제 그분의 백성의 축복을 묘사한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즐거운 소리’는 종교력의 절기 동안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거닐며 외치는 축제의 환호였다. 우리에게, 그것은 항상 복음의 ‘기쁜 소리’일 것이다. 그 행복한 사람들에게 관해 여러 가지 사실이 묘사되어 있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 빛 가운데 다닌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분의 은총 아래 다니며 그분의 임재에 의해 인도된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모든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며 그분의 의를 즐거워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능력만을 자랑한다. 오직 그분의 은총을 통해서만 그들의 뿌이 높여진다. 다시 말해서, 그 은총을 통해서만 그들이 강해진다.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89:19 그리고 그것은 에단을, 여호와께서 다윗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으로 인도한다(19~37절). 여러 해 전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분의 신실한 자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자’(우리말 성경에는 ‘성도’로 되어 있음)는 사무엘이나(삼상 16:1~12) 나단이나(삼하 7:1~17) 아니면 여호와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다. 그분은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을 맺고, 강한 자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이셨다. 다윗에 대한 이러한 묘사에서,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다윗을 넘어 장차 올 메시아-왕을 바라보게 된다.

89:20~24 여호와께서는 그의 형제들 중에서 다윗을 택하셨으며,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으셨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손이 영원히 다윗과 그 뒤를 이을 자 위에 있어 그들을 보존하고 보호할 것이며, 그분의 팔이 모든 필요한 힘을 공급할 것을 보장했다. 왕의 대적들이 왕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악한 자들도 왕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대적을 물리치고,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징벌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왕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윗의 집은 그분에게서 능력을 부여받을 것이다.

89:25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대로(창 15:18), 그 나라의 최종적인 경계는 지중해에서 유브라테 강까지 미칠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 는 애굽 강에서 유브라테 강까지라고 말하고 있으나, 애굽 강은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기에 경계는 마찬가지다.

89:26~27 다윗은 여호와를 그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 그의 피할 바위로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분의 장자, 세상 열왕의 으뜸으로 삼으실 것이다. ‘장자’란 표현은 때로,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은 경우처럼(눅 2:7) 시간상의 첫째를 의미한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엔 이새의 말째 아들인 까답에 그런 의미일 리가 없다. 여기서는 “세상 열왕의 으뜸”이라고 27절에 표현된 대로 지위 내지 영예상의 첫째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울이 주 예수님을 가리켜 “만물의 으뜸”이라고 표현할 때 의미한 바이다(골 1:15). 그것은 어떤 이단들의 가르침대로 예수께서 첫 피조물이란 의미가 아니라 그분

이 만물 위에 뛰어나시다는 의미이다.

89:28~29 그 언약은 다윗의 자손이 범죄할 때 징벌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율법을 조금이라도 범하면 공의롭게 치리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그대로 이뤄졌다.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께 신실치 못했으며,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포로라는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들을 징벌하셨다.

89:30~32 다윗의 자손이 범죄할 때 언약이 그들을 징벌에서 면제 해주지 못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규례를 범하면 공의로 처벌될 것이다.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났다. 다윗의 후손들은 여호와께 신실치 못했으며,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포로라는 지팡이와 채찍으로 그들을 징벌하셨다.

89:3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나라가 얼마간 사라지고 예루살렘에 아무 다스리는 왕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왕의 후손을 기적적으로 보존하고 계셨으며, 그분의 때가 되면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89:34~37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이 폐해질 수 없음과 다윗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되풀이하셨다. 다윗의 계보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의 위는 해와 달이 하늘에 있는 동안 지속될 것이다.

89:38~39 외관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잊으신 듯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포로로 끌려갔다. 그 날부터 이제까지 아무도 다윗의 위에 앉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약 2천 년 전에 주 예수께서 다윗의 왕도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은 요셉의 양아들이셨으며, 그리고 요셉은 유다 열왕의 직계였기에 예수님은 그를 통해 다윗의 위를 이을 법적인 권리를 상속받으셨다(마 1장). 예수님은 마리아의 ‘실제 아들’이셨고, 그리고 마리아는 나단을 통한 다윗의 후손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다윗의 후손에 속하셨다(눅 3:23~38). 요컨대 그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성취되었다. 다윗의 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보존되었으며, 그리고 그분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사시기에 그 위를 이을 다윗의 후손이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아마도 조만간, 그분이 다윗의 위에 대한 그분의 합당한 자리를 취하고 다윗의 맏아들로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물론 에단은 그 사실을 알리 없었다. 그에게는 언약이 폐해진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은 왕의 계보를 거절하셨으며, 친히 기름 부으신 왕에게 분노를 발하셨다는 그의 불평 소리를 들어 보라. 에단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거두셨고 그의 관을 땅에 던져버리셨다는 설명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에단은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취소하실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으나, 외관상으로 볼 때는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버린 것이다.

89:40~45 예루살렘 성벽은 구멍이 뚫리고 성루들은 무너져 내렸다. 그 성을 지나는 여행자들이 마구 전리품을 취했으며,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나라들이 유다의 곤경을 비웃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오른손을 높이 들고 그들의 승리를 기뻐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전쟁에서 무용지물로 입증되었으며 그 군대는 도저히 대적을 감당할 수 없었다. 왕은 폐위되고 그의 보좌는 파괴되었다. 수치와 모욕으로 덮인 채 그는 때이르게 노인이 되어버렸다.

89:46~48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서 몸을 숨기신 듯했다. 그들을 향한 그분의 진노는 불처럼 타올랐다. “언제

까지?”라는 애처로운 호소가 하늘로 올라갔다. 에단은 하나님께, 그분이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짧게 정하셨으며,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기억해달라고 구했다. 자기 때가 되면 모든 인간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마침내 그를 이길 것이다. 우리는 에단보다 더 나은 소망이 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그분의 교회를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때 모두 변화될 것을 알고 있다(고전 15:51; 살전 4:13~18).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비밀이었다.

89:49~51 에단의 간청은 매우 담대하고 절박했다. 그는 하나님이 강력한 표현으로 다윗에게 보장하신 인자하심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적의 조롱과 조소에 매우 민감했다. 어떻게 그들이 에단 자신을 모욕하고 쫓겨나는 왕을 조롱할 수 있는가!

89:52 그러나 마지막 구절에서 믿음이 승리한다. 에단은 그의 의문에 대한 답은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었다. 그것은 “주여, 나는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믿나이다”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는 환희에 찬 고백으로 그의 기도를 마감했다.

제4권 (90~106편)

90편 : 죽음의 종소리

이 시를 설명하기 위해 한번 건전한 상상력을 동원해보겠다. 무대는 시내광야이다. 정탐꾼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돌아와 악한 보

고를 한지 여러 해가 지났다. 백성들은 아무런 진전이 없이 여전히 광야를 배회하고 있다. 아무 소득 없는 고된 방황이었다.

아침마다 전령이 새로운 재난 소식을 가지고 모세의 장막을 찾아 온다. 사망, 사망, 사망, 또 사망. 장례식이 가장 흔한 소식이며, 광야는 넓직한 공동묘지와 다를 바 없다. 백성들이 진을 거둘 때마다 그 뒤에는 또 하나의 장지(葬地)가 남는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완전히 탈진했다. 엄청난 사망자 수에 압도되어 그는 장막에 들어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한다.

90:1~2 그렇게 쉬 변하고 쉬 사라지는 많은 것들 속에서 그는 먼저 여호와의 영원성 안에서 안도감을 찾는다. 다른 모든 것은 쇠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변치 않는 본향이요 피난처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리에 있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이시다.

90:3~4 하나님의 다함 없는 연대와 인생의 짧음은 극히 대조를 이룬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흠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발하시며, 끝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행렬이 무덤으로 터벅터벅 발길을 옮기고 있다. 영원하신 분에게는, 타락한 인간의 최초의 수명인 1천년은 과거의 기억이나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90:5~6 모세에게조차도 인생은 잠을 자는 것처럼 덧없어 보인다. 잠을 자고 꿈을 꾸고 일어난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을 거의 기억할 수 없다. 달리 표현해서, 인생은 풀과 같아서 아침에 신선하고 푸르다가 저녁이면 시들고 말라버린다. 스펀전의 표현대로 인생은 ‘심겨지고, 자라고, 바람에 불려가고, 베어지고, 사라진다.’

90:7~10 모든 죽음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인 한편, 모세는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신 결과임을 알고 있었다.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군사가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죽을 것이다. 죽음의 종소리는, 그분의 백성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격려를 듣고 가나안에 진격하는 대신 불신하는 정탐군들 편에 선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증표이다. 그들의 죄악과 은밀한 죄가 항상 그분 앞에 있어서 그분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진노의 어두운 구름 아래 거하며, 그분의 분노의 물결에 압도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70년을 할당받아 살고, 어떤 이들은 80년을 할당받아 산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질병에 질병이 이어진다. 극히 적은 일도 힘들어진다. 그리고 곧 맥박이 멈추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다.

90:11~12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 중에 일어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떤다. 그분의 진노의 엄청난을 생각할 때 누가 그분을 마땅히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할 수 있을지 그는 의아해한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을 돌아보고, 하루 하루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히 계산될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도록 자극을 준다.

90:13~14 모세는 여호와께 그분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간구한다. 그분의 진노가 영원히 타오르겠는가? 그분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아침에 그분의 인자로 그들을 만족케 하사 그들의 남은 날들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내게 하기를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90:15~16 이제 모세는 ‘동등한 시간’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목도한 곤고와 환란의 햇수만큼 기쁨의 햇수를 주실 것

을 요구한다. 그들은 이미 그분의 능력이 심판을 통해 나타난 것을 보았다. 이제 그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의 다른 측면, 즉 은혜의 행위를 보여주실 것을 구한다.

90:17 끝으로, 중재자는 여호와께 그분의 택한 지상 백성에게 은총을 보이시고 그들로 그 수고하는 일에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을 구한다.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전통적으로 시편 90편은 그리스도인의 장례식 때 즐겨 읽혀져 왔다. 그리고 그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시는, 인생의 짧음과 시간 내지 기회를 사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는 신약시대에 있어서 위로와 확신을 주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우리는 죽는 것은 얻는 것임을 안다. 죽는 것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본향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 대한 어둡고 침침한 전망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소망에 대한 기쁨과 승리로 대치되어야 한다. 이제 사망은 그 쏘는 것을 잃었고 무덤은 그 승리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신자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

“사망이 패해졌네!

믿는 자여, 즐거이 외치라.

무덤이 자랑하던 승리는 어디 갔는가?

예수께서 살아 계시네!

더 이상 그 무덤 입구는 쓸쓸하지 않네.

예수께서 살아 계시네!

강하고 능하신 구원자가 살아 계시네.” (파니 J. 크로스비).

91편 : 나의 시

1922년, 웨스턴 히브릿지에서 5살난 아이가 디프테리아로 죽어

가고 있었다. 점액막이 목구멍에 형성되어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의 그리스도인 어머니는 차마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 때 누가 문을 두드렸다. 이웃 마을에 사는 시오라비였다. 그가 말했다. “제수께 이 아이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알려드리러 왔어요. 애는 곧 회복될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녀는 당황하고 믿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난로가에 앉아 시편 91편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세 구절을 통해 자기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란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스코틀랜드 찬송사에서).

내가 그 아이였다. 하나님이 그날 밤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13년 후에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장수로 나를 만족케 하셨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이 91편을 ‘나의 시’라고 일컬은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기꺼이 이 시를 다른 이들과 더불어 공유한다. 하지만 이 시는 분명히 ‘나의’ 시이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시가 메시아 시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 말이 맞다. 그 우선적인 ‘해석’은 우리의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 시를 상고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그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주의 은혜의 강수를 마시며
모든 약속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하네.”

91:1~2 예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신 분이시다. 그분처럼 산 자는 없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절대적이고 깨어지지 않는 사귄 가운데 사셨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철저히 하고도 완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지상 생애를 보내셨다. 아무 주저함 없이 그분은 하늘을 우리러 “저는 나의 피난 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셨다.

91:3 3~13절에는 그분의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인해 그분의 것이 된 놀라운 안전을 주 예수님께 확인시키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무엇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는가? 그것은 다음 아홉 가지이다.

숨은 위험에서 건짐. 새 사냥꾼의 올무는 방심하는 영혼을 덮치려는 대적의 악한 음모를 가리킨다.

치명적인 질병을 면케 함. 우리 주님의 경우엔 그분이 병이 들었다고 믿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다.

91:4 전능자 안에서의 그늘과 피난처. 하나님의 부드럽고 개인적

인 돌보심은 어미새가 새끼를 돌보는 것에 비유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의 보호.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신다. 그것이 신자의 방패와 손 방패이다.

91:5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흔히 두려움을 일으키는 네 가지 유형의 위협이 언급되어 있다.

대적의 밤을 틈탄 공격은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까닭에 특히 두렵다.

‘낮에 흐르는 화살’은 문자 그대로의 화살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악인의 악한 음모와 비방’을 가리키는 비유로 이해할 수도 있다(확대역).

91:6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 역시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육체적인 질병은 햇빛이 차단된 곳에서 번성하며, 도덕적인 악(惡) 역시 어둠 속에서 번성한다.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은 구체적으로 밝혀진바 없다. 그 약속이 보다 광범하게 적용되도록 그냥 그 표현대로 두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91:7~8 살육의 와중에서도 보호받음. 대대적인 살육이 벌어지는 중에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악인이 징벌 받을 때에 그분은 아무 해를 당할 염려 없이 곁에서 지켜 보실 것이다.

91:9~10 재난에서 보호받음. 구주께서는 지존자를 피난처와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무 재난도 임하지 못하고 아무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91:11~12 천사의 호위를 받음. 본문은 사단이 성전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고 주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인용한 구절이다(눅 4:10,

11). 예수님은 그분에게 적용된 그 구절은 부인하지 않고, 다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절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만일 구주께서 뛰어내리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행동하신 것이며 따라서 그 보호의 약속은 아무 소용없었을 것이다.

91:13 사자와 독사에 대한 승리. 흥미롭게도 사단은 이 구절 앞에서 멈추었다. 만일 그가 이 구절을 인용했다면 그 자신의 운명을 묘사한 셈이었다! 사단은 성경에서 우는 사자와(벧전 5:8) 옛 뱀(계 12:9)으로 묘사되어 있다. 사자로서, 그는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거세고 험악한 뱀박자이다. 뱀으로서, 그는 속이고 파멸시키는 사악한 전략을 동원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인자께서 지상에서 완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보내시는 동안 아홉 가지 안전책을 제시해주셨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리라”는 여섯 번의 놀라운 약속으로 그 안전책들을 확증해주신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예수란 인물의 생애 전체가 암시되어 있는 듯하다.

91:14 그분의 흠 없는 지상 생애.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91:15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분의 고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란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그분의 부활과 승천.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91:16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의 현재의 위치와 그분의 장차 올 나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로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

라.”

이 시는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는지! 그러나 기다리라! 아마 당신은 이 시가 말해주지 않는 것, 이 시가 대답하지 않는 중요한 질문들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메시아의 안전에 대한 이 모든 약속을, 마침내 사람들이 그분을 죽인 사실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 신자들에게 이 시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이 시를, 신자들이 질병에 걸리고 전쟁에서 죽고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실과 조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적인 답은, 적어도 이러하다. 즉,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의 사역이 마쳐질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유대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를 보라.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 두 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요 11:7~10).

주님은 자신이 자신의 일을 마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사실이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 시의 어느 구절을 통해 특별하고도 개인적인 방법으로 어느 신자에게 말씀할 수 있으시다. 만일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신자는 그 약속을 주장하고 의지할 수 있다. 서두에서 말한 내 개인의 사건이 그 사례이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분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실이다. 우리는 예외적인 경우를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주님 안에 안전함이 있다는, 그 일반적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92편 : 영적인 식물학에서 얻는 교훈

92:1~5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한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사실로도 ‘좋은 것’이며, 감사를 표하는 자와 그 소리를 듣는 자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지존자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이다. 그리고 찬양할 제목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아침에 찬양할 영원한 주제이며, 그분의 신실하심은 밤중에 찬양할 충분한 주제이다.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찬양의 아름다움을 더하라. 어떤 아름다운 음악으로도 그분의 창조와 섭리와 구속의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충분치 않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생각만해도 마음이 즐거이 노래 부르게 된다. 하나님의 놀랍고 묘한 계획, 곧 그분의 깊은 생각과 지혜로운 계획들은 찬양의 불길을 더욱 북돋는다.

92:6~9 그러나 자연인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기 때문이다(고후 2:14). 자연인은 세상사에 대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영적인 실재들에 관한 한 무감각하고 우매하다. 그는 우주의 정해진 도덕법이 악인의 멸망을 규정짓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잠시 형통한 듯 보이지만 그의 형통은 풀과 같이 쉬 사라진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듯이, 그분의 대적도 확실히 흠어지고 패망할 것이다.

92:10~11 반면에, 하나님은 의인의 뿔은 들소 뿔처럼 높이신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백성에게는 힘과 존귀를 주신다. 그리고 신실

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을 상징하는 신선한 기름을 부여하신다. 마지막 장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의 대적의 죽음을 목도할 것이며, 그들의 운명을 슬퍼하는 길고, 낮은 애곡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92:12~15 의인의 번성은 감람나무와 레비논의 백향목의 번성에 비교할 수 있다. 감람나무는 아름다움과 결실을 상징하며, 백향목은 힘과 영구성을 상징한다. 신자들이 번성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와의 전에 심기우고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여호와와 날마다 사귄을 나누며 그분에게서 힘과 양분을 공급받는다. 세월이 열매맺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왕성한 영적인 생명(수액)으로 활력이 넘치며, 그들의 증거는 늘 푸르다. 그들의 번성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는데 정직하시다는 증거이다. 그분은 믿을만한 반석이시며, 그분에게는 신뢰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

악인은 풀에 비유되고(7절), 의인은 늘 푸른 나무에 비유된다(14절). 악인은 시들고 쇠하지만 의인은 더욱 강건해진다. 이것이 영적인 식물학의 질서이다.

93편 : 영원한 왕과 영원한 보좌

93:1~2 예수께서 만유의 주재로 좌정하실 때 불리어질 노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데, 이 노래가 그 중 하나이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친히 왕 되심을 선포하실 영광스런 날을 대망한다. 그분은 초림시에 그분을 특징짓는 겸손함과 대조되는 권위를 입으실 것이다.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능력을 입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때 세상의 상황은 견고하고 튼튼한 기초 위에 안정될 것이며, 더 이상 도덕적 정치적 격동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여호와의 보좌는 항상 존재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비로소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그 왕은 영원하시며, 그분의 권위는 시작이 없었듯이 끝도 없을 것이다.

93:3~4 시편 기자가 ‘큰 물’이라고 한 것은 분명, 오랜 세기 동안 그분의 백성을 압제해왔고, 또한 그분이 다스리기 위해 오실 때 반역을 피할 이방 열국을 가리킨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헛되고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비록 위협과 자랑으로 그 목소리를 높일 것이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동맹국보다, 그들이 끌어 모을 수 있는 모든 군사력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93:5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진리임을 드러낼 것이며, 그분의 대적이 패하고 그분의 의로운 통치가 설 것이라고 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악(惡)이 제거되어 그 소유주 되신 분의 어떠한 같이 순결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다스리실 때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이사야 23:18, 스가랴 14:20,21, 계시록 4:8 등에 예언된 대로 거룩함으로 특징지어질 것이다.”⁶²⁾

94편 : 보수(報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란 훌륭한 작품에서 A. W. 핑크는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저 적당히 사과하거나, 혹은 적어도, 없었던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62) (93:5) Williams, ‘*Student’s Commentary*’, p. 372.

는 그분의 선하심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며 그러한 개념을 그들의 생각에서 없애버리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복과 분노가 그분께 속한 것임을 알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노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자비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속성이 천국이 그러하듯 지옥도 없어서는 안될 실제적인 곳이 되게 한다.”⁶³⁾

94:1~3 94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잔존자들이 마지막 날에 보수하시는 하나님께 죄악을 증오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달라고 호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온 땅의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을 대적한 악한 통치자들의 죄악을 보복하실 때가 이르렀다. “언제까지?”라는 부르짖음이 곧 그칠 것이다. 악인의 지껄임이 곧 잠잠케 될 것이다.

94:4~7 오만한 박해자들이 정죄당하는 내용이 밝혀져 있다. “그들의 오만불손함을 들어 보라! 그들의 교만함을 보라! 이 악한 자들은 얼마나 자긍하는가!”(LB) 그들은 여호와와의 백성을 짓밟으며 그분의 기업을 괴롭히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 힘없는 과부와 아무 의심 없는 나그네와 아무 도울 자 없는 고아를 살해한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하나님이 그 일을 알거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94:8~11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만일 그분이 인간의 몸에 귀를 두실 능력이 있으셨다면, 악인이 하는 말을 들을 능력도 있으시지 않겠는가? 눈을 지으신 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 못하시겠는가? 만일 그분이 역사가 증거하는 대로 열방을 징벌할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분이 그

63) (94장 서론) Pink, 'Attributes', p. 75.

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압제하는 폭력배를 징벌할 능력이 없으시겠는가? 어떻게 그분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지식보다 더 지식이 적을 수 있겠는가? 사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은 이 패역한 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시며, 그들의 생각이 콧김처럼 허무함을 아신다.

94:12~15 믿음은 고난 중에 있는 시편 기자로 하여금 자신의 환란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는 교육의 일부로 보게 한다. 여호와께로부터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율법을 통해 훈련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은 환란 날에 그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악인을 위해 구덩이를 팅 때까지 하신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기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반드시 공의가 제 위치로 회복될 것이며, 정직한 백성은 다른 이들에게 그 공의를 베풀고 그 대가로 공의를 얻을 것이다.

94:16~19 누가 과연 행악자들의 압도하는 힘에 맞서 그를 보호해줄지 시편 기자가 의아해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홀로 남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항상 그를 도우러 오셨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무덤의 침묵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사람들의 살육 앞에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는 여호와의 자비로 말미암아 놀랍게 보호받는 자신을 발견했다. 염려의 의심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모든 종류의 위로로 그의 영혼을 감싸고 어루만져 주셨다.

94:20~23 여호와와 그 악한 통치자들 간에 어떤 사귀미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간에 어떤 동역이 있을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죄를 합법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을 인정하

실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은 그 자체에 답이 있다. 권세에 취한 통치자들이 의인을 죽이고 무고한 자를 정죄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의 요새이며, 그들이 피할 바위이시다. 그분은 불의한 자들에게 충분히 보복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다. 그분은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폭군의 운명은 항상 그러할지어다!

95편 : 경배와 경고

이 시는 ‘경배하라’는 환호에 찬 축구와 더불어 시작되며, 기자의 열정에 사로잡힘 없이 대하기 어려운 시이다(히브리서 4:7에는 이 시가 다윗의 작품으로 돌려지는 듯 한데, ‘다윗의 글’이란 표현은 단지 많은 시가 그에 의해 기록된 시편을 가리킨 표현일 수 있다.)

95:1~2 의문의 여지없이 우리는 본문에서, 환란의 어두운 때가 끝날 즈음 다시 여호와께 경배하러 오라고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

참된 경배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다양한 표현들은 아주 흥미롭다. 그것은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구원의 반석, 즉 우리가 영원한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즐거이 외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존전에 나아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을 향하여 찬양의 시를 즐거이 부르는 것이다.

95:3~5 우리의 찬양의 방법이 다양하듯이 찬양의 주제 또한 무한히 광범위하다. 여호와께서는 크신 하나님(히브리어 ‘엘’, 즉 ‘전능하신 이’)이신 까닭에 찬양 받으셔야 한다. 그분은 이교도의 모든

우상 신 위에 크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것이 그분이 소유하신다는 의미에서 ‘그 손에’(우리말 성경에는 ‘그 위에’로 되어 있음·역주) 있다. 산봉우리들도 그분이 지으신 까닭에 그분의 것이다. 그분은 큰 바다를 지으셨으며, 대륙과 섬도 그 손으로 빚으셨다.

95:6~7(상) 그러나 이제, 경배하라는 두 번째 초청이 울려 퍼진다. 이번에는 보다 개인적이고 친근한 초청이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까닭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무릎꿇어야 한다. 그분은 창조와 구속에 의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이시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분의 못 박힌 손에 의해 인도와 안내와 보호를 받는 양떼이다.

95:7(하)~9 7절 중간에서 경배가 갑자기 경고로 돌변한다. 그것은 성령의 간절하고 설득력 있는 탄식이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나머지 구절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에서 돌이키라고 그분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여호와와 음성들을 들을 수 있다. 르비딤 근처 므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부족한 것에 대해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격동케 했다(그곳은 맛사와 같은 장소였다·출 17:7). 가데스 근처인 다른 므리바에서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명하는 대신 그것을 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민 20:10~12). 하나는 광야 여정 초기에 일어났고, 하나는 그 말기에 일어난 이 두 사건은 그 당시 백성들의 신실치 못함을 그 이름으로(므리바=거역; 맛사=시협) 잘 표현해준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시험하고 탐지(探知)했다.

95:10 그러한 격동케 하는 행위는 40년간 지속되었다. 마침내 하

나님이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충분하다. 이 싫증나는 백성들은 방황에 종노릇하는 마음을 소유했다. 그들은 내가 정해진 길을 무시하기로 작정했다. 그러기에 내가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 계획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간절한 호소가 히브리서 3:7~11에 인용되어, 율법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버리고자 하는 시험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날에 불신앙이 그들로 하나님의 천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경고가 될 것이다.

불신앙은 모든 세대 사람들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96편 : 왕이 오신다

96편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적어도 17가지 방법이 신선한 명령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 ‘노래하다’(1,2절), ‘둘러드리다’(7,8절), ‘…하게 하라’(11,12절; 우리말 성경에는 ‘…하라’는 형태로 되어 있음-역주) 등의 반복된 표현을 보라.

96:1~2 ‘새 노래’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영광스런 통치를 시작하기 위해 지상에 재림하실 때 높이 울려 퍼질 찬송이다. 그것은 새 노래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노래일 것이다. 온 땅의 사람들이 그 노래에 그들의 목소리를 섞을 것이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거할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그분이 구원하신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LB).

96:3~6 그들이 장래 할 일, 즉 열방 중에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

고 만민 중에 그분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모든 신 위에 무한히 뛰어나시다. 나무나 돌로 만든 거짓 신들은 무력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참 하나님이다. 그분의 속성은 떼어놓을 수 없는 시종같이 어디든 그분을 따라간다.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서 가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서 그분을 받들어 섬긴다. “존귀와 아름다움이 그 호위병이요, 경배와 장려함이 그 성소의 시종이다”(Knox).

96:7~9 만일 우리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진정 감복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만방의 족속들에게 얼마나 여호와가 엄위하고 존귀하고 능한 분이신지 함께 외칠 것을 촉구한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한다. 그들은 그분 발 아래 예물을 가져와야 한다. 그들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혹은 거룩한 옷을 입고(NASB)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 온 세상은 그분께 순종을 드려야 한다.

거룩한 옷을 언급한 것은 우리로, 여호와께 경배할 때 우리가 입는 옷조차 그 경우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경배가 우선적으로 마음의 문제인 것이 사실이나, 복장을 통해 경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예배시에 단정치 못한 복장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는 볼 수 없는 성의 없는 태도를 보여준다.

96:10 이 구절은 새 노래의 배경이 되는 메시아-왕이 보좌에 오르실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통치를 시작하셨다! 세상은 전쟁과 압제와 가난과 불의와 재난과 그밖에 위협으로 인해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다. “흔들리지 못할

지라”는 문구는 “그리스도의 천년통치 동안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이 불로 멸망할 것을 안다(벧후 3:7~12).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여호와께서 만민을 의롭게 다스리실 것이며 불안케 하는 세력에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96:11~13 모든 만물이 여호와(혹은 야웨)⁶⁴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실 때 그 축제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초청을 받는다. 땅이 즐거워할 것이다.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이 찬양을 발할 것이다”(Gelineau). 들도 침묵치 않을 것이다. “숲의 나무도 그 주인의 오심을 즐거이 환영할 것이다”(Knox).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완전한 의(義)와 완전한 정직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삼하 19:10)

97편 : 의인을 위해 빛을 뿌리다!

97:1 서두에서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 왕관을 쓸 날이 도래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즐거워한다. 먼 섬들과 해변 땅들은 그러한 기쁨을 본적이 없다.

64) (96:11~13) ‘여호와’는 자음 ‘*JHWH*(혹은 ‘*YHWH*)와 ‘*Adonai*(Lord)의 모음을 결합한 글자의 전통적인 발음표기다. 히브리어의 이름은 아마도 본래 ‘야웨’(*Yahweh*)라고 발음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은 *YHWH*라는 성스런 문자가 본문에 나올 때마다 ‘주(Lord)에 해당하는 단어(*Adonai*)로 불렀다. 11절의 첫 문장에 나오는 네 히브리어 단어의 첫 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칭호인 야웨(*YHWH*)를 이룬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KJV와 NKJV는 하나님의 이름을 ‘LORD’라는 대문자로 표기하는데, 성경의 ‘인용문’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대문자 표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97:2 왕의 오심이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다. 먼저, 그분은 구름과 흑암에 싸여 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종종 사람들 눈에 신비롭게 숨기우고 그 길은 헤아릴 수 없는 위엄을 갖춘 모습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의와 공평이 그분의 보좌의 기초이다. 그분의 통치는 공의를 잘못 적용하거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는 이상적인 통치-은혜로운 왕정(王政)-이다.

97:3~5 큰 불이 그분 앞에서 발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을 사른다(살후 1:8). 그분의 심판의 번개가 온 땅을 비춘다.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한다. 이때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네’(사 40:4),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낮아짐을 당하는 때이다.

97:6(상) 하늘이 그분의 의를 선포한다. 그분이 그분의 피로 사신 성도들과 함께(살전 3:13) 구름을 타고(계 1:7) 오실 때, 세상은 그분이 의롭게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된다. 아울러, 게벨라인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분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많은 아들들이, 그분의 의(義), 즉 구속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이제 영화롭게 된 근거인 갈보리 십자가의 놀라운 의(義)의 사역을 알린다.”⁶⁵⁾

97:6(하)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분의 영광을 본다.

“왕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시네.

아무 휘장도 보이지 않네.

거기까지는 죽음의 계곡을 넘고 넘는

65) (97:6) Gaebelin, ‘Psalms’, p. 363.

험난한 여정이었네.

어린양이 정의의 군대와 함께

시온산에 서 계시네.

임마누엘의 땅에 영광, 영광이 거하네.” (앤 로스 커즌).

97:7 그 때 우상숭배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들은 그제까지 헛된 것을 숭배했음을 깨닫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너희 신들이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는 70인역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여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로 되어 있으며, 히브리서 1:6에 그렇게 인용되어 있다. 여기에 나온 히브리어 단어(엘로힘)는 흔히 하나님을 의미하나, 천사, 재판관, 통치자, 혹은 이방 신이나 신적인 존재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

97:8~9 시온성은 왕께서 반역자와 우상숭배자를 물리치신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 유다의 딸들도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 “여호와여, 당신의 심판이 전해지자 시온이 기뻐하고 유다의 주민이 즐거워하리이다”(Knox). 마침내 여호와께서 항상 그러하셨던 모습-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실제든 만든 것이든 다른 모든 세력들 위에 초월하신 모습을 드러내신다.

97:10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여호와를 거스르는 모든 것에 대한 미움은 도덕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은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특별한 대상이다.

97:11 빛이 의인에게 씨뿌리듯 뿌려진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은 의를 행하는 자에게 빛을 뿌리는 것을 의미하며, 그 마음이 정직하고 신실한 모든 자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의미한다.

97:12 이에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백성에게, 함께 즐거워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NKJV 난하주) 감사를 드리지는 즐거운 초청이 울려 퍼진다. 이렇게 하여 이 시가 놀랍게 마감된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나 자비나 은혜나 영광을 기억하며 감사하자”는 초청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 전에는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그분의 존전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반대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편이며,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98편 : 만물의 새로운 교향악

98:1~2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압제에서 최종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영광스런 해방이 대적에 대한 메시아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한다. ‘기이하다’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능력의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행하신 모든 일을 가리킨다.

이 시는 천년왕국을 이미 도래한 것으로 묘사한다. 그분의 승리는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열방이 이스라엘 대한 그분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라고 노래했다(눅 1:54,55). 그리고 사가라는 그분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다(눅 1:72).

98:3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게 하셨으며, 여호와와 성실하심이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한다.

98:4~6 언뜻 보기엔 4~6절에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부름 받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4절의 ‘땅’은 아마도 F. W. 그랜트의 번역대로 이스라엘 ‘땅’을 의미할 것이다.⁶⁶⁾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환희의 노래를 부르라는 격려를 받는다. 레위인은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격려를 받는다. 그리고 6절에서 제사장들이 나팔과 호각소리로 화음을 완성한다.

98:7~9 이어서 자연과 열방이 교향악에 참여하도록 초청 받는다. 바다와 그 무수한 생물이 기쁨으로 넘실거리는 모습으로 상상력 넘치게 묘사되어 있다.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들도 몹시 즐거워한다. 큰 물이 바위에 부딪치며 박수를 친다. 산악이 황홀한 중에 노래하듯 그 머리를 높이 든다. 왕께서 땅을 다스리러(심판하러) 오실 때, 즉 그 가난하고 병들고 슬픔에 잠긴 세상에 의롭고 공평한 통치를 베풀기 위해 오실 때 모든 만물이 자발적으로 크게 기뻐한다. 누가 즐거워하지 않겠는가?

99편 :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99:1 왕의 거룩하심이 이 시 전체에 흐르는 3겹줄이다(3,5,9절). 시편 기자는 메시아를 이미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 것으로 본다. 그

66) (98:4~6) F. W. Grant의 “*Psalms*” 3:363을 보라. 아울러 이 단어에 대한 앞의 설명을 보라. 이 표현은 사해사본과 70인역의 신명기 32:43에서도 발견된바 있었다. 맛소라 학자들(유대전통을 보존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지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인용하는 까닭에 그것을 거기서 없애버렸다(히브리서 1:6의 경우처럼).

분은 ‘그룹 위에’(FWG) 좌정해 계시는데, 이는 아마도 그분의 보좌가 그룹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룹은 인간의 몸과 날개를 지닌 천사와 같은 존재이다. 그룹이 하는 일은 인간의 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변호하는 일이다. 보좌에 앉으신 왕의 모습이 위엄이 넘치므로 만민이 떨고 땅이 두려움으로 요동할 것이다.

99:2~3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니 그 능력과 위엄이 광대하시다. 그분은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신 통치자이시다. 그들은 그분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높여야 한다.

99:4~5 이 권능의 왕께서는 또한 공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세상의 통치자와 위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조화이다. “능력과 의(義)가 마침내 결합되었다”(FWG). 그분의 왕국에서는 부정과 타락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평과 공의와 의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다. 그분의 백성은 어떻게 그분을 높이고, 그분 발아래 엎드려야 하는지! 다른 대목에서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언약궤(대상 28:2), 성소(시 132:7), 시온(애 2:1), 땅(사 66:1), 하나님의 원수(시 110:1)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는 아마 시온의 성소를 가리킬 것이다.

99:6~7 이 왕이 과거에 그분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바로 그 왕이시다. 모세와 아론이 그분의 제사장 중에 있었고, 사무엘이 그분의 중재자 중 하나였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모세와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으나 둘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제사장 기능을 수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구름기둥에서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말씀하셨으며,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셨다. 그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음성을 순종했으며, 비록 부분적이었지만 율법을 준수했다.

99:8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지금도 계속 응답하시리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 그분은 그들의 악한 행위는 지나치지 않으셨지만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비록 형벌은 사함 받았지만 결과는 이생에 남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가 므리바 물가에서 범한 죄를 용서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 세 영웅은 이스라엘 백성 중 믿는 무리를 대표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실이던 것이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언약 백성에게도 사실이었다. 그들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었으며,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99:9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 번 언급한 것은 이사야 6:3과 계시록 4:8을 생각나게 한다. 또한 그것은 헤버의 엄숙한 찬송시를 떠오르게 한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레지날드 헤버).

100편 : 옛 100편

제네바 찬송가(1551년)에 나오는 그 곡조에 붙은 “옛 100편”(Old Hundredth)이란 제목으로 잘 알려진 이 시는 온 땅을 향해 여호와

게 경배할 것을 촉구한다. 그 초청은 이스라엘의 좁은 영역을 넘어 온 이방 나라로 전해진다. 바네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시의 요점은, 찬양은 한 나라에 관계되거나, 한 민족에게만 합당하거나, 히브리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요, 언어와 환경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는 그들이 한 창조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3절).”⁶⁷⁾

우리는 이 다섯 구절의 짧은 시를 통해 예배란 단순한 것이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여기서 가장 긴 단어는 ‘감사’(thanksgiving), ‘영원하고’(everlasting), ‘대대’(generations) 등이다. 표현이 복잡하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예배임을 배우게 된다. 단어 그 자체가 놀라움을 잔뜩 내포한다. 평범한 사실이 꾸밈보다 더욱 놀랍다.

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구조가 나타나 있다.

예배의 촉구(1,2절).

예배의 이유(3절).

예배의 촉구(4절).

예배의 이유(5절).

또한 예배의 일곱 가지 요소가 암시되어 있다.

즐거이 부르라(1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2절).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2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4절).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4절).

그에게 감사하라(4절).

그 이름을 송축하라(4절).

67) (100편 서론) Barnes, ‘Psalms’, 3:56.

우리는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주되심(1절).

하나님 되심(3절).

창조주 되심(3절).

소유주 되심(3절).

목자 되심(3절).

우리는 그분의 속성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그분은 선하시다(5절).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다(5절).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친다(5절).

앞의 세 구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 경배 받으신다. 그러나 뒤의 두 구절에서는 갈보리를 문맥에 넣기가 어렵지 않은데, 왜냐하면 갈보리만큼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뚜렷이 볼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온 세계가 그분의 영화로운 권능을 선포하고

그분의 모든 행사가 그분의 지혜를 표현하네.

그러나 오,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리요?

예수께서 잘 말씀해주셨네!” (사무엘 메들리).

3절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놀라운 사상의 결합이 있다. 거기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그분이 가까이 할 수 없이 높이 계심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것임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그분이 무한히 가까이 계심을 말해준다. 이 시가 두려움과 움츠림 대신 기쁨과 노래를 발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시는 복스런 하나님을 위한 즐거운 노래이며, 그 메시지는 다 음과 같은 잘 알려진 가사로 찬송가에 보존되어 왔다.

“땅에 거하는 온 백성이여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세.
기쁘게 그를 섬기며 그를 찬양하세.
그 앞에 나아가 즐거워하세.

여호와가 정녕 하나님이심을 아세.
우리의 도움 없이 그가 우리를 지으셨네.
우리는 그의 양이며 그가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네.

오, 찬양하며 그의 문에 들어가세.
기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세.
항상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송축하세.
그것이 실로 합당하네.

왜 합당하냐고? 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견고하며
그 진실하심이 항상 든든히 섰고
또 대대에 미칠 것이기 때문일세.” (스코틀랜드 찬송시).

101편 : 왕의 결심

다윗이 그의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에 있어서 바라는 기대치는 그가 이룬 성취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집과 왕국에 대해 정한 목표는 주 예수께서 오셔서 다윗의 위에 앉으실 때 그분에 의해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이 시는 다윗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선언한 성명으로서, 그가 품은 큰 뜻을 잘 표현해준다.

101:1 그는 먼저 인자와 공의를 찬송했는데, 이 둘은 여호와에게서 발견되며, 다윗이 그 자신에게서 재생산되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아마 그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속성,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그분의 대적에 대한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라고 즉시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101:2 이어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바라는 몇몇 특질들을 언급한다. 그는 완전한(책망할 것 없는) 길, 즉 여호와의 가르침에 아주 근접하여 비난받을만한 아무 정당한 근거가 없는 삶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바램은 극히 열렬하고 진지하여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라는 탄식을 발하고 있다. 이 탄식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 임하사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시기를 원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의 성취(삼하 7장), 즉 하나님의 지상왕국이 마침내 세워지기를 열망했다.

그는 ‘그의 결단이 실행되려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야 한다고 느꼈다.’⁶⁸⁾

그는 그의 집 안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겠다고 결단했다. 가정생활에서 그는 의롭고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다. 일구이언하거나 두 얼굴을 갖지 않을 것이다!

101:3~4 그의 눈앞에 악한 것을 일절 두지 않겠다는 것은 일체의 비루한 사람이나 계획이나 활동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배도자의 행위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을 미워하고 또 그 행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겠다고 그는 결심했다. 진리와 의에서

68) (101:2) Clarke, *‘Psalms’*, p. 247.

떠난 자들은 그와 일절 사귀지 못할 것이다.

그가 멀리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성향은 사특한 마음, 즉 거짓과 부패를 일삼는 마음이다. 그는 그 자신이 그러한 악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류의 사람을 조언자로 두지도 않을 것이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라는 합당한 결단은 그 자신의 삶을 가리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그의 궁전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 것일 수도 있다. 흠정역(KJV)은 “내가 악한 사람을 알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읊고 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격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101:5 그 이웃을 비방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개정 표준역(RSV)처럼 죽임 당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왕의 통치 부서에 위임되지 못하거나 침묵하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NASB 난하주).

허세를 부리는 교만한 자도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그런 자는 왕궁에서 직위를 얻지 못할 것이다.

101:6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은 도덕적 영적 정직성이다. ‘땅의 충성된 자’가 왕의 조력자가 될 것이며, 삶이 깨끗한 자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101:7~8 사기꾼과 거짓말쟁이는 왕궁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왕은 허풍과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과 사귀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왕은 모든 형태의 악을 신속히, 엄격히 제거하겠다고 결심했다. 다시 한 번, ‘멸하다’는 말은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악을 징벌 내지 쫓아내겠다는 뜻일 수 있다. “반드시 모든 종류의 악을 이 땅에서 뿌리뽑고 모든 행악자를 여호와의 성에서 멸할 것이다.”⁶⁹⁾

102편 : 갈보리에 나타나신 삼위 하나님

이 시를 이해하는 열쇠는 화자(話者)가 바뀌는 것을 파악하는데 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 하나님께 아뢰다(1~11절).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답하신다. 이 사실은 12절을 히브리서 1:8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12~15절).

화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성령께서 메시아의 지배 아래 이뤄지는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묘사하고 계신다고 이해할 수 있다(16~22절).

구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고난 당하시며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다(23,24절).

히브리서 1:10~12과 본문을 비교해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24~28절).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세상 죄를 구속하는 일을 하실 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대화를 들을 수 있다.

102:1~2 1,2절에서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를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돕는 자요 치료자요 친구 되신 예수님,

왜 그분이 갈보리에 계셨는지, 왜 거기에 계셨는지 말해주오.”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 중에 처한 자신에게 가까이 하시고 속히 응답해주시기를 여호와께 탄원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69) (101:7,8) Grant, 'Psalms', 3:368.

102:3~7 이어서 그분은 자신이 슬픔의 사람(the Man of Sorrows)으로서 견디도록 부름 받은 그 고난을 묘사하신다. 그분은 생명이 다 가고 있음을 의식했다. 그분의 날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분의 몸은 뜨거운 열로 타고 있었다. 그 몸의 기관들이 시들고 메말라버려 식욕이 사라졌다. 그 고난이 오래되어 이제 뼈와 가죽만 남게 되었다. 광야의 새와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그분은 그야말로 버림받음과 우울함의 자화상이었다. 물론 잠도 잘 수 없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채 그분은 지붕의 참새처럼 외로웠다.

102:8~11 그분의 대적들은 비방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저주거리로 삼았다. (오늘날도 예수의 히브리어 이름인 ‘예수아’(Yeshua)는 그 대적에 의해 “그 이름이 땅에서 끊어질 지라”는 뜻의 저주하는 말인 ‘예수’(Yeshu)로 축약되어 사용된다.) 슬픔의 재가 그분의 양식이었고, 그분의 음료는 슬픔의 눈물로 흐려졌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분과 노로 인해 고난 당하고 있음을 인식하셨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린양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담당하고 계신 우리의 죄에 대해 분노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 그분은 자신이 집어들려 멀리 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분의 날은 저녁 그림자처럼 기울어갔고 그분의 생명은 풀같이 시들어갔다.

102:11~15 이제 하나님이 확신과 격려의 말로 주 예수님께 답하신다. 아들을 주(主)로 칭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이 영원히 거할 것과 그 이름이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상기시키셨다. 물론 그분은 죽을 것이지만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

로 이 땅에 재림하여 시온에 공황을 베푸실 것이다. 지금은 옆으로 제쳐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때에는 다시금 은총 받는 위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한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그 티끌도 공황히 여길 것이다. 그것은 예를 들어, 그들이 전에 통곡의 벽이라 부른 서쪽 벽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또 옛 예루살렘 도성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는데서 엿볼 수 있다. 시온이 그 왕을 반가이 맞을 때 이방 열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할 것이며 모든 지상 통치자들은 그분께 경의를 표할 것이다.

102:16~22 본문에서는 1인칭과 2인칭 대명사들이 생략되고 3인칭 대명사만 나온다. 따라서, 앞서 암시했듯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이뤄지는 이스라엘의 장래 회복을 묘사하는 성령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 메시아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여 시온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 날에 그분의 흠어진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 때에 그들이 간구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장래 세대들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그분의 꺾박받고 흠어진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인도해들이신 놀라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열국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모일 때 그들은 그분이 갇힌 자와 정죄당한 자를 해방하신 일을 다시 진술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은혜로운 섭리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102:23~28 이제 다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주님께로 장면이 바뀐다. 그분은 그 때에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셨다. 그러나 이미 그 힘이 중도에 쇠약해졌다. 그 생명이 일찍 마감되려 했다. 이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그 응답이 즉시 하늘로부터 왔다(24절). “주여, 주는 영원히 사시

나이다”(TEV). 우리가 알기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1:10~12절에 의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보라.

“그분은 창조사역의 능동적인 대리자이셨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만물은 없어질 것이나 그분은 영존하실 것이다. 만물은 다 옷같이 낡고 더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불변하고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성만 안전할 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과 그 후손의 백성의 영원성도 안전할 것이다. 그분의 종들의 자손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할 것이다.”

103편 : 여호와를 송축하라

103:1 우리가 시편을 사랑하는 한가지 이유는 마음으로는 느끼지만 입으로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103편만큼 그런 사실을 실감케 하는 대목도 없을 것이다. 이 장려한 찬양시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깊은 감사를 반영하는 표현들을 대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호소하게 되는데, 이 때 우리의 ‘영혼’이란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닌 인간의 전 존재를 통틀어 가리킨다. 영과 혼과 몸이 여호와의 성호를 송축하는데 함께 드러지는 것이다.

103:2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심장한 권면과 함께 다시 한번 송축하라는 호소가 울려 퍼진다. 이런 호소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도 종종 쉬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 시력, 청력, 언어, 식욕 등등 많은 축복들에

대해 감사하기를 쉬 잊는다. 우리는 그것들을 아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103:3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데 대해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주홍 같은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다. 어떤 이는 그 묘비에 “죄사함 받았다”는 말만 남기게 했는데, 우리는 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 또 어떤 아일랜드 성도는 “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주셨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네”라고 고백했는데, 이 또한 우리가 공감하는 바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은택은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다루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병고침이 죄사함 뒤에 온다는 점이다. 육체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든 질병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어떤 질병은 그 결과이다. 그 둘이 연관이 있을 경우엔 죄사함이 반드시 병고침 앞에 와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본문에는 문제점이 있다. 본 절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경험에 있어서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또 주님께서 더디 오시면 우리 모두는 조만간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다면 본 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 답을 구하면서 우리는 다음 사실들을 살펴보게 된다.

첫째로, 모든 참된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만일 당신이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치유의 근원이시기에 치유 받은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는 ‘여호와 로피’(Jehovah Rophi), 즉

‘여호와와 네 치료자’이다. 참된 치유의 모든 사례는 하나님께로서 온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질병을 고칠 수 있으시다. 그분에게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란 것이 없다.

셋째로, 하나님은 장기간에 걸쳐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치료하실 수도 있고 기적적으로, 즉각적으로 고치실 수도 있다. 그분의 치유능력에는 어떤 한계도 없다.

넷째로,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 실제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다(마 8:16).

다섯째로, 천년왕국 동안 그분은 자신을 거스르는 자들의 경우를 제외하고(사 65:20) 모든 질병을 실제로 고쳐주실 것이다(사 33:24; 렘 30:17).

그러나, 본 절이 이밖에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신자가 모든 질병에 대해 치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일리는 없다. 왜냐하면 이 시의 다른 구절에서 우리는 인생의 짧음과 확실히 그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15,16절). 필자가 믿기에는 본 절은, 신자가 병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결과이며, 하나님은 치료자로 인정과 감사를 받으셔야 마땅하다는 의미이다.

103:4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덩이 혹은 파멸에서 구속하신다. 물론 이것은 그분이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에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보다, 하나님이 위험과 사고와 비극에서 우리를 항상 건져 내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우리는 하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일찍 죽는데서 보호받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은택은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관 썩우시는 것

이다. 그것은 전에 사랑 받지 못한 자요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이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날마다 그분의 긍휼을 부음 받는다.

103:5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신다. 이 표현은 원문상 뜻이 다소 불분명하다. 문자 그대로 옮기면 그분이 “좋은 것으로 네 장식을 만족케 하신다”이다. ‘네 장식’은 ‘네 전성기’, ‘네 세월’, ‘네가 사는 날 동안’ 등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그 정확한 뜻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이들 다섯 가지 은택(죄사함, 병고침, 보존, 장식, 만족)의 결과는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진다는 것이다. 질병과 폭력은 육체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영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 이 땅에서는 우리 몸에 관한 한 영원한 청춘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영혼은 점점 더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독수리는 장수와 힘으로 명성이 높다. 독수리의 생명은 계속해서 힘을 유지하고 젊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다. 독수리 역시 노쇠하여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소생함을 누리며, 독수리가 점점 높은 데로 치솟듯이 점점 힘을 더 낸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다.

103:6 여호와의 자비와 인자는 특히 출애굽 사건에서 히브리 백

성을 다루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 있다. 그 사건은 압박 받는 모든 자를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와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103:7~8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행사를 알리셨다. 그분은 모세를 비밀한 사귄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에게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알리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계획이 실제로 이뤄지는 것을 목도했다. ‘그 행위’(ways)와 ‘그 행사’(acts)의 차이는, ‘그 행위’는 계시에 의해 알려지는데 비해 ‘그 행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분의 백성에 대한 모든 섭리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으로 나타내셨다. 그분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모든 단계에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신다. 그분의 백성은 완고하고, 불평이 많고, 거역하고, 또 순종치 않지만, 그분은 그 분 노를 발하기 전에 오래 참으신다. 그분의 자비는 저들의 배은망덕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결같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당신께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요.
그러나 당신은 늘 저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십니다.
저는 종종 방황하고 당신의 뜻을 행하는데 실패하지만
당신의 은혜로운 사랑이 늘 저의 곁에 머물습니다.” (저자 미상).

103:9~10 여호와께서 그 자녀를 징벌하셔야 하는 때도 있지만 그 때에도 그분의 징계는 무한히 계속되지 않는다. 심판은 그분으로서 낮은 사역이다. 그분의 자비가 심판을 이기고 즐거워한다. 만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면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 우리로 당연히 받아야 할 징벌을 내리지 않게 하신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같보리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지불되었다. 우리가 구주를 믿을 때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 값을 두 번 치르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값을 지불하셨으며, 이에 우리는 결코 그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03:11~12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측량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만일 우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거리를 잴 수 있을진대 그분의 사랑의 광대함을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우주의 크기도 측량할 수 없다. 그리고 무한한 거리에 대해 얘기하자면, 그분은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실로 멀리 옮기셨다. “동은 동, 서는 서, 그 둘은 결코 만날 수 없듯이” 신자와 그의 죄는 결코 만나지 않는 것이다. 그 죄는 사랑의 기적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제거되었다.

103:13~14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동정을 불러일으킨다” 고 어떤 이는 말한바 있다. 어린 자식이 어른 만한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버지가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듯이, 여호와께서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를 동정의 눈길로 굽어보신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아신다. 우리가 진토에서 지은바된 나약하고 무력한 자임을 아신다. 우리는 너무도 종종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가 진토라는 사실을 잊는다. 그것은 교만과 자기 신뢰와 이탈(independence)과 그리고 파탄을 초래한다.

103:15~16 인간은 진토일 뿐 아니라 곧 진토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첫 인간에게 주어진 선포는 냉엄하게 성취되어왔다. 인간은 어느 한 날 태어나서 들의 꽃처럼 사라지고 옛 친구들도 다시는 보지 못한다.

103:17~18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와 대조된다. 그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친다. 이 사실에는 큰 위로가 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종종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고 염려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이 무한하고 그 의가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충분한 분에게 우리의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다. 무론 이러한 약속들은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다. 그 약속들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자들에게 유효하다. 그러나 그것은 지킬만한 합리적인 약속들이다.

103:19~22 여호와와는 왕이시다.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는 우주적이다. 그러한 분으로서 여호와와는 마땅히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들의 찬양의 대상이 되셔야 한다. 그러기에 다윗은 우주의 단(檀)에 올라 만물로 이뤄진 대찬양대를 지휘하여 놀라운 경배의 합창을 이끌어낸다. 먼저 그는 능력이 뛰어나고 순종적인 천사들에게 찬양을 시작하도록 지시한다. 그런 다음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의 하모니를 붙여넣으라고 호소한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모든 작품들에게 영광스런 절정에 합류하도록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할렐루야 합창이 하나님에 다스리는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동안 지휘자 자신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더한다. 어떤 이는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상상했다.

“만물이 찬양하는 가운데 나도 내 음성으로 그분을 송축하리라.”

104편 : 창조주요 관리자(Sustainer)되신 하나님

뉴욕이나 런던이나 동경처럼 수백만의 인구로 북적거리는 도시

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라. 다양한 기관들이 상수도, 주택, 식량, 기타 필수품을 공급하는 일들을 떠맡는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업무는 얼마나 더 복잡하겠는지 생각해 보라. 모든 피조물에게 물을 공급하는 문제며,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방대한 량의 업무며, 집과 거처를 제공하는 문제며, 등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요 이 광활한 자연세계의 관리자로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

104:1~3 자기 영혼(전 존재)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호소한 후에 익명의 시편 기자는 미켈란젤로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을 것이 분명한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묘사 중 한 대목을 표현한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달리 묘사하거나 그분의 무한한 위대성을 유한한 언어로 포착할 길이 없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서서, 응시하고, 놀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어, 주는 심히 광대하시나이다!”라고 외친다. 이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세부 묘사를 시도한다.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광채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다. 그분은 옷을 입을같이 빛을 입으셨는데, 이는 그분의 절대적인 순결성과 의로움을 말해준다. 그분은 땅 위에 별들과 천체를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우리는 그 광활함에 압도되어 넋을 잃을 뿐이다. 땅 위를 덮은 구름 덮개는 하늘의 누각이 놓인 들보를 이룬다. 하늘을 가로질러 달리는 구름은 바람날개로 다니시는 여호와와 수레이다.

104:4 “영으로 자기 천사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히브리어는 ‘바람’과 ‘영’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그 옆 단어는 ‘천사’와 ‘사자’를 의미하므로, 본문은 이렇게 옮겨질 수 있

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옮겨져 있음-역주). 이것이 자연계의 모습에 잘 어울리는 번역이나, 히브리서 1:7에 인용된 본문은 전통적인 번역을 요구한다. (헬리어의 경우에도 그 단어들에 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신구약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104:5~9 이 시를 두루 살펴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날들이 재현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물론 어떤 날들은 그다지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지만 말이다. 시편 기자는 그분의 피조물, 특히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배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기초 위에 땅을 빚으사 인간이 거할만한 안정되고 견고한 지면이 되게 하신 일을 회상했다. 처음에는 산이 잠길 만큼 온 땅이 물로 깊이 덮여 있었다. 제3일에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셨다 (창 1:9). 이에 즉시 물이 뒤로 물러갔다. 산과 계곡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곳에 나타났다. 바다와 대양이 육지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분명한 경계선 안에 형성되었다.

104:10~13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순환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샘들이 물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시내가 앞을 다투어 흘러내려 계곡과 평지와 그리고 마침내 바다에 이르렀다. 이후로 들짐승들은 그 시내와 강과 호수에서 갈증을 해소해왔다. 그리고 그 물줄기 곁에서 자라는 수목에서 새들이 보금자리를 찾아왔다. 또 다른 물 공급원은 비이다. 엘리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졌다”(욥 36:27,28). 그리고 그렇게 거대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산을 적시자 온 땅이 하나님의 관개(灌溉)사업의 결과로 만족했다.

104:14~15 다음은 물지를 공급하는 일이다. 그분은 가축이 먹을 풍성하고 다양한 식물과, 사람이 자신과 생축의 꼴을 위해 경작할 곡물을 주셨다. 느리고 조용한 기적에 의해 땅에서 식물이 나온다. 포도열매의 즙이 놀라운 화학작용에 의해 포도주로 변하고 사람은 그것을 마시고 즐거워한다. 감람나무는 건강과 식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훌륭한 기름을 낸다. 그리고 곡식에서 사람에게 노동할 힘을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이 나온다.

104:16~18 산림의 큰 나무들은 땅 밑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빨아올린다. 그리하여 레바논의 백향목들은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란다. 그것은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준다. 가령 학은 잣나무(곱향나무 혹은 상록 침엽수일 수도 있다)에 둥지를 튼다. 높은 산들은 산양에게 이상적인 거처를 제공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되어준다.

104:19~23 세상은 순환체계로, 일정한 계획에 맞춰 돌아가므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음이 분명하다. 즉, 하나님은 달을 제 위치에 두어 달(the months)을 정하게 하셨으며, 해는 마치 의식이 있듯이 질 때와, 하루가 끝났음을 알리는 때를 안다. 낮과 밤이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은 동물과 사람을 위한 섭리적인 현상이다. 어두움이 깔리면 삼림의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다닌다. 아침이 밝아오면 그들은 안전한 굴속으로 몸을 숨긴다. 그러나 사람은 일터로 나아와 낮 시간을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한다.

104:24~26 하나님의 행사의 다양함은 놀랄만하다. “어떤 지혜가 그 모든 것을 생각해냈는지”(Knox). 땅은 그분의 피조물로 가득하고, 그분은 놀라운 주의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세세히 돌보신다. 바다는 작은 미생물에서 큰 고래에 이르는 크고 작은 생물들

로 가득하다.

26절에 ‘선척’을 언급한 것은 생물들을 논하는 문맥에 맞지 않아 보인다. 어떤 이는 그것을 바다 짐승(창 1:21)으로 이해하나, 선척이 옳은 번역이다. 같은 구절의 ‘악어’(leviathan)는 바다를 이상적인 놀이터로 삼는 고래 내지 돌고래를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나 욥기 41편의 주해와 각주를 보라).

104:27~30 비록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나 모든 생물체는 그 식물을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분이 식물을 주시면 그들이 그것을 취한다. 그분이 손을 펴시면 그들이 풍성히 채움을 입는다. 13절에서, 땅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행사의 결과로 만족한다. 16절에서 나무들은 수액(樹液)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피조물이 만족해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가지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죽음이 한 세대를 넘어뜨리고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고를 당해서든 노쇠해서든 짐승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신 것과도 같다. 그러나 짐승들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보내사 새로운 창조와 같은 모습으로 땅을 다시 채우신다. 한편으론 끊임없는 사라짐이 일어나고 한편으론 끊임없는 지면의 새로워짐이 일어난다.

104:31~32 이 시는 최초의 창조로 시작했듯이, 이제 죄의 잔악성이 진압되고 주님께서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으로 인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 황금시대를 바라는 뜨거운 기도로 마감된다.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자신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연합하여 놀라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기를 고대한다. 새로운 창조의 안식일이 밝아오면 하나님은 그 피조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피조물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며, 온 우주는 찬양

의 향연으로 충만한 성전이 될 것이다.”⁷⁰⁾

여호와에 대해서는, 그분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고 그분은 자기 행사로 인해 즐거워하시기를 시편 기자는 기도했다. 그분은 한번 바라봄으로 지진을 일으키고 한번 만짐으로 대폭발을 일으키시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이다.

104:33~35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는 동안 그의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겠다고 시편 기자는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목상이 자신이 참 기쁨을 발견한 여호와께 향기로운 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의 창조를 손상시키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을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여겼다. 그렇게 되리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며, 이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의 마지막 송영에 확실히 동참할 수 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105편 :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에서 하나님은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의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창 15:18~21; 출 23:31; 신 1:7,8; 수 1:4). 그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요 순전한 은혜의 언약이었다.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

이 시는 언약을 허락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재진술한

70) (104:31,32) J. J. Stewart Perowne, *The Book of Psalms*, 2:234.

다. 전체적인 강조점은 하나님이 행하신 바에 있다. 대부분의 역사 시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죄와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다.

사실 이스라엘은 약속된 모든 영토를 다 차지한 적이 없었다. 가장 근접한 경우는 솔로몬 통치 때였다. 솔로몬이 비록 유브라데에서 애굽 변방에 이르는 모든 나라를 지배하긴 했지만 정작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곳은 단에서 브엘세마까지 뿐이었다(왕상 4:21~25). 그러나 그들의 메시야가 권능과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경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포함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믿는 이스라엘은 새로운 마음과 깨달음으로 이 시를 노래할 것이다.

감사와 찬양(105:1~6)

105:1~6 많은 시편이 낮은 어조로 시작해서 점차 고조되어 경배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 시는 넘치는 호소력으로 독자를 사로잡는 폭발적인 찬양으로 시작된다. 경배를 촉구하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명령형 동사를 주목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105:7~11)

105:7~8 시편 기자가 즐거워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브라함 언약이다(창 12:7; 13:14~17; 15:7,18~21; 17:8; 22:17,18; 출 32:13). 그것은 그 의로운 행위가 온 땅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 의해 맺어졌다. 그분은 비록 그 성취가 천대 동안 지체된다해도 자신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다.

105:9~11 그 언약은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어졌고(창 12:1~20), 그 다음은 이삭에게 확증되었고(창 26:3,4), 그 후에는 야곱에게 확증되었다(창 28:13~15). 그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나안 땅을 그분의 지상 백성의 기업으로 보증하시는 약속이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대적들을 물리치사 그분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유년기(105:12~15)

105:12~15 처음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몇 명 안 되는 힘없는 이주자들이었다. 그 초기 시절은 가나안 내부와 다른 나라들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생활로 특징지어졌다(창 12:1~13; 20:1~18; 28:1~29:35). 그러나 하나님은 위협과 압제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바로(창 12:17~20)와 아비멜렉(창 20:1~18; 26:6~11)과 같은 통치자들을 꾸짖으셨다. 그 때 그분은 그 이방 왕들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택한 자들을 만지거나 나의 선지자들을 해롭게 말라. 그 족장들은 내가 직접 계시를 허락한 자들이다.”

요셉이 애굽에서 권세를 얻음(105:16~22)

105:16~22 세월이 흘러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임했다. 양식이 끊기고 주된 생계수단이 사라졌다. 기근을 불러와 모든 양식공급을 끊으신 이는 하나님이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이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에서 그러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만들어내지 않으시며, 다만 때로 그것을 허락하사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이 위기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 거기서 그는 그를 유혹하던 여인에게 거짓 고소를 당해 투옥되었다(창 39:20). 18절에서, 우리는 다른데서 기록되지 않은 그의 투옥에 관한 사실을 볼 수 있다. “그 밭이 차꼬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2년간의 투옥기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꿈을 해석하고 장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단련시켰다. 마침내 그의 능력이 바로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바로는 그를 석방할 뿐 아니라 나라의 둘째 자리에 앉혔다. 요셉은 필요하면 애굽 방백들을 임의로 다스릴 권한과, 그보다 나이 많은 자들을 가르칠 지혜가 있었다.

야곱과 그 가족의 이주(105:23~25)

105:23~25 마침내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했으며, 세월이 흐르자 수가 불고 번성하고 군사적으로 강성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감을 갖고 그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기 시작했다.

모세와 애굽의 재앙(105:26~31)

105:26~27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대변인 아론을 일으켜서 바로 앞에 서서 그분의 노예된 백성의 해방을 요구하게 하셨다. 그들의 요구는 바로의 저항을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된 일련의

재앙들과 더불어 제시되었다.

여기에 그 재앙들이 열거되었는데, 연대순이 아니며 또 두 가지(다섯째와 여섯째)는 생략되었다.

105:28 하나님이 온 땅에 흑암을 보내셨다(아홉 번째 재앙). 시편 기자는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다”(우리말 성경은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음-역주)는 의아한 설명을 덧붙였다. 외관상 문제가 있는 듯 보이기에 RSV 역자들은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바꿔 옮겼으나, 그렇게 바꿀만한 사본상의 근거는 일절 없다. 바네스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아니면, 흑암이 너무 짙어 애굽인들이 저항할 힘이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105:29~31 하나님이 그들의 물이 피가 되게 하사 물고기의 공급을 끊으셨다(첫 번째 재앙). 그것은 최악의 형태의 오염이었다.

다음에 언급된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다(두 번째 재앙). 그릇에도, 침대에도 어디나 개구리 천지였다. 왕의 궁실도 그 꺾충꺾충 뛰고, 개굴거리고, 끈적끈적한 짐승을 막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자 온 땅이 파리 떼(네 번째 재앙)와 모기 혹은 이(세 번째 재앙)로 황폐화되었다.

105:32~36 하나님이 비 대신 파괴적인 우박과 번개를 내리셨다(일곱 번째 재앙). 큰 불 덩이가 떨어지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사방의 나무들이 쓰러졌다. 이 재앙은 사람들에게도 상해와 죽음을 가져왔다(출 9:25).

이어서 메뚜기 떼가 침략군처럼 몰려와 가는 곳마다 모든 채소를 먹어버리고 온 들을 황폐화시켰다(여덟 번째 재앙).

이러한 재앙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포함하여 애굽인의 모든 장자를 멸하셨다(열 번째 재앙). 그 밤은 애굽의 모든 가정이 사랑하는 장자가 죽임당한 기억할 만한 밤이었다.

출애굽(105:37,38)

105:37~38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은금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다. 애굽인들이 그들을 속히 떠나 보낼 양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기꺼이 내주었던 것이다(출 12:33~36). 그리고 애굽인들은 재앙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상태였다. 한 사람도 절뚝거리거나 뒤에 처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다는 것은 애굽인들에겐 아주 다행한 일이었다. 그들은 애굽인들에게 악몽 같은 존재였다.

광야 여정(105:39~42)

105:39~42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광야에 예비하신 것은 놀라웠다. 구름이 그들의 길을 안내할 뿐 아니라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숨겨주는 일종의 연막(煙幕) 역할을 해주었다(출 14:19,20). 그것은 밤에는 여행에 필요한 빛을 비춰주는 불기둥이 되었다. 그들이 양식을 원하자 하나님이 최고의 양식인 풍부한 메추라기와 하늘에서 온 기이한 떡인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들이 물을 원하자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주셨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다 사용한 후에도 사막에 강이 흐를 만큼 물이 충분히 남았다. 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는가? 그 중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룩한 약속을 잊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다(105:43~45)

105:43~45 이것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노래가 따른 큰 구원

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고 그곳에 거하던 이방인들을 쫓아내셨다. 모든 것은 그들을 위해 미리 예비되었으며, 그들은 그저 그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거둬들였다.

물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실 그들이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순종 여부에 달려있었다(레 26:27~33; 신 28:63~68; 30:19,20).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의도된 절정을 이룬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향해 역사해 오시던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 하심이다.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106편 : 역사로부터의 교훈

“역사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크롬웰은 물은바 있다. 이 시의 기자는 그 말에 쉽게 동의할텐데, 왜냐하면 그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여호와께서 인지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시는 기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경건한 유대인이 그의 백성이 포로 중에 있는 동안 이 시를 썼음을 알 수 있다(47절). 이 시는 우선적으로 민족적인 죄를 자복하는 내용이지만(6~46절) 찬양(1~3,48절)과 간구(4,5,47절)의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찬양(106:1~3)

106:1 하나님께 가까이 감에 있어 그는 경배로 시작한다. 감사함

으로 거룩한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거룩한 뜰에 들어간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히브리어 “할렐루야”가 이 노래의 처음과 마지막 단어이다.

여호와께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지속되는데, 우리가 계속 보존함을 입는 것이 그 증거이다. 만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106:2~3 어떤 인간의 언어도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기적적인 간섭의 역사를 능히 진술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 그 자체도 그분의 어떠한 심과 모든 행하심으로 인해 그분을 충분히 찬양하기에 족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106:4,5)

106:4~5 찬양에 이어 개인적인 간구가 이어진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왕의 영광스런 통치를 내다보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구속받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복스런 날에 자기도 참여케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 오랜 슬픔의 밤을 지난 후에 방해받지 않는 번영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기를 열망했다. 그는 하나님의 옛 지상 백성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했다. 그의 기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아뢰어 죽어 가는 강도의 소원과 다름없었다(눅 23:42).

홍해에서의 거역(106:6~12)

106:6~12 이제 시(詩)는 주기도문과 같은 순서로 자백에 들어간다. 주기도문도 이 시처럼 경배로 시작해서 간구로 가고(“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다음 용서를 구한다(“...우리 죄

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만 자백할 뿐 아니라 그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도 자백한다는 것은 참된 영적 성숙의 증표이다.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아뢰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우리가) 사투를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을 신학적인 입장에서 비방해서는 안 된다. 만일 비방을 한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악한 것이다! 그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도 그들처럼 무릎꿇고 자복하도록 하자.

‘감사치 않음’-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애굽에서 행하신 기사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지 않았다.

‘잊어버림’-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비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 그들의 마음에서 속히 사라졌다.

‘거역’-홍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고, 그리고 애굽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했다(출 14:11,112).

그러나 그들의 죄가 여호와와의 사랑의 불을 끄지 못했다. 그분은 그들의 거역 속에서 그 자신을 그들의 종과 구주로 나타내실 기회를 발견하셨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나타남이었는지! 그분이 꾸짖자 홍해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마른 땅이 생겼다. 그들이 대적의 추적을 벗어나 동편 언덕에 안전하게 이르자 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애굽 군대를 삼켜버렸다. 이 놀라운 사건을 목도했을 때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광야에서의 불평(106:13~15)

106:13~15 그러나 머지 않아 또 다른 죄의 순환이 시작되었다.

‘쉬 잊어버림’-그들은 곧 그들을 위해 행하신 기사를 잊어버렸다.
 ‘자기 의지’-그들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려 하지 않았다.
 ‘욕심’-그들은 자제력을 잃고 양식을 탐했다(민 11:1~35).
 ‘격동’-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셨으나 그들 가운데 악질(惡疾)을 보내셨다(민 11:20). 그들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뜻 대로 기도하도록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메튜 헨리의 말처럼 “정욕으로 구한 것은 종종 분노로 응답되기” 마련이다.

다단과 아비람 일당의 반역(106:16~18)

106:16~18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거스림’-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와 온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반역한 무리의 두령이었다(민 16:1~30).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기했다. 또한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취하려 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 구별된 자들을 거스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반역을 했다. 그 결과 땅이 입을 열어 그 두령들과 그들의 가족을 삼켰다. 그리고 불이 나와 여호와께 분향한 그밖에 250명을 살라버렸다(민 16:31~35).

금송아지(106:19~23)

106:19~23 ‘우상숭배’-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했다(출 32:4).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풀 뜯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한 구주로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모든 영광을 생명 없는 송아지에 바쳤다. 만일 모세가 중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일순간에 그들을 멸하셨을 것이다. 그 몸으로 벽의 갈라진 틈을 막는 군사처럼, 모세는 그 결렬된 중에서 그분 앞

에 서서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게 했다.

정탐꾼의 악한 보고(106:24~27)

106:24~27 ‘가데스바네아에서의 신실치 못함’(민 14:2,27,28)-하나님은 일찍이 그들에게 ‘낙토(樂土)’, 즉 지리와 기후와 자원에 있어 이상적인 땅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포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땅을 멸시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대신 그들은 그들의 장막 속에 웅크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세대를 광야에서 멀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계 열방 중에 흩었다고 그 손을 들어 맹세하셨다.

모압 백성들과의 죄(106:28~31)

106:28~31 ‘비알브올을 숭배한 죄’-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의 딸들과 간음을 행했을 뿐 아니라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의식과, 바알브올 숭배와 관련된 이교도 의식에 가담했다(민 25:3~8). 하나님이 이에 격노하시 재앙을 보내어 수천 명의 백성을 멸하셨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인을 그의 장막에 들이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둘을 찔러 죽였다. 그로 인해 재앙이 멈추었으나 이미 2만4천 명이 죽은 뒤였다. 이 행동이 그의 의로움의 증거가 되었으며 이에 비느하스는 평화의 언약을 보상으로 받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민 25:12,13).

므리바에서의 다툼(106:32,33)

106:32~33 ‘모세의 죄’(민 20:2~13)-므리바(다툼) 물에서 백성

들은 불신을 받았다. 그들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갈증으로 죽게 한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 그는 또한 그들의 거역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거칠게 말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들이는 특권을 그가 거부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가나안에서-역사의 반복(106:34~39)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106:34 ‘그들은 이방 거민을 멸하는데 실패했다.’ 타락한 가나안 족은 인류의 부패한 앞잡이였다. 수백 년 간 그들을 참아오신 뒤에 하나님은 유일한 해결책은 절단이라고 결정 내리시고는 그 외과 수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 순종하는데 실패했다(삿 1:27~36).

106:35 ‘그들은 이방인과 혼합되었다.’ 이방인들과 우호를 맺고 통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종교와 도덕을 부패시켰다.

106:36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다.’ 곧 이스라엘은 사시고 참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다.

106:37~39 ‘그들은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 특히 여호와를 격동시킨 것은 귀신을 달래기 위해 그들의 아들과 딸을 제물로 드린 일이었다(왕하 3:27; 21:6; 겔 16:21).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아들과 딸이 가나안의 가증한 우상에게 바쳐졌고, 그 땅은 살인으로 더럽혀졌다.

사사들의 시대(106:40~46)

106:40~46 “그분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격동된 까닭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분께 가증스런 것인 양 대하셨다”라고 바네스는 말했다. 그분은 그들을 이방인, 즉 메소보다미아 사람, 미디안 족, 블레셋 족, 모압 족 및 그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다. 그 경건치 않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압제하고 핍박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거역하고 죄를 범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자비로 그들을 돌아보셨다.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심판을 거두고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가장 암흑한 포로시대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들로 포로 잡은 자들에게 긍휼을 입게 하셨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구원하고 다시 모으소서(106:47)

106:47 시편 기자는 세계 열방에 흩어진 그의 백성을 다시 모아 달라고 기도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큰 감사가 올려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송축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것이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장래 환란 때에 드러질 이스라엘 잔존자들의 간구를 대망한다.

송영(106:48)

106:48 이 장려한 고백과 더불어 우리는 이 시의 마지막에 이를 뿐 아니라 시편 제4권 마지막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이 시를 세대주의 골격에 위치시켜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악한 백성에게만 한정할 채 그 속에 반영된 우리 자신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11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것은 ‘감사치 않는 마음’에 대해 경고해준다. 만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권능으로 구속된 일에 감사해야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에게서 구속받은 데 대해 우리는 얼마나 더욱 감사해야 하겠는가!

그것은 ‘쉬 잊어버림’에 대해 경고해준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우리는 눈물 없는 냉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비난을 얼마나 들어야 마땅한지.

그것은 ‘불만’에 대해 경고해준다. 날씨에 대해, 생활형편에 대해, 생활의 사소한 불편에 대해, 그리고 심지어 고기국물 속의 고기 덩어리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쉽사리 우리의 생활습성이 돼버린다.

그것은 ‘자기 의지’에 대해, 즉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두는 것에 대해 경고해준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 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15절).

그것은 정부 관리든 교회 장로든 가정의 부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준다.

그것은 ‘우상숭배’, 즉 돈, 가정, 차, 교육, 오락, 출세 등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준다. 이스라엘은 이 죄로 인해 광야에서 38년간 방황해야 했으며, 그 죄를 범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은 ‘부도덕’에 대해 경고해준다. 바알브올 숭배에는 가증한 성적인 죄악이 관련되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그 범죄자들에게 내리신 재앙에 나타나 있다.

그것은 ‘사소한’ 불순종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경고해준다.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 반석을 쳤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그러나 어떤 불순종도 사소하지 않다.

그것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준다. 하나님은 분리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으로 그분의 백성이 부패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

끝으로, 그것은 ‘우리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 경고해준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주님의 일을 그들의 삶을 투자할 만한 것으로 제시하는 예는 그리 흔치가 않다. 너무도 종종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이름을 내려는 야망을 갖고 자라도록 부추김 받는다. 우리는 그들을 세상을 위해, 지옥을 위해 키우고 있다.

참고문헌

- Alexander, Joseph A. *The Psalms Translated and Explain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Reprinted from 1873 Edinburgh edition, 1977.
- Barnes, Albert. *Notes on the Books of Psalms*. 3 vols. New York: Harper Bros. Publishers, 1868.
- Bellett, J. G. *Short Meditations on the Psalms*. Oak Park, IL: Bible Truth Publishers, 1961.
- Bridges, Charles. *Psalms 119*.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Reprinted from 1827 edition, 1977.
- Clarke, A. G. *Analytical Studies in the Psalms*. Kilmarnock: John Ritchie, Ltd., 1949.
- Delitzsch, Franz. "Psalms."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s. 11~13.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0.
- Gaebelein, A. C. *The Book of Psalms*. Neptune, N. J.: Loizeaux Bros., 1939.
- Grant, F.W. "Psalms," In *The Numerical Bible*. New York: Loizeaux Bros., 1897.
- Ironside, H. A. *Studies on Book One of the Psalms*. Neptune, N. J.: Loizeaux Bros., 1952.
- Kidner, Derek. *Psalms 1~72*.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3.

- Kidner, Derek. *Psalms 73~150*.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5.
- Lewis, C. S. *Reflections on the Psalms*. London: Collins, Fontana Books, 1969.
- Maclaren, A. *The Book of Psalms*. London: Hodder & Stoughton, 1908.
- Meyer, F. B. *F. B. Meyer on the Psalm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n.d.
- Morgan, G. Campbell. *Notes on the Psalms*. Westwood, N.J.: Revell Co., 1947.
- Perowne, J. J. Stewart. *The Book of Psalms*. 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Reprinted from 1878 edition, 1966.
- Samuel, E. Vendor, *The Prophetic Character of the Psalms*. London: Pickering & Inglis, n.d.
- Scroggie, W. Graham. *Psalms*. Vol. 2. London: Pickering & Inglis, 1949.
- Scroggie, W. Graham *The Psalms*. Old Tappan, N. J.: Fleming H. Recell Co., 1948.
- Spence, H. D. M. and Exell, Joseph S., Editors. *Pulpit Commentary*, Vol. 8.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0.
- Spurgeon, C. H. *The Treasury of Davi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 Wright, *The Psalms of David and the Higher Criticism, Or Was David "The Sweet Psalmist of Israel"?* Edinburgh and London: Oliphant Anderson & Ferrier, 1900.
- Young, E. J. *Psalms 139*.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5.

신앙 생활 지침서
의사의 눈을 통해 본 병고치는 기적 이다 C. 윌/36면/500원
그리스도인과 고난 겔루드 할로우/36면/500원
그리스도인과 선교 칼 노트 2세/44면/500원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레니남드 윌리스/36면/500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폴 리틀/36면/500원
믿는 자들의 적 존 슬라보/36면/500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인가 N.M.프라이저, 송기삼/64면/1,200원
오늘날의 방언 데이비트 롱/48면/800원
하나님께 돌아오라 윌리엄 맥도날드/64면/1,200원
그리스도인의 소망 프랭클린 피거슨/64면/1,200원
그리스도인의 내면생활 C.I. 스크필드/96면/1,500원
그리스도인의 성장지침 윌리엄 맥도날드/96면/1,500원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 윌리엄 맥도날드, 칼 노트 2세/96면/1,500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존 윌리엄 브라운/128면/2,000원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데이비드 롱/96면/1,500원
바울과의 항해 H.A. 아이언사이드/96면/1,500원
베드로의 사역과 증거 R.E. 할로우/96면/1,500원
일곱 절기와 다섯 제사 존 리치/128면/3,200원
광야의 성막 존 리치/160면/2,800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존 리치/160면/3,200원
주 예수님의 재림 존 리치/128면/2,000원
믿음의 근본지리들 존 리치/128면/2,200원
성령님의 역사 아네스트 타담/96면/1,800원
신약에 감추어진 교리적인 비밀들 T. 아네스트 윌슨/142면/3,000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R.E. 할로우/128면/1,800원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나단 J. 스톤/200면/3,800원
제사장 의복 C.W. 슬레임/208면/4,500원
거짓 선지자 발람과 전도자 요나 W.W. 패러데이/176면/4,800원
말씀이 육신 되어 황성진/192면/5,000원
천사들 J.B. 커리/80면/2,000원
예배·복음 찬송가(금도련,가족피) 657곡/12,000원
삶의 원리의 이단사상들 추복현/128면/4,000원

신앙 생활 지침서
황금의 집-성막(원색 사진 31편) J. 로우/96면/3,300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윌리엄 맥도날드/114면/2,500원
성경해석의 원칙 23가지 에드먼 하빌/360면/10,000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 일렉산더 스트라우크/224면/5,000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문제집 일렉산더 스트라우크/80면/1,700원
설교자와 그의 설교 A.P. 김스/464면/11,000원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예배 A.P. 김스/240면/6,000원
주님의 만찬 A.P. 김스/256면/5,500원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 찰스 C. 라이리/242면/4,800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노르만 크로포드 외/288면/4,800원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M. 모리스/320면/6,000원
핵심 설교 노트 윌리엄 로저스/495면/11,000원
나그네의 소금 이춘원/306면/4,800원
왜가리와 우렁이(생명의 빛 칼럼) 임용민/240면/6,000원
꽃의 때와 같으리니 찰스 스텔러/192면/4,500원
세계 선교-전면전 L.E. 맥스웰/208면/3,500원
엘리아, 엘리아 C.E. 타담, V.E. 트램멜/144면/2,800원
이스라엘과 유다 땅들 윌리엄 로저스/128면/3,000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박준형/96면/1,700원
구원의 영원성과 난해구절 해설 박준형/96면/1,700원
영원을 계산하는 삶 윌리엄 맥도날드/128면/2,800원
참된 제자의 길 윌리엄 맥도날드/96면/1,800원
매일의 료상 윌리엄 맥도날드/448면/11,000원
성령충만한 가정 랜짐부 위움/146면/3,300원
결혼과 가정 A.J. 히긴스/160면/4,000원
잊혀진 명령-거룩하라 윌리엄 맥도날드/240면/6,500원
장자 되어질 일들 R.E. 할로우/128면/3,500원
그리스도인의 개인전도 윌리엄 맥도날드/96면/2,300원
집대에 대한 명령 일렉산더 스트라우크/96면/2,500원
부흥(부흥의 모형들) 데이비드 롱/224면/6,500원

신자 성경주석(구약)—시가서(1)

발행일: 2003년 2월 25일 1판 1쇄 발행

지은이: 윌리엄 맥도날드

옮긴이: 정 병 은

발행인: 이 치 일(E. Ritchie)

발행소: 전도출판사(등록 98-43호)

연락처: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 화: (031) 914-2732

팩 스: (031) 917-4520

정 가: 14,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ISBN : 89-7531-533-9 03230